ISSN 1598-317X

軍史

Military History

2021. 3. 제118호

- 6 · 25전쟁기 서해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협력관계 형성과정 연구
- 羅唐戰爭期 七重城과 買肖城 戰鬪

2020년 군사사 연구지원

- 위만조선-漢나라의 전쟁 양상
- 고려의 북방 경계 인식과 '또 하나의 압록강'
- 조선 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 약포(藥圃) 정탁(鄭琢)의 전쟁시를 통한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분석

[서 평]

- 한국 주도의 책임 국방을 향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118號
2021. 3.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21. 3. 제118호

1 ▶ 6 · 25전쟁기 서해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협력 관계 형성과정 연구 김인승

45 ▶ 羅唐戰爭期 七重城과 買肖城 戰鬪 김병희
- 買肖城의 位置 比定 및 靺鞨 水軍의 活動에 대한 分析을 中心으로 서영교

2020년 군사사 연구지원

97 ▶ 위만조선-漢나라의 전쟁 양상 조원진

139 ▶ 고려의 북방 경계 인식과 '또 하나의 압록강' 윤경진
- '화주압록강'과 '요하압록강'의 실체 검토

Military History

軍史

Contents | 2021. 3. 제118호

181 ▶ 조선 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한윤희
-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의 〈해구(海寇)에서 해상(海商, =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을 중심으로

229 ▶ 약포(藥圃) 정탁(鄭琢)의 전쟁시를 통한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분석 최고경

[서 평]

255 ▶ 한국 주도의 책임 국방을 향하여 홍건식
- 박영사 (황병무), 『한국 외군의 외교 · 군사사』 -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1-43
https://doi.org/10.29212/mh.2021..11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 · 25전쟁기 서해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협력관계 형성과정 연구*

김인승**

1. 머리말
2. 영국해군의 서해 해상봉쇄 시작과 작전 운영상의 한계
3.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과 한국해군을 통한 초기 해상 협력관계의 형성
4.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과 해상 협력체계의 구축
5. 맺음말

1. 머리말

6 · 25전쟁기 수행된 유엔군의 특수작전(Special Operation)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1298)
**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있어 여전히 그 성과가 미진한 분야 중 하나이다.[1] 특히 미8군(Eighth US Army, Korea)의 지원과 통제하에 전전(戰前) 북한 출신의 반공주의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상은 "그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2] 이들이 미군에 의해 조직 및 운영된 비정규군(irregular) 신분의 비밀부대였을 뿐 아니라, 반공 유격부대의 작전 대부분이 미군의 느슨한 감시하에 수행되어 대원들의 활동상을 면밀히 기록한 자료가 제한적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3] 따라서 반공 유격부대 활동과 관련한 그간의 연구는 미 육군에서 전훈(戰訓)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한 몇몇 실무 보고서(working paper)와 유격부대 관계자들에 의해 후술된 증언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4]

문제는 미측 보고서와 증언자료 모두가 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이들 각각이 반공 유격부대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설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증언자료의 경우 기술 가능한 시간

---

1) 정용욱, 「[書評] 한국전쟁기 특수전 연구와 Dark Moon」, 『軍史』 40, 2000, 274쪽.

2) Ben S. Malcom,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Washington D.C.: Brassey's, INC, 2003), p. xi.

3) 김인승, 「한국전쟁 해전사(海戰史) 연구자료의 발굴과 그 효용성: 영국해군의 '작전기록'을 중심으로」, 《軍史》 110, 2019, 397쪽; 6·25전쟁 당시 작성된 1차 자료는 반공 유격부대원들이 보고한 작전활동 결과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자료인 첩보수집보고(Intelligence Report)가 대부분이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Record Group 349(RG349) 내 CCRAK(Combined Command for Reconnaissance Activities, Korea) G-2 Report에 담겨있다.

4) 미측이 작성한 실무보고서는 다음의 2편이 가장 대표적이다.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1952", Project MHD-3, Tokyo (March 1954);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Study,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6); 참전 대원 혹은 이들이 소속된 전우회에서 발간한 증언자료 및 회고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기록학연구』 12, 2005, 141~153쪽.

과 공간의 범위가 철저히 증언자 개인의 경험 및 기억의 영역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5] 미측 보고서의 경우 증언자료에 비해 설명의 포괄성 면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이 역시 반공 유격부대의 여러 활동 중 미 육군이 직접 관여한 부분을 중심으로만 기술되어 있다. 실제 미 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유격부대원들의 활동 중 "기여도(contribution)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유엔 해군작전 지원과 관련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역할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6]

결국 6 · 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과 관련한 연구의 진일보를 위해서는 기존에 조망되지 않은 유격부대원들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된 자료들만으로는 제대로 설명되기 어려운, 하지만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엔해군과의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유격부대의 작전활동에 있어 유엔해군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였다. 반공 유격부대의 작전이 백령도, 초도 등 서해 이북 도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들 유격부대의 작전은 필연적으로 유엔해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해서는 해당시기 서해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함정의 작전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가 바로 6 · 25전쟁기 영국해군(Royal Navy)의 작전기록이다. 1950년 7월부터 정전협정

---

5) 참전용사의 회고록 중 서술의 객관성과 깊이 측면에서 특히 유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전(前) 미 유격부대 고문관 말콤(Ben S. Malcom)의 저작 역시도 자신이 담당했던 백호부대(동키-4)의 10개월 간 활동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Malcom,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

6)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p. 55.

체결 시까지 북위 37도 이북의 서해전역에 대한 해상 봉쇄작전을 지휘하고 운영했던 주체가 바로 이들 영국해군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당시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협력관계를 담은 기록들이 대부분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 Kew)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다.[7] 해당 작전기록에 기반한다면 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가 유엔해군과의 관계 속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성과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해군의 작전기록을 바탕으로 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 중요성과 무관하게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일면을 영국군의 시각에 입각하여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영국해군이 서해전역에서 봉쇄작전을 담당했던 초기 1년 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반공 유격부대와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두 집단 간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변화 및 발전되어 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해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협력관계가 1950년 12월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이듬해 7월에 이르러 안정화되었기에, 두 조직 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개전 초기 1년간의 변화상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반공 유격부대의 존재와 활동이 6·25전쟁 유엔해군의 서해전역 해상작전 수행에 변화와 발전을 불러온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

7)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김인승, 앞의 논문, 394~395쪽.

2. 영국해군의 서해 해상봉쇄 시작과 작전 운영상의 한계

제2차대전 종료 직후, 영국에 있어 한반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small)”, 그래서 이곳에서 발생한 성가신 문제들은 “미국인들이 처리하도록(the Americans to play the hands) 미뤄야 할” 지역이었다.[8] 전후 대규모 군축을 감행하고 있던 영국은 북회귀선(Tropic of Cancer) 이남에 위치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만 자국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으로부터 자연스레 관심을 거두기 시작했던 것이다.[9] 특히 1948년 중반 이후, 영국의 식민통치에 저항하기 위한 무장투쟁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영국의 무관심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10]

이처럼 영국이 한반도를 자국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곳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정보수집 능력 역시 급격히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1950년도 초반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에 파견하였던 영국군 소속 점령군(Occupation Force) 병력 역시 완전히 철수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유의미한 영국군 조직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11]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8) FO 371/46468, “Future of Korea”, TERMINAL Conference: papers and minutes of San Francisco, July 1945.

9) Kibata Yoichi, “Commonwealth Cooperation and Rivalry”, in Ian Nish (ed.),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1945-1952(Leiden: Brill, 2013), p. 165.

10) Christian P. Alcock, “Britain and the Korean War, 1950-1953”,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1986), p. 42.

11)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1967), p. 9.

6 · 25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 내부 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전적으로 미군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했다. 실제 1950년 6월 27일 보고된 영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영국은 한반도 전황에 대한 기초 정보조차 전적으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정보참모부(G-2)에 의존해야 했으며, 미군으로부터의 정보가 없다면 "사실상 언론(press)에 소개된 것 이상은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12] 그리고 이러한 영국의 정보력 부재는 이후 6 · 25전쟁 참전을 위해 한반도로 전개한 영국군의 작전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한반도에 파병된 영국군 전력 중 개전 초기 작전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로 누구보다 큰 곤란함을 겪었던 존재가 바로 해군이었다. 이들이 6월 27일 단행된 영국 정부의 파병 결정 이후 한반도에 최초 전개한 전력이었기 때문이다. 영국해군의 한반도 파견은 참전 결정으로부터 이틀 후인 6월 29일 이루어졌다. "일본 인근 해상에 위치한 영국해군 전력을 한국에서의 작전수행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조직된 미국 해군 사령관 예하로 편입(place)하라"는 해군성(Admiralty)의 명령에 따라, 영국 극동군사기지(Far East Station) 소속 전력을 한반도로 급파하게 된 것이다.[13]

영국군 전력 중 해군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파병된 이유는 단순하였다. 극동군사기지가 영국의 해외 주둔부대 중 물리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6 · 25전쟁 개전 직전 영국 극동해군 부사령관(Second-in-Command)이었던 앤드류스 제독(Rear-Admiral William G. Andrewes)은 배수량 13,000톤급의 경항공모함인 트라이엄프함(HMS Triumph)을 비롯해

12) DEFE 11/193, "MOD DEF 462 to BJSM", Washington of 271815A June 1950.
13) DEFE 11/193, "Admiralty signal to CINC FE Station of 281720A", June 1950.

총 10여 척의 군함을 이끌고 홍콩과 싱가폴의 폭염을 피해 이미 일본 근해로 북상해 있던 상황이었다.[14] 자연스럽게 이들 영국해군 전단의 한반도 참전이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국 해군성의 6월 29일자 명령에 따라 앤드류스 제독이 이끄는 영국해군 전력은 즉각적으로 미 극동해군사령관(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 조이 제독(Vice-Admiral C. Turner Joy)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당시 영국해군 지휘부는 한반도의 낯선 작전환경에서 미 해군과 함께한 첫 1주일 간의 해상작전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앤드류스 제독이 그의 보고서에 언급하였듯 "이미 이들[미 해군]과 지난 3월에 수차례 유사한 훈련을 실시하여 모든 것이 익숙(familiar)"했기 때문이었다.[15] 하지만 이들이 7월 초부터 미 해군과 분리되어 서해 전역에 대한 해상봉쇄 임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작전지역에 대한 정보부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해상에 대한 봉쇄작전은 북한군이 해상을 통해 병력 및 물자를 수송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미 해군참모총장 셔먼 제독(Admiral Forrest P. Sherman)에 의해 추진되었다. 유엔해군이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조기에 달성하였던 해양통제(Control of the Seas)의 이점을 살려 북한군을 바다로부터 압박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북위 37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 해역을 크게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이들 중 서해 이북지역에

---

14) 당시 앤드류스 제독과 함께 일본 근해에 위치해 있던 함정은 경항모 1척, 순양함 2척(HMS *Belfast, Jamaica*), 구축함 2척(HMS *Cossack, Consort*), 프리깃함 3척(HMS *Black Swan, Alacrity, Hart*), 그리고 병원선 1척(HM Hospital Ship *Maine*) 등이었다.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 10.

15) ADM 116/5794, "Korean War-Second Report of Proceedings, 1 to 5 July 1950", Office of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10 July 1950, para. 13.

대한 해상봉쇄 책임을 영국 해군에게 부여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로 앤드류스 제독의 지휘하에 제96.8기동전대(Task Group 96.8)라 명명된 이들 유엔해군 전력은, 영국해군을 주축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the British Commonwealth) 소속 해군을 포함하는 다국적군 형태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16] 그리고 7월 9일, 밸파스트함(HMS Belfast)에 탑승한 앤드류스 제독이 예하의 함정들과 함께 서해전역으로 출항함에 따라 이들의 해상봉쇄작전 역시 본격화되었다.[17]

하지만, "북한이 점령한 해역에 대한 봉쇄를 강제(enforcement)"한다는 제96.8기동전대의 야심찬 목표는 작전 초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18] 서해의 낯선 작전환경과 봉쇄구역에 대한 작전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해상봉쇄를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영국군은 한반도 내에 별도의 정보조직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작전 정보를 미군에 의존해야 했다. 문제는 당시 미 해군조차 서해 기동전대의 작전구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앤드류스 제독 예하의 해군전력은 작전 초기 서해에 대한 해도(海圖)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독자적 능력(own ingenuity and resourcefulness)에 의존"해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19] 또한 봉쇄지역 내 북한군 활동

16) 1950년 7월 3일 이후 북위 37도선 이남 해역의 경우 한국해군을 중심으로 한 제96.7기동전대(Task Group 96.7)가, 북위 37도선 동북해역의 경우 미 해군 중심의 제96.5기동전대(Task Group 96.5)가 작전을 담당하였다. Thomas J. Cutler, "Sea Power and Defense of the Pusan Pocket, June-September 1950", Edward J. Marolda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7), p. 22.

17)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p. 22~23.

18)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London: HMSO, 1990), p. 70.

19) ADM 1/27269, "Report of Experience in Korean Operations, July-December 1950", Part III-Operational, Section Seven-Intelligence, para. 6.

정보 역시 정찰과정에서 마주한 어부나 인근 도서 거주민을 통해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영국 해군함정에 동승하였던 한국인 통역관의 능력에 따라 서해 기동전대 전체의 정보력이 좌우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것이다.[20]

문제는 이러한 정보 부족이 유엔해군의 임무수행에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었다. 당시 앤드류스 제독을 비롯한 영국해군 지휘부는 서해 주요 도서 내 북한군의 주둔 여부 및 이들의 무장상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상초계 중 갑작스레 북한군의 공격에 직면하는 상황을 종종 경험해야 했다. 실제 서해 기동전대 지휘부가 7월 12일에 이르러 백령도에 상당한 전력의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군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해안포(shore batteries)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계기도, 인근을 항행하던 영국군 소속 구축함(HMS Cossack)이 백령도로부터 포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21]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상작전의 위험성을 급격히 높여 유엔해군의 작전을 소극적으로 변모시켰을 뿐 아니라, 서해전역에 대한 해상봉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저해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전구역 내 정보획득 체계의 부재'는 앤드류스 제독 및 그 예하 지휘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해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작전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정보수집 임무를 전담해줄 별도의 조직이 요구되는데, 당시 영국군에겐 그럴만한 인력과 조직이

---

20) 실제 코싹함의 한 영국인 장교는 "적절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한국인의 동승이 우리의 정보수집 능력을 5배(fivefold) 가량 증가시킨다"는 말로 그들의 처참한 정보수집 능력을 묘사하였다.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 p. 70.

21) ADM 116/5794, "Korean War-Fourth Report of Proceedings-Blockade of the West Coast of Korea", Office of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1 July 1950, para. 15.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긴박했던 지상의 전황을 파악하기에도 벅차 보였던 맥아더의 정보 참모들에게 서해 기동전대를 위한 특별한 정보지원을 기대하는 것도 요원해 보였다. 따라서 앤드류스 제독은 최소한 미 극동해군사령부를 중심으로 각 부대가 해군작전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신속히 취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듯, 당시 유엔해군 내에는 이러한 시스템조차 부재하였다.

> 유엔해군은 각기 기동부대(Task Forces)와 기동전대(Task Groups)로 조직되어 모두가 전적으로 사세보(Sasebo)항을 기반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들 해군 단위부대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정보조직(Intelligence Organisations)을 갖추고 있으며 전적으로 자신들의 정보자원(resources)에 의존해 작전을 수행한다. … 이들은 [획득 정보를] 교류할 지역적 거점 부서(central department)를 갖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정보센터의 부족 문제는 익히 절감하고 있던 바이며, [심지어] 기동부대나 기동부대 외부로부터 해상작전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항해 시작 전에 브리핑 받을 수조차 없다.[22]

결론적으로 서해 기동전대가 직면하였던 정보 관련 문제들은 그 어떠한 변화나 개선 없이 1950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뒤이은 북진, 동년 10월 말 중국군의 참전과 이에 따른 38도선 이남으로의 후퇴 과정 중에도 여전히 서해전역 내 유엔해군은 작전 정보를 제공할 유의미한 정보조직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극동해군사령부 예하의 다양한 해군전력 간에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역시 구축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서해전역이 유엔 지휘부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

22) ADM 1/27269, "Report of Experience in Korean Operations, July-December 1950, Part Ⅲ-Operational", Section Seven-Intelligence, paras. 2~3.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23] 그리고 1950년 9월 12일부로 그 명칭이 제95.1기동전대(Task Group 95.1)로 변경된 앤드류스 제독의 유엔해군 전력은, 지속된 정보 부족 상황 속에서 느슨하고 비효과적인 형태의 봉쇄작전을 지속해야 했다.

3.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과 한국해군을 통한 초기 해상 협력관계의 형성

가. 서해전역 내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과 유엔해군과의 초기 관계

영국해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해 기동전대의 작전은 12월 말, 남진하는 공산군을 피해 서해상의 크고 작은 도서로 피난한 북한 출신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을 계기로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이들 무장집단의 활동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사회 내에 등장한 자생적인 반공주의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이 소련 군정하에서 급속히 공산화되기 시작하자, 이에 반발하던 학생 및 기독교인, 그리고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내 반공주의자들의 저항은 초기의 단순한 집회와 시위 등의 형태를 넘어 지역 인민위원회 건물에 대한 방화 및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로까지 확대될 정도였다.[24]

---

23) 인천상륙과 진남포 철수 같은 단발성 작전들만이 한시적으로 주목받았을 뿐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김인승, 「한국전쟁기 서해 도서공방전(島嶼攻防戰)의 발발 : 공산군의 대화도 공격을 중심으로」, 『韓國軍事學論集』 第75輯 第1卷, 2019, 159~161쪽.

24)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39~42쪽; 김학준, 『미소냉전과 소련 군정 아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1946년 1월-1948년 9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185~195쪽.

하지만 북한 측의 철저한 감시와 검열로 인해 이들 반공주의자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큰 제약과 탄압을 받아야 했다. 그 결과 6·25 전쟁 초반까지 이들의 활동은 그 세를 확대하지 못한 채 음지에서 점조직 형태로 그 명맥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25)]

북한 내 반공주의 운동의 전환점은 9월 중순의 인천상륙작전과 10월 말의 중국군 참전을 거치며 발생하였다. 급격한 전선의 이동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 관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대다수 반공주의자들이 더 이상 북한 내에 적(籍)을 두고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10월의 북진 과정에서 유엔군이 잠시 북한지역을 점령하였을 때, 지역 내 반공주의자들이 유엔군과 협력하에 각 마을의 치안대 역할을 자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가 주변에 공개되었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 씻을 수 없는 원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26)] 문제는 10월 말 시작된 중국군의 공세에 밀려 유엔군이 후퇴함에 따라, 불과 2개월여 만에 북한지역 대부분이 공산군에 의해 재탈환 되었다는 점이었다. 무장과 전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산군의 위협에 직면한 반공주의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북한 내 반공주의자들에게 남아 있던 대안은 제한적이었다. '유엔군을 따라 월남'하거나, '인근의 안전지역으로 이동한 후 유엔

---

25) 북한에 남아 있던 반공조직의 투쟁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p. 80, 110; 조성훈, 앞의 책, 44쪽.

26) 공산 측과 반공주의자 모두는 북한지역의 점령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이들 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원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공산 측이 후퇴 과정에서 자행한 반공주의자들에 대한 학살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작을 참고할 것. 김행복, 「북한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연구」, 조성훈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22~339쪽; 반공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에 대해 자행한 학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Report on US Crimes in Korea", (31 March 1952);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57화-망각의 전쟁, 황해도 신천 사건」, (2002년 4월 21일 방송분).

군의 반격을 기다리며 무장투쟁을 지속'한다는 양자택일 식의 선택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27] 중국군의 급격한 남진으로 퇴로가 단절되었던 북한 동부지역에서는 해로를 통한 집단피난이 이루어졌다. 애초에 함경도 지역이 북한 내 반공주의 운동의 세가 크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북한에 남아 조직적인 투쟁을 지속할 것을 택한 인물은 드물었다.[28] 반면 북한 내 반동주의 운동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우, 수천 명에 이르는 반공주의자들이 고향 땅 해방을 위해 무장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심하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서해 도서로 거점을 이동했다.[29] 일단 황해도 남부 및 옹진반도 인근에 거주하던 인물들은 순위도와 연평도, 용매도 등지로, 신천, 은률과 같이 황해도 중·북부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백령도나 초도 및 그 인근 도서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평안남도 해안 인근에서 거주하던 이들은 초도와 석도 등지로, 평안북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대화도, 소화도 등 철산반도 이남에 위치한 도서로 피난하였다.[30]

당시 본토에서 서해 도서로 급작스레 이주한 인원 중에는 반공주의 무장조직뿐만 아니라 미처 육로로 대피하지 못한 피난민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자체적으로 바닷길을 건널 방편을 확보하지 못한 자들이 해안가에 집결해 있을 때, 이들의 해상이동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존재가 바로 서해전역에서 봉쇄작전을 수행 중

---

27) 조성훈, 앞의 책, 48~49쪽.

28) 이와 함께 동해안에 안전지대(sanctuary)로 삼을만한 도서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 지역 내 반공운동가들의 무장투쟁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동해에서의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은 서해에 비해 그 규모도 훨씬 작았으며, 작전성과도 미미하였다.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p. 39.

29) 당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존재하던 반공 유격부대의 인원은 명확하지 않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의 보고서는 1950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의 규모를 6,000-10,00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Ibid., p. 1.

30) 조성훈, 앞의 책, 251, 279, 289, 307, 310쪽; Ed Evanhoe,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95), p. 42.

이던 한국해군이었다. 당시 해주 및 진남포 인근에는 박옥규 대령과 최효용 중령이 이끄는 총 12척의 초계함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심이 얕은 근해지역 정찰을 위해 앤드류스 제독의 요청에 따라 7월 말부터 서해 기동전대에 파견된 전력이었다. 그리고 한국해군 함정의 적극적인 피난민 구출작전 결과로 1950년 말부터 이듬해 초순까지 총 62,082명에 이르는 인원들이 서해에 위치한 크고 작은 도서로 이주할 수 있었다.[31]

당시 한국해군은 각 지역의 반공 무장조직원들과 연계하여 구출작전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제95.1기동전대 지휘부에 이들 비정규 무장조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서해 기동전대 지휘부 중 반공 무장조직의 존재에 대해 최초로 흥미를 보인 인물은 실론함(HMS Ceylon)의 함장 로이드-데이비스(C.F.J. Lloyd-Davies)였다. 서해전역 봉쇄작전에 대한 현장지휘는 통상 사세보항에 체류하던 앤드류스 제독 대신 그 예하의 제95.12기동단대장(Commander, Task Element 95.12)이 담당하였는데,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12월 4일부터 2주간 서해전역에 체류하며 봉쇄작전을 지휘했었다. 이 시기는 반공 무장조직 및 피난민들이 본격적으로 서해 도서로의 철수를 시작하던 때였다. 당시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서해전역에 당도한 직후 PF-61함의 함장인 최효용 중령과 만나 피난민 관련 문제를 논의했었다. 그 과정에서 최 중령으로부터 작전지역 내 공산군의 위치와 규모 등을 포함하는 매우 상세한 정보를 듣게 되었다. 피난민 구출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공 무장조직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영국군 함장에게 전달했던 것이다.[32]

---

3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저작을 참고할 것.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 작전』, (계룡: 해군본부, 2012), 381~387쪽.

32) ADM 116/6213,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4 to 18 December 1950", HMS *Ceylon*, 23 December 1950, para. 9; 한국해군이 반공 무장대원들

당시 최 중령으로부터 전달받았던 작전 정보가 “이전까지는 획득이 불가능 했던(previously unavailable)” 고가치 정보였기에,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해당 정보의 출처와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최 중령에게 한국해군 장교 1명을 정보담당(Intelligence Officer)으로 임명하고, 그를 반공 무장대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작전 정보를 수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33]

이후부터 한국해군은 일부 반공 무장조직과 영국 해군지휘부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작전지역 내 북한군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당시 한국해군 함정이 접촉 가능했던 반공 무장대원의 숫자가 제한적이었고 그 빈도마저도 불규칙적이었지만, 그간 정보부족 문제로 고심하던 서해 기동전대 지휘부에게 있어 이들 존재의 등장은 실로 가뭄에 단비와 같았다. 실제 12월 18일 로이드-데이비스 함장과 교대한 케냐함(HMS Kenya)의 브록 함장(Captain P. W. Brock)의 경우 제95.12기동단대장 임무기간 중 최 중령을 4차례나 방문해 공산군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청취하였다.[34]

흥미로운 점은 당시 영국해군 지휘관들은 서해전역 내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과 이들이 제공한 정보에는 큰 관심을 표명했으나, 이들과의 관계를 보다 심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적어도 이듬해 1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서해전역 내 무장한 비정규집단의 등장에 큰 흥미

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Supporting Document, pp. 1~30.

33) ADM 116/6213,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4 to 18 December 1950”, para. 9.

34)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31 December 1950”, HMS *Kenya,* 1 January 1951, Appendix Ⅰ.

를 보였던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이 3척의 함정을 이끌고 12월 말부터 진행되었던 인천지역 해상철수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남하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브록 함장이 제95.12기동단대장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예하에는 한국해군을 제외하고 두 척의 소형 함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해 봉쇄작전을 담당하던 전력의 급격한 감축과 이로 인해 업무량 폭증으로 브록 함장이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에 추가적인 관심을 쏟을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35]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갑작스레 등장한 북한 출신의 무장조직에 대해 협력 대상으로서 신뢰를 담보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12월 29일, 최 중령은 브록 함장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 이들 무장조직의 활동을 서해 유엔해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평양 남쪽과 서쪽, 그리고 해주 동쪽 지역 전체에는 2,000여 명에 이르는 북한인 출신 저항군(The North Korean Strugglers Army)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이 지원된다면 [우리는] 이들을 한국해군의 동조자(sympathizers)로 획득할 수 있다.[36]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 브록 함장은 "이들 북한 출신 무장집단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자들인지(in the right hands) 확신할 수 없다"며 최 중령의 지원요청을 단호히 거부하였다.[37] 브록 함장에게 있어 그 출신 및 목적이 모호한, 심지어 믿을만한 유엔군 조직에 의해 통제되지도 않는 비정규군 집단과의 협력은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1월 15일, 북한에

35)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p. 109~112.
36)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31 December 1950", Appendix Ⅱ.
37) Ibid.,

있는 반공 무장집단과 피난민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동전대가 보유한 소형 보트를 대여해 줄것을 요청해온 최 중령에게 "장차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을(hostages in fortune) 그 기간이 불확실하고 가치조차 의문스러운(doubtful value) 작전을 위해 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다.[38)]

제95.1기동전대장 앤드류스 제독 역시 이러한 브록 함장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단 그 역시 정보조직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보이는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에 대해서는 흥미를 보였다. 그리고 이들을 해군작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실제 앤드류스 제독은 1월 19일 브록 함장에게 긴급 전문을 보내 반공 무장대원들이 해주와 옹진지역 사이를 연결하는 북한 철도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가능한지 확인해 줄 것을 문의하기도 하였다.[39)] 하지만 이 영국해군 제독 역시 유엔군 조직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심지어 그 출신이 불분명한 비정규군과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다. 오히려 그는 작전지역 내 갑자기 등장한 반공 무장집단의 활동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유엔해군에 그 어떠한 사전 협조 없이 작은 선박을 타고 도서와 북한 본토 사이를 오가는 반공 무장집단의 활동으로 인해, 서해 해상봉쇄 작전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앤드류스 제독의 인식은 그가 1951년 1월 중순의 서해전역의 작전상황을 기록한 다음 보고서에

---

38)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27 January 1951", HMS *Kenya,* 1 January 1951, Appendix Ⅰ.

39) 당시 브록 함장은 한국해군 소속 PC 704함의 함장에게 앤드류스 제독의 요청사항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PC 704 함장은 "자신은 황해도 남쪽에 위치한 반공 무장조직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며 앤드류스의 질문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ADM 1/22521, "Korean War Reports of Proceedings No.30 at Sasebo", 17 January and 6 February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letter FO2FE/2960/11, dated 10 March 1951.

잘 나타나고 있다.

> 최근 한국 서해에 내게 알려지지 않은 선박과 소규모 조직들의 움직임이 다수 확인되었다. … [우리가] 서해 지역 내 작은 선박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도, 그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friend or foe)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인다.[40]

이처럼 앤드류스 제독을 비롯한 영국해군 지휘부는 그들의 작전구역 내에 갑작스레 등장한 무장집단의 존재에 대해 관심은 나타냈으나, 이들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보였다.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심지어 그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않는 집단과의 협력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인천 인근의 해상작전과 지상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절반에 가까운 함정이 해상 봉쇄작전으로부터 이탈한 것 역시 이들과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적어도 접촉 초기, 반공 무장집단에 대한 제95.1기동전대 지휘부의 인식은 '정보수집에 있어 높은 잠재적 가치를 지닌, 하지만 믿고 협력할 수는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나. 한국해군에 의한 반공 유격부대 조직화와 해상 협력관계의 변화

적어도 1951년 초반까지 서해 도서로 피난하였던 반공 무장조직들은 유격부대(Partisan Forces)라 칭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존재했었다. '공산주의에 대항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정규 무장집단'이라는 성격은 동일하였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이들 대부분이 유엔군에 의한 지휘 및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계획에 따라 자

40) Ibid., p. 5.

유분방하게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해군지휘부 역시 이들을 "북한인 저항군(the North Korean Strugglers Army)"이나 "무장 비정규군(Armed Irregulars)" 등으로 호칭할 수밖에 없었다.[41] 하지만 1951년 1월 중순부터 이들의 조직 및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백령도를 중심으로 일부 반공 무장집단을 유엔군 산하의 유격부대로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처음 백령도에 산재해 있던 이들을 결집하고 조직화한 것은 한국해군이었다.

중국군의 급격한 남진으로 이미 진남포 철수가 완료된 데 이어 인천으로부터의 추가 해상철수 작전이 검토되던 1950년 12월 중순, 유엔 해군지휘부는 제95.1기동전대의 작전구역 내에 위치한 도서 중 유엔 측이 지속 점령해야 할 곳으로 초도,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 등의 4개 도서를 선정하였다. 서해전역 내 공산 측의 기뢰부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소 이들 도서에 대한 점령이 필수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42] 당시 앤드류스 제독은 조이 제독에게 이들 4개 도서에 대한 점유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방어병력의 파견도 함께 요청하였는데, 조이 제독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부산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 해병대의 서해 도서 파병이 결정되었다.[43] 그리고 1월 17일에 이들의 훈련이 종료됨에 따라, 동월 20일, 백령도와 덕적도에 우선적으로 각각 1개 중대 규모의 해병대 병력이 파견되기에 이르렀다.[44]

---

41)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31 December 1950", Appendix Ⅱ.

42) 김인승, 「한국전쟁 해전사(海戰史) 연구자료의 발굴과 그 효용성」, 161쪽.

43)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p. 112~113.

44) ADM 116/5794, "Korean War Reports of Proceedings No. 29 at Sasebo", 6 January and 17 January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letter FO2FE/2960/11, 18 February 1951, p. 13.

당시 한국 해군본부에서는 이희정 중령을 백령도 주둔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몇 가지 임무를 부여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물론 “백령도에 수용된 피난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도서 내 산재한 반공 무장대원들을 결집하고 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인근 도서의 방어와 함께 황해도 연안에 상륙을 감행하여 유격활동과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도록”하는 것 역시 추가 임무로 부여하였다.[45] 이에 이 중령은 백령도 상륙 직후 도서 내 존재하는 반공 무장대원들과 접촉하는 한편, 이들 중 일부를 모아 제식훈련과 사격술, 통신기 조작법 등의 기초훈련을 시킨 후 30~50명 단위의 소규모 유격부대로 재조직화하였다.[46]

당시 한국해군이 조직한 반공 유격부대는 백령도 내에 거주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그 규모 역시 수백 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1951년 초, 서해전역 내 존재하던 반공 무장집단의 규모가 대략 6천에서 최대 1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었음을 고려하면, 한국해군에 의해 조직된 유격부대의 규모는 실로 미미하였던 것이다.[47] 그럼에도 유엔군 조직에 의해 통제 및 운영되는 유격부대의 등장은 분명 제95.1기동전대 지휘부가 큰 관심을 보일 만한 사안이었다. 애초에 영국 해군지휘부가 비정규 무장집단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뢰의 부재’였는데, 이들이 한국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해군 지휘부는 백령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공 유격부대의 조직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백령도 방어부대의 파견을 유엔 해군지휘부에 요청하였던 주체가 바로 앤드류스 제독이었기에, 해병부대의 전개 사실과 함께 “한국해군이 도서 내 다수의

45) 해군본부, 앞의 책, 388쪽.
46) 해군본부, 위의 책.
47)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p. 39.

청년집단(large parties of young men)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역시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있었던 것이다.[48] 특히 한국해군이 반공 유격부대원들을 단순한 정보수집 목적뿐 아니라 도서방어와 상륙공격 부대로 활용하기 위해 훈련 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간 인식하지 못했던 반공 유격부대의 새로운 가치와 유용성에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 서해 이북에 위치한 해안지대에는 상륙에 유리한 지점이 다수 존재했던 반면, 공산군의 방어태세는 취약하여 서해 도서로부터 침투작전을 펴기에 용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유엔해군으로부터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유격부대가 다양한 형태의 게릴라 작전을 통해 공산 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49]

영국해군 지휘부 중 한국해군에 의해 재조직되었던 반공 유격부대의 다양한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협력관계 개선에 앞장섰던 존재는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이었다. 12월 말 인천을 지원하기 위해 봉쇄작전에서 이탈하였던 그가, 2월 초순 이후 지상의 전황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예하 전력과 함께 제95.12기동단대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그의 복귀와 함께 서해 해상봉쇄전력 운영이 다시금 안정되기 시작하자, 본래 반공 무장집단의 활동에 큰 흥미를 보였던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의 주도하에 한국해군이 조직화한 반공 유격부대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작전이 구상되기 시작한 것이다.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의 새로운 시도는 그가 서해전역 내 봉쇄작전을 담당했던 2월 13일부터 동월 2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가장 먼저 시도했던 작전은 반공 유격부대와 유엔해군

48) ADM 116/5794, "Korean War Reports of Proceedings No. 29 at Sasebo", 6 January and 17 January 1951, p. 12.

49)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22 February to 6 March 1951", HMS *Belfast*, 6 March 1951, p. 5.

간 협력을 통해 본토에 위치한 소규모 북한군 부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실제 그는 150명 가량의 유격부대원들을 북한군 해안방어 부대가 위치한 지역에 상륙시켜 북한군을 생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실론함을 비롯한 3척의 군함이 상륙부대를 함포로 지원하고, 필요시 영국해군 소속 경항공모함인 테세우스함(HMS Theseus)의 항공지원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협조하였다.[50] 물론 이 영국군 함장의 야심찬 계획은 작전당일 발생한 예상치 못한 강풍으로 실제 실행단계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유엔해군의 지원하에 유격부대원들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형태의 작전이 최초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영국해군의 함포사격 수정반(Naval Gunfire Spotting Team) 운영 절차를 기준 삼아 반공 유격부대원 중 일부를 본토에 침투시켜 함포사격 결과를 관찰하고 그 위치를 수정하는 전문요원으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실제 백령도 내에 한국해군이 관리하던 유격부대원 중 일부를 선발해 그 예하의 함포장교와 통신담당 장교에게 교육받도록 하였다.[51] 수일간의 훈련상태를 지켜본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이들이 꽤 훌륭하게 교육을 따라오고 있으며(coming along), 이를 지속할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며 그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다.[52]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던 일단의 변화는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관계발전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먼저 반공 유격부대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신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엔군에 의한 유격부대원들의 관리 및 통제가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50) ADM 116/6213,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13 to 24 February 1951", HMS *Ceylon*, at Inchon, 27 February 1951, para. 6.
51) Ibid.,
52) Ibid., para. 7.

부분은 한국해군에 의해 통제되는 유격부대의 등장을 전후하여 영국해군 지휘부가 보인 반응의 차이를 비교하면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공 유격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인해 서해 유엔해군의 작전이 충분히 공세적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1950년 7월 이래 서해전역에서 비효율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작전만을 지속하였던 영국해군이, 비로소 그들의 작전에 적극성과 공격성, 그리고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편을 발견해낸 것이다.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열흘 남짓한 그의 작전기간 대부분을 이처럼 반공 유격부대와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데 투자하였다. 이들의 존재가 그간의 서해 유엔해군 작전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특히 2월 24일이 그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이었기에 더더욱 반공 유격부대의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는 데 열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95.12기동단대장의 임무를 마무리한 직후, 그가 지난 10일 간 백령도를 중심으로 보고 경험한 사실을 다른 영국해군 지휘부와 공감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제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2월 24일 서해전역에서 봉쇄작전을 마치고 일본으로 복귀하며 향후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의 유용성과 함께 제95.1기동전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세보항에 도착한 직후인 2월 27일, 앤드류스 제독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a. 백령도에 대한 즉각적인 무기 및 실탄 공급이 필요함. 백령도에만 [반공 유격부대원으로] 모집 가능한 인원이 4천명 가량이 있으며, 공산군이 도서에 대한 상륙공격을 시도할 시 이들을 방어병력으로 사용할 수 있음.

b. [....]

c. 소형 상륙용 주정(LCM) 또는 다른 형태의 상륙함(landing craft) 지원이 필요함. 이 함정은 백령도 내에 주둔하는 한국해군에 의해 관리될 것이며 북한 본토에 대한 습격(raid) 시 사용할 것임.
d. [백령도에서] 유격부대원들과 함께 머물며 이들과 제95.12기동단대 간 상시 연락책(permanent link)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영국인 혹은 미국인 연락장교(liaison officer)의 파견이 필요함.
e. 한국해군과 유격부대, 쇼란(Shoran) 기지와 제95.12기동단대를 연결하는 통신수단이 필요함.
f. 야간에 기동단대에서 제공한 통신장비를 소지하고 본토에 침투해서 [유엔해군과의] 합동작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게릴라 폭격 및 정찰팀(guerrilla bombardment and reconnaissance team)의 훈련이 필요함.[53]

위 보고서에는 반공 유격부대를 통한 정보수집뿐 아니라 이들을 도서방어 병력 및 함포사격 수정반, 그리고 상륙공격부대로 활용하려는 야심찬 계획이 담겨있었다. 대부분이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이 마지막 기동단대장 임무 기간에 직접 그 가능성을 확인한 작전들이었다. 그는 이러한 작전수행을 위해 이전까지는 지원이 거부되었던 무기와 탄약, 상륙함뿐 아니라, 유격부대와 서해 유엔해군과의 긴밀한 연락을 위한 통신체계 구축과 연락장교 파견의 필요성까지 주장하였다. 그리고 앤드류스 제독을 비롯한 서해 기동전대 지휘부가 그 지원의 주체가 되어주길 희망하였다.

실제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이 마지막 10일간의 임무기간 동안 백령도를 중심으로 보였던 반공 유격부대와의 협력 가능성은 여타 영국해군 함장들로부터도 깊은 공감을 얻어 내었다. 로이드-데이비스로부터 제95.12기동단대장 임무를 넘겨받은 밸파스트 함의 클래어-포드(Sir Aubery St. Clair-Ford) 함장은, “이들의 활동을 막기

53) Ibid., para. 6.

위해서는 적군의 대규모 병력과 무장을 이 지역[서해]으로 투입하는 등의 중대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며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이 보일 결과에 기대감을 나타내었다.[54] 당초 반공 무장집단을 지원해 달라는 한국해군의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브록 함장조차도 3월 초, 제95.12기동단대장 임무를 수행한 후, "이들이 적절한 훈련과 작전계획, 그리고 보급지원을 받게 된다면 서해에 위치한 적군에게 최소한 따끔한 일침(more than a pinprick)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이드-데이비스의 구상에 깊은 공감을 표하였다.[55]

하지만 영국해군 지휘부 내에 형성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앤드류스 제독은 유격부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당시 앤드류스 제독 역시 반공 유격부대의 가치와 활용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문제에 서해 기동전대가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2월 초부터 미8군 사령부가 이들을 예하의 유격부대원으로 재조직화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유격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업무에 굳이 그의 기동전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당시까지 앤드류스 제독은 '유격부대를 지원하는 작업은 미8군에게 맡기고, 서해 기동전대는 그 변화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자'는 신중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56]

이와 같은 앤드류스 제독의 방침에 따라 제95.1기동전대는 반공 유격부대에 대한 지원 및 조직화 이슈에 대해 철저히 관찰자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백령도를 중심으로 미8군이 주도

54)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22 February to 6 March 1951", HMS *Belfast*, 31 March 1951, p. 5.
55)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1 February to 14 March 1951", HMS *Kenya*, 5 April 1951, para. 5.
56) Ibid., CTG 95.1's Comments, 5 April 1951.

하는 변화가 결실을 보이기 시작한 3월 초반까지, 한국해군의 영향력 하에 있던 반공 유격부대를 중심으로 소규모적인,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협력만을 지속해갔다.

4.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과 해상 협력체계의 구축

가.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과 반공 유격부대의 재조직화

1951년 1월 8일, 제95.7기동전대(Task Group 95.7)로부터 미8군사령부에 황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공 무장집단의 활동 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무장지원을 요청하는 전문이 도착하였다. 12월 29일, 브록 함장이 최 중령의 반공 무장집단 지원요청을 거절한 후, 유사한 형태의 요청이 당시 한국해군 지휘부가 소속된 제95.7기동전대를 경유해 미8군으로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57] 그리고 이 전문은 영국해군이 처음 보인 반응과는 달리, 미8군 지휘부로부터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미8군사령부에 소속된 인물 중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인물은 사령부에서 정보업무를 담당하던 맥기(John G. McGee) 대령이었다. 2차대전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게릴라 작전을 경험했던 그는, 개전 직후부터 북한 출신의 피난민을 중심으로 유격부대를 조직하여 전선 후방에 재투입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후방에서의 유격작전을 통해 공산 측 병력을 분산시켜 전선에서 교전 중인 유엔 지상군의 부담을 줄여줄 목적이

57) 당시 발송된 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Supporting Document, p. 71.

었다.[58] 그러하기에 1월 초 미8군 사령부에 전달된 반공 무장집단에 대한 정보는 유격작전에 적합한 자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에게 있어 실로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맥기 대령이 반공 유격부대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감했는지는 이후 그가 추진한 업무의 진척속도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실제 맥기 대령은 전보를 수신한 바로 당일, 제95.7기동전대에 전문을 보내 반공 무장집단과 관련한 추가 정보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장의 종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5일 후인 1월 13일, 반공 무장집단을 활용한 지구전(Attrition Warfare) 계획 초안을 수립하여 극동군사령부에 보고하기까지 하였다.[59] 이어 1월 15일, 극동군사령부가 그의 계획을 승인하자마자 미8군 작전참모부(G-3) 예하에 지구전과(Attrition Section)를 신설하고 서해 도서에서 활동하던 반공 무장집단을 조직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60]

당시 맥기 대령은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할 행정관(executive officer)으로 포병장교 출신의 버크(William A. Burke) 소령을 임명하였다. 1월 말 백령도를 직접 방문하여 반공 무장집단의 규모와 존재를 확인한 버크 소령은, 이후 미8군사령부로 복귀하여 맥기 대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백령도를 거점으로 코드명 윌리엄 에이블(WILLIAM ABLE) 사령부를 설립할 것을 승인 받았다.[61] 이어 맥기 대령이 작성하였던 '지구전 계획'을 바탕으로 1월 23일, 에이블

58) 조성훈, 앞의 책, 131~133쪽.

59) 맥기 대령이 제95.7기동전대와 주고받은 서신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Supporting Document, pp. 72-73; 맥기 대령이 극동군사령부에 보고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할 것. Ibid., pp. 65~66.

60) Ed Evanhoe,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p. 38.

61) Ibid., pp. 38~39.

계획(Plan ABLE)이라 명명되었던 반공 유격부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62]

에이블 계획에 따르면 반공 유격부대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었다. 1단계에서는 각 도서를 기반으로 이들을 훈련 시킨 후, 북한에 침투시켜 북한 내부에 세포조직을 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을 정보수집 요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공산군에 대한 방해 공작(sabotage) 역시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2단계는 유엔군의 북진을 위한 총공세와 연동하여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이때 모든 유격부대원들이 후방에서 혼란을 조장함과 동시에 유엔군의 공세에 합세하여 공산군의 후면을 공격한다는 계획이었다.[63]

1단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2월 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맥기 대령과 버크 소령은 여러 도서에 산재해 있던 반공 무장집단을 미8군이 지원하는 유격부대로 재편성하기 위해, 다양한 무장집단의 지도부들과 직접 접촉하였다. 그리고 "미8군과 유엔군이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또 한번의 북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고향 땅 해방을 위해 미8군 예하의 조직원으로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64] 그 결과 2월 중순 장재화가 이끄는 신천 출신의 무장집단을 시작으로 백령도와 그 인근에서 활동하던 크고 작은 무장집단들이 속속 미8군의 통제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65] 자연스레 한국해군에 의해 조직되었던 유격부대 역시 미8군 예하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사령부 명칭을 '윌리엄 에이블'

---

62) 에이블 계획 전문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Appendix E., pp. 158~162.

63) Ibid., pp. 40~41.

64) John H. McGee, "McGee letter to Colonel Rod Paschall",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Pennsylvania, 24 March 1986), p. 12.

65) 각 유격부대 별 레오파드사령부 합류 과정 및 일자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조성훈, 앞의 책, 제5장.

에서 레오파드(LEOPARD)로 변경한 이들 유격부대는, 그 예하 조직에 동키-1, 2, 3과 같은 부대명을 부여하고 대원들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3월 초부터 통신장비를 소지한 부대원을 본토로 침투시키기 시작하였다. 레오파드 조직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나. 서해 유엔해군과 레오파드 조직 간의 해상협력체계 구축 결과

서해 유엔해군과 레오파드 조직 간의 직접적인 협력관계는 3월 초, 레오파드 측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에이블 계획상의 1단계 작전을 추진하기 위해 서해 유엔해군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었기에, 레오파드 사령부가 작전을 개시한 직후 맥기 대령이 먼저 제95.1기동전대 측에 관계자 회의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3월 8일, 미8군 사령부 명의로 앤드류스 제독에게 "서해 해상의 아군 게릴라 활동의 지원과 관련한 회의를 위해 당신의 기동부대 예하의 영국해군 장교가 [미8군] 지휘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전문이 발송되었다.[66] 이에 대해 앤드류스 제독이 회의 시간을 3월 14일로, 그리고 회의 장소를 인천항에 정박한 벨파스트함으로 할 것을 역 제안하면서, 서해 기동전대지휘부가 고대하던 새로운 유격부대 사령부와의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67]

3월 14일 회의에는 영국해군 대표로 밸파스트 함의 클래어-포드 함장이, 그리고 미8군사령부 대표로 맥기 대령이 참여하였다. 당시 클래어-포드 함장은 맥기 대령으로부터 레오파드 부대원들의 대략적인 규모와 무장상태, 이들의 임무와 통신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 동시에 레오파드 사령부로부터의 작전 정보 공급절차와

---

66) U.S. Army Forces, Far East, 8086th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Supporting Document, p. 50.
67) Ibid., p. 51.

두 조직 간의 통신수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당시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봉쇄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 주기적으로 백령도에 정박하여 버크 소령으로부터 황해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령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기동전대로부터 연락장교를 백령도에 파견한다. 각 도서에 배치된 라디오 장비와 함정 간의 연결 가능성 역시 고려될 것이다(will be considered).[68]

그리고 이러한 회의를 바탕으로 3월 말부터 제95.1기동전대와 레오파드 사령부 간의 협력관계에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뚜렷한 변화가 관찰된 부분은 유엔 해군작전을 위한 정보작전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일단 1951년 4월까지 서해상에서 활동하던 반공 무장조직의 대부분이 레오파드 사령부 예하로 편입되는 한편, 사령부와 예하 동키부대 간의 직접적인 통신수단이 구축됨에 따라 유격부대원들이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버크 소령에게 집결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여기에 더해 작전 초기 유격부대원들이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정보수집 관련 활동에 보다 매진함에 따라 단기간 내에 황해도 및 평안남도 서부지역 내 북한군 활동에 대한 정보공급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봉쇄작전을 수행하는 서해 유엔함정들은 레오파드 사령부라는 믿을만한 단일 창구를 통해, 서해전역 대부분을 포괄하는 북한군 활동 정보를 대량으로, 그것도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클레어-포드 함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제95.12기동단 대장으로 근무하던 4월 16일부터 30일 사이, 레오파드 사령부로부터 60건 이상의 주요 표적 정보를 공급받았다고 한다. 이들 정보에는 북한군의 부유기뢰 설치 부대와 해안 방어부대의 집결지, 그리고

68) Ibid., pp. 50~51.

해안포 및 방공포 진지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엔해군의 봉쇄작전 수행에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는 북한군의 활동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클레어-포드 함장은 함포의 사거리 내에 위치한 표적에 대해서는 함포사격으로, 그 밖에 위치한 표적은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공격하도록 하였다.[69]

이러한 2주간의 작전 경험 후, 클레어-포드 함장은 그의 보고서에 "가장 가치있는 정보의 공급자(source)인 이들 조직과 긴밀한 접촉을 하는 것이 필수적(essential)"이라며 레오파드 조직의 정보수집 능력에 감탄을 표하였다.[70] 마찬가지로 유격부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재기의 폭격을 유도했던 미 항공모함 바탄함(USS Bataan)의 닐(E. T. Neale) 함장 역시 "제95.12기동단대를 통해 수신한 한국 요원의 정보가 특별히(exceptionally) 정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레오파드의 정보에 큰 만족함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처음[2월 중]에는 수일이 지난 정보가 제공되었는데, 버크 소령이 백령도에 사령부를 설립한 이후 정보가 적시(timely)에 공급되고 있다"며 레오파드 사령부의 등장 이후 발생한 정보공급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71]

이와 같은 수동적인 형태의 정보수신에 더해, 유격부대원들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정보작전 역시 병행되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4월 말 시행되었던 몽금포 침투작전이었다. 4월 21일 몽금포 인근에서 정찰활동 중이던 한국해군 소속 PC 703 함정이 본토로부터 해안포 공격을 받았는데, 당시 시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적군의 해안포 기지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었다. 이에 레오파드 사령부와 협조하여 몽금포 인근에 유격부대원을 침투시켜 해안포의

69)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16 to 30 April 1951", HMS *Belfast*, 4 May 1951, Appendix I.
70) Ibid., para. 16.
71) USS *Bataan* CVL 29, "Action Report: period 15 January 1951-7 April 1951", 17 April 1951, p.VI-3.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 결과 4월 27일, 버크 소령으로부터 북한군 해안포 기지의 정확한 좌표(XC 593252)가 적시된 전문을 수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해안포는 영국 항모인 글로리함(HMS Glory)에서 출격한 함재기 공격으로 즉각 파괴되었다.[72]

적극적인 정보작전의 연장선에서, 유격부대원들을 서해 유엔해군의 작전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공작 부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쉬칸 작전(Operation ASHCAN)이라 명명되었던 대규모 상륙시위(demonstration landing)였다. 일종의 거짓 상륙작전이었던 아쉬칸은 전방에 집중되어 있던 공산군의 관심을 후방으로 돌리고, 전방에 결집된 전력의 일부를 황해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작전은 공산 측에 상륙 위협이 실재한다고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 반공 유격부대원들이 담당했던 역할이 바로 북한 사회 내에 은밀하게 상륙작전에 대한 소문을 전파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유격부대원들이 본토에 침투하여 유엔군의 대규모 상륙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모호한 소문(vague and nebulous rumours)"을 매우 성공적으로 퍼뜨렸다. 그 결과 상륙시위 당일인 5월 20일, 상륙 예정지점 부근에 영문으로 "유엔군 환영(Welcome UN Army)"이라 쓰인 표식들과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공산군의 결집이 확인되었다.[73] 아쉬칸 작전 이후 제95.1기동전대장은 그의 보고서에 "레오파드 조직과의 감탄스러운 연계(admirable liaison)가 공산군을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만족감을 표하였다.[74]

---

72)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16 to 30 April 1951", Appendix I.

73) ADM 1/22521, "Korean War Reports of Proceedings No.36, 8 May-24 may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letter FO2FE/2960/11, 25 May 1951, pp. 2~7.

74) ADM 1/22521, "Korean War Reports of Proceedings No.36, 25 May-17 June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letter FO2FE/2960/11, 22 June 1951, p. 3.

심지어 레오파드 사령부는 5월부터 본토에 침투한 유격부대원을 통해 제95.1기동전대 소속 함정과 함재기가 수행한 공격결과를 관찰하고 전달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말까지 작전구역 내 북한군 활동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곤란함을 겪던 이들 서해 유엔해군이, 이제는 자신들만을 위한 폭격결과 보고서(After Bombardment Report)까지 수령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이들 보고서에는 "6인치 포탄 중 1발이 목표물에 적중했으며 그 결과 5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와 같이 함포사격의 정확도와 그 결과가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었다.[75]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는 서해 기동전대의 작전효과 제고뿐 아니라 이들의 사기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는 닐 함장의 6월 25일자 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이들[반공 유격부대]은 자주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공격결과를 보고해준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그간 자신의 노력이 실제 생산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조종사들의 기운을 북돋아(heartening) 주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또한 [조종사들이] 공격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 혹은 무장 선택에 있어서 발생한 실수를 교정할 기반(basis)을 제공한다.[76]

6월에 이르러 레오파드 사령부가 공급하는 작전정보는 양과 질 모두에 있어 한층 더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수개월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격대원들의 정보수집 능력이 신장되었을 뿐 아니라, 유엔지휘부가 사실상 북진을 포기하면서 레오파드 사령부에 정보

---

75)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7 to 19 June 1951", HMS *Kenya,* 30 June 1951, para. 8.

76) USS *Bataan* CVL 29, "Action Report: period 12 May 1951-13 June 1951", 25 June 1951, p.VI-2.

수집에 더 집중할 것을 명령하였기 때문이다.[77] 그 결과 서해 기동전대가 보유하고 있던 폭탄 수량이 부족해 공급받은 표적 정보 중 일부만 선별해서 타격해야 할 정도로 정보 공급량이 급증하였으며,[78] 이미 보고된 북한군 활동 정보가 매 7일 단위로 최신화되어 제공될 정도로 그 질적 수준 역시 향상되기에 이르렀다.[79]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으로 인해 제95.1기동전대는 서해 전역에 대한 면밀한 해상봉쇄를 수행 가능함은 물론, 종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했던 공산군에 대한 효과적인 공세활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작전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뿐 아니라, 반공 유격부대와 서해 유엔해군의 긴밀한 합동작전을 위한 절차와 체계 역시 마련되었다. 우선 3월 17일, 클래어-포드 함장과 버크 소령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두 조직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통신체계의 즉각적인 구축이 합의되었다. 동시에 유격대원이 본토에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유엔해군의 긴급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함포사격이나 함재기의 출격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체계 역시 논의되었다. 당시 합의된 바에 따르면 모든 긴급지원 요청은 레오파드 사령부를 통해 제95.12기동단대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기동단대장이 지원요청 정보를 확인한 후 가장 적합한 해군전력에 지원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유격부대원들의 무분별한 출동 요청으로 서해 봉쇄작전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적의 전력을 적시에 출동시켜 작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80]

---

77) 'Misc Correspondence File', 8240 AU Files, 1951, memorandum, Ltr, Lt Col Koster to Maj Burke, 22 Jun 1951.

78) ADM 116/6212, "HMS *Cardigan Bay*-Report of Proceedings, 24 June to 4 July 1951", para. 7.

79) ADM 116/6212, "HMS *Black Swan*-Report of Proceedings, 17 to 24 June 1951", the Captain (F), Third Frigate Flotilla, HMS *Black Swan*, 2 July 1951, Appendix B.

80)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12 to 21 March 1951", para. 13.

이러한 지원체계 구축의 효과는 그 합의일로부터 불과 2일 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3월 19일 평안남도 온천군 남하리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유격부대원들의 긴급지원 요청을 바탄함의 함재기가 신속히 응대하여 현장의 유격부대원들이 만족할 만한 작전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기 때문이다.[81]

여기에 더해 반공 유격부대원들의 상륙공격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되었다. 사실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이 2월 중순 처음 구상하였던 유엔해군의 상륙공격작전 지원은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 이후에도 일정기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유격부대원들이 작전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6월 초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상륙공격을 거의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6월 중순부터 초도와 연평도에 주둔하는 유격부대원들을 중심으로 상륙인원 100여 명 수준의 공격이 간헐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이들의 상륙작전 모두가 서해 유엔해군과 사전 협의 없이, 그것도 작전 중간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유엔해군의 작전지원 효과를 크게 제약했다는 점이었다.[82]

보다 효과적인 상륙공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절차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제95.1기동전대 지휘부는 당시 봉쇄임무를 총괄하던 실론함의 스링(G. A. Thring) 함장의 주도하에 레오파드 사령부와 상륙공격작전 절차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7월 5일, 대청도에서 두 조직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레오파드 사령부 측 대표로부터 "아군의 함포와 함재기의 공격으로 인해 그의 병력[유격부대원]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81) 당시 함재기는 출격 요청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도착하여 공격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버크 소령으로부터 수신하였다. Ibid., para. 16.

82) ADM 116/6212, "HMS *Cardigan Bay*-Report of Proceedings, 24 June to 4 July 1951", para. 16.

제95.12기동단대장에게 작전에 대해 알리겠다"는 확답을 받았다.[83)]

그리고 같은 날, 서해 유엔해군과 사전에 협의된 최초의 상륙공격작전이 수행되었다. 목표는 작은 마을에 집결해 있는 북한군이었다. 이를 위해 늦은 밤, 소형 정크선(junk)에 탑승한 100여 명 규모의 유격부대원들이 화이트샌드 베이함(HMS Whitesand Bay)의 지원하에 상륙을 감행하였다. 당시 상륙작전은 함포사격 수정반 역할을 위해 무선 통신설비(W/T)를 구비한 한국 해병대원까지 동원되었다. 그리고 북한군 밀집지역에 대한 함포사격으로 시작된 상륙공격의 결과는, 스링 함장의 표현에 따르면 "꽤 성공적(quite successful)이었다". 비록 유격부대원의 미숙함으로 인해 상륙시간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마을에 집결해 있던 북한군에 궤멸적인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84)]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에 의해 최초로 그 가능성이 검토된지 약 5개월 만에 합동 상륙공격작전이 실제로 구현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은 한국해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서해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초기 협력관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관계는 레오파드 조직의 성장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 갔다. 실제 레오파드 조직은 7월에 이르러 서해에서 활동하던 반공 무장대원 대부분을 재조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예하에 총 7,000여 명에 이르는 부대원이 서해상에 위치한 수십 개의 도서를 안정적으로 점유하며, 황해도와 평안도 전역을 주 무대로 활발한 유격작전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85)] 그리고 이러한 레오파드 조직과의 관계는 서해 유엔해군의 작전을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격상시켰다. 이들과의

83) ADM 116/6213,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29 June to 15 July 1951", HMS *Ceylon*, 15 July 1951, paras. 11~13.
84) Ibid., para. 13.
85) Malcom,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 p. 22.

관계 속에서 구축된 정보작전과 합동작전 체계는 분명 이들 해군의 작전을 매우 효과적이고 공격적으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 레오파드 조직과의 관계가 유엔 해군작전에 있어 “전반적으로 탁월한(excellent)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producing)”는 제95.1기동전대장의 7월 8일자 평가가, 당시 구축된 반공 유격부대와의 관계에 대한 영국 해군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시켜준다.[86]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영국해군을 위시한 제95.1기동전대가 서해전역에서 봉쇄작전을 담당했던 초기 1년 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들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초기 협력관계의 시작과 이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영국해군의 시각에 기반하여 그동안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폭넓게 연구되지 못한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일면을 조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영국해군에게 있어 반공 유격부대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개전 초기부터 서해전역에 대한 봉쇄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정보조직으로서 그 가치가 높았던 반공 유격부대와의 협력은 서해 유엔해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반대로 반공 유격부대원들에게 있어서도 유엔해군으로부터의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이들의 작전이 대부분 서해 도서를 기반으로 하여 본토에 상륙 침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유엔해군의 화력지원이 요구되는

86) ADM 116/6213,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28 May to 10 June 1951, HMS *Ceylon*, 10 June 1951, CTG 95.1’s Comments, 8 July 1951.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조직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공생적이며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다.

하지만 두 조직 간의 초기 협력은 신뢰성의 문제로 인해 일정 기간 지지부진한 수준에 머물러야 했다. 반공 유격부대원들이 처음 서해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들은 단지 북한 출신의 그 목적 역시 불확실한 비정규집단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그 어떠한 유엔군 집단으로부터도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았기에, 영국해군을 중심으로 한 서해 유엔해군 지휘부는 이들 무장집단과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데 있어 신중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관계의 전환점은 이들이 유엔군에 의해 조직화 되기 시작하며 발생하였다. 서해상에서 무질서하게 활동하던 민간 무장조직이 한국해군과 미 육군의 지휘체계 내에서 유격부대로 재편성됨에 따라, 당초 협력관계를 저해하였던 신뢰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협력 과정에서 이들 유엔군 조직이 보유한 인력과 체계가 유용하게 활용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협력관계 형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해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해상협력체계는 특히 레오파드라고 통칭되었던 미8군 사령부 예하의 유격부대 조직이 등장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맥기 대령과 버크 소령의 주도하에 서해상에 산재해 있던 무장조직 대부분이 신속하게 레오파드 부대로 재편됨에 따라, 서해전역 내 유엔해군과 유격부대 간의 해상협력체계가 다방면에 걸쳐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작전정보 수집 및 정보교란 등을 포함하는 정보작전과 긴급 화력지원 및 상륙공격 작전 등을 포함하는 합동 작전체계의 구축으로 대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상협력체계의 등장은 단기간 내에 서해 유엔해군의 작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50년 7월 이래 서해전역에

서 비효율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봉쇄작전을 지속하였던 유엔해군이, 이제는 작전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짐은 물론, 북한 본토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세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작전은 결과적으로 공산 측 후방에 대한 큰 위협이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1951년 말 중국군으로 하여금 서해 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해상공세 작전을 감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87]

그 결과 서해 유엔해군의 작전수행에 있어 반공 유격부대의 역할은, 영국해군 지휘부로부터 '필수적인(essential)' 또는 '감탄스러운(admirable)' 등과 같은 형용사로 묘사될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51년 중반에 이르러 안정적으로 구축된 해상협력체계는, 이후 2년간 지속되며 6 · 25전쟁 후반기 유엔해군의 서해전역 작전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21. 1. 4, 심사수정일 : 2021. 2. 4, 게재확정일 : 2021. 2. 24.)

주제어 : 6·25전쟁, 반공 유격부대, 영국해군, 제95.1기동전대, 한국해군

87)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12~213쪽; 공산 측의 해상공세에 대한 유엔군의 방어작전 수행과정에서 반공 유격부대가 보인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인승, 「6 · 25전쟁기 서해 해상공방전(海上攻防戰) 연구」,『한국근현대사연구』, 제90집, 2019, 147~185쪽.

〈참고문헌〉

1. 1차 사료

ADM 1 – Admiralty, and Ministry of Defence, Navy Department: Correspondence and Papers– SERIES II: 1946–1951 (plus strays 1916–1945, 1952–1956).

ADM 116 – Admiralty: Record Office: Cases–Subseries within ADM 116–ACTIONS WITH THE ENEMY(3)–Reports of Proceedings–Korean War.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1967).

DEFE 11 – Ministry of Defence: Chiefs of Staff Committee: Registered Files–British Commonwealth Forces Korea: Situation Reports.

FO 371 – Foreign Office: Political Departments: General Correspondence from 1906–1966 – POLITICAL: FAR EASTERN: Japa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Report on US Crimes in Korea", (31 March 1952).

John H. McGee, "McGee letter to Colonel Rod Paschall",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Pennsylvania, 24 March 1986).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57화–망각의 전쟁, 황해도 신천 사건」, (2002년 4월 21일 방송분).

USS Bataan CVL 29, "Action Report: period 15 January 1951-7 April 1951", 17 April 1951.

_____, "Action Report: period 12 May 1951-13 June 1951", 25 June 1951.

2. 2차자료

김인승, 「한국전쟁 해전사(海戰史) 연구자료의 발굴과 그 효용성: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을 중심으로」, 《軍史》 110, (2019). https://doi.org/10.29212/mh.2019..110.11

_____, 「한국전쟁기 서해 도서공방전(島嶼攻防戰)의 발발 : 공산군의 대화도 공격을 중심으로」, 『韓國軍事學論集』第75輯 第1卷, (2019). http://doi.org/10.31066/kjmas.2019.75.1.007

_____, 「6 · 25전쟁기 서해 해상공방전(海上攻防戰)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0집, (2019). https://doi.org/10.29004/jkmch.2019.9.90.147

김학준, 『미소냉전과 소련 군정 아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1946년 1월-1948년 9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김행복, 「북한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연구」, 조성훈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정용욱, 「[書評] 한구전쟁기 특수전 연구와 Dark Moon」, 『軍史』 40, (2000).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6 · 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기록학연구』12, (2005).

_____,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해군본부,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계룡: 해군본부, 2012).

Alcock, Christian P., "Britain and the Korean War, 1950-1953",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1986).

Cleaver, Frederick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Study,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6).

Cutler, Thomas J., “Sea Power and Defense of the Pusan Pocket, June-September 1950”, Edward J. Marolda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7).

Evanhoe, Ed,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95).

Farrar-Hockley, Anthon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London: HMSO, 1990).

Malcom, Ben S.,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Washington D.C.: Brassey's, INC, 2003).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1952”, Project MHD-3, Tokyo (March 1954).

W. Cagle, Malcolm and A. Manson, Frank, 신형식 역, 『한국전쟁 해전사』(21세기군사연구소, 2003).

Yoichi, Kibata, “Commonwealth Cooperation and Rivalry”, in Ian Nish (ed.),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1945-1952(Leiden: Brill,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Western UN Naval Forces and the Anti-Communist Commando Unit in the Korean War

Kim, In-seung

This thesis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anti-Communist guerrilla unit on the west coast during the Korean War, particularly based on the primary resources produced and collected by the British Royal Nav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very significant, but not been studied enough on their co-operation with the Western UN Naval Forces.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seeks to explore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UN naval and the guerrilla unit co-operation system during the first one year of the war. As the naval-guerrilla unit relationship was initially started from mid-December 1950, and was able to be settled down in July 1951, to understand the guerrilla's role in the conduction of the UN naval operation, it is important to focus more on the early part of the Korean War. This thesis shows that, to the Western Naval Forces, working with the irregular groups was operationally essential to the conduct of the naval blockade mission, and this naval-guerrilla relationship was of major factors during their naval campaign in Korea.

Keywords : The Korean War, Anti-Communist Guerrilla, The Royal Navy, Task Group 95.1, The ROK Nav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45-95
https://doi.org/10.29212/mh.2021..118.4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羅唐戰爭期 七重城과 買肖城 戰鬪

- 買肖城의 位置 比定 및 靺鞨 水軍의 活動에 대한 分析을 中心으로 -

김병희*, 서영교**

1. 머리말
2. 劉仁軌 唐軍과 靺鞨 水軍의 水陸竝進
3. 靺鞨 水軍의 入江과 上陸地點 : 坡平 金坡里 城址
4. 七重城을 根據地로 한 唐軍의 買肖城 掌握
5. 泉城 水戰의 勝利와 李謹行의 買肖城 抛棄
6. 맺음말

1. 머리말

현재까지 칠중성을 주제로 다룬 연구 성과들[1]은 많지 않았다. 가장

* 경기대학교 사학과 강사
** 교신저자 : 중원대학교 한국어교육문화학과 교수

1) 洪再善,「積城 七重城 調査略報」,『佛教美術』7, 1983 ; 徐榮一,「漢江以北의 城址와

큰 이유는 칠중성의 위치가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이 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매소성을 주제로 다룬 연구 성과들은 그동안 적지 않은 논고들이 나왔다. 특히 각 연구물들은 비중의 정도를 떠나 위치에 대한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매소성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료에 제시된 기록들을 감안하였을 때 羅唐戰爭期에 벌어진 칠중성 전투와 매소성 전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매소성의 위치 비정에 대한 학설을 소개해보겠다. 크게 볼 때 漣川 大田里山城說[2]과 楊州 大母山城說[3]로 나뉜다.

新羅의 防禦體制 - 坡州 地域을 中心으로」, 『文化史學』10, 1998 ;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 「칠중성과 고랑포의 역사지리적 고찰」, 『애산학보』 32, 2005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2) 抱川郡誌編纂委員會, 『抱川郡誌』, 1984, 110쪽 ; 崔根泳·閔德植·孫寶基 인터뷰, 李根成 기자, 「〝羅·唐 격전지 買肖城<매소성>은 大田里산성〟」, 『中央日報』 6면(文化), 1986.06.09 ; 連川郡誌編纂委員會, 『連川郡誌』, 1987, 816~818쪽 ; 閔德植, 「買肖城址考」, 『孫寶基 博士 停年 紀念 考古人類學論叢』, 1988, 655~658쪽 및 666~668쪽 :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 買肖城(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40, 1989, 179~193쪽 ; 安國承, 「買肖城 研究」, 『경기향토사학』 2, 1997, 273~280쪽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18쪽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5, 74·81~88쪽 ; 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1997, 255쪽, 각주 48) ; 徐仁漢, 『羅唐戰爭史』, 國防軍史研究所, 1999, 144~146쪽. - '연천 전곡(全谷)'으로 비정 ; 강성문, 「대전리산성」, 『국방일보』, 2004.02.26 ; 안국승, 「買肖城의 位置 比定」, 『경기향토사학』 11, 2006 ; 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의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 29, 2007, 91쪽, 각주 3) :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205쪽, 각주 143 ; 임용한, 「대당전쟁 시기 주요 격전지 연구」, 『대전리산성, 매초성인가』, 연천군·경기문화재단, 2013, 127~131쪽. - '지역명 또는 행정구역명을 지칭하는 지금의 연천군 영역'으로 비정 ; 權昶赫, 「7세기 후반 新羅의 對唐戰爭과 북방정책」,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7, 38~42쪽 :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312~316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56쪽, 각주 85).

3)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國譯篇), 乙酉文化社, 1977, 537·559쪽. - '楊州郡 州內面'으로 비정 ;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1990, 247~248쪽 ; 社團法人 楊州文化院, 「新羅 統治期의 楊州와 買肖城戰鬪」, 『楊州郡誌』上, 1992 ; 李恩影, 「買肖城 位置 比定과 戰鬪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

먼저 연천 대전리산성설의 핵심적인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買肖城'의 어원을 살펴보면 "買"는 '므'의 음차로 '물'을 의미하고 있다. 즉, 대전리산성이 위치한 '한탄강'이라는 명칭에서 어원적으로 '한'은 순수한 우리말로 '크다'는 뜻이요, '탄'은 '여울'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탄강은 '한여울' 혹은 '큰 여울'의 뜻이다. "肖"의 경우 독음이 '소'와 '초'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蘇', 즉 'ㅅ'의 촉음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肖'도 '買蘇川'의 '蘇'와 동일하다. '매소천'은 동일하게 '뭇내', '물내', 혹은 '여울'에 해당되기에 매소천의 약칭으로 '買肖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三國史記』에서 원술랑의 전투 기록을 보면 '買蘇川城'이라는 명칭이 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그 근거로 들고 있다.[4)]

또한, 연천 대전리산성설은 지리적 이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았다. 연천 대전리산성은 성의 규모로 보아 성역은 좁지만 성밖은 20만 대군을 수용하고도 남을 낮은 산야가 있어 한탄강과 연하여 천혜의 요지가 되며, 후퇴 시에도 용이하다고 한다. 나아가 연천 대전리산성이 위치한 한탄강 유역은 임진강 유역에 비하여 신라 군사용 방어 차단성이 적어 당군의 도강 진주 시 신라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확률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학위논문, 2005, 13~27쪽 ; 노시경, 「중국을 몰아낸 힘 - <서울 경기 역사기행 21> 양주 대모산성(大母山城)」, 『오마이뉴스(OhmyNews)』, 2006.07.17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266쪽. - '양주'로 비정 ; 박성현, 「양주 대모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 『양주대모산성(楊州大母山城)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자료 보고서』, 양주시, 2012 : 『楊州 大母山城의 再照明』, 한림대학교출판부, 2013.

4) 『三國史記』 卷43, 「列傳」3, 金庾信 下 元述. "至乙亥年, 唐兵來攻買蘇川城, 元述聞之, 欲死之以雪前恥. 遂力戰有功賞."

그렇다면 연천 대전리산성설은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먼저 연천 대전리산성설의 音相似부터 확인해보겠다. 이에 대한 박성현의 비판적인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성현에 따르면 임진강 부근에서 매소성과 이름이 유사한 군현으로는 '買省郡-來蘇郡(양주 대모산성)'과 '內乙買縣-沙川縣(연천 대전리산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각각 전자는 본명이고 후자는 경덕왕 때 고친 이름으로 연천 대전리산성설에서 매소성을 內乙買縣-沙川縣에 연결시킨 방식을 보면, '買蘇川'과 '(彌)沙川'이 모두 한탄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탄강에 인접한 대전리산성이 매소천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의 문제점은 '買肖'나 '買蘇川'을 '內乙買'가 아닌 경덕왕 때 漢式으로 고친 이름인 '沙川'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며, '沙川'이 '彌沙川'의 약칭이라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기에 '沙川'은 '內乙買'라는 고유어를 한자로 고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5)]

북쪽에서 여울을 넘어 접근하기 쉽고 신라군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후퇴 시에도 용이하다는 대전리산성설의 지리적 관점도 문제가 있다. 북쪽으로 신라군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당군의 이동과 진격도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당군이 후퇴를 고려하여 대전리산성 주변에 주둔하였다는 것은 작전수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 대규모 군대를 동원한 당이 처음부터 후퇴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다음으로 양주 대모산성설의 핵심적인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당의 병력이 20만에 필적하는 대군이라고 보았을 때, 성 밖까지 주둔할 경우 연천 대전리산성 보다는 양주 대모산성 주변이 더 광활하고 통제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音價 및 音相似의 유사성을

5) 박성현, 앞의 논문, 2012, 117~118쪽 : 앞의 책, 2013, 43쪽.

검토해 보면 '買肖城'이 『三國史記』[6]·『新增東國輿地勝覽』[7]·『東史綱目』[8] 등 문헌사료에 보이는 '買省郡(縣)'과 첫 번째 글자는 일치하고 두 번째 글자는 발음이 다르지만, 字形(肖 ≒ 省)이 닮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9] 나아가 양주 대모산성은 임진강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중간 거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 유역을 지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양주 대모산성설에 대해서도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판 및 근거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진강과의 거리가 약 16~20km 정도나 되어 20만 대군이 진격하기란 너무 멀고, 또한 감악산의 험한 설마리 고갯길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임진강 도강은 호로고루강 또는 육계토성 방면이나 당포성이 있는 담개 나루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상기 지역은 북안 호로고루성과 육계토성, 칠중성 등 신라군의 방어용 군사 시설인 차단성이 있어 이 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어렵다.

---

6) 『三國史記』卷35 「雜志」4 地理2 新羅 來蘇郡. "來蘇郡 本高句麗買省縣 景德王改名 今見州 領縣二 重城縣 本高句麗七重縣 景德王改名 今積城縣 波乎縣 本高句麗波害平吏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7) 『新增東國輿地勝覽』卷11, 「京畿」 楊州牧 建置沿革. "本高句麗買省郡一云昌化郡 新羅景德王改來蘇 高麗初陞見州 顯宗九年屬楊州."

8) 『東史綱目』第4下 「乙亥」. "買肖卽買省郡今楊州."

9) '省'과 '肖'는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수로 '肖'가 '省'으로 잘못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박성현은 이러한 견해에 덧붙여 경덕왕 때 買省郡을 來蘇郡으로 고쳤다는 점을 유의해보면 買肖城의 '肖(소)' 대신에 '소생'의 뜻이 있는 '蘇'를 취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한 뒤, 음상사에 의한 지명 비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지명들은 대체로 지리지의 군현명과 대응 관계를 통해 그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객관적이며 신뢰도가 있다고 하였다(박성현, 앞의 논문, 2012, 118쪽 : 앞의 책, 2013, 43~44쪽). 즉, 매성군은 매소군과 같은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셋째, 양주 대모산성까지 오는 도중에 주변에 칠중성, 수철성, 아미성(노고산성), 육계토성, 북안 호로고루성, 마전리 당성, 은대리토성, 도라산 보루성과 같은 신라의 차단성이 있어 이를 돌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唐將 李謹行은 본 지역에서 전투경력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백전노장으로서 이와 같은 위험한 지역을 택했을 가능성이 적다.

다섯째, 원술랑이 매소천성에서 싸웠다고 하는데 양주 대모산성 부근에는 이와 같은 강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명 유추만을 전거로 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10]

이상의 지적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막을 수 있는 감악산의 험한 설마리 고갯길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양주에서 임진강까지의 거리가 약 16~20km 정도가 된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 또한 양주까지 오는 도중에 주변에 여러 요새 때문에 차단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매소성의 위치 비정은 현재 연천 대전리산성설과 양주 대모산성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11] 그렇지만 『冊府元龜』 등 중국

---

10) 이상 안국승, 앞의 논문, 2006, 237쪽 정리. '양주산성'은 '양주 대모산성'으로 고쳐 인용하였음.

11) 연천 대전리산성설과 양주 대모산성설은 모두 『三國史記』에 기록된 買肖城과 買蘇川城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서로 다른 별개의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등장하였는데 전자를 양주 대모산성, 후자를 연천 대전리산성으로 비정한 경우도 있고(김병희, 「羅唐 戰爭期의 買肖城 戰鬪 硏究 - 位置 比定과 675年의 戰況 復原을 中心으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11, 3~30쪽 ;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軍史』91, 2014, 197~215쪽 ; 「羅唐戰爭의 終了 始點에 대한 再檢討 및 買肖城 戰役의 過程 硏究」, 『한국고대사탐구』 30, 2018, 231~233쪽) 전자를 水谷城(황해북도 新溪 또는 平山 이북), 후자를 買召忽(인천)로 비정한 경우도 있다(윤경진, 「買肖城 전투와 羅唐戰爭의 종결 - 『三國史記』 신라본기 675년 2월 기사의 분석」, 『史林』 60, 2017a, 166~174쪽 ; 「羅唐戰爭 終戰期 전황의 새로운 이해」, 『軍史』 104, 2017b,

기록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매소성 전투 이전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첫째, 675년 2월에 劉仁軌가 이끄는 당군이 여러 장벽을 제거하고 임진강의 여울을 넘어 칠중성을 장악하였다.

둘째, 같은 시기에 말갈군이 바다를 통해 배를 타고 남하하였다.

위 2가지 사실 가운데 지금까지 전자는 주목받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劉仁軌의 당군을 주력으로 보고 말갈군을 단순히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며, 『三國史記』에 말갈의 육로 활동에 대한 기록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12] 그렇다 하더라도 말갈 수군의 활동은 부정할 수 없다. 唐·靺鞨 군대가 한반도 진입에 있어 水陸竝進한 것이 확실하며, 칠중성을 장악한 劉仁軌의 당군과 상호유기적인 작전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진실을 규명하는 관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먼저 한·중 사서에 기록된 675년 2월 기사에 실린 劉仁軌와 李謹行의 남침 기록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대한 史實을

259~260쪽). 한편, 양주 대모산성과 연천 대전리산성 모두 매소성이거나 매소성 전투와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산성일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축성의 기법·주체·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양쪽 학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매소성이 전곡 부근의 한탄강 이북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심광주, 「楊州 大母山城의 築造方法과 築城時期」, 『양주대모산성(楊州大母山城)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자료 보고서』, 양주시, 2012 : 『楊州 大母山城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 「築城技法을 통해 본 大田里山城과 周邊 城郭의 歷史的 位相」, 『대전리산성, 매초성인가』, 연천군·경기문화재단, 2013, 55~63쪽 및 77·82쪽).

12) 『三國史記』 卷47, 「列傳」7, 素那를 보면 675년 봄에 阿達城이 靺鞨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 新羅本紀를 보면 아달성 전투의 기록이 675년 9월 29일 조에 있다. 칠중성·적목성 전투도 마찬가지다. 唐軍과의 싸움인 석현성 전투와 大小 18회 전투 역시 그러하다.

검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매소성과 함께 칠중성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675년 9월 泉城 전투의 패배 이후 매소성에서 물러난 말갈군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劉仁軌 唐軍과 靺鞨 水軍의 水陸竝進

일단 水陸竝進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宮崎市定(미야자키 이치사다)에 의하면 東晋의 북벌 영웅 劉裕는 보급 시 배와 말을 함께 이용하는 전술을 고안하였다고 한다. 원래 중국의 지형은 南船北馬로 불리는 것처럼 양자강 유역에는 수로가 많아서 배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삼았으며, 북방의 황하연안 평야에서는 말이 운송의 동력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劉裕는 강남의 전투에서는 배를 이용하면서 말로 보조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북방에서는 말을 이용하면서 배로 보조하여 중원의 장안과 낙양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宮崎市定(미야자키 이치사다)은 배의 경우 적재량이 많기 때문에 군수품을 운반할 때 말이나 馬車 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전쟁은 보급전'이라는 명제는 동서고금의 철칙이라고 하였다. 즉, 양식이 충분하고 손상된 무기를 즉각 보충할 수 있는 쪽이 승리한다는 것이다.[13] 羅唐戰爭도 예외가 아니다.

670년 3월에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 도합 2만이 압록강을 넘어 烏骨城까지 북상하였고, 4월에 이들과 당 휘하의 靺鞨軍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14] 같은 해 6월에는 唐에 저항하였던 고구려인들이 임진강을 건너 신라 영내로 들어왔다.[15] 다음 해인 671년에

13) 宮崎市定 著, 임중혁 · 박선희 譯, 『중국중세사』, 신서원, 1996, 162~163쪽.

14)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 10년 3월 및 4월 4일 조. "三月, 沙飡薛烏儒, 與高句麗太大兄高延武, 各率精兵一萬, 度鴨淥江至屋骨, □□□靺鞨兵先至皆敦壤, 待之. 夏四月四日, 對戰, 我兵大克之, 斬獲不可勝計. 唐兵繼至, 我兵退保白城."

당은 신라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였다.

A. 9월에 唐의 將軍 高侃 等이 蕃兵 4만을 거느리고 平壤에 도착하였다. 깊이 도랑을 파고 높이 보루를 쌓고서 帶方을 쳐들어왔다. 겨울 10월 6일에 唐의 漕船(수송선) 7十餘 척을 공격하여郎將 鉗耳大侯와 士卒 百餘 명을 사로잡았으며, 물에 빠져 죽은 者가 이루 셀 수 없었다. 級飡 當千의 功이 第一이라 沙飡의 관위[= 관등]를 주었다.[16]

사료 A에 따르면 671년 9월에 당의 고간 등이 蕃兵(= 靺鞨兵) 4만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들어와 요새를 건설한 다음, 지금의 황해도 지역으로 진격하였다. 그런데 海戰이 일어났다. 당의 장군 고간의 병력 4만을 먹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식량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간파한 신라는 당의 선박이 대동강[17] 또는 예성강[18]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671년 10월 6일에 곡물을 가득 실은 당나라의 수송선 70여 척이 나타났고, 매복하고 있던 신라의 수군이 이를 덮쳤다. 그 결과 당의 많은 배들이 격침

15)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년 6월 조.

16)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1년 9월 및 10월 6일 조. "九月, 唐將軍高侃等, 率蕃兵四萬到平壤. 深溝高壘, 侵帶方. 冬十月六日, 擊唐漕船七十餘艘, 捉郎將鉗耳大侯, 士卒百餘人, 其淪沒死者, 不可勝數. 級飡當千功第一, 授位沙飡."

17) 許重權, 「新羅 統一戰爭史의 軍事學的 硏究」,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5, 158~160쪽.

18) '侵帶方(帶方을 쳐들어왔다)'에서 예성강의 가능성을 제기해보았다. 또한 『三國遺事』 卷2, 「紀異」 2, 文虎(= 武)王 法敏 기사에는 '貞州'에서 사자가 달려와 보고하길 "당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우리(= 신라) 국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록(時有貞州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迴槧海上.")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주'는 현재 북한 개성특별시 개풍구역으로 서해에서 예성강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가리키므로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필자는 대동강 보다는 예성강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며, 나당전쟁 당시의 전황과 전선을 고려할 때 경기만 북부의 해안가부터는 당의 수군을 정탐하는 신라의 첩보원들이 도처에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되었고, 수많은 唐人들이 익사하였다. 식량을 배달해줄 당의 수군이 격침되자 당군 4만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서 평양·황해도 방면에서의 羅唐戰爭은 10개월 동안 소강기에 접어든다.[19]

사료 A의 전투는 羅唐戰爭期에 한반도로 진격한 당의 군대가 바다로 보급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강들은 대체로 동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고, 西海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 당의 군대가 만조 때 보급선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계지점에서 동쪽 내륙으로 들어가 작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보급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당전쟁을 바라보는 필자의 기본 안목이며, 675년의 전투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75년 2월의 기록을 확인해보겠다. 이때 당의 재상이자 장군인 劉仁軌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쳐들어왔다. 해당 기록들을 비교 검토해보자. 먼저 『冊府元龜』를 보고자 한다.

B. 上元 2년 2월에 劉仁軌는 신라의 무리를 七重城에서 大破하였다. 또한 靺鞨兵과 함께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신라의 南境을 치니, 목을 베고 사로잡음이 매우 많았다. (劉)仁軌가 군사의 隊伍를 정돈하여 점검하고 돌아왔다. 조서를 내려 李謹行으로 安東鎮撫大使를 삼고 신라의 買肖城에 군대를 주둔시켜 經略의 前後로 세 번 싸웠는데, 신라가 모두 패하였다. 신라는 이에 사신을 보내 入朝해서 머리를 숙여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아울러 方物을 바치니 앞뒤로 서로 이어졌다.[20]

---

19) 서영교, 『羅唐戰爭史 硏究』, 아세아문화사, 2006, 182~188쪽.

20) 『冊府元龜』卷986, 外臣部31, 征討5. "上元二(門)年二月 劉仁軌大(火)破新羅之衆於七重城 又以靺鞨兵(闚幢/誅羈兵)浮海而南略(暮)新羅之南境 斬獲甚衆 仁軌勒兵而還 詔以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屯兵於新羅之買肖城 以經略之(容步)前後三戰新羅皆敗 新羅於是遣使(便)入朝伏罪並獻方物前後相屬." - 괄호 부분은 바로 앞의 밑줄 친 글자가 다른 판본에서 다른 글자인 경우 (단, 정자·속자는 한국식으로 통일)

사료 B에 따르면 劉仁軌가 신라군을 칠중성에서 대파하였다고 한다. 또한 말갈병이 바다를 통해 배를 타고 南略하여 신라의 南境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총사령관이었던 劉仁軌가 군대를 이끌고 귀국하자 말갈인 추장 李謹行이 安東鎮撫大使가 되어 新羅의 買肖城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같은 사실을 전하는『資治通鑑』의 기록을 보자.

> C. 2월에 劉仁軌는 신라의 무리들을 七重城에서 大破하였고, 또한 말갈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 신라의 南境을 치게 하니, 목을 베고 사로잡음이 매우 많았다. (劉)仁軌가 이끄는 군대가 돌아왔다. 조서를 내려 李謹行을 安東鎮撫大使로 삼아 신라의 買肖城에 주둔시켜 이를 經略하게 하였고, 세 번 싸워 모두 이겼다. 신라가 이에 사신을 보내 入貢하고 또 謝罪하였다.[21]

사료 C에 따르면 675년 2월에 劉仁軌가 신라군을 칠중성에서 대파하였고, 靺鞨을 시켜 바다를 통해 신라의 南境을 공격하여 많은 신라인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안동진무대사로 임명된 李謹行이 매소성에 주둔하여 신라를 經略하게 하였다고 한다. 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왔다고 하고 있다.

『資治通鑑』의 저자 司馬光은 바다로 이동한 말갈군이 신라의 南境을 공격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참획하였다고 記述하였다. 그는『冊府元龜』의 기록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劉仁軌의 칠중성 大破와 바다를 통한 말갈군의 움직임을 전혀 다른 별개의 작전으로 볼 수 있을까? 말갈 수군이 신라의 南境(남해안)을 공격한 것은 劉仁軌의 七重城 함락과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1)『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 上元 2年. "二月 劉仁軌大破新羅之衆於七重城 又使靺鞨浮海略新羅之南境 斬獲甚衆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屯新羅之買肖城以經略之 三戰皆捷 新羅乃遣使入貢且謝罪."

칠중성(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에서 주전선이 펼쳐졌고, 말갈 수군의 작전목표도 이 싸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는 『新唐書』의 기록을 보자.

D. 咸亨 5년에 … 조서를 보내 劉仁軌를 鷄林道大總管으로 삼고 衛尉卿 李弼과 右領軍大將軍 李謹行을 副(부총관)로 삼아 군사를 일으켜 끝까지 토벌하게 하였다. 上元 2년 2월에 (劉)仁軌는 七重城에서 그 무리를 깨뜨리고 靺鞨兵으로 바다를 건너 南境을 치게 하니, 목을 베고 사로잡음이 매우 많았다. 조서를 내려 李謹行을 安東鎭撫大使로 삼고 買肖城에 주둔시켜 세 번 싸웠는데, 오랑캐(신라)가 모두 달아났다. (金)法敏이 사신을 보내 入朝해서 謝罪하는데, 貢物의 광주리가 줄을 이었다.[22]

咸亨 5년은 674년이다. 사료 D에 따르면 이때 劉仁軌는 신라를 침공하는 雞林道大總管에 임명되었고, 衛尉卿 李弼과 右領軍大將軍 李謹行이 그의 부총관이 되었다. 그리고 上元 2년, 즉 675년의 2월에 劉仁軌가 이끄는 당나라 군대는 육로를 통해 임진강을 넘어 칠중성(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서 신라군을 격파하고 성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말갈군은 바다를 통해 이동하였다. D의 기록에서는 말갈군이 배를 타고 南境을 공격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신라의 北境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資治通鑑』의 저자 司馬光은 자료집의 성격이 강한 『冊府元龜』와 『舊唐書』를 대신하여 새로이 편찬된 『新唐書』의 기록을 보고 비교 검토한 후에 당군이 '新羅之南境'을 공격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新唐書』의 저본이 된 『冊府元龜』의 기록을 더 신빙성이

22) 『新唐書』 卷220, 列傳 145, 東夷, 新羅. "咸亨五年, … 詔劉仁軌爲鷄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 · 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窮討.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衆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衆 詔李謹行爲安東鎭撫大使屯買肖城 三戰虜皆北 法敏遣使入朝謝罪貢筐相望."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新唐書』의 저자도 『舊唐書』에 빠져 있는 靺鞨 水軍의 기록을 『冊府元龜』에서 찾아내 보충하는 과정에서 '南略新羅之南境'을 '略南境'으로 압축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상을 감안할 때 필자의 입장에서는 문구 자체 보다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新唐書』의 기록대로 唐이 南境(= 신라의 北境)을 공격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말갈 수군의 신라 南境 공격은 넓게 보면 경기만 일대의 장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칠중성 점령을 위해 임진강 수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화도와 김포 일대를 평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라의 수군 기지로 추정되는 黨項城의 위치(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구봉산으로 비정)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적어도 지금의 인천 앞바다 전 지역과 김포를 통과하는 한강 유역을 장악한 뒤에 말갈 수군의 임진강 진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舊唐書』 列傳의 劉仁軌 기록을 보도록 하겠다.

> E. 咸亨 … 5년에 (劉仁軌는) 雞林道大總管이 되어 동쪽으로 가서 新羅를 쳤는데, (劉)仁軌가 군대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瓠蘆河를 건너 北方의 요충지(大鎮) 七重城을 깨뜨렸다.[23]

사료 E의 기록을 보면 劉仁軌는 병력을 이끌고 瓠盧河(임진강)를 건너 신라 북방의 큰 진지인 칠중성을 함락시켰다. 그렇다면 그의 후임인 李謹行은 그와 함께 육로로 왔다고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갈이 배를 타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李謹行이 靺鞨 수군을 지휘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와 관련하여 丁若鏞의 견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3) 『舊唐書』 卷84, 「列傳」 34, 劉仁軌. "咸亨 … 五年, 為雞林道大總管, 東伐新羅. 仁軌率兵徑度瓠盧河, 破其北方大鎮七重城."

F. 上元 2년에 (劉)仁軌는 七重城[지금의 積城]에서 新羅兵을 깨뜨렸다. 또한 靺鞨兵과 함께 바다를 건너 南境[忠淸·全羅 지역]을 쳤다. 조서를 내려 李謹行을 安東鎭撫大使로 삼고 買肖城[지금의 仁川]에 주둔시켰다. 얼마 안 되어 모두 철수하여 돌아갔고, 百濟 故地는 모두 新羅로 편입되었다.[24]

사료 F의 기록에 의하면 정약용은 매소성의 위치를 바다와 접한 인천으로 보았다. 매소성이 인천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나, 정약용 역시 말갈 수군을 이근행이 지휘한 것으로 보았다고 여겨진다. 즉, 정약용은 말갈 수군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였던 것이다.

물론, 南境도 충청·전라 지역으로 볼 수 없다. 정약용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資治通鑑』의 찬자가 『新唐書』를 신뢰하지 않고 『冊府元龜』를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과 맥락이 같다. 당시 당군이 칠중성을 점령하여 그 주변의 지리적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말갈 수군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남겨진 기록이 후대의 해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칠중성과 매소성에 주둔하였던 당군과 차후에 해결해야 할 보급까지 감안하면, 말갈 수군이 작전을 벌였던 지역은 서해에서 가까운 임진강 南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25] 사료 B(『冊府

24) 丁若鏞, 「八道沿革總叙」下, 『我邦疆域考』其三, 與猶堂全書. "上元二年, 仁軌破新羅兵于七重城[今積城] 又以靺鞨兵浮海, 略南境[忠淸·全羅地] 詔以李謹行爲安東鎭撫大使, 屯買肖城[今仁川] 尋皆撤還, 百濟故地盡入新羅."

25) 필자는 작전을 지휘한 당의 장수가 營州都督府 소속 蕃兵을 지휘한 이근행이었던 만큼 말갈 수군의 주축은 營州에 있던 속말말갈 내지 백산말갈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서영교, 「羅唐戰爭期 唐邊方軍의 來襲과 李謹行」, 『東國史學』 42, 2006, 40·54쪽). 또한 이전에 신라의 포로가 되었다가 672년 9월에 송환된 당의 '王藝'는 직책이 '莢州司馬'인데(『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2년 9월) '莢州'는 山東반도의 당 수군기지가 위치하였던 곳이므로(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148쪽) 이들의 출항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이동 경로는 연안 항해를 통해 遼東반도 앞과 황해도 장산곶을 거쳐 경기만으로 이어지는 海路(강경구, 『신라의 북방 영토와 김유신』, 학연문화사, 2007, 302쪽)를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元龜』)의 기록을 연결시켜 고려해보면, 말갈 수군은 물이 불어날 때 강화도 북부 수로로 들어와 임진강으로 진입하면서 곳곳에 상륙한 뒤 신라군을 격파하여 강의 길을 여는 작전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6] 또한 말갈 수군이 칠중성으로 향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劉仁軌가 칠중성을 점령한 직후 황제로부터 귀국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7] 다음의 기록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G. 황상은 風眩이 심한 것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아 天后로 하여금 國政을 섭정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中書侍郎 · 同三品 郝處俊이 말하기를, "천자가 밖의 일을 처리하고 황후가 안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하늘의 道입니다. 옛날에 魏文帝가 명령을 내려서 비록 어린 주군이지만 황후가 조당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禍亂의 싹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폐하께서 어찌 高祖와 太宗의 천하를 자손에게 전해주지 않고, 天后에게 이를 맡기시려고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中書侍郎인 昌樂 사람 李義琰이 말하기를, "(郝)處俊의 말은 지극히 충성스러우니 폐하께서는 의당 이를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니, 황상이 마침내 중지하였다.[28]

사료 G에 따르면, 675년 3월에 唐 高宗이 건강 악화로 국정을 처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모든 국정을 則天武后에게 맡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이 고종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전후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정변을 수반하는

26)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 31, 征討5. "又以靺鞨兵(闞幢/誅羈兵)浮海而南略(暮)新羅之南境 斬獲甚衆." - 괄호 부분은 바로 앞의 밑줄 친 글자가 다른 판본에서 다른 글자인 경우 (단, 정자 · 속자는 한국식으로 통일)

27)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5. "仁軌勒兵而還."

28) 『資治通鑑』 卷202, 唐紀18, 高宗 上元 2年 3月. "上苦風眩甚, 議使天後攝知國政. 中書侍郎同三品郝處俊曰, 天子理外, 後理內, 天之道也. 昔魏文帝著令, 雖有幼主, 不許皇后臨朝, 所以杜禍亂之萌也. 陛下奈何以高祖 · 太宗之天下, 不傳之子孫而委之天後乎. 中書侍郎昌樂李義琰曰, 處俊之言至忠, 陛下宜聽之. 上乃止."

통치 권력의 변동에 대한 문제는 唐 高宗과 則天武后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당나라 군부의 최고 실력자인 劉仁軌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29]

따라서 劉仁軌의 본국 소환과 그를 대신한 李謹行의 安東鎮撫大使 임명을 위해서 황제의 詔書를 지참한 사신이 칠중성에 도착했을 개연성이 크다. 황제 詔書의 도착과 인수인계의 장소를 그 외의 다른 곳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漢人을 포함한 군대를 靺鞨人이 지휘하게 되었으므로, 황제의 권위가 부여된 공식적인 인수인계를 해야만 했을 것이다.

인수인계 직후 李謹行은 칠중성에서 당·말갈군을 이끌고 매소성으로 가서 주둔하였다. 사료 B(『冊府元龜』)를 다시 보면, 李謹行의 매소성 주둔을 전후하여 3차례의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30] 즉, 매소성을 차지하는데 신라와의 전투가 있었고, 점령 후에도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3. 靺鞨 水軍의 入江과 上陸地點 : 坡平 金坡里 城址

조선총독부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임진강 본류에서 수운이 가능한 지역은 120km인데, 3구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제1구역은 안협에서 전곡까지로, 수심은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보면 2~3m였다. 이 구역에는 40여 개의 여울이 있으며, 암초가 곳곳에 점재하기 때문에 수위가 높을 때에 곡물 50~70석을 운반하는 소형선이 통행하였다. 제2구역은 전곡에서 고랑포까지로, 수심은 2.5~4.5m

29) 曹凌, 「唐·新羅戰爭史 硏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9, 89~90쪽.
30)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 31, 征討 5. "以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屯兵於新羅之買肖城 … 前後三戰新羅皆敗."

였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유량이 많아지나 이 구역에서도 호로탄이나 술탄 등 여러 여울이 있어서 적재량은 최대 100석을 넘지 못하였다. 제1·2구역에는 많은 여울이 발달하여 통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여울의 일부 퇴적물을 파내는 이른바 '배골파기' 작업이 행해졌으며, 배골을 통하여 배를 견인하는 전문 종사자들이 있었고 배는 평저선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제3구역은 고랑포에서 하구까지로, 이면 수심은 대체로 5~7m였다. 조수의 영향권에 속하고 하폭이 상대적으로 넓을 뿐 아니라 하도의 경사도 완만하여 수위가 낮을 경우에도 소강이 용이하였다. 결빙기와 홍수기 이외에는 바다로 외양 항해를 할 수 있었고, 적재량이 최대 400석까지도 가능하였다고 한다.[31]

고랑포는 바다에서 들어오는 대형 선박들의 소강 종점일 뿐만 아니라 상류 쪽을 왕래하는 소형선들의 기항지 중에서도 핵심으로, 임진강 수운의 거점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서 칠중성은 멀지 않다. 그렇다면 말갈 수군이 고랑포에서 물자를 소형 배들로 옮겨 싣고, 七重城 앞까지 갔을까? 나아가 배를 소형으로 바꾸어 매번 옮겨 실어가면서 수많은 여울들을 넘어 전곡 부근까지 물자를 수송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언제나 수량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여울을 넘을 때마다 전문화된 현지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평화 시에는 가능하겠으나 전쟁 상태에서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10만 이상이 되는 병력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배가 들어와 직접 하역을 하지 못하는 장소는 곤란하다. 여기에서 칠중성과 거리가 먼 대전리산성을 이근행이 근거지로 삼았다는 연천 대전리

31) 이준선, 앞의 논문, 2005, 163~164쪽. 한탄강이 130km라는 긴 수역임에도 배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임진강과 합류하는 도감포에서 12킬로 떨어진 전곡까지 배가 올라갈 수 있었다.

산성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가 임진강·한탄강에서 가깝다고 하나 그곳은 서해 바다에서 임진강 하구를 통해 들어온 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장애가 적지 않아 수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말갈 수군의 상륙지점은 바다에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임진강 하구부터 고랑포 사이의 구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러 포구 가운데서도 그곳은 당군이 임진강 이남의 최대 거점인 칠중성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곳이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파주시 파평면에 위치한 牛浦에 주목하고 싶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자.

> H. 牛浦는 坡平山 밑에 있다. 물의 근원이 積城縣 경계에서 나와 臨津에 흘러든다. 서편 언덕 위에 궁궐(官闕) 遺地가 있는데 주춧돌과 섬돌이 아직도 남아있다.[32]

사료 H에 기록된 牛浦(金坡里 城址)는 현재 주소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 18인 장마루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흘러가는 눌노천(노리천)이 장마루를 지나 남쪽으로 바뀌어 임진강으로 흘러가면서 합치게 되는 지점, 즉 임진강과 눌노천(노리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牛浦(金坡里 城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전한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朝鮮總督府에 의해 편찬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의 31쪽에는 이곳 성벽의 길이가 약 66間, 높이는 2間이고 토축이 동서로 달리고 있으며, 그 남방의 경지 중에는 건물터의 초석이 남아있어 주변에 瓦片이 산포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에서 1977년에 간행한 『文化遺蹟總攬』 上卷의 221쪽에 의하면

3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京畿」, 坡州牧. "牛浦在坡平山下 源出積城縣界流入臨津 西岸上有官闕遺址 礎砌尙存."

후고구려의 궁예왕이 철원에서 피신하여 거주하면서 쌓은 土城이라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33]

또한 이곳에는 馳馬臺가 있었고, 이 城址는 평지성이며 호로고루성·당포성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임진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지류와 단애를 이룬 임진강변의 삼각형 땅 윗부분을 가로막은 성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외형은 비슷하나 실제 기능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호로고루성과 당포성은 건너기 쉬운 나루터 길목에 있어 건너오는 세력을 저지하거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지만, 이곳 金坡里 城地는 강폭이 넓을 뿐 아니라 눌노천(노리천)이 임진강과 만나는 지점 이외의 지역이 평평하여 강북에서 쉽게 건널 수 있는 지역이 많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金坡里 城址는 강북의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성으로 보기가 어렵다. 토성은 그 내부에 위치한 지배세력의 건물과 생활공간을 구획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34]

金坡里 城址를 강북에서 군대가 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볼 수 없고, 이곳에 馳馬臺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지역의 들은 매우 넓다. 금파리와 장파리 일대의 서에서 동으로 길쭉하게 뻗은 평야는 칠중성까지 연결되어 있다.[35] 나아가 과거에 金坡里城은 앞서 언급한 군사적인 측면과 함께 건물터 등으로 추정해보면 사찰 등이 건립되고 행정적인 치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임진강 남안의 주요교통로인 汶山川路와 雪馬川路의

33)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106~107쪽 ; 파주시,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큰기획, 1999, 316쪽 ;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Ⅰ -임진강-』Vol.2 문화유적(1), 경기출판사, 2001, 313쪽.

34)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4, 107쪽 및 111쪽.

35) 서영일은 금파리 성지가 비교적 넓은 평야 지역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서 일단 강을 건너온 적에게는 취약하기 때문에 내성벽과 외성벽을 동시에 축조하여 겹성의 구조를 가지고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배후에 축조된 산성과 연계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64쪽).

중앙부에 위치하여 두 길을 모두 연결하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평지성으로서 성내 가용면적이 충분히 확보되는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의 성내 평탄지에서는 삼국~조선시대에 걸쳐 토기·기와·자기류가 산재해 있으며, 건물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석과 면석들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다.[36]

바다에서 배를 통한 진입이 가능하고, 교통상의 지리적 이점과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는 입지조건 및 칠중성으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城址는 羅唐戰爭 당시 당군의 병력과 물자를 하역하는 장소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곳은 물자를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륙한 병력이 칠중성으로 이동할 때 배후기지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면 사료 D(『新唐書』)에서 675년 2월에 仁軌가 신라군을 칠중성에서 격파하고(破其衆於七重城), 말갈병으로 바다를 통해 南境을 공략하게 하니(以靺鞨兵浮海略南境), 참획한 신라군이 많았다(斬獲甚衆)고 하였던 바로 그 장소는 금파리와 장파리 일대의 평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 말갈군의 상륙을 예상한 신라가 이곳에서 저지하려 하면서 큰 전투가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군이 패배하면서 상륙을 저지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675년 2월에 임진강의 여울을 건너온 劉仁軌의 唐軍과 금파리에 상륙한 靺鞨軍이 칠중성을 포위하였던 것 같다. 워낙 막대한 병력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신라인들의 저항도 오래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칠중성은 함락되었고, 임진강 이남에서 당군의 일대 거점이 되어 버렸다. 이후 당·말갈군의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 劉仁軌는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그가 육로로 복귀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웅진도독부의 지휘관으로 있을 때는 선박을 이용하여 본국을 왕래한 경험이 있고 당시 당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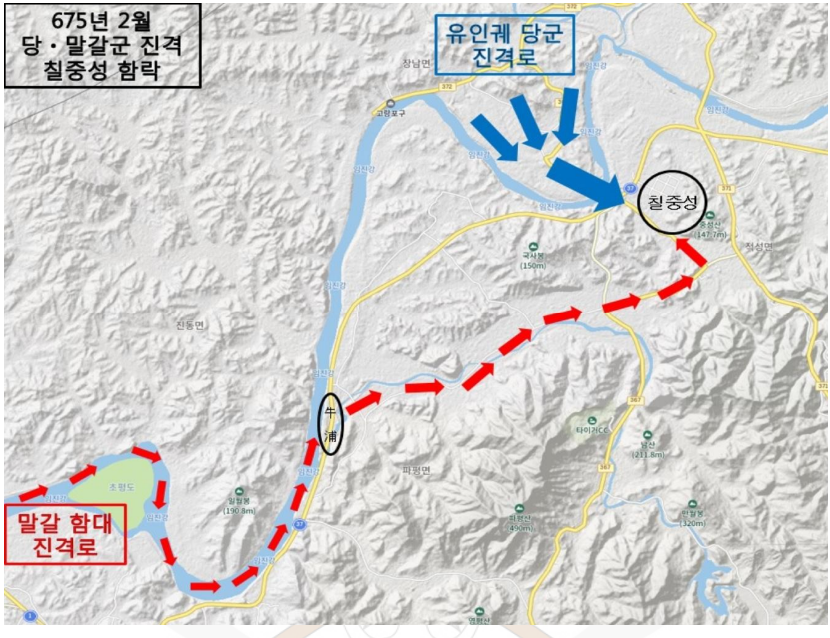
36)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12~336쪽.

상황까지 감안해보면 해로로 복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에 제시한 〈사진〉은 화면의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파리 일대가 대규모 함대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물자를 하역할 수 있는 장소의 최적지임을 알려준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논지를 정리해보면 〈지도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사진〉 하늘에서 본 임진강과 금파리 일대 (우측)

〈지도 1〉 675년 2월 유인궤 당군 및 말갈 함대의 칠중성 함락 당시 진격로



* 출처: 구글 지도 편집

4. 七重城을 根據地로 한 唐軍의 買肖城 掌握

칠중성은 신라의 북방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였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I.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의 七重城을 침범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놀라 동요하며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왕(= 선덕여왕)이 大將軍 閼川에게 命하여 (그들을) 안심시키고 (다시) 모여 살도록 하였다. 11월에 閼川이 고구려 군사와 七重城 밖에서 싸워 이겼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들이 매우 많았다.[37]

사료 I에 따르면, 638년(선덕여왕 7년) 10월에 고구려 군대가 칠중성 앞에 있는 여울을 건넜던 것 같다. 칠중성이 갑자기 침공을 당하자 백성들이 놀라 산골짜기로 들어갔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골짜기는 칠중성에서 양주로 넘어가는 설마리 溪谷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계곡은 칠중성의 백성들이 양주로 도주할 수 있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태는 閼川이 양주 방면에서 올라와 칠중성에 도착하면서 수습되었던 것 같다. 다음 달인 11월에 城民들을 결집시킨 신라 장군 閼川은 칠중성 바깥의 임진강 남안에서 고구려 군대와 싸웠다. 이 싸움에서 배후에 칠중성을 둔 신라군은 뒤에 강이 막고 있는 고구려 군대 보다 전략적으로 앞서 있었다.

城이란 농성의 장소로 한정해서 보면 안 된다. 城은 城의 바깥에서 유리한 싸움을 하도록 유도하는 배후기지의 역할을 한다. 싸우다가 지치면 성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면서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이에 성 안의 교대 인력이 성 밖으로 나가 싸운다. 다시 성 밖의 지친 병력이 들어오면 휴식을 취한 병력이 다시 나아가 싸우는 기지이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싸워야 장기전이 가능한 것이다. 閼川은 칠중성을 배후기지로 잘 활용하여 고구려 군대를 격파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후 660년에도 이곳 칠중성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다.

J. 匹夫는 沙梁 사람이며, 아버지는 尊臺 阿湌이다. 百濟·高句麗·靺鞨이 점점 친해지다가 아주 밀접한 사이가 되어 그들이 함께 신라 침탈을 도모하자, 太宗大王이 충성스럽고 용감한 인재로서 능히 적을 방어할 만한 사람을 구하여 匹夫를 七重城 아래의 현령으로 삼았다. 그 이듬해인 경신(660년) 가을 7월에 왕이 唐나

37)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5. 善德王 7년 10월 및 11월. "冬十月, 高句麗侵北邊七重城, 百姓驚擾入山谷. 王命大將軍閼川, 安集之. 十一月, 閼川與高句麗兵戰於七重城外, 克之, 殺虜甚衆."

라 군사와 함께 百濟를 격멸하였다. 이에 高句麗가 우리를 미워하여 겨울 10월에 군사를 동원하여 七重城을 포위하였므로, 匹夫가 이를 수비하면서 20여 일 동안 계속하여 싸웠다. 賊將은 우리 士卒들이 성의를 다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싸우는 것을 보고, 이들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곧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려 하였다. 이때 逆臣 大奈麻 比歃이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적에게 고하기를,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였으니 만약 이를 친다면 반드시 항복할 것이라고 알리는 바람에 적은 다시 공격해왔다. 匹夫가 이 사실을 알고 칼을 뽑아 比歃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지고 군사들에게 말했다. "충신과 의사는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는 것이니 힘써 노력하라! 이 城의 存亡이 이번 싸움에 달려 있다." 그가 주먹을 휘두르며 한바탕 호통을 치니 병든 자들도 모두 일어나 앞을 다투어 城에 올랐으나, 곧 사기가 사라져 사상자가 반이 넘었다. 그때 적이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고 성 안으로 공격해왔다. 匹夫는 上干 本宿 · 謀支 · 美齊 등과 함께 적을 향하여 활을 쏘았다. 그러나 빗발 같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온몸에 상처를 입어, 피가 발꿈치까지 흘러내리자 땅에 쓰러져 전사하였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프게 울며 그에게 급찬을 추증하였다.[38]

사료 J를 따르면, 659년에 匹夫는 칠중성의 성주로 임명되었다. 이듬해인 660년 7월에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10월에는 당나라 장군 蘇定方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에서 철수

38) 『三國史記』 卷47, 「列傳」 7, 匹夫. "匹夫, 沙梁人也, 父尊臺阿湌. 太宗大王以百濟 · 高句麗 · 靺鞨, 轉相親比, 爲脣齒, 同謀侵奪, 求忠勇材堪綏禦者, 以匹夫爲七重城下縣令. 其明年庚申秋七月, 王與唐師滅百濟. 於是, 高句麗疾我, 以冬十月, 發兵來圍七重城, 匹夫守且戰二十餘日. 賊將見我士卒盡誠, 鬪不內顧, 謂不可猝拔, 便欲引還. 逆臣大奈麻比歃密遣人告賊, 以城內食盡力窮, 若攻之必降, 賊遂復戰. 匹夫知之, 拔劍斬比歃首, 投之城外. 乃告軍士曰 '忠臣義士, 死且不屈, 勉哉努力! 城之存亡, 在此一戰.' 乃奮拳一呼, 病者皆起, 爭先登, 而士氣疲乏, 死傷過半. 賊乘風縱火, 攻城突入. 匹夫與上干本宿 · 謀支 · 美齊等, 向賊對射. 飛矢如雨, 支體穿破, 血流至踵, 乃仆而死. 大王聞之, 哭甚痛, 追贈級湌."

하자 백제 부흥운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라는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백제 지역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고구려가 신라의 七重城을 공격해왔다. 20여 일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배신자에 의해 城 안의 정보가 노출되어 七重城이 함락되었다.

七重城은 신라를 기준으로 볼 때 북방에서 내려오는 적을 막아내는 첫 관문이었다. 七重城이 함락된 후인 661년 5월에 고구려군은 말갈군과 함께 신라의 북한산성(= 아차산성 : 北漢山 명문 출토)을 공격하였다.[39] 고구려가 칠중성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三國史記』卷35,. 雜志4. 地理2를 보자.

> K. 來蘇郡은 본래 高句麗의 買省縣이었던 것을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見州이다. 거느리는 縣은 둘이다. 重城縣은 본래 고구려의 七重縣(= 七重城)이었던 것을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積城縣이다. 波平縣은 본래 高句麗의 波害平吏縣이었던 것을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40]

사료 K에 제시된 來蘇郡은 지금의 京畿道 楊州를 말한다. 七重縣(= 積城)은 來蘇郡의 領縣이다. 七重城이 남쪽으로 설마리 고개 너머에 위치한 楊州의 관할을 받았던 것이다. 교통이 좋지 않다면, 이러한 행정구획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신라 朔州의 긴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의 행정구획은 길의 방향에 맞추어져 있었다. 칠중성에서 양주로 들어가면 의정부를 거쳐 상계동과 중계동 그리고 하계동을 지나 아차산성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는 661년 5월 고구려군의 북한산성(= 아차산성) 침공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

39)『三國史記』卷5,「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8년 5월 9일 및『三國史記』卷43『三國史記』卷42,「列傳」2, 金庾信 中.

40)『三國史記』卷35,「雜志」4. 地理 2, 新羅, 來蘇郡. “來蘇郡, 本高句麗買省縣, 景德王改名. 今見州. 領縣二. 重城縣, 本高句麗七重縣, 景德王改名. 今積城縣. 波平縣, 本高句麗波害平吏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한편, 波平縣도 楊州(= 來蘇郡)의 領縣이다. 波平縣에 속한 금파리의 넓은 들판을 지나면 칠중성이 나오고 그곳에서 설마리를 지나 곧장 양주로 갈 수 있다. 이는 675년 2월에 말갈 수군이 임진강으로 들어와 파평현의 금파리 성지에 상륙하였다고 본 필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41]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칠중성을 중심으로 양주와 파평면 금파리는 교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음의 기록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L. 乾封 2年(667년)에 이르러 大摠管 英国公(= 李勣)이 요동을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漢城州에 갔으며, 그곳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국경에 집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라 군사가 단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기에, 먼저 3회에 걸쳐 정탐을 보내고 배를 잇달아 보내 唐나라 군사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결같이 '大軍(= 唐나라 군대)가 아직 平壤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선 고구려의 七重城을 공격하여 길을 열어 놓고, 大軍(= 唐나라 군대)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城이 거의 함락되려고 할 때, 英公의 사자(使人)인 江深이 와서 이르기를 '신라 군대가 반드시 城을 공격할 필요는 없으니, 平壤으로 조속히 군대를 파견하여 병기와 군량을 공급하라는 大摠管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명령으로 (군대를) 모아 행군하여 水谷城에 당도하자,

---

41) 서영일은 波平縣이 고구려의 波害平史縣으로 경덕왕이 파평으로 고쳐서 來蘇郡의 영현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보아(『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坡州牧 建置沿革) 현재 파주군 坡平面 일대에 해당되며 이곳의 고대 성지로는 金波里 城址가 주목되는데, 대부분 유실되어 파평현과의 관계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金波里 城址가 토성이었으며 대궐터로 불리고 있고, 이곳에서는 고려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파평현의 치소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주변에는 평야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이 지역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크기에 파평현의 치소로는 金波里 城址가 유력하다고 하였다(서영일, 앞의 책, 1999, 269쪽).

大軍(= 唐나라 군대)이 이미 회군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어 신라 군대도 그곳을 즉시 빠져 나왔습니다.[42]

사료 L(「答薛仁貴書」)에 따르면, 667년에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신라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나라 군대가 평양 부근에 도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다에 배를 띄워 3회에 걸친 탐문에 나섰다. 아마도 신라의 諜報船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정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무왕은 漢城州에 직접 가서 국경에 군대를 모우고 북진할 준비를 한 다음에, 북방에 집결한 군대를 움직였다. 즉, 漢城州에서 국경으로 간 다음에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칠중성을 함락시켜 길을 열어놓아야 했다. 그런데 정탐의 보고는 한결같이 '唐나라 군대가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신라군이 칠중성을 거의 함락시키려고 할 때 당의 장군 李勣(= 大摠管 英国公)이 보낸 사자인 江深이 와서 곧장 북상하라고 해서 水谷城(황해북도 新溪 또는 平山 이북)까지 북상했다가 당군이 회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상 사료 L에 나타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의 주력이 칠중성까지 북상해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다. 신라가 북상하기 위해서는 칠중성을 함락시켜 북쪽의 문을 열어야 한다.

둘째, 칠중성을 공격하여 성을 거의 함락시키려고 할 때 당의

---

42)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1년 7월 26일 答薛仁貴書. "至乾封二年, 聞大摠管英国公征遼, 某往漢城州, 遣兵集於界首. 新羅兵馬不可獨入, 先遣細作三度, 舩相次發遣, 覘候大軍. 細作迴來並云, '大軍未到平壤.' 且打高麗七重城, 開通道路, 佇待大軍來至. 其城垂垂欲破, 英公使人江深來云, '奉大摠管處分, 新羅兵馬不須打城, 早赴平壤, 即給兵粮遣, 令赴會.' 行至水谷城, 聞大軍已迴, 新羅兵馬, 遂即抽來."

장군 李勣(= 大總管 英国公)의 사신 江深이 와서 신라군의 북상을 독촉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의 서울 또는 서울 부근에 있었다고 여기지는 漢城州의 신라 병력이 칠중성으로 진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노정을 거쳐야 한다. '이성산성 → 아차산성 → 하계동 → 중계동 → 상계동 → 의정부 → 양주 → 칠중성'의 코스이다. 그리고 675년 이전에 鷄林道行軍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졌는데, 당사자 중 한명이었던 李謹行은 劉仁軌를 보좌하는 副將으로, 임진강 전선에서 경험이 축적된 상태였다.[43] 이미 이 시기에 唐은 임진강 수로와 칠중성 부근의 교통로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연천 대전리산성을 매소성으로 보는 학자들은 말갈군이 북쪽에서 육로로 왔다고 본다는 점이다. 또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전투를 수행한 말갈군과 칠중성을 함락시킨 劉仁軌의 唐軍을 별개의 작전으로 보았다. 아무래도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의 기록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싶다.

M. 말갈이 阿達城에 들어와 위협하고 노략질하자 城主 素那가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唐兵이 거란·말갈병과 함께 와서 七重城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小守 儒冬이 죽었다. 말갈이 또한 赤木城을 포위하여 滅하였다. 縣令 脫起가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을 막다가 힘이 다하여 모두 죽었다. 唐兵이 또한 石峴城을 포위하고 쳐서 빼앗았는데, 縣令 仙伯과 悉毛 등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또한 우리(신라) 군대가 唐兵과 크고 작은 18번의 전투에서 모두 그들을 이겼는데, 머리를 벤 것이 6천 4십 7級

43) 『冊府元龜』卷986, 外臣部31, 征討5. "咸亨 … 四年閏五月, 燕山道總管李謹行, 破高麗叛黨, 於瓠虜河之西, 高麗平壤餘衆, 遁入新羅. 五年二月, 遣太子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 爲雞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爲副, 發兵以討新羅."

이었고 戰馬 2백 필을 얻었다.[44]

사료 M의 기록은 675년 9월 29일 매소성에서 당·말갈군이 물러난 직후의 전투 기록이다. 대체로 철수하던 말갈군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전투가 벌어진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석현성을 제외한 다른 성들은 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아달성과 적목성은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성들이고, 칠중성은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다. 그렇다면 매소성에서 물러난 당·말갈군이 강원도 북부로 흩어지면서 전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데, 연천 대전리산성설을 주장하였던 학자들은 이러한 점에 많은 시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후퇴한 강원도 북부 방면에서 역시 말갈군이 들어왔고, 그렇다면 추가령 구조곡을 이용하여 연천의 대전리 일대에 와서 진을 치고 이들이 주둔하였던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아달성 전투의 시기(675년 봄)와 장소(강원도 북부)도 매소성의 위치 비정에 있어 연천 대전리산성설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아달성 공격의 주체는 말갈이었지만, 672년 2월 대부분의 말갈 병력은 서해를 통해 들어왔고, 매소성 주둔 병력도 말갈 이외에 漢人도 있었다. 따라서 아달성을 공격한 말갈은 전체 말갈 중 소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달성 전투의 시기가 675년 봄이면 일부 말갈이 강원도 북부 방면에서 남하한 것이고, 9월29일 이후라면 매소성에서 철수한 말갈의 일부일 것이다. 일부 말갈의 존재를 통해 매소성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675년 9월에 신라가 지키던 칠중성을 당·말갈·거란군이 공격하였다.[45] 이는 신라가 이전에 칠중성을 탈환하였다는 것을 말

44)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靺鞨入阿達城劫掠 城主素那逆戰 死之 唐兵與契丹靺鞨兵 來圍七重城 不克 小守儒多死之 靺鞨又圍赤木城 滅之 縣令脫起率百姓拒之 力竭俱死 唐兵又圍石峴城 拔之 縣令仙伯悉毛等力戰 死之 又我兵與唐兵 大小十八戰 皆勝之 斬首六千四十七級 得戰馬二百匹."

45)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29일.

해준다.[46] 신라의 칠중성 탈환은 당군의 패퇴를 상징하는 사건이며, 매소성 주둔 당 병력에게 타격을 준 것이 확실하다. 대전리산성이 매소성이라면 그곳에서 철수를 단행한 당의 병력이 거꾸로 남하하여 칠중성으로 진격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매소성이 대모산성[47]이거나 적어도 양주 내에 위치하였다면 당군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 현상을 이해하기 쉽다. 양주에서 동두천을 지나 연천·철원을 통해 얼마든지 강원도 북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주에서 설마리 고개를 넘어 칠중성을 포위한 가운데 임진강을 건너 북쪽으로 향하는 경로는 언제나 이용된 노정이다.

---

46)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팀은 이를 근거로 675년 2월에 칠중성이 劉仁軌가 이끄는 당군의 공격을 받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신라군은 이곳을 끝내 지켜냈다고 보았다(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4, 77쪽). 그러나 언급한 중국 측 기록들을 보면, 劉仁軌가 칠중성을 2월에 함락시킨 것이 확실하다. 여러 중국 기록의 저본이 되는 『冊府元龜』를 보면 劉仁軌가 咸亨 5年에 雞林大總管으로 東伐하여 新羅를 쳤는데, 仁軌가 兵을 이끌고 瓠蘆河를 건너 신라의 北方 大鎮인 七重城을 깨뜨려서 그 功으로 進爵하여 公이 되었다고 하였다(『冊府元龜』卷384, 將帥部, 褒異10. "劉仁軌 … 咸亨五年, 爲雞林大總管, 東伐新羅, 仁軌率兵, 徑渡瓠蘆河, 破其北方大鎮七重城, 以功進爵爲公.").

47) 2020년에 기호문화재연구원이 양주시의 양주 대모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실시한 10차 발굴조사에서는 규모와 상태가 양호한 集水地와 우물이 확인되었고, 삼국~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는 토기류·기와류·철기류·목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집수지에서 출토된 목부재에서는 낙죽기법으로 새겨진 글자가 확인되었는데, 동일한 방식의 명문은 경주 안압지 출토 목간 외에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주목된다는 연구가 최근에 제출되었다(여성민,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 현황과 성과 -10차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64, 2020, 259쪽 및 264~269쪽). 앞서 확인하였듯이 연천 대전리산성설은 '물'에 집착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지명 이외에도 대규모 병력의 식수 공급과 관련 있다고 보면 양주 대모산성설도 집수지와 우물의 확인으로 식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안압지 목간과 동일한 기법의 명문 목부재가 출토되었다는 점은 양주 대모산성이 매소성일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그러나 필자는 만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매소성이 지금의 양주는 확실하지만, 대모산성이 아닐 가능성은 열어두고자 한다. 양주 분지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주 대모산성의 경우 매소성이 아니라고 하면 매소성과 연계되어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임은 틀림없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칠중성을 먼저 점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칠중성 앞의 임진강에는 여울이 있어 강을 도하하는 것이 용이하고, 칠중성을 점령해서 근거지로 삼아야 설마리 고개를 통과하여 양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칠중성이라는 요새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험한 설마리 고개의 길목을 방어하는 것에 있었음이 확실하다. 설마리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남침의 대로가 열린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칠중성을 점령해야 한다. 칠중성을 차지한 이후 설마리 고개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더라도 선택에 따라 돌아오는 전략적 보상은 매우 크다.

군은 작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의 전략적 거점을 선점해야 한다. 위험한 설마리 고개를 넘어 양주로 들어가면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 한강으로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나타난다. 아차산성까지 진격하면 그곳에서 한강을 수운으로 이용하여 재보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이미 고구려가 한강을 병력 수송의 수로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N. 龍朔 元年(661년) 봄에 왕은 百濟의 잔적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여 伊湌 品日·蘇判 文王·大阿湌 良圖 등을 將軍으로 삼아 그들을 치게 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伊湌 欽純[欽春이라고도 함]·真欽·天存·蘇判 竹旨 등을 보내 우리 군사를 구원하게 하였다. 高句麗와 靺鞨은 新羅의 정예병이 모두 百濟에 출병하여 국내가 비었으므로, 신라를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군사를 출동시켜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격하여 北漢山城을 포위하였다. 高句麗는 성의 서쪽에 진을 치고 靺鞨은 성의 동쪽에 주둔하여 10일 동안 공격을 계속하자 성 안은 공포와 두려움에 싸였다. 그때 갑자기 큰 별이 적의 진지에 떨어지고 또한 뇌우와 함께 벼락이 쳤다. 그러자 적들은 당황하여 놀라 포위를 풀고 도주하였다. 처음에 庾信은 적이 성을 포위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말하였다. “사람의 힘은 이미 다하였으나 하늘의 도움

> 은 얻을 수 있다.” 그는 사찰로 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였는데, 마침 天變이 일어나자 모든 사람이 (庾信의) 至誠에 감동한 결과라고 말하였다.[48]

사료 N에 따르면, 661년 봄에 신라는 다시 백제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 이때 고구려는 신라의 정예병이 모두 백제 지역에 가 있어 북방의 방비가 비었으므로 신라를 공략하기가 쉽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660년 10월에 칠중성을 손에 넣은 고구려와 말갈은 이듬해 북한산성을 공격한 적이 있다. 물론 고구려·말갈군 가운데 하나는 칠중성에서 양주를 거쳐 의정부 그리고 상·중·하계동을 지나 북한산성에 진입하였을 것이다.

북한산성은 한강변에 위치한 아차산성으로 보인다. 최근에 아차산성에서 ‘北漢山’이라는 명문이 발견되었고, 무엇보다 사료 N의 밑줄 친 기록에서 보이듯이 고구려·말갈군 가운데 일부 혹은 상당수는 배를 타고 한강으로 들어온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고구려·말갈은 병력 이외에 군수물자도 함께 배에 싣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 군수물자는 수로를 이용하면 20배 이상 효율적이다.

앞서 살펴본 675년 2월의 기록들을 검토해보면, 당군은 말갈군과 함께 수륙병진을 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李謹行은 麟德 年間(664~665년)에 營州都督을 역임하였다. 또한 그와 함께 羅唐戰爭에 3번 종군한 高侃도 營州都督이었다.[49] 이들 소속의 병력들이 羅唐

---

48) 『三國史記』 卷42, 「列傳」 2, 金庾信 中. “龍朔元年春, 王謂百濟餘燼尚在, 不可不滅, 以伊湌品日·蘇判文王·大阿湌良圖等爲將軍, 伐之, 不克. 又遣伊湌欽純 一作欽春·真欽·天存·蘇判竹旨等, 濟師. 高句麗·靺鞨, 謂新羅銳兵, 皆在百濟, 內虛可擣, 發兵水陸並進, 圍北漢山城. 高句麗營其西, 靺鞨屯其東, 攻擊浹旬, 城中危懼. 忽有大星, 落於賊營, 又雷雨震擊, 賊等疑駭, 解圍而遁. 初庾信聞賊圍城曰, ‘人力旣竭, 陰助可資.’ 詣佛寺, 設壇祈禱. 會有天變, 皆謂至誠所感也.”

49) 『舊唐書』 卷199下, 列傳 149下, 北狄, 靺鞨. “貞觀初, 拜右衛將軍, 賜姓李氏. 尋卒. 子謹行, 偉貌, 武力絕人. 麟德中, 曆遷營州都督.”; 『新唐書』 卷3, 本紀3, 高宗, 乾封元年(666) 6月. “六月壬寅, 高麗泉男生請內附, 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為

戰爭에 주로 동원되었던 것이다. 679년 당시 영주도독부의 병력규모는 18만에 달했다.[50] 그렇다면 후술할 사료 R(『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29일)에서 李謹行 휘하의 병력을 20만이라 기록한 것을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51]

병력의 수가 많을수록 바다를 통한 보급의 의존도 또한 높아진다. 羅唐戰爭期에 당군도 서해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강의 한계지점, 즉 바다에서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계지점을 벗어나기는 힘들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연천 대전리산성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매소성에 주둔하였다는 '20만'의 병력을 먹이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675년 2월 劉仁軌의 칠중성 점령 그 자체가 설마리 고개를 넘어 '양주 → 의정부 → 서울'로 가기 위한 작전목표의 수립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양주 일대의 지형은 동쪽의 칠봉산(해발 506m)에서 천보산(해발 337m)으로 이어지는 천보산맥이 감싸고 있으며, 북한산에서 시작되는 산줄기가 동봉산(해발 717m)·사패산(해발 522m)·호명산(해발 399m)을 거처 남쪽으로 연결되고 있다. 서쪽은 호명산에서 북서쪽

遼東安撫大使, 率兵援之. 左金吾衛將軍龐同善, 營州都督高侃為遼東道行軍總管, 左武衛將軍薛仁貴, 左監門衛將軍李謹行為後援." ; 『資治通鑑』 卷201, 唐紀 17, 高宗 咸亨 元年 4月. "夏四月庚午, 高麗酋長劍牟岑反, 立高藏外孫安舜爲主. 以左監門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發兵討之, 安舜殺劍牟岑, 奔新羅." ; 『資治通鑑』卷 202, 唐紀 18, 高宗 咸亨 2年 7月. "七月乙未朔, 高侃破高麗餘衆於安市城." ; 『資治通鑑』 卷202, 唐紀18, 高宗 咸亨 3年 12月. "十二月, 高侃與高麗餘衆戰於白水山, 破之. 新羅遣兵救高麗, 侃擊破之."

50) 『舊唐書』 卷84, 列傳3 4, 裴行儉. "調露元年(679), 突厥阿史德溫傅反, 單於管內二十四州並叛應之, 衆數十萬. 單於都護蕭嗣業率兵討之, 反為所敗. 於是以行儉為定襄道行軍大總管, 率太僕少卿李思文, 營州都督周道務等部兵十八萬, 並西軍程務挺, 東軍李文暕等總三十餘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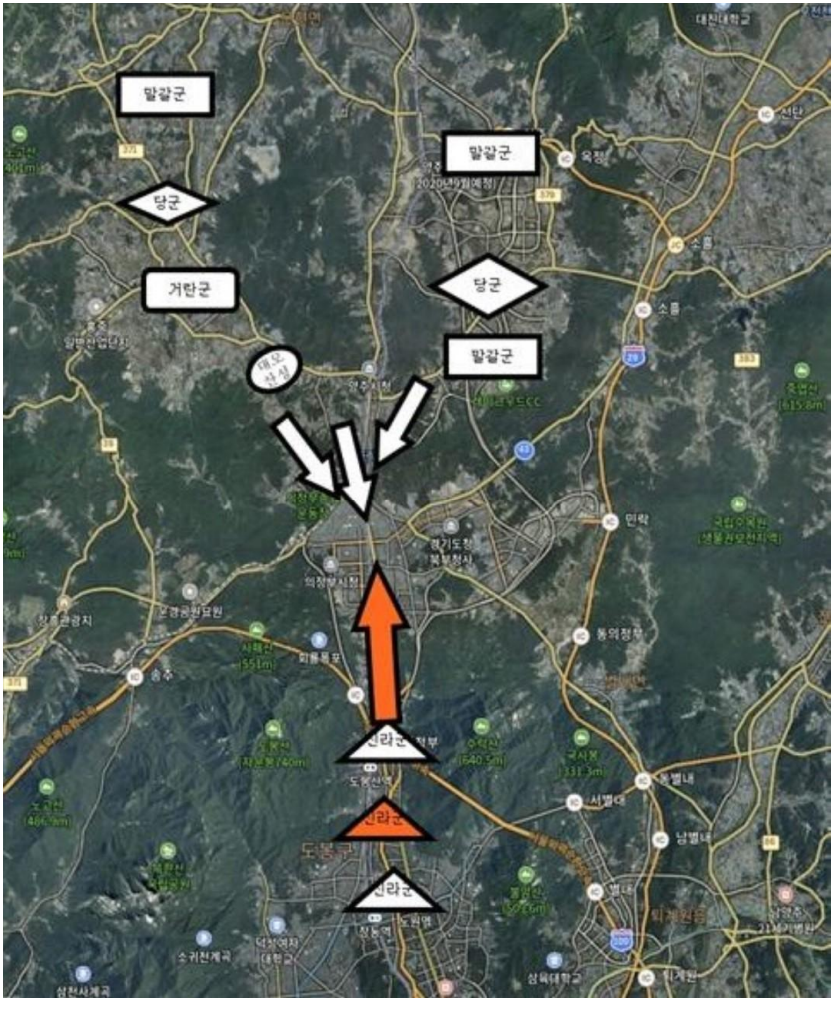
51) 영주도독에 소속되거나 제어를 받고 있는 변방군이 18만에 이른다는 것은 675년 매소성에 주둔하였던 이근행의 병력이 20만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또한 羅唐戰爭期 전 기간에 걸쳐 영주도독부 소속 말갈·거란군을 지휘한 장군은 속말말갈인 이근행이었다(서영교, 앞의 논문, 2006, 46·54쪽).

으로 은봉산(해발 399m)을 거쳐 북쪽으로 노아산(해발 367m)·노고산(해발 401m)·감악산(해발 675m)으로 이어진다. 양주시청 서쪽으로는 불곡산(해발 469m)·도락산(해발 441m)의 산줄기가 이어지는데, 이를 중심으로 양주 일대의 지형은 동서로 양분된다. 양주는 거대 분지로, 그 가운데에 불곡산과 도락산이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10만 이상의 병력과 3만 필 이상의 말이 충분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된다.[52] 결국 대모산성이 매소성인지의 여부를 떠나 연천보다는 양주가 매소성이 위치한 지역일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675년 2월에 당·말갈군은 양주 분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넓게 퍼져 있어 경기 북부 전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신라군은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의 좁은 지역에 진을 치고 의정부를 사이에 두면서 당·말갈군과 대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표시해보면 〈지도 2〉와 같다. 이때 양측 간에 전투가 있었지만, 당·말갈군이 남쪽으로 돌파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사료 상으로는 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기에, 고고학적 성과 등 추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는 추후의 과제로 일단 남기고자 한다.

52)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楊州市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25쪽 및 43쪽.

〈지도 2〉 675년 2월 이후부터 675년 9월까지 신라군과 당·말갈·거란군 대치도



* 출처 : 구글 지도 편집

5. 泉城 水戰의 勝利와 李謹行의 買肖城 抛棄

675년 2월에 전투가 발생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675년 9월에 泉城에서 전투가 일어났다. 泉城의 위치는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로 통일전망대가 있는 오도산성(또는 오두산성)으로 보인다.[53] 泉城 전투의 기록을 확인해보자.

> O. 가을 9월에 薛仁貴가 宿衛學生 風訓의 아버지 金眞珠가 본국에서 처형당한 것을 이용하여 風訓을 길잡이로 삼아 泉城을 쳐들어 왔다. 우리(신라)의 장군 文訓 등이 맞아 싸워 이겨서 1천4백 명의 목을 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으며, 설인귀가 포위를 풀고 도망감에 따라 戰馬 1천 필을 얻었다.[54]

사료 O을 통해 신라군이 唐軍 戰船 40척을 노획한 것으로 보아 泉城 앞에서 海戰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671년 9월에 당의 수송선 70여 척을 격침시켰다는 사료 A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라의 해군력은 보급의 비중이 커지는 가을에 집중되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三國史記』 都彌 列傳에 실린 '泉城島'라는 표현을 주목하게 한다.[55] 또한 당의 수군 구성을 알려주는 『三國史記』의 기사 역시 주목하게 된다.

---

5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통해 고증이 되어 있다. 서영교, 『羅唐戰爭史 硏究』, 아세아문화사, 2006, 227~233쪽.

54)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秋九月,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鄕導, 來攻泉城. 我將軍文訓等, 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55) 『三國史記』 卷48, 「列傳」 8, 都彌. 이 기록에 따르면 都彌가 백제의 漢城에서 배에 떠내려가 泉城島에 닿았고, 그 부인도 漢城에서 泉城島로 가서 도미를 만났다고 한다. 여기서 泉城이 漢城으로부터 수로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지금의 오도산성일 가능성이 높다.

P. 劉仁軌와 別帥 杜爽 및 夫餘隆은 水軍과 군량선(粮船)을 이끌고 熊津江에서 白江으로 와서 …[56]

Q. 水陸諸軍摠管并轉糧使 竇義積 · 獨孤卿雲 · 郭待封 등은 …[57]

사료 P에 따르면 '水軍及粮船', 즉 수군 및 군량선이라 하여 당 수군은 戰艦과 식량수송선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함이 식량수송선을 호위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사료 Q의 기록에서 水陸諸軍摠管과 곡물보급을 담당한 轉糧使라는 관직명이 보인다. 따라서 675년에 泉城으로 접근한 당의 수군도 보급선과 그것을 호위하는 전함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편, 신라 수군은 675년 9월에 泉城島에서 唐의 戰船을 노획하고 運糧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의 수군이 천성에서 패배하였을 때 매소성에 주둔하였던 이근행의 병력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R. 29일에 李謹行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買肖城에 주둔하였다. 我軍(신라군)이 공격하여 그들을 달아나게 해서 戰馬 3만 3백 8십 필을 얻었으며, 그 남겨놓은 兵仗器도 이에 이르렀다.[58]

사료 R은 675년 9월 29일의 매소성 전투에 대한 기사이다. 이를 따르면 천성에서 전함과 보급선으로 편성된 당의 수군이 패전하였다는 소식을 매소성 주둔 이근행 부대도 곧바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겨울에 보급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자 당 · 말갈 ·

56)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6, 義慈王, 唐 高宗 龍朔 2年(662) 7月. "劉仁軌及別帥杜爽 · 扶餘隆, 帥水軍及粮船, 自熊津江往白江, …"
57) 『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25년 12월. "水陸諸軍摠管并轉糧使竇義積 · 獨孤卿雲 · 郭待封等, …"
58)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29일.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匹, 其餘兵仗稱是."

거란군은 무력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군은 별다른 전투 없이 이들을 매소성에서 쫓아버렸으며, 당의 대군은 싸우지도 않고 말 30,380필과 엄청난 병기를 버리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59] 신라군이 전리품 획득 외에 당의 병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전사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이상한 감을 준다는 이호영의 지적[60]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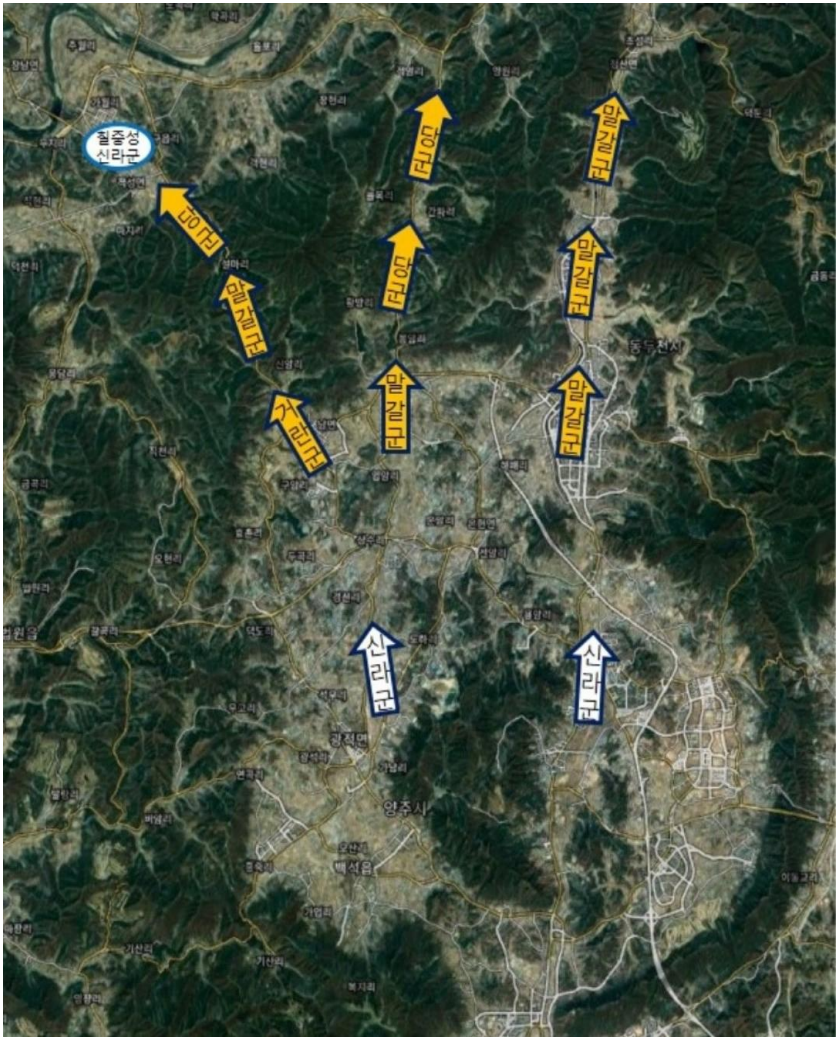
말을 버리고 당의 병력이 퇴각한 정황은 그들에게 보급이 두절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이다. 말도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후속 보급이 없다면 말은 기름이 떨어진 탱크나 마찬가지다. 『漢書』卷69, 趙充國傳을 보면 군마 1마리의 1개월 식량이 병사 1인의 1년 식량에 해당된다고 한다. 말 한마리가 병사 12명의 식량을 먹는다는 계산이다.[61] 사료 M에 보이는 내용, 즉 매소성에서 물러난 말갈군 일부가 약탈을 자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갈군이 적목성(강원도 회양)을 공격해 함락시킨 사건은 군사적인 거점 확보보다 '식량 확보'를 위한 약탈의 느낌이 강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근행이 이끈 당의 병력은 그 숫자가 10만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많은 군대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후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漢兵과 蕃兵[62]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병력 가운데 일부는 앞서 언급한 '동두천 → 연천 → 철원 → 회양' 방면으로 철수를 했고, 다른 일부는 양주시 봉암리 방면에서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를 거쳐 임진강을 도하하여 북상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 다른 일부는 설마리 고개를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

59) 서영교, 앞의 책. 2006. 236~237쪽.
60) 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硏究』, 書景文化社, 1999, 255쪽.
61) 서영교, 앞의 책. 2006. 237쪽.
62) 말갈의 경우 영주에서 동원된 부대와 전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附庸된 집단이 섞여 있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한쪽으로 후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약탈은 일부일 뿐 주된 병력은 신속한 철수에 더 주안점을 두고 이동하였을 것이다.

시한 3가지 길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지도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지도 3〉 675년 9월 29일 매소성 전투 당시 당·말갈·거란군 후퇴로 추정



* 출처: 구글 지도 편집

그렇다면 설마리 고개를 당·말갈·거란군이 넘고 있을 때 칠중성은 신라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즉, 泉城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칠중성을 지키던 당·말갈·거란군은 즉시 후퇴하였고, 곧바로 신라군이 비어있는 칠중성을 장악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泉城에서 병선 40척을 빼앗기는 등 상당한 병력 손실이 있었으므로, 일단 임진강 수로를 이용하여 퇴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병력 손실의 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발대로 퇴각한 당·말갈·거란군 중 일부가 후방에서 북상하는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 칠중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단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이 사료 M의 칠중성 전투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당·말갈·거란군이 철수하였던 3가지 길 가운데 '양주 ~ 적성' 구간이 main route, 즉 가장 주된 노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맺음말

이상으로 한·중 사서에 기록된 675년의 나당전쟁 기사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칠중성 전투 직전 당·말갈군의 수륙병진 및 상륙지점에 대해 확인하고 칠중성의 전략적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매소성의 위치 비정 및 매소성 전투의 전개과정을 추정하면서 당의 퇴각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맺음말은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매소성의 위치 비정은 크게 연천 대전리산성설과 양주 대모산성설로 압축된다. 최근에는 어원과 음상사 및 지리적 이점 등에 근거를 둔 연천설이 더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연천설은 어원과

음상사를 통한 분석에서 '買肖'·'買蘇川'을 고유어인 '內乙買'가 아닌 경덕왕 때 漢式으로 고친 이름 '沙川'과 비교하고 있으며, '沙川'이 '彌沙川'의 약칭이라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또한 신라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북쪽에서 여울을 넘어 접근하기와 후퇴가 용이하다는 지리적 이점도 문제가 있다. 당이 후퇴를 고려하는 수세적인 전략을 펴기 위해 연천 대전리에 주둔하였다는 것은 작전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양주 대모산성설은 성 주변의 공간이 광활하고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 買省郡의 통일신라 경덕왕 때 領縣이 重城縣(= 고구려 七重縣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과 波平縣(= 고구려 波害平吏縣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인 점, 買省郡은 買肖郡과 같은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고 있다. 양주설에 대해서는 임진강에서 너무 멀고 감악산의 험한 설마리 고갯길을 넘어야 한다는 점, 주변에 신라의 차단성이 있어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고 돌파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전투 경험이 풍부한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이러한 위험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 성 부근에 강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처럼 두 학설은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중국 기록과 정약용의 『我邦疆域考』는 675년 2월에 유인궤의 당군이 임진강을 넘어 신라군을 대파하고 칠중성을 장악하였으며, 말갈군이 바다를 통해 배를 타고 남하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당·말갈군은 수륙병진을 한 것이 확실하다. 이는 당군이 한반도에서 바다를 통한 보급에 의존하였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당군이 만조 때 보급선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계지점에서 동쪽 내륙으로 들어가는 작전을 구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보급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이 나당전쟁을 바라보는 필자의 기본 안목이기에, 유인궤의 칠중성

신라군 대파와 바다를 통한 말갈군의 움직임을 전혀 다른 별개의 작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당서』의 기록대로 당이 신라의 北境을 공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말갈 수군의 최종 상륙지점은 칠중성에서 최대한 인접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칠중성과 거리가 먼 대전리산성을 이근행이 근거지로 삼았다는 연천설은 납득이 곤란하다. 연천을 흐르는 한탄강 유역은 수량이 적고 여울이 많아 수로 역할에 장애가 되어 바다에서 배가 들어와 직접 하역하는 것이 어렵고 반대로 바다로 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말갈 수군의 상륙지점은 바다에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임진강 하구에서 고량포 사이에서 찾아야 되는데 필자는 牛浦, 즉 금파리 성지를 주목하고 싶다. 이곳은 임진강과 눌노천(= 노리천) 사이에 위치해 있고, 주변 일대에 서에서 동으로 길쭉하게 뻗은 평야가 칠중성까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나당전쟁 당시 당군의 병력과 물자를 하역하고 보관하는 장소 및 칠중성 이동을 위한 배후기지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신당서』 신라전의 675년 2월 기사는 임진강의 여울을 건너온 유인궤의 당군과 금파리 성지에 상륙한 말갈군이 칠중성을 포위하였던 상황을 묘사한 것 같다.

한편, 연천 대전리산성설을 따르는 학자들은 말갈군이 북쪽에서 육로로 왔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전투를 수행한 말갈군과 칠중성을 함락시킨 유인궤의 당군은 별개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매소성 전투 기록 다음에 보이는 전투 기사에서 많은 시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매소성에서 물러난 말갈군이 들어올 때는 추가령 구조곡을 이용하여 연천 대전리 일대에 주둔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대전리산성이 매소성이라면 매소성에서 철수한 당의 이근행 병력이 왜 거꾸로 남하하여 칠중성으로 진격하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반면 매소성의 위치가 양주라면 이근행 부대의 철수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 현상들을 이해하기 쉽다. 퇴각로를 다각도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쪽에서 남침하는 군대가 칠중성을 먼저 점령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칠중성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험한 설마리 고갯길의 방어가 확실하며, 설마리 고개만 넘어 양주로 들어가면 한강으로 갈 수 있는 대로가 나타난다. 또한 아차산성까지 진군할 경우 수운을 이용하여 재보급을 받을 수 있기에, 설마리 고개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양주를 전략적 거점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당군은 675년 2월에 말갈군과 함께 수륙병진을 한 것이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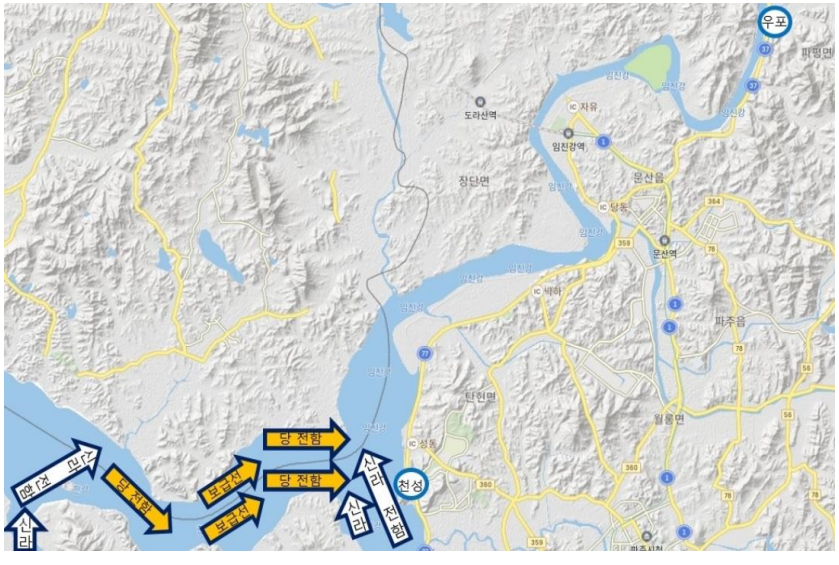
따라서 羅唐戰爭期에 당군이 서해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강의 한계지점, 즉 바다에서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을 벗어나긴 힘들다고 생각된다. 다만, 당의 이근행 부대가 매소성을 중심으로 하는 양주 분지에 주둔하자 신라군은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의 좁은 지역에 진을 치고 의정부를 사이에 둔 채 대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당의 병력은 더 이상 남쪽으로 돌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675년 9월에 천성 전투가 일어났다. 그런데 패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급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자 매소성에 주둔하였던 한병과 번병은 여지없이 무력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의 병력은 1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그 많은 군대가 한쪽 방향으로만 후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부는 '동두천 → 연천 → 철원 → 회양' 방면으로, 다른 일부는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방면에서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를 거쳐 임진강을 도하하여 북상한 것으로, 또 다른 일부는 설마리 고개를 넘어 철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성 전투 패배의 소식이 전해지자 칠중성을 지키던 당의 병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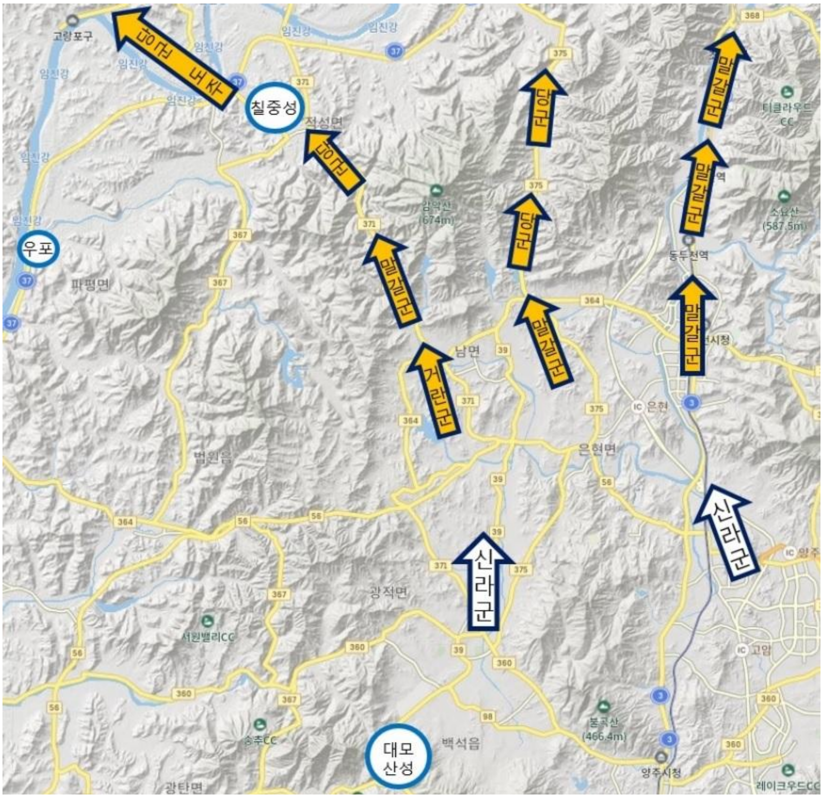
그대로 후퇴하였고, 이에 신라군이 비어있는 칠중성을 장악하자 매소성에서 철수한 당·말갈·거란군의 선발대 일부가 설마리 고개를 통해 북상하는 후발대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칠중성을 포위하여 공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의 퇴각로 중 가장 주된 길은 '양주 → 설마리 고개 → 칠중성 → 임진강' 구간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지도 4〉와 〈지도 5〉로 제시할 수 있다.

〈지도 4〉 675년 9월 천성 전투



* 출처: 구글 지도 편집

〈지도 5〉 675년 9월 매소성 전투



* 출처: 구글 지도 편집

(원고투고일 : 2020. 7. 2, 심사수정일 : 2021. 2. 16, 게재확정일 : 2021. 2. 24.)

주제어 : 나당전쟁, 칠중성, 매소성, 금파리 성지(城址), 말갈, 유인궤, 이근행, 보급

〈참고문헌〉

1. 사서

『東史綱目』,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册府元龜』

2. 단행본

강경구, 『신라의 북방 영토와 김유신』, 학연문화사, 2007.
http://uci.or.kr//G901:A-0006168232@N2M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Ⅰ -임진강-』 Vol.2 문화유적(1), 경기출판사, 2001.
宮崎市定 著, 임중혁 · 박선희 譯, 『중국중세사』, 신서원, 1996.
http://uci.or.kr//G701:B-00047915484@N2M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http://uci.or.kr//G701:C-00073917052@N2M
노혁진 · 박성현 · 심광주 · 최맹식 · 김길식 · 심재연, 『楊州 大母山城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http://uci.or.kr//G901:A-0006469430@N2M
文化財硏究所 · 翰林大學校博物館,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1990.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203345@N2M
社團法人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上, 1992.
http://uci.or.kr//G901:A-0008348524@N2M
서영교, 『羅唐戰爭史 硏究』, 아세아문화사, 2006.
http://uci.or.kr//G701:B-00108698063@N2M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http://uci.or.kr//G701:B-00093235608@N2M
徐仁漢, 『羅唐戰爭史』, 國防軍史硏究所, 1999.
http://uci.or.kr//G901:A-0005982950@N2M

손보기박사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孫寶基博士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 知識産業社, 1988.
http://uci.or.kr//G701:B-00047850205@N2M
양주시, 『양주대모산성(楊州大母山城)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자료 보고서』, 2012.
http://uci.or.kr//G901:A-0008176858@N2M
연천군 · 경기문화재단, 『대전리산성, 매초성인가』, 연천 대전리산성 학술회의, 2013.
連川郡誌編纂委員會, 『連川郡誌』, 1987.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5.
http://uci.or.kr//G901:A-0008464949@N2M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http://uci.or.kr//G901:A-0008458655@N2M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國譯篇), 乙酉文化社, 1977.
http://uci.or.kr//I410-ECN-0101-2010-911-002868843@N2M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http://uci.or.kr//G701:C-00079070450@N2M
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 · 濟敗亡原因硏究』, 書景文化社, 1997.
http://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47922578@N2M
파주시 & 한양대학교박물관 · 문화인류학과,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큰기획, 1999.
抱川郡誌編纂委員會, 『抱川郡誌』, 1984.
http://uci.or.kr//G701:B-00055353190@N2M

3. 논문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2019.9); 289-330,
https://doi.org/10.37331/JKAH.2019.09.95.289

권창혁, 「7세기 후반 新羅의 對唐戰爭과 북방정책」,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7.
http://uci.or.kr//G901:A-0008204401@N2M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2019.12); 333-371,
https://doi.org/10.35160/sjekh.2019.12.33.333

김병희, 「羅唐 戰爭期의 買肖城 戰鬪 硏究 - 位置 比定과 675年의 戰況 復原을 中心으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11.
http://uci.or.kr//G901:A-0005649591@N2M

_____, 「羅唐戰爭의 終了 始點에 대한 再檢討 및 買肖城 戰役의 過程
https://doi.org/10.35160/sjekh.2018.12.30.185

_____,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軍史』91(2014.6); 195-228,
http://uci.or.kr/G704-001528.2014..91.008

閔德植,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 買肖城(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史學硏究』40(1989.6); 145-198.

서영교, 「羅唐戰爭期 唐邊方軍의 來襲과 李謹行」, 『東國史學』 42(2006.12); 19-57,
http://uci.or.kr/I410-ECN-0102-2008-900-002530306

徐榮一, 「漢江以北의 城址와 新羅의 防禦體制 - 坡州 地域을 中心으로」, 『文化史學』10(1998.12); 75-93,
http://uci.or.kr/I410-ECN-0101-2009-910-016643338

安國承, 「買肖城 硏究」, 『경기향토사학』2(1997.12); 261-291.

安國承, 「買肖城의 位置 比定」, 『경기향토사학』11(2006.12); 213-263,
http://uci.or.kr//G901:A-0002294885@N2M

윤경진, 「羅唐戰爭 終戰期 전황의 새로운 이해」, 『軍史』 104(2017.9); 251-290,
https://doi.org/10.29212/mh.2017..104.251

윤경진,「買肖城 전투와 羅唐戰爭의 종결 –『三國史記』신라본기 675년 2월 기사의 분석」,『史林』60(2017.4); 155–193, https://doi.org/10.20457/SHA.60.6

이상훈,「나당전쟁의 개전 시점과 주체에 대한 재검토 – 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탐구』32(2019.8); 547–565, https://doi.org/10.35160/sjekh.2019.08.32.547

_____,「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의 買肖城 戰鬪」,『新羅文化』29(2007.2); 89–123,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2523661

李恩影,「買肖城 位置 比定과 戰鬪 硏究」,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5.

이준선,「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문화역사지리』16–3 (2004.12); 1–18, http://uci.or.kr/G704–001361.2004.16.3.002

_____,「칠중성과 고랑포의 역사지리적 고찰」,『애산학보』31(2005.12); 151–194.

曹 凌,「唐·新羅戰爭史 硏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9.

許重權,「新羅 統一戰爭史의 軍事學的 硏究」,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5. http://uci.or.kr//G701:B–00052469021@N2M

洪再善,「積城 七重城 調査略報」,『佛敎美術』7(1983.12); 13–31.

4. 신문 기사

『국방일보』, 2004.02.26. 강성문,「대전리산성」

『오마이뉴스(OhmyNews)』, 2006.07.17., 노시경,「중국을 몰아낸 힘 – 〈서울 경기 역사기행 21〉 양주 대모산성(大母山城)」,

『中央日報』 6면(文化), 1986.06.09. 崔根泳·閔德植·孫寶基 인터뷰, 李根成 기자,「〝羅·唐 격전지 買肖城<매소성>은 大田里산성〟」

(Abstract)

The battle of 'Chiljung' Fortress and 'Maeso' Fortress in the Period of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dynasty

Kim, Byung-hee ; Seo, Young-kyo

The battle of 'Maeso' Fortress has been paid attention in the study about during the Period of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dynasty in middle of 7th century. According to the Chinese records about the situation before the battle, it was mentioned that T'ang forces under the command of general Liu Rengui(劉仁軌) crossed the Limjin river, defeated the troops of Silla, and occupied the 'Chiljung' Fortress. Also it was recorded that the troops of Malgal which was one of the tribe of the North-Western region of T'ang, advanced southward by ships. In other words, T'ang and Malgal were not separated troops that operated independently in the context of strategy, but a allied forces that advanced along both sides sea and land. As in the『New Book of T'ang(新唐書)』,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ang attacked the northern boundary of Silla.

Therefore, it was so risky to carry out a operation under the condition of the limitation that Tang's supply ship could advanced too far to east. It meaned that they had to take risk of run out of supplies. So then, the final landing place had to be as possible as close in with the 'Chiljung' Fortress. As the result, the landing place of Malgal had to be the place that a ship could enter, and It should be somewhere between the mouth of Limjin river and Gorangpo. The author pays attention to U-po, also called the castle site of Geumpa-ri.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e place was the place to load and keep combat strength and supplies, and the rear base for advancing to the Chiljung-seong Fortress.

It is estimated that 'Maeso' Fortress was located in Yeoncheon or Yangju. If this fortress was located in Yeoncheon, it could be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 allied forces pulled out from the 'Maeso' Fortress and then marched to the 'Chiljung' Fortress in south. In other words, if the fortress was located in Yangju, it could be easy to understand the situations of battles that had happened while the allied forces was pulling out. Because it is possible to suppose the routes of retreat from various angles. This is the reason why the allied forces that advanced from north to south occupied the 'Chiljung' Fortress at first. A role of the 'Chiljung' Fortress is that it is easy to defend the uphill path of Seolma-ri that connected to a main road headed for Yangju and Han river.

Keywords :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The Chiljung-seong Fortress, The Maeso-seong Fortress, The castle site of Geumpa-ri, Malgal, Liu Rengui, Li Jinxing, suppl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97-137
https://doi.org/10.29212/mh.2021..118.9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위만조선-漢나라의 전쟁 양상*

조원진**

1. 머리말
2. 위만조선-漢나라 전쟁의 원인 및 시작
3. 초기전투 양상과 협상 결렬
4. 왕검성 전투와 위만조선 멸망
5.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위만조선과 漢나라의 전쟁 원인 및 전쟁 양상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한다.

위만조선과 漢나라의 전쟁에 대해서는 주로 위만조선의 흥망을 검토하면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으며[1] 역대 전쟁사의 일환으로

* 본 논문은 2020년 군사편찬연구소의 『군사사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020.12월부터 2021.1월까지 『軍史』誌 논문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임
**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연구되었다.[2] 최근에는 『史記』 朝鮮列傳에 대해 다른 이민족열전과의 비교를 통한 재검토[3]와 위만조선의 통사를 다루면서 이루어진 검토[4], 전쟁 당시 漢나라의 전쟁 전략 및 왕검성의 붕괴 시점 검토를 통해 왕검성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5]가 이루어졌다. 또한 漢代의 선박[6] 및 군사제도[7]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 특히 『史記』 朝鮮列傳의 전쟁 기사가 漢나라의 전쟁 결과 보고를 위한 공문서에 기초했다는 연구[8]는 사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

1) 이병도, 「衛氏朝鮮興亡考」,『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김정배, 「위만조선의 國家的 性格」,『사총』 21·22, 1977 ; 윤내현, 「위만조선의 재인식」,『史學志』19, 1985 ; 서영수, 「衛滿朝鮮의 形成過程과 國家的 性格」,『韓國古代史研究』9, 1996 ;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 전대준·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박경철, 「古朝鮮 對外關係 進展과 衛滿朝鮮」,『東北亞歷史論叢』 44, 2014 ; 박준형,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 조원진, 「위만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검토 -朝·漢 전쟁 이전을 중심으로-」,『白山學報』109, 2017.

2) 서인한, 『韓民族戰爭通史』1(고대편), 國防軍史研究所, 1994, 30~62쪽 ; 서인한,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51~75쪽 ; 서인한, 『한중군사관계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7, 3~26쪽 ;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집문당, 2001, 27~38쪽 ;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1(고대1), 육군본부, 2012, 71~92쪽 ; 陳梧桐·李德龍·劉曙光, 『中國軍事通史』 5(西漢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1998, 295~298쪽 ; 編寫組, 『中國歷代戰爭簡史』(修訂版), 解放軍出版社, 2006, 104쪽 ; 三軍大學, 『中國曆代戰爭史』第3冊(楚漢戰爭~東漢), 軍事譯文出版社, 2012, 206~210쪽.

3) 기수연, 「『사기』의 이민족 기재방식과 「조선열전」」,『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 지식산업사, 2005 ; 김병준,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韓國古代史研究』 50, 2008.

4) 김남중, 「위만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14, 165~171쪽 ; 苗威, 『衛氏朝鮮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9, 44~49쪽.

5) 조법종,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險城·樂浪郡의 位置」,『한국사연구』110, 2000a ; 조법종, 「위만조선의 대한 전쟁과 강한제후국의 성격」,『先史와 古代』 14, 2000b ; 박성용·남창희·이인숙, 「漢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험성 위치 고찰」,『국방연구』 58-2, 2015.

6) 席龍飛, 『中國造船史』, 湖北教育出版社, 1999, 70~100쪽 ; 王冠倬 編, 『中國古船圖譜』,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0, 53~78쪽.

7) 백기인, 『중국군사제도사』, 國防軍史研究所, 1998, 71~88쪽 ; 李德龍, 『漢初軍事史研究』, 民族出版社, 2001.

8) 김병준, 앞의 논문, 2008, 6~10쪽.

있다. 이처럼 위만조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전쟁의 원인이나 전반적인 전쟁의 양상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여전히 소홀한 면이 있었다.

『史記』 朝鮮列傳에 기록된 위만조선의 漢나라와의 전쟁 양상은 크게 ①전쟁원인(섭하의 파견과 교섭 실패 및 조선 비왕 살해) ②전쟁 반발(섭하의 요동 동부도위 임명과 위만조선의 공격) ③초기전쟁 ④교섭시도 및 실패 ⑤패수 방어선 붕괴와 왕검성 포위 ⑥조선의 내부분열과 우거왕 암살 ⑦成巳의 항쟁과 왕검성 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史記』朝鮮列傳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전해주지는 않고 주로 ①, ③, ④, ⑥의 정황만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위만조선이 초기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간 이유나 교섭 상황 및 패수 방어선이 무너진 이유 등 전쟁의 주요 양상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록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후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본다면 유추해볼 여지가 있다. 특히 전쟁 원인과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소홀하여 전쟁 원인과 초기 전쟁 양상 및 협상 결렬 이유 등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당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전쟁 양상에 대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史記』朝鮮列傳이며 이외에도『史記』,『漢書』의 관련 기사 및『史記』三家注 등의 문헌자료를 참고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철저히 漢나라 중심으로 쓰여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며『史記』南越列傳 등 다른 이민족열전의 기술 방식과 비교하면서 관련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위만조선-漢나라 전쟁의 원인 및 시작

가. 섭하의 파견과 조선 비왕 살해

전쟁 원인에 대한『史記』朝鮮列傳의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A-① 아들을 거쳐 孫子 右渠 때에 이르러 유인해 낸 漢나라 망명자 수가 대단히 많아졌고, 天子에게 入見치 않을 뿐만 아니라 眞番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天子에게 알현하려는 것도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A-② 元封 2년(B.C.109)에 漢나라는 使臣 涉何를 보내어 우거를 꾸짖고 회유하였으나, [右渠는] 끝내 [漢나라] 천자의 명을 받들려고 하지 않았다. 섭하가 돌아가면서 국경인 浿水에 이르러서 마부를 시켜 전송나온 조선의 裨王 長을 찔러 죽이고 바로 [패수를] 건너 요새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드디어 天子에게 "조선의 將帥를 죽였다"고 보고했다. 천자가 그 공을 기려 꾸짖지 않고 섭하를 遼東 東部都尉에 제수했다.[9]

A-①에서 보듯이 전쟁 원인에 대해『史記』朝鮮列傳은 위만조선이 漢나라 외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고 이어서 섭하를 살해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전쟁 원인을 조선에게서 찾았다. 이러한 인식은 후대에도 이어져『漢書』武帝紀에는 "조선왕이 요동 도위를 공격하여 살해하자 (…) 조선을 쳤다."[10]고 하였고,『通志』[11],『册府元龜』[12],『文獻通考』[13] 등에서도『史記』朝鮮列傳을

9)『史記』卷115 朝鮮列傳 第 55,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眾 國欲上書見天子 又擁 閼不通 元封二年 漢使涉何譙 諭 右渠 終不肯奉詔 何去至界上 臨浿水 使御 刺殺送何者 朝鮮裨王長 卽渡 馳入塞 遂歸報天子曰 殺朝鮮將 上爲其名美 卽不詰 拜何爲遼東東部都尉"

10)『漢書』卷6 武帝紀 第 6, "朝鮮王攻殺遼東都尉 乃募天下死罪擊朝鮮"

인용하여 전쟁 원인을 우거왕의 섭하 살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史記』 朝鮮列傳에서 전쟁 원인이 조선에 있었던 것처럼 기술된 것은 『史記』의 기술방식과 관련된다. 『史記』 朝鮮列傳은 양국 전쟁에 대한 기본 자료지만 이 내용은 전쟁을 도발하고 또 결과적으로 승리했던 漢人에 의해 작성된 전쟁 공적 보고서류에 근거해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위만조선의 전략 등 전쟁의 전말이 어떠했는지 기록된 것이 아니라 漢나라가 위만조선 침공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평가했는지가 적혀 있다.[14] 그러나 당시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漢나라 섭하의 위만조선 비왕 살해이며 나아가 국제정세에서 본다면 漢나라의 대외팽창과 흉노와의 전쟁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15] 하지만 漢나라가 '반란'을 판단하는 근거는 누가 먼저 침공했는지가 아니라 신하의 신분으로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에 거역했는지 여부일 뿐이었다. 따라서 위만조선에 전쟁을 도발한 漢나라에 가장 중요한 직접적 원인은 '반란'이어야 했고, 이를 억지로라도 찾으려했다.[16]

양국의 전쟁 원인은 위만조선의 지리적 위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만조선은 '方數千里'의 영토와 강력한 무력을 소유한 동북강국으로 북쪽으로는 흉노의 동쪽 영토와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요동 패수를 경계로 漢나라와 인접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위만조선은 흉노와 연계하여 漢나라를 동북 측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반대로 漢나라와 연계하여 흉노를 서북 측면에서 공략하고 있

---

11) 『通志』 卷194 四夷傳 第1 東夷 朝鮮, "朝鮮殺漢使者 即時誅滅(...)朝鮮怨何 發兵襲攻殺何 天子募罪人 擊朝鮮"
12) 『册府元龜』 卷982 外臣部 征討, "朝鮮怨何 發兵襲攻殺何 天子募罪人"
13) 『文獻通考』 卷324 四裔考1 朝鮮, "朝鮮怨 發兵襲攻殺之 漢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14) 김병준, 앞의 논문, 2008, 7쪽.
15) 조원진, 앞의 논문, 2017, 75~80쪽.
16) 김병준, 앞의 논문, 2008, 19~20쪽.

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위만조선은 漢나라와 흉노 간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양국 간의 전세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17]

이미 한문제 시기 장군 진무 등은 조선을 정벌하자고 주청한 바 있다.[18] 이에 문제는 흉노의 침입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전쟁보다는 화친을 맺어 변방을 안정시키자고 거절한다. 그러나 한무제 시기 漢나라는 흉노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원전 127년 위만조선 우거왕에게 반기를 든 예군남려가 투항하려 하자 漢나라는 그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려 하다 실패한 바 있다.[19]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미 이전부터 漢나라가 조선과의 전쟁을 원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무제시기에 바뀐 漢나라의 대외정책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무제는 즉위초인 기원전 138년 東甌가 閩越의 침입에 따라 구원을 요청하자 곧바로 군대를 파병하며 주변국의 정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어 한무제는 기원전 133년 선우를 마읍으로 유인하는데 비록 선우를 잡지는 못했으나 이제 漢나라가 적극적으로 흉노를 공격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무제는 창해군 설치를 시도했던 기원전 127~125년에는 흉노와 전쟁 중이라 위만조선을 압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漢나라는 흉노와의 대규모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주변국에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漢나라는 기원전 111년 남월을 멸망시켜 9군을 설치하고 이듬해에는 동월을 멸망시켰다.[20]

---

17) 이춘식, 『고대 중국의 패권전략과 주변국 조공화』,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29쪽.

18) 『史記』 卷25 律書 第3, "南越朝鮮 自全秦時內屬爲臣子 後且擁兵阻隘 選蠕觀望"

19) 『史記』 卷30 平準書 第8, "至今上卽位數歲(…)彭吳賈滅朝鮮 置滄海之郡 則燕齊之閒靡然發動"

20) 『漢書』 卷6 武帝紀 第6.

한무제는 흉노, 양월, 서남이와의 관계가 마무리되자 A-②에서 보듯이 기원전 109년 섭하를 파견하여 위만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다. 섭하의 파견과 전쟁의 시작은『史記』朝鮮列傳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다. 여기서 당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이유를 크게 3가지를 들고 있다. ① 유인해 낸 漢나라 망명자수가 대단히 많게 되었으며, ② 천자에게 입견하지 않고 ③ 진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에게 알현하고자 하는 것도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섭하가 구체적으로 우거왕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위의 3가지 범주 안에서 우거왕을 설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거왕은 끝내 천자의 명을 받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중 우거왕에게 천자에게 입견할 것을 요구했다면 이것은 위만조선의 복속을 요구한 것이므로 들어줄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漢나라인들을 유인해내는 것은 이들을 통해 인력, 인재, 기술 등을 확보하고 국제 정세 정보도 입수할 수 있는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주변 나라들이 漢나라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도 위만조선에 대한 정보를 漢나라가 입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21] 따라서 漢나라의 요구는 모두 위만조선 입장에서 쉽게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우거왕을 설득하지 못한 섭하는 당시 공을 세우지 못하고 한무제에게 돌아갈 경우 처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섭하는 어떻게든 공을 세워야했고 이에 돌아가면서 국경인 浿水에 이르러 마부를 시켜 전송나온 조선의 裨王 長을 찔러 죽이게 된다.

조선의 장수를 죽이고 돌아왔다는 섭하의 보고에 한무제는 섭하를 遼東 東部都尉에 제수하며 위만조선을 자극하게 된다. 결국 전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섭하가 조선 비왕을 살해한 것이다. 그리고 한무제가 섭하를 요동 동부도위로 삼은 것은 조선의 공격을 유도하여

21) 이춘식,『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238~248쪽.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漢나라의 도발에 대해 위만조선은 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요동 동부도위 공격으로 이어진다.

나. 위만조선의 요동 동부도위 공격

전쟁의 시작은 한무제가 조선 비왕을 살해한 섭하에게 遼東 東部都尉라는 관직을 내렸고 우거왕이 이를 공격하여 섭하를 살해하면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史記』朝鮮列傳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A-③ 이에 朝鮮은 何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기습공격해 何를 죽이니, 天子는 죄인을 모집하여 朝鮮을 치게 하였다.[22]

그런데 여기서 섭하가 임명된 요동 동부도위 치소는『漢書』地理志에 의하면 요동군 무차현에 있었으며 위치는 요령성 鳳城縣 鳳山鄉 劉家堡村 남쪽에서 발견된 대형 漢城으로 추정된다.[23] 위만조선 시기 漢나라 요동 동부도위의 기록은 섭하와 관련된 기사가 유일하다. 요동 동부도위는 양국의 국경선인 패수에서 가까운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요동 동부도위의 위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쟁 초기의 양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위만조선 시기 漢나라 요동군의 범위에 대해서는 양국의 국경선인 패수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패수의 위치에 대해 청천강설, 압록강설이 주로 주장되었으나 최근 패수=혼하설도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24]『前漢紀』[25]에는 고조선과 漢나라의 경계를 遼水로 기록하여

---

22)『史記』卷115 朝鮮列傳 第55, "朝鮮怨何 發兵襲攻殺何 天子募罪人擊朝鮮"
23) 孫進己 · 王綿厚 主編,『東北歷史地理(1)』,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292~293쪽.
24) 서영수,「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東洋學』29, 1999 ; 김남중,「衛滿朝鮮의 領域과 王儉城」,『韓國古代史硏究』22, 2001 ; 박준형,「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史學硏究』108, 2012 ; 오현수,「『회남자』기재

요수(소요수)를 국경으로 삼은 정황을 전해주며[26] 위만조선이 '方數千里'이며 주변 집단이 漢나라 천자에 입조를 막을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기록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漢書』 地理志에 의하면 요동군은 요동 서부도위, 요동 중부도위, 요동 동부도위 등 3개의 부도위를 두고 있었다. 이중 요동 서부도위는 무려현, 요동 중부도위는 후성현, 요동 동부도위는 무차현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위만조선 시기에 요동 동부도위는 서안평현이었으나 이후 방어가 용이한 무차현으로 옮겼다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27] 중국학계에서는 전국시대 燕나라가 청천강까지 진출하면서 燕·秦·漢 세력이 계속해서 요동전역에 요동군을 설치했다고 보고 있다.[28] 그러나 요동 동부도위 치소가 무차현인 것은 위만조선 멸망 이후에 기록된 『漢書』 地理志에서 확인되며 위만조선 시기에 요동군의 정확한 범위와 동부도위 치소 위치는 알 수 없다. 위만조선시기에도 요동 동부도위가 무차현이나 부근에 있다는 보는 것은 요동군의 범위가 위만조선 멸망 전후로 변화가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가능하다. 패수=압록강설의 입장에서는 요동 동부도위가 패수 서쪽의 당시 위만조선과 가까운 단동부근에 위치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혼하=패수설[29] 입장에서 본다면 당시 정황을

'갈석'과 '요수'를 통해 본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한국학』35-4, 2012 ; 조원진,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연구」,『史學硏究』129, 2018.

25) 『前漢紀』 孝武皇帝紀 卷第14, "漢興以爲其遠難守 故遼水爲塞"

26) 서영수,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44~48쪽.

27) 권오중,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역사학보』 168, 2000, 114쪽.

28) 孫進己·王綿厚 主編, 앞의 책, 1989 ; 劉子敏, 「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社會科學戰線』5, 1996, 132~139쪽.

29) 패수를 혼하로 본다면 요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서한전기에 조영된 한묘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위만조선으로 유인해낸 漢人이 많다는 기록이 주목하여 이른시기 한묘를 漢나라에서 위만조선으로 정착한 이주민이 조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강둔한묘에서 출토된 동한대의 백색토기와 서한초기의 타날문장경호 등은 산동반도의 동 시기 토기와 통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던

다르게 볼 수 있다.

『史記』 朝鮮列傳[30]은 燕나라가 진번·조선을 공략하여 鄣塞를 설치했고, 秦나라가 遼東外徼를 설치했으며, 漢나라는 秦나라 보다 후퇴하여 연나라가 설치했던 遼東故塞를 수리하여 浿水를 경계로 삼은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漢나라-遼東故塞-浿水-遼東外徼-古朝鮮'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확인된다.

『鹽鐵論』에는 燕나라 등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병합한 秦나라가 "沛水를 건너 조선을 멸망시켰다"[31]고 하여 양국의 국경선으로 沛水가 언급된다. 『史記』의 浿水와 『鹽鐵論』의 沛水는 동일한 강으로 볼 수 있다. 『漢書』 地理志를 보면 요동군 번한현조에는 沛水가[32], 낙랑군 패수현조에는 浿水가[33], 현도군 서개마현조에는 마자수와 염난수가[34] 언급된다. 여기서 沛水는 혼하로, 浿水는 청천강으로, 마자수와 염난수는 압록강과 혼강으로 각각 비정할 수 있다.[35] 따라서 고조선과 漢나라의 국경선인 浿水는 지금의 혼하로 문헌의 성립연대에 따라 표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조선의 후퇴로 패수의 명칭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서한 말기부터는 요동의 浿水를 고조선 중심지와 가까운 浿水와 구분하기 위해 沛水로 고쳐서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36]

많은 사람들의 출자가 산동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정인성, 「위만조선시기 요동반도 남부의 강둔한묘」,『북방지역 주요 고고 유적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동북아역사재단, 2020, 420쪽).

30) 『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浿水爲界 屬燕"

31) 『鹽鐵論』 卷8 誅秦第44, "秦旣幷天下東絶沛水並滅朝鮮"

32)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下 遼東郡, "番汗(沛水出塞外西南入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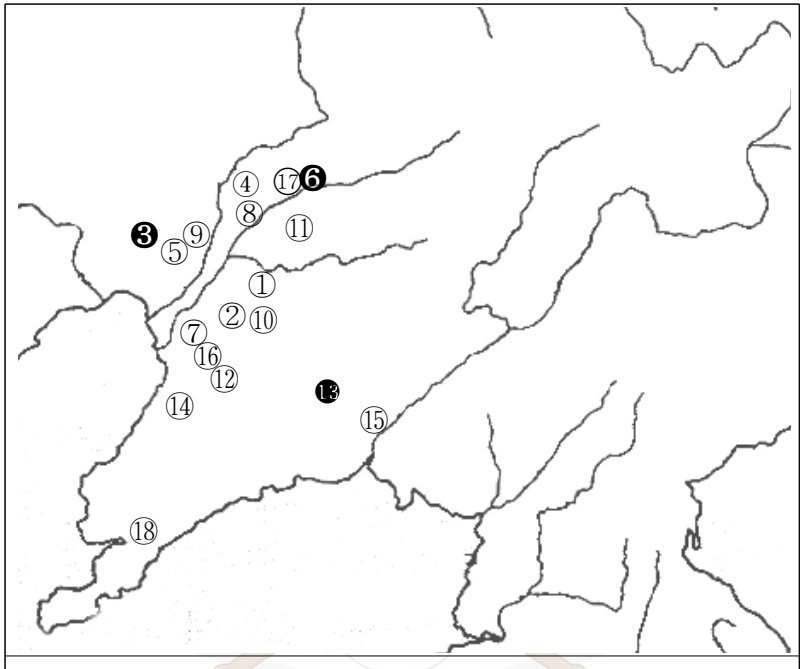
33)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下 樂浪郡, "浿水(水西至增地入海)"

34)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下 玄菟郡, "西蓋馬(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35) 박준형, 앞의 논문, 2012, 11~12쪽.

36) 서영수, 앞의 논문, 1996, 104쪽.

〈지도 1〉 서한의 요동군 속현 위치(王綿厚 · 李健才, 1990 수정)



①襄平縣 ②新昌縣 ❸無慮縣 ④望平縣 ⑤房縣 ❻候城縣 ⑦遼隊縣 ⑧遼陽縣 ⑨險瀆縣
⑩居就縣 ⑪高顯縣 ⑫安市縣 ⑬武次縣 ⑭平郭縣 ⑮西安平 ⑯文縣 ⑰番汗縣 ⑱沓氏縣
※ 각 부도위 번호는 검은색으로 표시함

패수를 혼하로 본다면 당시 무차현은 위만조선 영역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섭하가 요동 동부도위로 부임할 수 없는 곳이다. 반면 요동 서부 · 중부도위는 패수 서쪽에 위치하여 위만조선 당시에 2개의 부도위는 위만조선 영역 밖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요동군 중부도위의 치소인 후성현의 위치는 대체로 瀋陽 일대로 고증된다. 구체적으로는 戰國~漢代의 풍부한 유적이 발견된 심양 시내의 舊城址로 보거나[37] 혹은 심양시 東陵區 혼하 남쪽

37) 孫進己 · 王綿厚 主編, 앞의 책, 1989, 281~283쪽.

上伯官屯 漢城이나 심양 동남쪽 古城子로 보기도 한다.[38] 후성현은 혼하와 가까운 지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漢書』 地理志에 의하면 요서군에는 동부도위와 서부도위만 있는데 요동군에는 이보다 더 많은 3개의 부도위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전 위만조선시기에는 요동군도 2개의 부도위만 있었으나 위만조선 멸망후 부도위를 하나 더 설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동 서부도위와 요동 중부도위는 혼하 서쪽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면 이후 중부도위가 되는 후성현은 위만조선 시기에는 동부도위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만조선 멸망후 漢나라는 요동군을 재편하면서 종전의 동부도위였던 후성현을 중부도위로 삼고, 위만조선의 영역이었던 지역에 동부도위인 무차현 등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우거왕은 패수인 혼하를 건너 당시 요동 동부도위인 후성현을 공격하여 섭하를 처치한 것이다. 그리고 우거왕이 요동 동부도위를 공격하면서 이 지역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위만조선은 향후 전면적인 전쟁을 대비하여 패수 서쪽의 방어에 유리한 지역을 미리 선점한 것이다. 이 점은 이전 고조선과 중원국가와의 전쟁 기록에서 燕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할 때 "요동을 건너 조선을 쳤다."[39]고 하거나 秦나라가 "패수를 건너 조선을 멸망시켰다."[40]고 한 것과 대비된다. 이들 기사가 특정 강이나 지역을 건너 조선을 공격했다고 기록된 사례와 달리 위만조선과 漢나라의 전쟁 기사에 패수를 건너 조선을 쳤다는 기록이 없는 것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즉 위만조선은 이미 패수 서쪽 漢나라의 요동 동부도위 일부지역을 차지하면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던 것이다.

---

38) 王錦厚 · 李健才, 『東北古代交通』, 沈陽出版社, 1990, 39쪽 ; 권오중, 「요동군 중부도위와 고구려의 신성」,『고구려의 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5, 22쪽.

39) 『鹽鐵論』 卷8 伐功 第45,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 而攻朝鮮"
여기서 '요동'은 '요하'의 오류라고 보기도 한다(서영수, 앞의 논문, 2008, 33쪽).

40) 『鹽鐵論』 卷8 誅秦 第44, "秦既幷天下 東絶沛水 並滅朝鮮"

3. 초기전투 양상과 협상 결렬

가. 한 수륙군의 규모와 초기 전투

漢나라의 출병 및 초기 전투 양상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① 그 해 가을에, 樓船將軍 楊僕을 파견하여 齊지역으로부터 배를 타고 渤海를 건너게 했다. 군사 5만이다. 左將軍 荀彘는 요동을 나와 右渠를 토벌하게 하였다. 右渠는 군사를 일으켜 험준한 곳에서 대항하였다.

B-② 左將軍의 卒正인 多가 요동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출진하였으나, 싸움에 패하여 군사는 흩어지고 多도 도망하여 돌아오니 법에 따라 참형을 당하였다.

B-③ 樓船將軍은 齊나라 병사 7천인을 거느리고 먼저 王險에 이르렀는데, 右渠가 성을 지키고 있다가, 樓船의 군사가 적음을 엿보아 알고, 곧 城을 나와 樓船軍을 치니 樓船軍은 패해 흩어져 도망갔다. 將軍 楊僕은 그의 군사를 잃고 10여일을 산중에 숨어 있다가 점차 흩어진 병졸들을 다시 거두어 모았다.

B-④ 左將軍도 조선의 浿水 西軍을 쳤으나 깨뜨리고 나아갈 수가 없었다.[41]

B-①에서 보듯이 漢나라는 수군과 육군으로 이루어진 원정군을 편성하였다. 이것은 이전에 고조선과 燕나라 및 秦나라와의 전쟁이 육지에서만 이루어진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41) 『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其秋 遣樓船將軍楊僕從 齊浮渤海 兵五萬人 左將軍荀彘出遼東 討右渠 右渠發兵距險 左將軍卒正多率遼東兵先縱 敗散 多還走 坐法斬 樓船將軍將齊兵七千人先至王險 右渠城守 窺知樓船軍少 卽出城擊樓船 樓船軍敗散走 將軍楊僕失其眾 遁山中十餘日 稍求收散卒 復聚 左將軍擊朝鮮 浿水西軍未能破自前"

수군과 육군을 통해 한반도를 공격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여기서 수군과 육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B-① "遣樓船將軍楊僕從 齊浮渤海 兵五萬人 左將軍荀彘出遼東 討右渠"에서 '兵五萬人'을 앞쪽에서 끊어 읽어 좌장군의 군대를 5만 명이고 누선장군의 군대가 7천 명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누선장군 양복의 군대가 5만 명이었다."로 읽어 출발한 군대가 5만 명이었는데 7천 명만이 도착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42]

중국학계에서는 위만조선-漢나라 전쟁이 역대 전쟁사의 일부로 연구되고 있는데 『史記』 朝鮮列傳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언급하고 세심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위만조선의 영역을 압록강 이남으로 이해하면서 漢 수륙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누선군이 5만 명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순체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5~6만 명이었다고 추정한다.[43]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이 전쟁이 齊지역으로부터 발해를 건너 공격을 시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한다.[44] 한편 북한학계에서도 漢 수군이 5만 명이고 전체 漢兵은 10만 명이 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45]

수군이 본래 5만이었다는 견해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 양복이 거느린 군대가 7천이었는데 군대수가 적은 것을 우거왕이 알고 쉽게 격파하기 때문이다. 양복의 군대가 단독으로 왕검성을 공격하기 적은 군대수였다면 육군과 수군이 비슷하게 합류할 수 있도록 양 군대의 도착시간을 맞추는 것이 전략상 옳은 판단

---

42) 김병준, 앞의 논문, 2008, 26~28쪽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역주 중국 정사 동이전 1 : 사기 · 한서 · 후한서 · 삼국지』, 동북아역사재단, 2020, 24쪽.

43) 陳梧桐 · 李德龍 · 劉曙光, 앞의 책, 1998, 295~297쪽 ; 編寫組, 『中國歷代戰爭簡史(修訂版)』, 解放軍出版社, 2006, 104쪽 ; 三軍大學, 앞의 책, 2012, 208~210쪽.

44) 王子今, 「論楊仆擊朝鮮樓船軍 "從齊浮渤海"及相關問題」,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 2009, 1~6쪽 ; 苗威 · 李新, 「西漢海伐衛氏朝鮮考論」, 『海交史研究』 2, 2018, 104~106쪽.

45) 전대준 · 최인철, 앞의 책, 2010, 168쪽.

이었다. 특히 패수를 혼하로 볼 경우 육군은 패수 서쪽의 조선군을 격파하고 패수를 건너 요동을 돌파하며 다시 압록강을 건너 평양까지 진격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데 소수의 수군을 훨씬 먼저 도착하게 하여 우거왕의 공격을 받게 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와 비교해볼만한 자료는 漢나라의 남월 공략이다. 당시 漢나라 복파장군은 죄인들을 거느리고 오면서 많은 이탈자가 발생하여 누선장군을 만났을 때는 불과 천여 명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누선의 공격을 받은 반우의 성중 사람들은 모두 소수의 군사를 거느린 복파장군에게 항복하였다.[46] 하지만 이것은 당시 남월의 성안 사람들이 평소 복파 장군의 이름을 들었었고 날이 저물어 그의 군대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선의 공격으로 복파의 영채 안으로 몰리면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복의 군대가 본래는 단독 공격 수행이 가능한 규모의 군대였다면 당시 한나라의 군사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죄인들로 이루어진 부대라 왕검성에 도착할 때는 홀로 공격하기 어려운 7천의 군대만 남았고 이에 漢나라는 전략을 수정하여 양복에게 육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남월 정벌 때 10만의 군대를 동원했던 漢나라가 조선과의 전쟁에서 그 절반인 5만 7천의 군사를 동원했다는 의문도 해결된다. 즉 漢나라는 원래 수군과 육군 모두 약 5만정도로 총 10만의 군대를 편성하여 조선을 공격할 계획이었으나 수군 상당수가 이탈하면서 수륙군이 합류한 이후 왕검성을 공략하도록 전략을 바꾸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패수전투에서도 위만조선의 군대에 고전하면서 漢나라는 본래의 전략대로 전쟁을 이끌어가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

46) 『史記』 卷113 南越列傳.

漢나라 수군의 규모는 당시 노선과 후대 사례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산동반도에서 한반도로 향하는 항로는 크게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를 거쳐 황해도 혹은 평안도 연해에 이르는 서해 북부 연안 항로와 산동반도에서 직접 한반도로 향하는 서해 중부 횡단항로가 있다.[47]

서해 북부 연안항로는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이용되었다.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는 묘도열도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었다. 이것은 산동지역의 용산문화와 악석문화의 토기가 요동반도에서 발견되고 산동지역에도 요동지역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고인돌과 석관묘가 확인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48] 중국문헌에서 고조선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이 齊나라와 고조선의 문피교류가 서술된 『管子』인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원전 7세기 고조선과 齊나라의 문피교류는 산동반도에 거주했던 萊夷의 영향력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산동지역의 고인돌은 요동에서 산동지역으로 이주한 고조선계(예맥계) 주민 집단에 의해 건립되었고, 이들이 고조선과 齊나라의 교역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한다.[49] 이처럼 서해 북부 연안항로는 오래전부터 이용되었다.

따라서 산동지역에서 요동반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항로는 당시 漢나라가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루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항로는 요동반도와 압록강 연안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선군의 반격을 받을 수 있고 왕검성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산동반도에서 직접 한반도로 향하는 서해

---

47)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韓國海洋戰略硏究所, 2009, 196~199, 252~254쪽.

48) 蔡鳳書, 「古代山東文化と交流」,『東アジアと『半島空間』: 山東半島と遼東半島』, 思文閣出版, 2003,45~58쪽 ; 박준형, 「산동지역과 요동지역의 문화교류 -산동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선형동부를 중심으로-」,『한국상고사학보』79, 2013, 39~68쪽.

49) 박준형, 「古朝鮮의 海上交易路와 萊夷」,『북방사논총』 10, 2006, 179~191쪽.

중부 횡단항로의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양 지역 간의 최단거리는 180km 정도로 그 사이에 앞서 북부 연안항로와 달리 섬이 분포하지 않는다. 다만 황해남도 해안에서 20km도 채 떨어지지 않아 백령도가 있을뿐 시인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지문항법이 불가능한 구역이 중간 공해상에 있다. 이 횡단항로는 목적지 해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찾아가기가 어려운 항로이다. 때문에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양쪽 해안의 지형을 숙지하였을 때 비로소 왕래가 가능한 루트이다. 고조선 후기 혹은 한군현이 황해남도에 중심지에 자리잡은 이후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50] 또한 全羅北道 完州 上林里에서 26점의 중원식 동검이 출토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齊나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유물의 이동 경로를 산동반도에서 한반도 서해안으로 곧바로 횡단했다고 보기도 한다.[51] 다만 산동지역과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항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한 정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52] 만일 漢나라의 수군이 서해 중부 횡단항로를 통해 왕검성으로 곧바로 향했다고 한다면 B-①~③에서 보듯이 수군이 육군보다 이른 시기에 왕검성에 도착한 것과 齊지역에서 발해를 건너 곧바로 왕검성에 도착한 것처럼 기록된 내용과도 부합한다. 『新唐書』 地理志[53]에 실린 唐나라의 賈耽의 『道理記』에는 登州에서 한반도지역에 이르는 해상교통로가 기록되어 있다. 이 교통로는 등주에서 요동반도 남단을 거쳐 烏骨江(압록강 어귀)에 이르는 항로와 등주에서 산동반도 연안을 따라 동쪽 끝 秦王石橋(성산각)에 이르고 동쪽으로 곧바로 바다를 건너 麻田島 · 古寺島 · 得物島(인천 앞 덕전도)를 지나 得物島(경기도

50) 이청규,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경인문화사, 2016, 65쪽.
51) 이청규, 「동검을 통해 본 산동과 한반도 및 주변 지역간의 교류」,『중국 산동지역의 동이』, 역사공간, 2018, 235~269쪽.
52) 이청규, 앞의 책, 2016, 145쪽.
53) 『新唐書』 卷43下 志 第33下 地理 7下.

남양)에 도달하는 항로이다. 8세기에는 북부 연안항로뿐만 아니라 중부 횡단항로도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4] 하지만 이 기록은 위만조선 시대보다 훨씬 후대라는 한계가 있다. 서해 중부 횡단항로가 열린 것은 고구려가 요동반도 일대를 영역화하면서 백제가 기존의 서해 북부 연안 항로 이용이 어렵게 된 5세기 초 이후라고 보기도 한다.[55]

그렇다면 서해 중부 횡단항로를 통한 해상 공격에 대해 다른 사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원세력이 산동반도에서 직접 한반도지역으로 해로를 통해 공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1〉 중원세력의 수군을 통한 한반도 침입 사례

시 기	내 용	수군 규모 및 지휘관	결 과
598년 여름 6월	수문제의 고구려 평양 공격	주라후의 수군	태풍과 전염병으로 실패
612년 여름 6월	수양제의 고구려 평양 공격	내호아의 수군	고건무의 유인술에 패배
660년 가을 9월	당고종의 백제 사비성 공격	소정방의 13만 명	백제 정벌 성공
661년 여름 4월	당고종의 고구려 평양 공격	35軍을 수륙군으로 나누어 편성	평양성을 포위했으나 연개소문에게 패함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수·당시기에 해로를 통한 한반도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반에 수나라의 해로를 통한 고구려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다. 수문제 시기에는 바람을 만나 많은 배가 침몰되었고 육군도 양식이 떨어지고 유행병이 돌아 죽은 군사가 8, 9할이었다. 수양제의 공격때는 어디까지나 육군이 주력군이었으며 수군의 규모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구려의 청야전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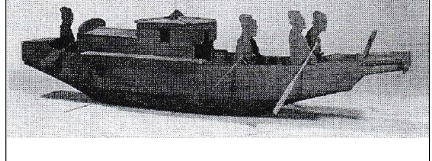
54) 정진술, 앞의 책, 2009, 240~245쪽.
55) 박순발, 「連雲港 封土石室墓의 歷史 性格」, 『百濟硏究』 57, 2013, 91~92쪽.

고구려 해군의 활약 덕분이기도 했다. 특히 요동지역은 고구려 수군이 활발히 활동하며 당군의 상륙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서해 북부 연안항로를 이용한 공격은 한계가 있었다. 唐나라는 안시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 서해 중부 횡단항로를 통해 고구려 정벌을 계획하게 된다. 결국 660년 백제 공략때는 13만 대군이 바다를 건너 사비성과 웅진성을 함락시켰다. 이듬해 唐나라는 다시 해로를 통해 고구려 평양성도 포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서해 횡단은 당태종대부터 큰 배를 건조하며[56] 오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漢나라도 이러한 준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漢나라는 한문제시기부터 위만조선 공략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기원전 128~125년에는 위만조선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했다가 폐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로를 통한 위만조선 공략을 위해 唐나라의 사례처럼 준비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漢나라는 위만조선을 침공할 때 죄수를 모아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육군과는 달리 수군은 단순히 죄수를 모아 보낼 수 있는게 아니라 바다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군사여야 가능하다.

〈그림 1〉 한대의 선박[57]

한대의 누선복원모형



서한의 목선 모형

56)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高句麗傳, "太宗又命江南造大船"
57) 周成 編, 『中國古代交通圖典』, 中國世界語出版社, 1995, 382, 384쪽.

한대가 되면서 항해 관련 장비가 크게 발전하는데 선체가 높아지고 큰 多種甲板이 등장하며, 橫隔倉技術을 이용하여 선체의 충격과 침몰을 예방하는 기술이 높아졌고, 각종 추진과 조종하는 설비(槳·櫓·舵·帆·錨)가 거의 완비되었다. 이러한 발달은 해상교류의 다양화와 해상항로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다.[58] 그리고 한대의 무덤에서는 배모양 제품이 출토되는데 대부분 중국 남중국해와 면한 광동성 광주지역에서 출토된다. 토제품으로 동한대의 사례가 10여점, 목제품으로서 서한대 것을 중심으로 10여점이 전한다. 대부분 연안항로 혹은 하천에 운항하던 실물 구조선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갑판 위에 선실을 시설하고 방향을 조정하는 데에 회전축을 이용한 操舵와 정박용 닻이 묘사된다.[59] 당시 漢나라의 수군이 이용하는 배는 樓船이었으며 이에 따라 수군을 지휘하는 장군도 누선장군이라 칭했다. 樓船은 이미 춘추후기에 吳나라에서 전투에 활용하였으며 이후 한대에 이르러 樓船이 수군의 주력이 되어 남월과 조선과의 전쟁에 활용되었다. 한대 누선군의 주요기지는 장강연안과 연해지역이었다.[60] 漢나라가 수군을 전투에 활용한 것은 남월과의 전쟁이 처음인데 당시 남월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강을 통하지 않으면 안되어 큰 배를 만들었다고 하며[61] 누선의 높이는 십여 丈이었다고 한다.[62] 남월과 조선을 공략할 때 동원한 누선의 수량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한대 누선군의 규모는 1,000척 정도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3] 이보다 약간 후대지만 동한시대인 기원후 42년에

58) 孫光圻, 「漢唐時期 中國과 韓半島의 海上航路」, 『百濟硏究』 57, 2013, 5쪽.
59) 이청규, 앞의 책, 2016, 242~246쪽.
60) 席龍飛, 앞의 책, 1999, 65~67쪽 ; 孫占民·程林, 「秦漢樓船考」, 『昆明學院學報』2, 2010, 72~74쪽.
61) 『史記』 卷113 南越列傳 第53 所引 『史記集解』, "應劭曰 時欲擊越 非水不至 故作大船"
62) 『史記』 卷30 平準書 第8, "是時越欲與漢用船戰逐 乃大修昆明池 列觀環之 治樓船高十餘丈"
63) 席龍飛, 앞의 책, 1999, 73쪽.

伏波將軍 馬援이 嶠南지역을 평정하면서 누선 2천여 척으로 2만여의 군사를 동원한 기록[64]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漢나라가 남월 공략때 다수의 배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바다로 가는 길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남월로 향하는 漢나라 군대는 내륙의 물길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65] 따라서 당시 漢나라가 바다를 통해 전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당시 漢나라가 익숙하지 않은 서해 중부 횡단 항로를 통해 위만조선을 공략하거나 5만이라는 대규모 군대를 수군으로 보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수군은 齊지역의 7천 명이 서해 북부 연안항로를 통해 왕검성으로 향하고 육군 5만 명은 요동으로 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해된다.

수군이 단독 공격이 불가능한 7천의 규모로 일찍 왕검성에 도착한 것은 먼저 육군이 패수전투에서 예상외로 고전한 사실과 함께 섭하가 부재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섭하는 이미 위만조선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왕검성의 위치 등 위만조선의 지리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전사하면서 수륙군의 진격속도와 거리 등을 계획하는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동으로 향하는 육군의 이동경로는 발해의 북부 요동만의 서북해안지대에 개척된 요서주랑을 이용했을 것이다. 요서주랑은 고대에 동북지역을 연결하는 유일의 육로 교통로이다. 주랑은 요동만에 인접한 해안지대로서 비교적 평탄한 편이지만 남북의 방향으로 뻗은 주랑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灤河·六股河·興城西河·大陵河 등 하천의 흐름으로 통행에 지장을 받았다. 주랑을 통과하면 요하하류 지역에 도착한다. 이곳은 '遼澤'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광활한 늪지대로 군대가 이동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었다.[66] 좌장군은 燕·代

64)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第14, "援將樓船大小二千餘艘 戰士二萬餘人"
65) 최병욱, 『사마천의 동아시아 - 초, 한, 남월, 조선』, 산인, 2018, 352쪽.
66) 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출판부, 2012, 26~28쪽.

지역에서 군대를 모아 요서주랑을 통해 요동군 無慮縣에 이르렀고 다시 요택을 지나고 요하를 건너 패수 서쪽의 위만조선군과 격돌했을 것이다.

육군의 경우 패수에서 크게 두 번의 전투가 있었다. 첫 번째는 多가 요동군 군대를 거느리고 먼저 출진하여 패수의 조선군과 싸운 것이다. 漢나라의 육군은 좌장군 순체가 이끄는 연·대지역의 본진과 多가 거느린 요동군 군대로 이루어졌다. 당시 본진은 연·대지역에서 요서주랑과 요택을 지나 요동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②에서 보듯이 위만조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요동군 군대를 거느린 多는 좌장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패수의 위만조선군을 공격하였다. 위만조선의 군대는 多의 군대를 격파하였고 이후 도착한 좌장군에 의해 多는 참형을 당하게 된다.

이어서 좌장군이 이끄는 육군 본진과 위만조선의 군대가 패수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B-④에서 보듯이 漢나라군은 위만조선의 패수서군을 쳤으나 깨뜨리고 전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 '패수서군'은 말그대로 패수 서쪽에 있는 군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위만조선이 패수를 건너 요동 중부도위를 공격하고 섭하를 죽이면서 패수 서쪽의 요동 중부도위 일부 지역을 차지한 것으로 이해된다.[67] 따라서 위만조선은 패수서쪽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초반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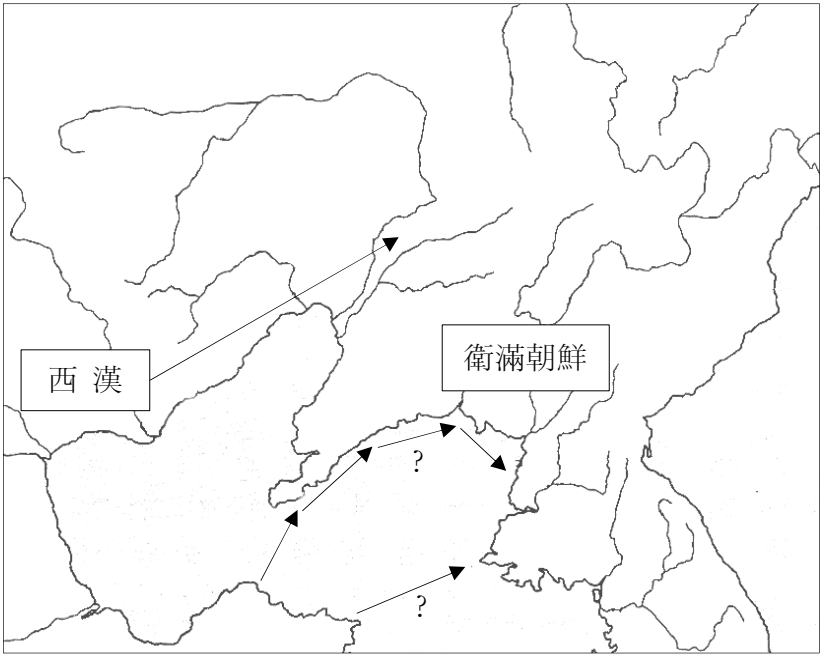
이처럼 漢나라 육군이 위만조선의 패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할때 양복의 수군은 먼저 왕검성에 도착한다. 그리고 계획대로 열구에서 좌장군을 기다리지 않고 왕검성으로 진격한다. 이것은 양복이 남월정벌 때 우세한 군대를 거느리고도 소수의 군대를 거느린 복파장군에게 공을 빼앗긴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67) 서인한, 앞의 책, 2007, 21쪽.

따라서 양복은 왕검성을 단독으로 공략하기에는 적은 규모였음에도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무리해서 왕검성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거왕은 漢 수군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고 성에서 나와 누선군을 공격했다. 결국 양복은 군사를 잃고 10여일을 산에 숨어 살다가 흩어진 병졸을 거둔다. 이처럼 초반 전투에서 위만조선은 왕검성전투와 패수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끌게 된다.

〈지도 2〉 漢나라의 위만조선 침공로



이에 한무제는 상황이 유리하지 않자 위산을 보내 협상을 추진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나. 협상 진행과 한무제의 친정

회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史記』朝鮮列傳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B-⑤ 천자는 양장군의 전세가 유리하지 않다고 여기고, 衛山으로 하여금 군사의 위엄을 갖추고 가서 우거를 달래게 하였다. 우거는 사자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항복하기를 원하였으나 양장군이 신을 속여서 죽일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信節을 보았으니 항복하기를 청합니다."하였다.

B-⑥ 태자를 보내 들어가 사죄하게 하고, 말 5천필을 바치면서 군량미를 내주었다. 무리 만여인이 무기를 지니고 막 패수를 건너려 할 때 使者와 좌장군은 그들이 변을 일으킬까 두려워 태자에게 말하기를, "이미 항복했으니 사람들에게 병기를 버리라고 명하시오."라고 하였다. 태자도 사자와 좌장군이 자기를 속이고 죽일까 의심하여 끝내 패수를 건너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버렸다. 위산이 돌아와 천자께 보고하니 천자는 위산을 주살하였다.

B-⑦ 좌장군이 패수 위의 군사를 격파하고 전진하여 [왕험]성 아래 이르러 서북쪽을 포위했다.[68]

협상을 추진하면서 파견된 위산은 증원부대를 이끌고 온 것으로 보인다. B-⑤를 보면 전세가 불리함을 본 한무제가 위산을 파견하여 군사의 위엄으로 우거를 달랜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위산이 대군을 이끌고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위만조선이 충분히

68)『史記』卷115 朝鮮列傳 第55, "天子爲兩將 未有利 乃使衛山因兵威往諭右渠 右渠見使者頓首謝 願 降 恐兩將詐殺臣 今見信節 請服降 遣太子入謝 獻馬五千匹 及饋 軍糧 人衆萬餘 持兵 方渡浿水 使者及左將軍疑其爲變 謂太子已服降 宜命 人毋持兵 太子亦疑使者左將軍詐殺之 遂不渡浿水 復引歸 山還報天子 天子誅山 左將軍破浿水上軍乃前 至城下 圍其西北"

한의 군대를 막고 있었는데 추가 병력없이 위만조선을 위협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69]

앞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군은 패수 서쪽을 차지하며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그런데 B-⑥에 의하면 양국의 국경은 다시 패수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협상을 위해 조선군이 스스로 패수 동쪽으로 물러갔거나 위산이 파견되어 새로운 지원군이 합류하면서 조선군이 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漢나라가 그대로 협상을 추진한 것은 이미 위만조선의 만만치 않은 국력을 확인했고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했던 의도가 담겨있던 것으로 보인다.

위만조선과 漢나라는 협상과정에서 우거왕의 직접 입견이 아닌 태자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漢나라는 말과 군량미를 원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漢나라는 흉노를 다시 정벌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말이 부족해서라고 언급할만큼[70] 흉노 정벌을 위해 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위만조선은 태자와 함께 5천필의 말을 제공하려 했다. 그런데 태자가 거느린 조선군 만여 명이 패수를 건너려 할 때 무장 해제를 요구한 한측과 입장이 엇갈리며 결국 태자는 돌아갔고 협상이 결렬된다.

이때 태자를 호위하는 군대 1만이 무장을 하고 漢나라의 도읍인 長安까지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만조선 측은 왜 무리하게 무장한 군대를 패수에 보냈을까. 여기서 당시 무제가 친정에 나섰다는 연구가 있어 주목할 수 있다.[71] 사료에 무제가 직접 친정에 나서거나 전선에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한무제의 당시 행적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한무제는 말년에 방술에 관심을 가져 동해에서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려 했으며 바다

69) 서인한, 앞의 책, 2007, 22쪽 ; 김남중, 앞의 논문, 2014, 166~167쪽.
70) 『史記』 卷111 衛將軍驃騎列傳, "竟不復擊匈奴者 以漢馬少"
71) 서영수, 앞의 논문, 1996, 109쪽.

에서 봉래를 찾으려했다. 위만조선을 공격하기 직전인 기원전 110~109년에 한무제는 태산에서 봉선 제사를 지내고 동쪽 바닷가를 계속 순행하였으며 요서군에서 북쪽 九原까지 다녀오기도 했다.[72] 즉 한무제는 바다를 건너 도달하는 조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과 가까운 지역을 자주 순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이 길어지자 한무제는 직접 패수에 가까운 지역까지 친정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위만조선 측에서는 1만의 군대를 통해 漢나라의 군대를 공격할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가까운 지역에 있을 한무제에게 무력시위를 통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무제가 친정했다면 1만의 군대가 무장을 하고 패수를 건너려 할 때 좌장군과 위산이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도 한무제의 안위를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마천은 한무제의 순시에 빠지지 않고 수행하였으며 한무제의 명으로 서남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西南夷列傳을 기록하기도 했다. 『史記』 朝鮮列傳에 양국의 협상 과정이 유독 생생하게 기록된 것도 한무제의 친정으로 사마천도 전선에 직접 가서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섭하가 비왕을 죽이고 돌아올 때 "즉시 패수를 건너 요새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卽渡馳入塞)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섭하가 말을 달려 급히 요새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번째는 비왕을 잃은 조선 병사들이 섭하의 뒤를 추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섭하가 급히 보고를 할 대상인 무제가 전선에 나가있을 가능성이다. 만약 후자라면 섭하는 반드시 공을 세우고 전선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무제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조선 비왕을 살해했을 것이다.

결국 양국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협상이 무산된 것은 한무제의

72) 『史記』 卷12 孝武本紀 ; 『漢書』 卷6 武帝紀 第6,

친정이 중요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협상이 무산된 이후 전세는 조선군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B-⑦에 의하면 좌장군이 마침내 패수 위의 위만조선 군사를 격파한 것이다. 협상 결렬 후에 패수방어선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는 漢나라가 방비가 허술한 패수 상류를 건너 조선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나[73] 그해 겨울에 이르러 강이 얼어붙자 漢軍이 비교적 쉽게 패수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74] 하지만 위산의 추가 군대가 합류하였고 협상 전에 이미 패수 서쪽의 위만조선 군대가 패하여 패수 동쪽으로 물러간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선군은 이전의 우위를 상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유리한 고지를 빼앗기고 군사수에서도 밀린 위만조선의 패수방어선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된다.

4. 왕검성 전투와 위만조선 멸망

가. 왕검성의 위치 문제와 왕검성 전투

패수방어선이 무너진 후 漢나라의 육군은 왕검성을 포위하였다. 여기에는 누선장군이 이끄는 수군도 합류하였다. 드디어 漢나라에서 처음 계획했던대로 육군과 수군이 합류하여 왕검성을 포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C-① 누선[군]도 또한 가서 합세하여 성의 남쪽에 주둔하였다. 우거가 끝내 성을 굳게 지켜 몇 달이 되어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75]

---

73) 서영수, 앞의 논문, 1996, 110쪽.
74) 박영해, 「기원전 2세기 말~기원 4세기 초의 여러 전쟁과정을 통하여 본 락랑군의 위치」,『력사과학』4, 1996.
75) 『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樓船亦往 會 居城南 右渠遂堅守城 數月未能下”

B-⑦과 C-①에서 보듯이 육군은 왕검성의 서북쪽을 포위하고 수군은 성의 남쪽을 포위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왕검성의 위치이다. 먼저 위만조선의 도읍명에 대해 『삼국유사』는 王險城이라고 기록했지만 『삼국유사』 위만조선조에서는 王儉城이라고 기록했다.[76] 王險城(王儉城)은 고조선 시조의 존칭(이름)이자 통치자의 칭호인 왕검에서 유래한 것이다. 『史記』에서 왕검성이 아닌 왕험성이라고 한 것은 음차 과정에서 험한 곳에 위치한 지세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77]

왕검성의 위치는 대동강 북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78] 북한학계에서도 일찍이 도유호는 평양지역의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왕검성을 대동강 북안으로 비정한 바 있는데,[79] 이후 북한학계는 고조선 요동중심설이 정설을 차지하며 왕검성은 요하(열수) 유역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있다고 보았다.[80] 단군릉 발굴 이후에도 북한학계는 평양의 왕검성과 별도로 漢나라 군대와 싸운 부수도 왕검성이 요동지역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81]

당시 樓船將軍이 왕검성(왕험성)에 도달한 것을 뒤에서는 列口에 이르렀다고 하여[82] 洌口는 洌水 하구로 보이며 洌水는 왕검성 부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열수는 대동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왕검성은 대동강 북안으로 볼 수 있다. 북한학계에서는 단군릉 발굴 이후 평양의 청암동토성을 왕검성으로 주목하고 있다.[83] 국내학계에서도 대동강 북안에 왕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76) 『三國遺事』 卷1 紀異1 魏滿朝鮮條.
77) 조원진,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과 요동」, 『선사와 고대』 62, 2020, 57~58쪽.
78) 이병도, 앞의 논문, 1976, 88~91쪽.
79) 도유호, 「왕검성의 위치」, 『문화유산』 5, 1962, 60~65쪽.
80)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조선의 령역과 그 중심지」, 『고조선문제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6, 71~73쪽.
81) 전대준 · 최인철, 앞의 책, 2010, 167~174쪽.
82) 『史記』 卷115 朝鮮列傳, "樓船將軍亦坐兵至洌口"
83) 남일룡, 「대동강류역 고대성곽의 성격」, 『조선고고연구』1, 25~27쪽.

일반적이다.[84] 하지만 이 지역에서 왕검성으로 비정할 수 있는 확실한 고고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낙랑군 위치와는 별도로 왕검성의 위치를 한반도 밖에서 찾는 견해[85]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반론도 이어지고 있다.[86] 왕검성을 압록강 이북에서 찾는 견해는 최근 위만조선의 영역에 요동지역과 한반도 서북한 지역을 모두 포함시키는 연구가 나오면서 힘을 얻고 있으며 험독, 패수 등의 지명이 요동지역에 있음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동설의 입장에서 요동군 험독현이 조선왕의 도읍이었던 시기는 燕나라 진개 침입 이전이며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으로 조선계 지명인 열수와 패수가 요동지역과 한반도 서북한지역에 모두 남겨지게 되었다는 반론이 있다.[87]

전쟁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경선인 패수에서 도읍인 왕검성에 이르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다. 『史記』 朝鮮列傳은 패수에서 왕검성까지의 거리가 나와있지 않으며 마치 패수전투 이후 별다른 이동이나 전투없이 바로 왕검성에 이른 것처럼 기록되었다. 따라서 왕검성이 대동강 유역에 있고 패수를 압록강이나 청천강이라 보거나, 패수를 요동지역의 강으로 보고 왕검성도 이와 가까운 요동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패수를 혼하로 볼 경우 중요한 방어선의 하나인 압록강에서의 전투 등이 생략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84) 오영찬, 「기원전 2세기대 서북한 고고 자료와 위만조선」,『韓國古代史硏究』 76, 2014, 109~120쪽.

85) 조법종,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險城·樂浪郡의 位置」,『한국사연구』 110, 2000a ; 조법종, 「위만조선의 대한 전쟁과 강한제후국의 성격」,『先史와 古代』14, 2000b ; 김남중, 「衛滿朝鮮의 領域과 王儉城」,『韓國古代史硏究』 22, 2001 ; 윤명철, 「해양질서의 관점으로 본 王險城의 성격과 위치」,『단군학연구』33, 2015 ; 정인성, 「고고학으로 본 위만조선 왕검성」,『韓國考古學報』106, 2018.

86) 송호정, 「衛滿朝鮮의 王儉城 위치에 대한 최근 논의와 비판적 검토」,『역사와 담론』 92, 2019, 26~36쪽.

87)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한국사 시민강좌』 2, 1988, 43~47쪽.

그러나 국경선인 패수를 압록강·청천강으로 볼 경우 위만조선이 '方數千里'라는 기록과 맞지 않으며 왕검성을 요동지역으로 보는 경우도 '方數千里'의 위만조선이 서쪽 경계인 패수와 가까운 지역에 도읍인 왕검성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漢나라가 육군과 수군으로 위만조선을 공격한 것도 국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왕검성이 위치함을 암시한다. 『史記』의 전쟁 기술 방식은 朝鮮列傳과 南越列傳 기록을 비교하여 참고할 수 있다.

〈표2〉『史記』朝鮮列傳과『史記』南越列傳의 전쟁 과정 비교

구 분	조선열전	남월열전
초기전투	좌장군은 조선의 패수 서군을 공격하였으나 전진하지 못함. 누선장군은 먼저 왕검성에 도착하였지만 우거왕에게 패하여 군대가 흩어짐	누선장군이 尋陝을 함락시키고 石門을 격파했으며 남월의 선봉을 꺾음. 복파장군은 행로가 멀어 뒤늦게 도착함
양군 합류와 도성으로 진격 과정	교섭 실패 후 좌장군은 패수 방어선을 뚫고 전진하여 왕검성 서북쪽을 포위함. 누선장군도 합류하여 성의 남쪽을 포위함	양군이 합류하여 번우에 이름. 누선장군은 동남쪽에, 복파장군은 서북쪽에 주둔함

漢나라의 육군이 패수 방어선을 뚫고 왕검성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표2〉에서 보는 것처럼 『史記』南越列傳도 초기 전투 이후 번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특히 『史記』 朝鮮列傳은 漢나라 군대의 거의 유일한 승리 기록인 패수전투 마저 그 내용이 아주 소략한 것을 볼 때 왕검성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다른 전투들이 있어도 『史記』 기술 방식의 특성상 그 내용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C-①에서 보는 것처럼 패수 방어선의 붕괴와 漢나라 수륙군의 합류에도 왕검성은 수개월 동안 적의 공격을 잘 방어한다. 이것은 위만조선이 대군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방어체계와 물자가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사마천도 "우거는 험고함을 믿다가 나라의

사직을 잃었다."[88]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도성의 방어체계는 이미 준왕 시기에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준왕에 의해 고조선 서쪽에 자리를 잡은 위만은 세력을 키운 후 "漢나라의 군대가 열 군데로 쳐들어오니 王宮에 들어가 宿衛하기를 청합니다."하고는 준왕을 공격했다.[89] 이것은 당시 고조선도 漢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올 경우 먼저 국경선 부근에서 위만이 방어하고 한편으로는 도성에 병력을 집결하여 항쟁하는 전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위만조선 시기에는 이러한 방어체계가 더욱 견고해져서 패수 방어선에서 적의 대군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으며 적의 수륙군이 합류한 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왕검성의 방어가 견고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위만조선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우거왕의 죽음과 왕검성 함락

漢나라의 왕검성의 포위 이후 상황은 ① 조선대신들이 몰래 누선장군에게 항복하려하고 좌장군과 누선장군 사이에는 불신이 생김 ② 한무제가 제남태수 公孫遂를 보내고 공손수는 좌장군의 말을 듣고 누선장군을 체포하여 양 군대를 합침 ③ 위만조선 일부 지배층이 도망하여 漢나라에 항복함 ④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함 ⑤ 大臣 成巳가 항전하지만 결국 왕검성이 함락됨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만조선과 漢나라의 전쟁 과정은 고구려와 隋·唐과의 전쟁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먼저 중원세력이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육군은 요동지역으로 향하고 수군은 직접 평양으로 진격하는 방법을 택한

---

88) 『史記』 卷115 朝鮮列傳, "太史公曰 右渠負固 國以絶祀"

89)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 『魏略』,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것이 같다. 그리고 멸망 당시에는 요동방어선이 붕괴되어 평양이 수륙 양군에 포위되어 고립되면서 내부의 반역자가 발생하는 것도 동일하다.

하지만 차이점도 발견된다. 隋·唐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할 때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마치려 했지만 漢나라는 겨울이 오고 해가 바뀌어도 물러가지 않고 전쟁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겨울이 오고 전쟁이 길어질 경우 추위와 보급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漢나라가 물러가지 않고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한 것은 한무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무제는 기원전 110년에 태산에 올라 봉선 제사를 행하며 천하가 이미 모두 복속되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바 있다. 그런데 유독 위만조선과의 전쟁이 길어지자 사신 위산을 직접 보내거나 다시 공손수를 특사로 보내기도 했다. 이것은 이미 천하를 이미 얻었다는 자신감이 흔들릴까 두려워서이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였을 수 있다.[90] 협상에 실패한 위산과 누선장군을 마음대로 체포한 공손수를 잇달아 죽인 것도 전쟁을 신속히 끝내고 싶은 초조함 때문일 수 있다.

또한 漢나라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식량이나 장비를 계속 보급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고구려의 경우 청야전술과 수군의 활약으로 唐나라는 해를 넘겨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수군 보강을 통해 서해에서 직항으로 평양을 공격하고 신라와 군사동맹을 맺는 것으로 이를 해결했다. 그런데 위만조선의 경우 전쟁에서 수군의 활약이 드러나지 않는다. 위만조선이 주변 국가들이 漢나라 천자에 입견을 막았다는 기록이나 준왕이 배를 통해 남으로 도망간 것은 위만조선의 수군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위만조선은 대동강 유역을 거점으로 삼아 동아시아 해양교역을 독점하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91] 그러나 막상 漢나라와

90) 김병준, 앞의 논문, 2008, 22쪽.

의 전쟁에서는 구체적인 위만조선 수군의 활동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漢나라가 해를 넘겨 전쟁이 가능했던 것은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바다를 통한 물자의 지속적인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위만조선의 수군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위만조선 내부에서는 전쟁이 지속되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무리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위만조선의 지배층인 相 路人, 相 韓陰, 尼谿相 參, 將軍 王唊은 함께 漢나라로 투항하게 된다. 路人이 도중에 죽었다는 기록을 볼 때 왕검성에서도 도망가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전투가 벌어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은 조선의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이후 왕검성의 방어체제도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우거를 배반하고 漢나라에 항복하기로 한 사람은 4명인데 尼谿相 參은 함께 도망가지는 않고 내부에서 호응하였다. 그를 반란의 주도자로 이해하기도 한다.[92] 결국 參은 사람을 시켜 우거왕을 죽이고 나서 항복한다. 우거왕의 죽음으로 사실상 위만조선은 멸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거왕이 죽은 후 위만조선은 成巳가 항전을 계속한다. 하지만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長降, 상 노인의 아들 最로 하여금 成巳를 죽이게 하고 그의 죽음과 함께 왕검성은 함락된다.[93] 우거의 아들 長降이 앞서 漢나라와 위만조선의 협상과정에서 나오던 태자와 동일인물인지 아니면 우거왕의 다른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다. 후자라면 우거왕이 죽고 대신인 成巳가 조선군을 지휘한 점으로 보아 이미 태자도 죽은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패수전투를 지휘하다가 이미 전사했을 수도 있다.

위만조선은 漢나라와의 전쟁에서 선전했으나 결국 1년만에 왕검

91) 강봉룡, 『(바닷길로 찾아가는) 한국 고대사』, 경인문화사, 2016, 47쪽.
92) 정인보, 『朝鮮史硏究(上)』, 서울신문사, 1946, 148쪽.
93) 우거왕이 죽고 成巳 등은 長降을 왕으로 세우고 항전을 지속했다고 보기도 한다(김남중, 앞의 논문, 2014, 170쪽).

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 위만조선은 초반에 선전하며 협상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협상은 무산되었다. 위만조선이 전쟁에서 패한 가장 큰 이유는 패수방어선의 붕괴라 할 수 있다. 패수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유리하게 이끌어가던 전세가 역전되어 漢나라의 수륙군이 합류하고 왕검성이 포위되었다. 결국 우거왕은 내부 배신자에 의해 암살되고 왕검성은 무너지게 된 것이다. 또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위만조선의 수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패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위만조선과 漢나라의 전쟁 원인 및 전쟁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전쟁 원인에 대해 『史記』 朝鮮列傳은 위만조선이 漢나라 외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한의 사신인 섭하를 살해했기 때문인 것처럼 서술했다. 그러나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漢나라의 대외팽창 정책과 섭하의 조선 비왕 살해였다. 우거왕이 섭하를 살해한 요동 동부도위는 『漢書』 地理志에 기록된 요동 중부도위가 있던 후성현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만조선은 패수 서쪽 일부 지역을 차지하며 초반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당시 漢나라의 진격로는 육군은 燕·代지역에서 요서주랑과 요택을 지나 요동으로 향했고, 수군은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를 거쳐 평양으로 향하는 서해 북부 연안항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요동과 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져 전선이 길어지면서 漢나라 수륙군이 원활한 연락을 주고받기 어려운 점도 초반 漢나라가 고전한 원

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漢나라가 위산과 추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패수 서쪽에 있던 위만조선군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위만조선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전세는 위만조선에 불리해졌다. 이때 한무제는 패수와 가까운 지역에 친정을 갔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패수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왕검성은 漢나라의 수륙군에 포위되었다. 이후에도 위만조선은 왕검성을 견고하게 지켰으나 결국 내부 배신자들에 의해 우거왕과 대신 成巳가 죽임을 당하면서 왕검성은 함락되었다.

이러한 위만조선과 漢나라의 전쟁 상황은 여러 가지로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과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고구려의 경우 수·당나라가 해를 넘겨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것과는 달리 漢나라는 일년 가까이 전쟁을 수행했다. 이것은 고구려가 청야전술과 수군의 활약이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위만조선은 漢나라의 보급을 저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위만조선이 무너지게 된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20. 11. 30, 심사수정일 : 2021. 1. 8, 게재확정일 : 2021. 2. 24.)

주제어 : 위만조선, 고조선, 漢나라, 우거왕, 한무제, 왕검성

〈참고문헌〉

1. 사료

『文獻通考』, 『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鹽鐵論』, 『前漢紀』, 『册府元龜』, 『通志』, 『漢書』, 『後唐書』, 『後漢書』

2. 단행본

강봉룡, 『(바닷길로 찾아가는) 한국 고대사』, 경인문화사, 2016.
http://uci.or.kr//G901:A-0006603171@N2M
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출판부, 2012.
http://uci.or.kr//G901:A-0006409995@N2M
김남중, 「위만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 연구」, 서강대박사학위논문, 2014.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역주 중국 정사 동이전 1 : 사기 · 한서 · 후한서 · 삼국지』, 동북아역사재단, 2020.
苗威, 『衛氏朝鮮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9.
박선미,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2009.
http://uci.or.kr//G901:A-0006279477@N2M
박준형,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三軍大學, 『中國曆代戰爭史』第3册(楚漢戰爭~東漢), 軍事譯文出版社, 2012.
서인한, 『韓民族戰爭通史』1(고대편), 國防軍史硏究所, 1994.
http://uci.or.kr//G901:A-0008419505@N2M
_____,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http://uci.or.kr//G901:A-0006103117@N2M
_____, 『한중군사관계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7.
孫進己 · 王綿厚 主編, 『東北歷史地理(1)』,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http://uci.or.kr//G901:A-0006036378@N2M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집문당, 2001.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1(고대1), 육군본부, 2012.
王錦厚 · 李健才, 『東北古代交通』, 沈陽出版社, 1990.
이춘식, 『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http://uci.or.kr//G901:A-0006511847@N2M
_____, 『고대 중국의 패권전략과 주변국 조공화』,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이청규,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경인문화사, 2016.
http://uci.or.kr//G901:A-0006603166@N2M
전대준 · 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정인보, 『朝鮮史研究(上)』, 서울신문사, 1946.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韓國海洋戰略研究所, 2009.
http://uci.or.kr//G901:A-0006241602@N2M
陳梧桐 · 李德龍 · 劉曙光, 『中國軍事通史』5(西漢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1998.
최병욱, 『사마천의 동아시아 - 초, 한, 남월, 조선』, 산인, 2018.
編寫組, 『中國歷代戰爭簡史』(修訂版), 解放軍出版社, 2006.

3. 연구논문

권오중,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역사학보』168, 2000.
_____, 「요동군 중부도위와 고구려의 신성」, 『고구려의 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5.
기수연, 「『사기』의 이민족 기재방식과 「조선열전」」,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 지식산업사, 2005.
김남중, 「衛滿朝鮮의 領域과 王儉城」, 『韓國古代史研究』22, 2001.
김병준,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韓國古代史研究』50, 2008.
http://uci.or.kr//G704-000848.2008..50.009

김정배, 「위만조선의 國家的 性格」,『사총』21 · 22, 1977.
남일룡, 「대동강류역 고대성곽의 성격」,『조선고고연구』1.
도유호, 「왕검성의 위치」,『문화유산』5, 1962.
苗威 · 李新, 「西漢海伐衛氏朝鮮考論」,『海交史研究』2, 2018.
박경철, 「古朝鮮 對外關係 進展과 衛滿朝鮮」,『東北亞歷史論叢』44, 2014.
http://uci.or.kr//G704-002002.2014..44.005
박성용 · 남창희 · 이인숙, 「漢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험성 위치 고찰」,『국방연구』 58-2, 2015.
박순발, 「連雲港 封土石室墓의 歷史 性格」,『百濟研究』57, 2013.
박영해, 「기원전 2세기 말~기원 4세기 초의 여러 전쟁과정을 통하여 본 락랑군의 위치」,『력사과학』 4, 1996.
박준형, 「古朝鮮의 海上交易路와 萊夷」,『북방사논총』10, 2006.
_____,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史學研究』 108, 2012.
http://uci.or.kr//G704-001261.2012..108.009
_____, 「산동지역과 요동지역의 문화교류 -산동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선형동부를 중심으로-」,『한국상고사학보』79, 2013.
http://uci.or.kr//G704-000730.2013.79.79.00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조선의 령역과 그 중심지」,『고조선문제 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6.
孫光圻, 「漢唐時期 中國과 韓半島의 海上航路」,『百濟研究』57, 2013.
http://uci.or.kr//G704-000844.2013..57.004
송호정, 「衛滿朝鮮의 王儉城 위치에 대한 최근 논의와 비판적 검토」, 『역사와 담론』92, 2019.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한국사 시민강좌』 2, 1988.
_____, 「衛滿朝鮮의 形成過程과 國家的 性格」,『韓國古代史研究』9, 1996.
서영수,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東洋學』29, 1999.
_____,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오영찬, 「기원전 2세기대 서북한 고고 자료와 위만조선」,『韓國古代史研究』 76, 2014.
http://uci.or.kr//G704-000848.2014..76.003

오현수, 「『회남자』 기재 '갈석'과 '요수'를 통해 본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 『한국학』 35-4, 2012.
https://doi.org/10.25024/ksq.35.4.201212.267

劉子敏, 「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社會科學戰線』5, 1996.

윤내현, 「위만조선의 재인식」,『史學志』19, 1985.

윤명철, 「해양질서의 관점으로 본 王險城의 성격과 위치」, 『단군학연구』 33, 2015.
http://uci.or.kr//G704-001431.2015.33.33.005

王子今, 「論楊仆擊朝鮮樓船軍"從齊浮渤海"及相關問題」,『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 2009.

이병도, 「衛氏朝鮮興亡考」,『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이청규, 「동검을 통해 본 산동과 한반도 및 주변 지역간의 교류」, 『중국 산동지역의 동이』, 역사공간, 2018.

정인성, 「고고학으로 본 위만조선 왕검성」,『韓國考古學報』 106, 2018.

_____, 「위만조선시기 요동반도 남부의 강둔한묘」, 『북방지역 주요 고고유적 -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동북아역사재단, 2020.

조법종,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險城·樂浪郡의 位置」,『한국사연구』 110, 2000a.

_____, 「위만조선의 대한 전쟁과 강한제후국의 성격」,『先史와 古代』 14, 2000b.

조원진, 「위만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검토 -朝·漢 전쟁 이전을 중심으로-」,『白山學報』109, 2017.

조원진,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연구」,『史學研究』129, 2018.

_____,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과 요동」,『선사와 고대』62, 2020.

蔡鳳書, 「古代山東文化と交流」,『東アジアと『半島空間』 : 山東半島と遼東半島』, 思文閣出版, 2003.

(Abstract)

The Features of the war between Wiman Chosun and Chinese Han Dynasty

Cho, Won-chi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s and aspects of the war between Wiman Chosun (衛滿朝鮮) and Han (漢). The major cause of the war was that Shehe (涉何) of Han murdered Biwang of Gochosun, which was the firstly established country in the Korean peninsula. Wiman Chosun could not but choose the war as a result of this provocation of Han, which led to the attack of Wiman Chosun on Liaodong Eastern Section. The location of Liadong Eastern Section to which Shehe was appointed is possibly the region of Houcheng-xian (候城縣), which became Liadong Central Section after the fall of Wiman Chosun.

If we conjecture the scale and advance route of Han's armies, it does not seem probable that the navy of Han dynasty attacked Wiman Chosun via the trans-central West Sea route. Therefore, it is construed as proper that Han sent its navy via the northern West Sea coastal route and dispatched its army composed of 50,000 soldiers towards Liadong. Wiman Chosun had already captured an advantageous position to the west of Paesu (浿水) river, and so was able to prevent the joining of Han's army and navy and lead early combats to the advantage of Wiman Chosun.

Afterwards, the two countries started negotiations, which, however, came to a rupture after all. It is probable that Wudi of Han went on the conquest in person and was at a region near Paesu.

After the negotiations was failed, the tide of war turned against Chosun troops. For the armies of Wiman Chosun above Paesu was defeated by the armies of Han's General taken up the position of left flank, and thus the defense line of Paesu was broken through. Consequently, the army and navy of Han joined to lay siege to Wanggeom-seong (王險城).

It is the general opinion that Wanggeom-seong was located on the northern shore of the 'Daedong' River. It is hard to imagine that Wiman Chosun, whose territory extended thousands of li in all directions (方數千里), had its capital near Paesu, which was on the western boundary. Wanggeom-seong defended successfully against the enemy's attack for months. However, as the war was protracted, a rebellion occurred within Wiman Chosun, King Ugeo was assassinated, and Wanggeom-seong (王儉城) was captured after all. Wiman Chosun failed to block supplies for Han armies. In conclusion, the consequential protraction of the war may be viewed as another cause of the fall of Wiman Chosun.

It is the general opinion that Wanggeom-seong was located on the northern shore of Daedonggang River. It is hard to imagine that Wiman Chosun, whose territory extended thousands of li in all directions (方數千里), had its capital near Paesu, which was on the western boundary. Wanggeom-seong defended successfully against the enemy's attack for months. However, as the war was protracted, a rebellion occurred within Wiman Chosun, King Ugeo was assassinated, and Wanggeom-seong (王儉城) was captured after all. Wiman Chosun failed to block supplies for Han armies. In conclusion, the consequential protraction of the war may be viewed as another cause of the fall of Wiman Chosun.

keyword : WimanChosun, Old Chosun, Han, King Ugeo, Han Wudi, Wanggeom-seo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139-179
https://doi.org/10.29212/mh.2021..118.13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의 북방 경계 인식과 '또 하나의 압록강'*

- '화주압록강'과 '요하압록강'의 실체 검토 -

윤경진**

1. 머리말
2. 고려초기 동북방 경계 인식과 '화주압록강'의 존재
3. 고려후기 서북방 경계 인식과 '요하압록강'의 출현
4. 맺음말

1. 머리말

영토는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그 의미는 전근대 국가에서도 다르지 않다. 영토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이

* 본 논문은 2020년 군사편찬연구소의 『군사사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020.12월부터 2021.1월까지 『軍史』誌 논문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임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수립되고 사회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서 영토 문제는 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영토는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고, 영토 확장은 국가의 성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였다.

다만 전근대의 경우 현재와 같이 확고한 국경을 가진 것이 아닌데다가 영토 변화가 잦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특정 시기 특정 국가의 영토 범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영토의 영유 경험은 이후 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각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급적 확대해 보려는 지향도 존재한다.[1] 그런 만큼 영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 비판적 안목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유의해야 하는 요소의 하나가 바로 관련 지명을 파악하는 일이다. 자료에는 현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지명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증을 통해 그 위치를 비정하게 된다. 지명이 포함된 상황을 통해 유추하거나 음운 또는 자형을 통한 고증도 동원된다. 이러한 방법론은 필연적으로 연구자간의 이견을 낳을 수밖에 없고, 통설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와 분석 방법의 개발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여지를 가진다.

이것은 비단 현대 학문에 국한된 과제는 아니다. 고대 지명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고, 그에 따라 생성된 기록들이 다시 현재의

---

1)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북 9성의 범위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동북 9성의 경계 지점으로 알려진 公嶮鎭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는 설이 실려 있다. 실학자들이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길주 이남에 비정했으나, 일제시기 학자들이 함흥평야 일대로 비정하면서 정설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만강북설의 사실성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여럿 있었다. 그러나 근래 연구에서 동북 9성의 위치는 실학자들이 제시한 길주 이남이 타당하며(윤경진,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公嶮鎭 立碑' 문제」, 『역사와실학』 61, 2016①), 두만강 북설은 고려말 영토 확장에 따른 영토의식의 확대와 조선초기로 이어지는 女眞 招諭에 조응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지적되었다. 이 때 '두만강 북쪽 700리'는 초유 대상인 斡都里의 원주지를 매개로 설정된 것이었다(윤경진, 「고려말 東北面 영토개척과 영토의식 : 公嶮鎭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 『한국문화』 88, 2019).

연구 자료가 되었다. 이것은 후대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혼선과 오류를 불러오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지명 이해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난점은 같은 지명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것이 내용상 명확히 구분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같은 곳을 다른 곳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곳을 같은 곳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토의 상황, 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역사상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鴨綠江이 대표적 사례이다.

압록강은 두만강과 함께 우리나라 국경을 구성하는 근간이다. 반도에 위치한 탓에 우리 역사에서 국경과 영토 문제는 북방에 집중되었다. 삼국의 각축 과정에서 야기된 각각의 국경 변화를 논외로 한다면, 우리 역사의 북방 경계가 어디까지였는가 하는 것은 전통시대부터 지금까지 학계와 사회 일반의 관심사였다. 이 중 압록강은 서북방 경계 인식의 준거였다.

그런데 자료상 압록강이 현 압록강(구분을 위해 '의주압록강'으로 부르기로 한다)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제시된 사례나 현 압록강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을 가진 사례가 발견된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압록강을 매개로 형성되는 국경과 영토의 내용이 달라진다.

기록에 보이는 압록강 중에서 의주압록강으로 보기 어려운 대표적 사례로는 『고려사』 성종 10년(991) 기사의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가 있다. 현 압록강을 기준으로 보면 고려가 '압록강'밖'의 여진을 다시 '백두산 밖'으로 축출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사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압록강 '밖'을 '안'으로 고치거나 이를 東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2)]

---

2) 김상기는 『遼史』에 "鴨綠江女眞"이라는 표현이 보이는 것을 준거로 "鴨綠江外"의

이러한 단순한 보정이나 해석이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당시 고려는 박천강 일대에 진출한 수준이었고 이후 거란과 전쟁을 치르면서 비로소 강동 6주를 건설하였다. 평안도 내륙 방면의 여진을 백두산 쪽으로 축출하는 구도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 압록강이 의주압록강이 아니라 東北面 국경 지역에 있다고 보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린다(당시 국경이 화주 지역이므로 이하 '화주압록강'으로 부르기로 한다). 압록강-여진-백두산의 공간 배치가 기사와 명확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려초기 압록강 사례 중에는 화주압록강으로 보아야 그 내용이 온전히 이해되는 사례가 여럿 있다. 이는 화주압록강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압록강을 현 압록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제시한 기록도 보인다. 『三國遺事』에는 불교의 고구려 전래를 다룬 항목에서 "遼水一名鴨淥"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자료에 보이는 압록강 중에는 요수, 곧 요하를 가리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이하 '요하압록강'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에 이 기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고려전기 국경을 형성한 압록강이 의주압록강이 아니라 요하라는 주장도

'外'가 "白頭山外"에 첨가된 衍文으로 보고, 압록강 동편 중상류 지역의 여진을 구축한 것으로 이해하였다(金庠基, 「丹寇와의 抗爭」, 『國史上의 諸問題』 2, 1959, 109쪽, 주6)). 박현서는 이를 받아들여 '압록강 밖'을 압록강 東岸으로 제시하였다(朴賢緖, 「貴族政權의 對外政策 :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1974, 261쪽). 그러나 연문이라는 것은 의주압록강에 맞추어 해석한 것일 뿐이고, 당시 고려의 상황에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여진을 구축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고려에게 압록강 동안은 '江內'에 해당하므로 '江外'를 東岸으로 해석할 수 없다. '江內'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高麗史』 권25, 元宗 3년 9월 戊辰, "此物 小國鴨綠江內 本非所產 惟上朝漢兒土中買傳而來"

『高麗史』 권29, 忠烈王 5년 6월 癸卯, "都評議使 據聖旨 請於瀋州 遼陽間 置伊里干 徙諸道富民二百戶 居之 又於鴨綠江內 置伊里干二所 所各一百戶 以供朝聘役使從之"

등장하였다.[3)]

그러나 이 기사는 고구려의 도읍이 安市城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기사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요구된다. 또한 해당 입론에 연동하여 설명되어야 하는 많은 요소들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출발점은 역시 『삼국유사』 기사의 성격을 검증하는 것이다. 해당 기사를 사실로 확정하고 원용하기 전에 이 기사가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요하압록강의 실체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를 압록강 일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따르는 실증적 논리적 위험도 걸러낼 수 있다.

압록강은 우리 역사에서 국경으로서 가지는 의미가 각별하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로 '또 하나의 압록강'이 상정되고 있다. 그 만큼 이에 대한 이해가 가지는 중요성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동북면에 있는 화주압록강의 존재를 확인할 것이다. 그동안 『고려사』의 압록강 사례를 모두 의주압록강으로 보고 그에 맞추어 내용을 이해한 것을 비판하고, 앞서 언급한 성종 10년 기사를 비롯해 화주압록강으로 보아야 하는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3장에서는 요하압록강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 주장이 가지는 담론적 문제는 이미 포괄적으로 지적되었으므로[4)] 여기서는 그 근거가 된 『삼국유사』 기사에 대한 실증적 이해에 초점을 둘 것이다. 해당 입론이 압록강 문제와 관련하여 당연히 입증해야 할 많은 요소들을

---

3) 윤한택 외, 『압록과 고려의 북계』, 주류성, 2017.
뒤이어 중국 자료들을 통해 14세기 이전 압록강이 요하임을 주장한 연구가 있다(남의현, 「중국의 中朝邊界史를 통해 본 한중국경문제 : 중조변계사에 대한 비판과 14세기 이전 '鴨綠水[鴨淥江]' 위치 재고」, 『인문과학연구(강원대)』 57, 2018). 여기에 제시된 논거들에 대해서는 따로 비판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4) 정요근,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행된 국수주의 유사 역사의 세력 확장」, 『내일을 여는 역사』 70, 2018.

비켜간 것도 비판을 면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근거한 자료의 실증적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생성되었는지 확인한다면, 이를 자료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2. 고려초기 동북방 경계 인식과 '화주압록강'의 존재

고려는 통일을 전후해 鐵關을 넘어 동북방 개척에 나섰지만, 광종 말까지 크게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이 시기 고려는 서북방에서 청천강 상류를 넘어 박천강 동쪽을 경략하는 데 주력하였다. 태조 말에서 광종 초에 걸쳐 이 지역에 州鎭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광종 말에 비로소 박천강을 넘어 嘉州와 松城을 쌓았다.[5]

이에 수반하여 고려는 영유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는데, 그 기준이 압록강이었다. 崔承老는 시무 28조에서 국방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려의 영토 범위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태조가 정한 馬歇灘이었고, 다른 하나는 大朝가 정한 鴨江(압록강) 石城이었다.[6] 마헐탄은 광종 초까지 고려가 개척한 범위에 조응한다는 점에서 박천강으로 파악되며, 大朝는 당시 고려가 사대하던 宋을 가리킨다.[7]

고려는 광종 13년(962) 처음으로 송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친

---

5) 嘉州의 축성 시점은 기록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근래 분석에 따르면 광종 24년으로 파악된다(윤경진, 「고려 태조-광종대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 : 『高麗史』 地理志 北界 州鎭 연혁의 분석과 補正」, 『奎章閣』 37, 2010①, 280-282쪽).

6)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 "夫以馬歇灘爲界 太祖之志也 鴨江邊石城爲界 大朝之所定也 乞將此兩處 斷於宸衷 擇要害 以定疆域"

7) 윤경진, 「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 양상」, 『한국문화』 77, 2017, 126-127쪽.

데[8] 이어 이듬해 말부터 송의 연호를 채용하였다.[9] 이 과정에서 양국의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압록강이었다.

당시 송이나 고려는 모두 압록강까지 진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거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경계 설정은 양국의 접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대 외교 수립에 수반하여 고려의 영유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송의 우선적 목표는 거란에게 할양된 연운 16주를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唐이 영유했던 요동 지역의 확보까지 지향할 것이다. 이에 자신에 사대하는 고려와의 경계를 미리 획정한 것이다.

광종이 기존 경계였던 박천강을 넘어 북방 개척을 재개한 것은 바로 이 합의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는 당이 백제 공멸 후 신라의 영유 범위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가 성덕왕 때 浿江(대동강) 이남을 공인하였고, 이에 신라가 기존 경계였던 예성강을 넘어 대동강까지 개척을 진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동북방 개척도 다시 진행되었다. 광종 24년(973) 文州 북쪽에 高州(고원)와 和州(영흥)가 차례로 설치되었다.[10] 여기에서도 서북방처럼 고려가 영유할 범위와 경계가 설정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기사가 주목된다.

가) ① 刑官御事 李謙宜에게 명하여 鴨綠江 연안에 성을 쌓아 關城으로 삼으려는데, 여진이 병사로 막아서고 謙宜를 잡아 돌아갔다. 군대가 궤멸되어 성을 쌓지 못하였고, 돌아온 자가 3분의 1이었다.[11]

② 鴨綠江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내쫓아 살게 하였다.[12]

---

8) 『高麗史』 권2, 光宗 13년, "冬 遣廣評侍郎李興祐等 如宋 獻方物"
9) 『高麗史』 권2, 光宗 14년 12월, "行宋年號"
10) 윤경진, 「고려 성종-현종초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 『역사문화연구』 38, 2011.
11) 『高麗史』 권3, 成宗 3년, "命刑官御事李謙宜 城鴨綠江岸 以爲關城 女眞以兵遏之 虜謙宜而去 軍潰不克城 還者三之一"
12) 『高麗史』 권3, 成宗 10년,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 居之"

①은 성종 3년(984) 기사로서 고려가 압록강 연안에 축성하려다가 여진의 방해로 실패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②는 성종 10년(991)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구축한 내용이다. 공통적으로 '압록강'과 '여진'이 등장한다. 관성 축조 시도는 압록강이 경계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진 축출 또한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두 기사에 보이는 압록강은 현재의 압록강, 곧 의주압록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3] 다시 말해 '압록강'의 실체에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의주압록강으로 보면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난점이 생긴다.

우선 고려는 성종 13년(994) 거란의 1차 침입 당시까지도 광종 말에 개척한 박천강 인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상태였다. 이것은 당시 거란의 영토 할양 요구에 대해 徐熙가 "실제 거란이 의도한 것은 嘉州와 松城에 불과하다"라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14]

당시 주요 전투 또한 박천강 주변에서 전개되었다.[15] 다음 기사도 성종 초 고려의 북방 경계와 관련된 이해를 제공한다.

---

13) 최근까지도 이 기사를 근거로 고려가 압록강 방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李貞信, 「江東6州와 尹瓘의 9城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軍史』 58, 2003, 282쪽 ;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 압록강선 확보 문제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2006, 248쪽 ; 李美智,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의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10-11쪽).

14) 이 내용은 태조가 정했다는 경계가 거란과의 외교적 합의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 소손녕은 고구려 구지 전체를 대상으로 잠식을 주장했지만, 양국이 합의했던 경계는 박천강이었기 때문에 서희는 두 성만 문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15) 당시 고려의 전방 기지는 安北府였고, 선봉군이 거란군과 첫 전투를 벌인 蓬山郡은 泰州(태천)에, 소손녕이 공격한 安戎鎭은 가주 인근의 松城에 각각 비정된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0①, 278-279쪽 및 282-283쪽).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安州 서쪽 해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안융진은 몽골 침입 때 海島에 入保했다가 出陸 후 僑寓하던 지역이다(윤경진, 「고려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②, 138-140쪽).

나) 지난 겨울에 (여진이) 다시 木契를 보내와 거란 병사가 그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本國은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곧바로 구원하지 않았는데, 거란이 과연 이르러 殺掠한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머지 무리는 도망쳐 본국의 懷昌·威化·光化 지경으로 들어오니 거란 병사가 쫓아와 잡았습니다.[16]

위의 기사는 성종 4년(985) 고려에 온 송의 사신 韓國華에게 성종이 한 말 중 일부이다. 앞서 여진이 거란의 침구를 받아 고려의 경내로 진입한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懷昌·威化·光化는 각각 博州·雲州·泰州가 州로 성립하기 이전의 鎭 명칭이다.[17] 이들은 모두 박천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기사는 성종 초 고려의 서북방 영토가 박천강을 경계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강 건너의 가주 지역을 확보한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가 압록강 연안까지 바로 올라가서 關城 축조를 도모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관성은 단지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가주와 압록강 사이의 거리를 감안할 때 압록강 방면의 관성 축조를 상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지역에는 여진이 산재하며 길을 막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거란과 강화 협상 당시 서희가 압록강 내외를 여진이 차지하여 길이 막혀 있다고 말한 것, 그리고 협상 결과로 이 지역에 강동 6주를 설치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②의 상황은 문제가 더욱 뚜렷하다. 고려가 '압록강 밖'의 여진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도 생각하기 어렵지만, 압록강 밖의 여진을 다시 '백두산 밖'으로 구축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압록강과 백두산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구도는 나올 수 없다. 이것은 압록강이

16) 『高麗史』 권3, 成宗 4년 5월, "前冬 再馳木契 言契丹兵將至其境 本國猶疑虛僞 未卽救援 契丹果至 殺掠甚衆 餘族遁逃 入于本國懷昌威化光化之境 契丹兵追捕"

17) 윤경진, 앞의 논문, 2010①.
이 중 懷昌은 德昌의 오기로 파악된다.

백두산 안쪽에 있고 그 사이에 여진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래야 고려가 남쪽에서 이들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이에 밀린 여진이 백두산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압록강은 의주압록강이 될 수 없으며, 현재의 함경도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처럼 문제가 명백함에도 기존 연구에서 한결같이 의주압록강으로 본 것은 실체가 분명한 고유 지명이기에 처음부터 또다른 압록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공간 구성이나 고려의 강역을 고려할 때 현 압록강으로는 기사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만큼, 동북방에 또 하나의 압록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고려초기 기록에 보이는 鴨綠江(鴨江) 용례 중 다수가 화주압록강으로 파악될 여지를 가진다. 아래에서는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한다.

압록강이 『고려사』 기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전술한 성종 원년(982)의 최승로 상서이다.[18] 여기서 최승로는 마헐탄과 압강을 준거로 고려의 경계를 결정하도록 요청했으므로 이들은 같은 방향에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先代에 박천강과 의주압록강 등 두 개의 경계 지표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경계를 선택하고 그에 맞추어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성종 12년(993) 서희가 소손녕과 강화 협상을 벌일 때에도 압록강이 등장한다. 당시 서희는 거란이 고구려 땅을 영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내세우며 "압록강 內外가 모두 고려의 경내인데 여진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 朝聘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19]

---

18) 태조 즉위전 사적으로 나오는 王昌瑾의 銅鏡 명문의 "先操雞後搏鴨"을 "先得雞林後收鴨綠之意"라고 해석한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鴨江의 첫 사례로 채용하기 어렵다.

19) 『高麗史』 권94, 列傳7 徐熙, "且鴨綠江內外 亦我境內 今女眞盜據其間 頑黠變詐 道途梗澁 甚於涉海 朝聘之不通 女眞之故也"

그리고 협상이 타결되어 거란과 고려가 각각 압록강을 경계로 축성을 진행하였다. 거란은 鴨江 西里에 5개 성을 쌓은 뒤 고려에게 안북부에서 압강의 동쪽에 이르는 280리에 축성하고 그 수를 통보하라고 알려왔다. 이로써 고려는 압록강을 경계로 거란과 맞닿게 되었다.[20] 안북부에서 280리 지점에 있는 이 압록강은 물론 의주압록강이다.

한편 『遼史』에도 이른 시기에 압록강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 곧 거란 太祖 9년(915)에 압록강에서 낚시를 한 기사가 보인다.[21] 太宗 會同 3년(930)에는 압록강의 여진이 來朝한 기사도 보인다.[22] 그리고 聖宗 統和 11년(993) 고려에게 압록강 동쪽 수백 리의 땅을 사여한 기사가 있는데,[23] 이는 앞서 언급한 안북부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280리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의주압록강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발견된다. 우선 다음 기사를 보자.

> 다) 李承乾을 鴨江渡勾當使로 삼았다. 얼마 후 河拱辰을 보내 대신케 하였다.[24]

위 기사에 보이는 鴨江渡는 다른 기록에서는 鴨綠渡로 나와[25] 압록강 건널목에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개 동년 3월에 있었던

---

20) 『高麗史』 권3, 成宗 13년 2월, "遂與彼國相議 便於要衝路陌 創築城池者 尋准宣命 自便酌 擬於鴨江西里 創築五城 取三月初 擬到築城處 下手修築 伏請 大王預先 指揮 從安北府 至鴨江東 計二百八十里 踏行穩便田地 酌量地里遠近 并令築城 發遣役夫 同時下手 其合築城數 早與回報"

21) 『遼史』 권1, 太祖 9년 10월 戊申, "鉤魚於鴨淥江"

22) 『遼史』 권4, 太宗 會同 3년 2월 乙卯, "鴨淥江女直遣使來覲"

23) 『遼史』 권13, 本紀13 聖宗 統和 11년 정월, "高麗王治遣朴良柔奉表請罪 詔取女直鴨淥江東數百里地賜之"

24) 『高麗史』 권3, 成宗 13년, "以李承乾 爲鴨江渡勾當使 尋遣河拱辰 代之"

25)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外職 勾當, "成宗十三年 置鴨綠渡勾當使 後諸津渡 皆有勾當"

거란과의 경계 획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압록강을 경계로 삼았으므로 그 통로에 압강도가 설치되고 구당사가 파견되는 것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강동 6주는 한꺼번에 설치된 것이 아니다. 성종 13년에는 郭州와 龜州가 먼저 설치되었다. 이들은 압록강으로 가는 해안 경로와 내륙 경로 각각에서 남쪽에 위치한다. 귀주에서 압록강으로 가는 관문인 興化鎭은 이듬해에 설치되었다. 그 사이 협상 때 말한 바와 같이 여진 축출이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흥화진이 설치되기 전, 다시 말해 길을 뚫기도 전에 먼저 압록강에 구당사가 파견되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26]

그렇다면 위의 압강도는 의주압록강이 아니라 화주압록강에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양국의 경계 획정과 함께 서북방에는 강동 6주가 설치되지만, 동북방에서는 추가 축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종 10년에 여진 축출이 있었으므로 그 기준이 되는 경계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 또한 필요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동북방은 추가 개척이 아니라 현상 유지 상황이었던 것이다.

압강도구당사는 이러한 조건에서 고려가 주도적으로 동북방 여진과의 통로를 장악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장성 건설 이전까지 실질적인 국경 관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종 3년의 관성 설치 시도와 연결된다.

다음 기사는 구당사가 설치된 압록강이 화주압록강이라는 이해를 뒷받침한다.

라) 尙書左司郎中 河拱辰과 和州防禦郎中 柳宗을 遠島에 유배하였다. 拱辰은 일찍이 동여진을 쳤다가 패배했는데, 宗이 이를 한스러워

26) 당시 경계 획정은 거란이 주도한 것이었다. 압록강을 경계로 삼더라도 그 건널목은 거란이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뒤에 거란이 압록강 동안에 保州를 설치한 것에서 그 사정을 읽을 수 있다.

하였다. 마침 여진 95인이 내조하여 和州館에 이르자 宗이 모두 죽였기 때문에 연좌되어 유배된 것이다.[27]

위 기사는 현종 원년(1010) 河拱辰과 柳宗을 유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이 처벌을 받은 것은 앞서 내조하는 동여진 무리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진이 거란에 강조의 목종 시해 사실을 알리면서 거란이 침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기사 중에 등장하는 和州館은 화주에 설치된 숙소로서 고려에 왕래하는 여진이 묵는 곳이다.[28] 유종은 화주의 지방관으로서 화주관에 이른 여진인들을 살해하였다. 그런데 중앙에 있던 하공진이 함께 처벌되는 것은 유종의 행위가 앞서 하공진의 동여진 공격 및 패배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은 하공진 열전에도 보인다.

마) 拱辰이 일찍이 東西界에 있었는데, 함부로 군대를 동원하여 동여진 부락을 공격했다가 패배하였다. 현종 초 연좌되어 遠島에 유배되었다가 곧바로 소환되어 복직하였다.[29]

위 기사는 목종 말년 기사에 이어지지만, 내용상 현종 초의 처벌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그의 發兵 시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가 된 유종의 행위에 하공진이 단서를 제공한 것이어서 소급 연좌된 것이다.

---

27)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5월 甲申, "流尙書左司郎中河拱辰 和州防禦郎中柳宗于遠島 拱辰嘗擊東女眞見敗 宗恨之 會女眞九十五人來朝 至和州館 宗盡殺之 故並坐流"

28) 태조는 동왕 14년 北蕃 사람들이 경유하는 州鎭의 성밖에 館을 두어 대우하게 했는데(『高麗史』 권2, 太祖 14년, "是歲 詔有司曰 北蕃之人 人面獸心 飢來飽去 見利忘恥 今雖服事 向背無常 宜令所過州鎭 築館城外 待之"), 화주관도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이해된다.

29) 『高麗史』 권94, 列傳7 河拱辰, "拱辰嘗在東西界 擅發兵入東女眞部落見敗 顯宗初坐流遠島 尋召還復職"

그가 동여진을 공격했다는 것은 동북면 최전선 지역에 부임한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의 공격이 압강도구당사로 재임할 때의 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그는 구당사 부임 이후 목종 12년(1009) 강조의 정변까지 10여 년 간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진을 공격할 수 있는 변경 지역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개연성이 높다.

실상 의주압록강 방면은 영토 개척의 의미가 컸고, 이후에도 양국 사신의 통교 외에 인적 교류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동북방에서는 여진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었는데, 이는 和州館의 존재에서 쉽게 유추된다. 따라서 경계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강을 경계로 할 경우 津渡가 그 역할을 하며, 중요도가 높은 진도를 관리하기 위해 구당사가 파견되었다.

이 점에서 하공진이 부임한 압강도는 화주압록강에 설치된 관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압강도는 성종 3년 축조를 도모했던 關城의 기능을 대신하며, 장성 축조와 함께 定州關이 설치되기 전까지 관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30] 여기에는 응당 수비군이 주둔할 것인데, 하공진은 이 군대를 이용하여 동여진을 공격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상충되는 자료도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 바) 그 때 陪臣 徐熙가 경계를 관장하여 가서 관리하고 留守 遜寧이 宣旨를 받들어 상의하여 각기 양국의 경계를 담당하여 여러 성을 나누어 쌓았습니다. 이 때문에 河拱辰을 鴈門에 보내어 鴨綠에 勾當使를 삼고 낮에는 나가서 동쪽 연안을 감독하고 밤에는 內城에 들어와 묵었습니다. 마침내 하늘의 위력에 힘입어 도적을 점차 제거했는데, 이후로 방비가 없어 변방의 상황이

30) 關은 국경의 관문을, 館은 숙소를 나타내지만, 변경에서는 사절의 통과와 유숙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다.

>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聖宗의 글씨가 먹물이 마르지 않았고 太后의 자애로운 말씀이 어제 같습니다.[31]

위의 기사는 선종 5년(1088) 거란에 榷場 혁파를 요청하며 보낸 표문의 일부이다.[32] 이 글에서 고려는 압록강 동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그 근거 사적을 열거하였다.

우선 성종 때 서희와 소손녕의 협상에 따라 압록강을 경계로 두 나라가 城堡를 축조한 사적을 말하였고, 이어 하공진의 활동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하공진이 구당사로 임명된 압강은 의주압록강이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배치된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내용을 문맥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위의 글은 양국의 성보 구축과 함께 하공진이 구당사로 임명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협상 결과로 구당사가 설치되고 하공진이 임명된 맥락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승건이 먼저 임명되었고 뒤에 하공진으로 교체된 것이어서 맥락이 다르다.

다음에 낮에는 강변을 관리하고 밤에 內城에 들어온다고 한 것도 불합리하다. 압강도구당사의 활동이 강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하루사이에 오가기 위해서는 내성이 강에 인접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수비를 위해 일정한 군사력이 주둔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이승건이 처음 압강도구당사가 된 것은 성종 13년의 일이고, 흥화진은 성종 14년에 비로소 설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주압록강 인근에 구당사가 활동할 수 있는 內城이 있었

---

31) 『高麗史』 권10, 宣宗 5년 9월, "于時 陪臣徐熙 掌界而管臨 留守遜寧 奉宣而商議 各當兩境 分築諸城 是故 遣河拱辰於鴈門 爲勾當使於鴨綠 晝則出監於東涘 夜則入宿於內城 遂仗天威 漸祛草竊 後來無備 邊候益閑 聖宗之勑墨未乾 太后之慈言如昨"

32) 당시 榷場을 둘러싼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지, 「고려 宣宗代 榷場 문제와 對遼 관계」, 『韓國史學報』 14, 2003 참조.

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鴈門은 關門을 나타내는데, 이는 실제 압록강을 두고 양국이 교섭하는 상황에서나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고려는 물론 거란의 축성도 아직 압록강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문'을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외교적 수사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영토와 관련된 외교 논의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련 사적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고려가 동북 9성을 개척할 때 거란에 보낸 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사) 여진 弓漢里는 곧 우리의 舊地이니 그 주민 또한 우리의 編氓입니다. 근래 변경의 침구가 그치지 않기에 수복하여 그 성을 쌓았습니다.[33]

위에서 弓漢里(吉州)를 언급한 것은 고려의 羈縻州를 설치한 사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며,[34] 동북 9성의 북쪽 경계가 길주였던 것과도 관련된다.[35] 고려는 이에 맞추어 해당 지역이 처음부터 고려의 영토였던 것처럼 표방하고, 이를 통해 동북 9성 개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제 당시 거란은 자신에 네조한 여진 추장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해 고려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었다.[36]

한편 고려말 明이 鐵嶺衛 설치를 통보하자 고려는 표문을 보내 취소를 요청했는데, 이 글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다.

---

33) 『高麗史』 권96, 列傳9 金仁存, "女眞弓漢里 乃我舊地 其居民 亦我編氓 近來 寇邊不已 故收復而築其城"

34) 김순자, 「12세기 고려와 여진·금(金)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현실』 83, 2012, 56-57쪽.

35) 윤경진, 앞의 논문, 2016①.

36) 『高麗史』 권96, 列傳9 金仁存, "弓漢里酋長 多受契丹官職者 故契丹以我爲妄言"

아) 鐵嶺 이북을 살펴보니 文州·高州·和州·定州·咸州 등과 公嶮鎭에 이르기까지 예전부터 本國의 땅에 속했습니다.[37]

위에서 文州·高州·和州·定州는 趙暉의 반란으로 몽골에 몰입된 지역이고, 함주와 공험진은 동북 9성이 설치된 지역이다. 표문에서는 위 내용에 이어 예종 때 여진이 침구하여 함주 이북을 탈취하자 고려가 정벌하여 수복한 사적과 조휘의 반란이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여진에게 환부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 결국 새로 개척했고 이미 고려 영토에서 벗어나 있던 동북 9성을 고려의 고유 영토로 확정하고 논지를 편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는 쌍성총관부 지역은 물론 이후 자신이 개척한 지역까지 온전히 확보할 역사적 명분을 마련하였다.

선종 5년의 표문(자료 바) 역시 압록강 동안의 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다르지 않다. 압록강까지 고려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역사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이에 하공진의 사적을 채용하였다. 곧 명칭의 동일함을 이용하여 동북면의 화주 압록강에서 있었던 활동을 의주압록강으로 치환하여 구성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거란에 하공진 사적을 제시한 배경이다. 서희는 소손녕과 협상을 벌였으므로 거란에서도 인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하공진의 임명은 고려 내부의 일이다. 그럼에도 하공진을 적시한 것은 그가 2차 전쟁 때 협상에 나섰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순절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그는 거란이 인지하고 있던 인물인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그의 압강도구당사 임용을 압록강 이동의 영유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38]

---

37) 『高麗史』 권137 列傳50 辛福 14년 2월, "切照鐵嶺迤北 歷文高和定咸等諸州 以至公嶮鎭 自來係是本國之地"

38) 이 시기 고려 조정이 과거의 화주압록강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공진 사적에 나오는 압록강을 의주압록강으로 오인했을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하공진의 구당사 재임을 의주압록강에 투영하면서 그의 행적에 대한 서술에도 변형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열전 기록에 보이는 "東西界"에서 발견된다. 『고려사절요』에는 이 부분이 "東西兩界"로 수정되어 있다. 이로 보면 그가 서북면에 재임한 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구문은 동여진 공격의 조건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북면이 언급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적에 두 개의 공간이 제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려사절요』는 '在'를 '從事'로 바꾸었는데, 이는 "東西界"를 "東西兩界"로 볼 경우 문맥이 '在'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단순한 오기로 보기도 어렵다. 『고려사절요』가 이를 "東西兩界"로 적었다는 것은 하공진의 사적에 '東'과 '西' 모두가 걸려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열전 기사는 명백히 '東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에 대해 '西'를 넣은 것은 선종 5년 표문에 언급된 사적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두 자료는 내용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양자를 별개로 보았다면 열전에서 분리해 정리했을 것이다. 결국 하공진의 활동은 하나인데 그 지역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자 이를 "東西界" 내지 "東西兩界"로 포괄시킨 것이다. 여기서 실제 하공진이 활동한 곳은 '東'이 분명하므로 '西'는 이로부터 파생된 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하공진이 압강도구당사로 활동했다는 사적은 처음부터 고려가 압록강까지 확보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당시 문제가 된 각장은 흥화진을 경유하는 장성과 압록강 사이의 공백지에 설치되었다. 6성의 설치만으로는 이 공백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화주압록강을 의주압록강으로 바꾸어 압록강변까지 고려가 처음부터 확보하고 있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선종 5년 표문을 근거로 하공진이 활동한 압록강을 의주압록강으로 볼 수는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초기에는 서북면과 동북면에 모두 압록강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고대에 같은 이름의 강이 여러 지역에서 출현하는 사례가 없지 않으므로 同名異處라고 보면 간단하다. 그러나 의주압록강은 이전부터 중국 자료에도 등장하며[39] 이후 뚜렷한 존재를 보이는 반면, 화주압록강은 현종대 이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주압록강의 출현 자체가 어떤 역사적 배경 내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압록강이 고려 영토의 북방 한계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는 송과 압록강 석성을 경계로 설정하였다. 고려는 고구려계승의식에 기반하여 북방 개척을 추진했지만, 그렇다고 중국 왕조가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던 요동지역까지 진출을 천명할 수는 없었다. 송에 사대하며 고려는 압록강까지의 개척과 영유를 보장받았고, 이에 광종 말부터 북방 개척을 재개하였다.[40]

흥미로운 것은 같은 시기 동북방에서도 개척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축성이 재개되는 데에는 그것을 촉발한 계기와 더불어 개척의 목표점이 상정되는데, 그 목표점이 바로 압록강이었다. 고려는 박천강을 넘어 압록강 방면으로 축성을 진행하는 한편, 동북방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그 경계가 된 강을 '압록강'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압록강이 있게 되면서 양자를 혼동하는 사태도 발견된다. 『三國遺事』의 高句麗 항목에는 다음 내용이 보인다.

---

39) 『隋書』 권59, 列傳24 於仲文, "仲文回擊 大破之 至鴨綠水 高麗將乙支文德詐降來入其營"

40) 당초 압록강은 고려의 영토 밖이었고 초기 용례는 대개 외교에 관련된 기사에 나온다. 따라서 압록강은 당초 고려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지명이 아니라 宋遼와의 관계 속에 채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맥락에서 고려는 동북방에도 경계로서 압록강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자) 고구려는 곧 卒本扶餘이다. 혹은 지금의 和州라고 하고 또 成州라고도 하는데 모두 잘못이다. 卒本州는 요동 경계에 있다.[41]

위 기사는 고구려가 처음 건국된 卒本에 대한 고증으로서 和州와 成州로 비정하는 견해를 소개 비판하고 있다. 이 중 화주에 비정하는 견해는 전술한 화주압록강 때문에 생성된 것이다. 졸본은 압록강가에 있는데, 이 압록강을 화주압록강으로 이해하면 졸본이 화주에 있게 된다. 이는 화주압록강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음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화주압록강은 어디에 비정할 수 있을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화주에 인접한 龍興江이다. 앞서 인용한 『삼국유사』 기록은 그 단서를 제공한다. 졸본을 성주에 비정하는 것은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沸流王 松讓과 경쟁한 것, 그리고 성주가 본래 松讓의 故都라고 한 연혁 내용과 연결된다. 이것은 동명왕의 창업지를 평양으로 해석한 후대의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단지 沸流水 가에 초가를 짓고 지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다"[42]라고 되어 있다. 주몽의 창업지인 졸본을 압록강가로 보면 이 비류수는 곧 압록강이 된다. 비류왕 송양의 근거지로 전승된 성주에도 沸流江이 있으며, 그 異稱이 卒本川이다.[43] 사적 구성에 맞추어 비류강(졸본천)이 설정되었거나 비류강을 이용하여 사적을 만든 것이다.

결국 비류수(강)는 주몽의 건국지로서 압록강의 또다른 이름이 되는데, 화주에도 沸流水가 있다. 이 강은 용흥강의 한 지류이다.[44] 여기서 비류수 내지 그 하류인 용흥강이 바로 (화주)압록강으로

41) 『三國遺事』 권1, 紀異 高句麗, "高句麗 卽卒本扶餘也 或云今和州 又成州等 皆誤矣 卒本州在遼東界"
42)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始祖 東明聖王
4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4, 平安道 成川都護府 山川
4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8, 咸鏡道 永興大都護府 山川

칭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45]

이처럼 고려는 광종대 송과 외교를 전개하면서 '압록강'까지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이것이 동북방에도 적용되어 (화주)압록강이 설정되었다. 이를 준거로 광종 말 고려는 화주까지 개척을 진행하였고, 성종대에는 그 외곽의 여진을 축출하였다. 이 화주압록강은 화주 인근의 비류수 내지 그 하류인 용흥강으로 비정되며, 성종대 이후 진행된 동북방의 축성은 기본적으로 화주압록강을 관방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후 고려는 국경에 장성을 쌓아 영토를 획정하였다. 이로 인해 화주압록강은 장성 이남에 자리하면서 경계 지표로서 의미가 없어졌고, 결국 고려초기 자료에 일부 편린만 남긴 채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3. 고려후기 서북방 경계 인식과 '요하압록강'의 출현

고려초기 화주압록강과 함께 문제가 되는 압록강 사례는 고려후기에 등장하는 요하압록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삼국유사』의 다음 기록을 출발로 한다.

> 차) 살피건대, 고구려 때 安市城에 도읍했는데, 일명 安丁忽이라고도 하며 遼水의 북쪽에 있다. 遼水는 鴨淥이라고도 하고[遼水一名鴨淥], 지금은 安民江이라고도 한다. 어찌 松京의 興國寺 이름이 있겠는가.[46]

---

45) 용흥강이 있는 화주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출신지이다. '龍興'은 이로부터 생성된 명칭이므로 고려에서 강의 명칭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이로 보아 비류수가 강의 명칭이었고 뒤에 화주를 통과하는 하류를 용흥강으로 부르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46) 『三國遺事』 권3, 興法 順道肇麗, "按 麗時都安市城 一名安丁忽 在遼水之北 遼水一名鴨淥 今云安民江 豈有松京之興國寺名"

위 기사에는 “요수는 압록이라고도 한다”는 구문이 있다. 이를 그대로 취하면 자료에 보이는 압록강이 의주압록강이 아니라 요하일 여지도 생긴다. 실제 그러한 맥락에서 논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해당 구문을 포함한 기사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맥락과 의미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順道가 고구려에 佛法을 전한 사적을 설명하면서 “肖門寺를 창건하여 順道를 두고, 또 伊弗蘭寺를 창건하여 阿道를 두니 이것이 高麗 佛法의 시초이다”[47]라는 『三國史』 기사를 인용하고,[48] 이어 『僧傳』 기록 중 “肖門寺 今興國 伊弗蘭寺 今興福”이라고 한 내용을 비판하는 과정에 나온다. 흥국사와 흥복사는 모두 서경에 있는 사찰이다.[49]

여기서 『승전』은 고구려 도읍에 대해 착오를 범하고 있다. 불교가 전래될 당시 고구려 도읍은 國內城이었다. 그런데 『승전』은 이 도읍을 평양(서경)으로 오인한 것이다. 이러한 착오가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평양은 장수왕이 천도한 곳이지만, 고려는 고구려 舊都로서 동명왕이 창업한 곳으로 간주하였다. “서경은 藝祖가 창업한 땅이다”라고 하였고,[50] 서경에 동명왕의 묘와 궁궐까지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평양을 고구려 창업지로 규정함으로써 그 후신으로서 고려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증한 것이다.[51]

고려의 역사의식에서 고구려와 고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고구려의 실제 국호는 ‘고려’였고, 왕건의 고려는 이를 부활시킨

---

47) 『三國遺事』 뒴3, 興法 順道肇麗, “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高麗佛法之始”

48) 이 『三國史』는 『舊三國史』로 판단된다. 『삼국사기』에는 ‘高麗’가 ‘海東’으로 되어 있다.

49) 일연이 “松京之興國寺”라고 한 것 또한 착오가 있는 셈이다.

50) 『高麗史』 권63, 志17 禮5 吉禮小祀 雜祀 明宗 20년 10월 甲申, “遣使西都 祭藝祖廟 西都 藝祖之所興也 至今衣冠 猶在其廟 故後王 每於燃燈八關 遣大臣致祭”

51) 윤경진,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계승의식 : ‘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2014.

것이었다. 그 안에서 고려는 고구려를 前高麗, 자신을 後高麗로 규정하였다. 『宋史』나 『元史』 등 중국 사서에도 高麗 항목은 朱蒙으로부터 시작한다.[52]

이처럼 고려는 고구려의 후신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평양을 주몽이 창업한 곳으로 간주하였다. 이로 인해 평양 천도 이전 도읍에서 있었던 사적을 그대로 평양으로 옮겨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소수림왕 때 창건한 두 사찰도 평양에 있다고 생각하고 평양의 대표적인 두 사찰을 그 후신으로 지목한 것이다.

일연은 소수림왕 때 고구려 도읍이 평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를 고증하는 과정에서 그도 오류를 범하였다. 곧 도읍을 안시성으로 본 것인데, 이는 그에 인접한 요수를 압록강으로 해석한 데서 유도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국내성에 적용되는 "압록강가의 고구려 도읍"이 '요수=압록강'이라는 인식에 따라 요하에 인접한 안시성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는 고려가 평양을 주몽의 창업지로 규정하고 국내성의 사적을 가져온 것과 같은 원리를 담고 있다. 이 또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생성된 사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수=압록강'이라는 사적은 어떤 맥락에서 구성된 것일까.

고려가 전기에 국내성 사적을 평양으로 가져온 상황에서 '압록강가의 도읍'을 요하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 국내성 사적이 평양으로 이동하는 것은 고구려 도읍 사적을 자국 영토 안에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53] 고구려의 도읍을 안시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와 반대의 방향이다. 결국 요하압록강은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이 전기와 달라

52) 이러한 역사성은 태조 16년 後唐이 왕건을 高麗國王으로 책봉하는 글에서 "踵朱蒙啓土之禎 爲彼君長"라고 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高麗史』 권2, 太祖 16년 3월 辛巳).

53) 고구려 창업 사적이 평양으로 이동하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시대 東神聖母 숭배의 연원과 의미」, 『한국문화』 93, 2021 참조.

지면서 생긴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의 북방 영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자.[54] 고려는 고구려계승의식에 기반하여 건국되었으므로 고구려 고토에 대한 영유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이를 수복해야 한다는 지향을 가졌고, 이에 따라 북방 개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지향은 거란과의 1차 전쟁 당시 서희가 소손녕과 강화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력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소손녕은 "고구려 땅은 거란의 차지인데 신라 땅에서 일어난 고려가 이를 잠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이며, 영토로 말한다면 거란의 東京도 우리 경내에 있다"라고 반박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동이 고려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거란과의 협상 타결로 압록강을 경계로 국경을 획정하게 되자 고토 수복의 명분을 내세운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압록강 너머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쟁의 재발을 우려한 성종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고려의 영토의식은 압록강을 경계로 국경을 획정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55] 고려가 압록강 연안까지 개척하고 쌓은 강동 6주는 거란 황제가 사대의 대가로 내려준다는 명분을 띠고 있었다. 요동은 물론 그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역사적 연고권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2차 전쟁 후 현종이 親朝를 이행하지 않자 거란이 강동 6주의 환수를 통보한 것도 이러한 명분에

---

54)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둘 사항은 '鴨綠'과 '鴨淥'을 별개의 지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淥'과 '綠'은 음이 같고 글자도 유사하여 혼용될 수 있다. 지명에서 이런 형태의 혼용은 흔한 일이다. 隋의 고구려 침공 때 부대 편성에 대한 기록을 보면,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는 "鴨綠水", 乙支文德傳에는 "鴨淥水"로 나온다. 이는 기재 과정에서 양자가 혼용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鴨綠'과 '鴨淥'은 동일 지명의 이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5) 거란과의 전쟁 이후 나타난 영토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중기 고구려계승의식의 변화와 '句高麗'」, 『역사와실학』 72, 2020① 참조.

따른 것이다.

이에 고려는 실제 확보한 압록강 경계에 맞추어 영토의식을 조정하였다. 이는 다음 자료에 잘 드러나 있다.

> 카) 우리나라는 箕子의 나라를 이어받아 鴨江을 경계로 삼았는데, 하물며 前太后皇帝께서 玉册으로 은혜를 내려 분봉하신 것이 [賜茅裂壤] 또한 그 강을 경계로 하였습니다.[56]

위 기사는 문종 7년(1053)에 거란이 압록강 동쪽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반발하여 東京留守에 보낸 글의 일부이다. 고려는 당초 압록강을 경계로 합의했지만, 전쟁이 재개된 뒤 거란은 압록강 동안에 保州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고려는 압록강 연안까지 영토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이남 지역을 지나는 長城을 쌓았다. 이후에도 고려는 지속적으로 압록강 동안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고려는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기자가 분봉받은 곳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란의 태후황제가 사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기자의 분봉지는 요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당의 溫彥博이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과 관련하여 "요동의 땅은 周가 箕子의 나라로 삼았으며, 漢의 玄菟郡입니다"[57] 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또한 문종 26년(1072) 송에서 고려에 보낸 글을 보면, "箕子가 봉토를 연 것은 遼左에서 비롯되었다[箕子啓封 肇於遼左]"라는 구문도 보인다.[58] 중국 왕조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자의 분봉지를 요동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

56) 『高麗史』 권7, 文宗 9년 7월 丁巳, "當國襲箕子之國 以鴨江爲疆 矧前太后皇帝 玉冊頒恩 賜茅裂壤 亦限其江"

57) 『舊唐書』 권61, 列傳11 溫彥博, "遼東之地 周爲箕子之國 漢家之玄菟郡耳"

58) 『高麗史』 권9, 文宗 26년 6월 甲戌

실제 요동을 차지하고 있던 거란 또한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고려는 이 사적을 거란과 합의한 경계에 맞추어 변형하였다. 곧 기자 분봉지의 경계를 요하에서 압록강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압록강은 고려의 고유 영토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다음 역시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타) 또한 압록강이 모양을 이루니 鯷岑을 구획하여 한계를 삼았습니다[且鴨綠之成形 劃鯷岑而作限].[59]

위 기사는 朴寅亮이 지은 「上大遼皇帝告奏表」에 나오는 구문이다. 鯷岑(鯷壑)은 東國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인데, 그 구획과 한계 설정은 기자의 분봉과 연결된다. 이 때 해당 한계는 앞에 언급한 "鴨綠의 成形"을 통해 수립된다. 위에 인용한 문종 7년 기사(자료 카)와 같은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金이 거란과 북송을 차례로 공멸하여 동북아의 패자로 군림하게 된 상황에서도 유지되었다. 고려는 거란 멸망에 편승하여 보주를 확보한 뒤, 금으로부터 이를 공인받고 금에 대한 사대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금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요동에 대한 영유권을 표방할 여지는 없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 자료에 잘 나타난다.

파) 高伯淑이 이르러 몰래 聖旨를 전하기를, "保州城의 땅을 고려에 귀속시키는 것을 허락하며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句麗의 本地는 遼山이 중심이고 平壤의 舊墟는 鴨綠에 한정되었는데, 여러 번 변화를 겪어 우리 祖宗에 이르러 北國에 兼并을 당하여 三韓의 分野가 침식되었는데, 비록 隣好를 강구

59) 『東文選』 권39, 上大遼皇帝告奏表

해도 옛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60]

위의 기사는 인종 3년(1125) 금이 고려의 보주 확보를 인정한 데 대해 감사하면서 보낸 표문의 일부이다. 여기서 "평양의 구허는 압록에 한정되었다"라고 한 것은 고려의 고유 영토가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는 문종 때의 인식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이에 대해 "句麗의 本地는 遼山이 중심이다"라고 한 것은 요동의 고구려 사적을 자신과 분리시키는 인식을 담고 있다.[61]

국초 이래 고구려와의 일체성에 입각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던 고려는 숙종대 南京 설치를 전후하여 고구려와 별개의 나라로 분리하는 인식을 보였다. 기존에 고려는 前高麗(고구려)를 계승한 後高麗로서 신라와의 결합을 통해 三韓의 一統을 달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남경 설치를 통해 고려는 신라와의 결합을 매개하지 않고 그 자신이 삼한을 일통한 나라로 자임하였다.[62]

그 결과 고구려는 고려의 출발로서 여전히 의미를 유지했지만, 고려는 고구려와의 일체성에서는 한 발 벗어나게 되었다. 고구려와 고려의 고유 영토도 그 범주를 달리하게 되였다. 위에서 句麗는 고려와 구분되는 고구려의 사적을 나타내며, 遼山은 그러한 고구려의 중심지이다. 곧 요동의 사적을 고려의 역사와 분리시킨 것이다. 이는 기자의 분봉지가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는 인식과 같은 맥락으로 당시 고려가 요동에 대한 영유를 표방할 수 없는 사정을 반영한다.

그런데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영토의식에 다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太祖世家 말미의 李齊賢

60) 『高麗史』 권15, 仁宗 4년 12월 癸酉, "高伯淑至 密傳聖旨 保州城地 許屬高麗 更不收復 切以句麗本地 主彼遼山 平壤舊墟 限於鴨綠 累經遷變 逮我祖宗 値北國之兼幷 侵三韓之分野 雖讎隣好 未歸故疆"

61) 윤경진, 앞의 논문, 2020①, 98-100쪽.

62) 윤경진, 「고려 숙종대 南京 설치와 역사계승의식」, 『서울과역사』 105, 2020②.

史論에 인용된 충선왕의 언급이 주목된다. 여기서 충선왕은 거란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宋 太祖의 사적을 서술한 뒤 다음과 같은 생각을 피력하였다.

> 하) 우리 태조께서 즉위한 후 金傅가 아직 來賓하지 않고 甄萱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여러 번 西都에 행차하여 北鄙를 직접 순시했으니 그 뜻이 역시 東明의 舊壤을 우리의 영토로 삼으려는 것으로 분명 석권하여 차지했을 것이다. 어찌 닭을 잡고 기러기를 잡는 것[操鷄搏鴨]에 그쳤겠는가. 이로써 보건대 비록 大小의 형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二祖(송 태조와 고려 태조)의 규모와 덕량은 이른바 경우를 바꾸어도 모두 그러한 것이다.[63]

위에서 충선왕은 태조가 후삼국 통일을 달성하기 전부터 서경에 행차하고 북방을 순행한 사적을 지적하며 고유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東明舊壤"이란 고구려의 옛 영토를 가리키며 "吾家靑氈"은 그곳이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의미이다. 태조는 이곳을 모두 차지하고자 했으므로 그 지향이 "操鷄搏鴨"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해이다.

"操鷄搏鴨"은 태조 즉위를 예언한 王昌瑾 銅鏡의 도참에 나오는 "先操雞後搏鴨"[64]과 같은 것으로서 신라 병합과 함께 고구려 영토의 수복을 나타내는데, 그 목표 지점을 압록강으로 표상하고 있다. 이는 거란과의 관계로 인해 고려가 자신의 역사적 연고지를 압록강으로 제한한 상황이 투영되어 있다. 곧 기자의 분봉지가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는 문종 때의 인식과 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선왕이 태조의 목표가 그에 그치지 않고 "동명구양"

---

63) 『高麗史』 권2, 태조 26년, "我太祖卽位之後 金傅未賓 甄萱未虜 而屢幸西都 親巡北鄙 其意 亦以東明舊壤 爲吾家靑氈 必席卷而有之 豈止操鷄搏鴨而已哉 由是觀之 雖大小之勢不同 二祖規模德量 所謂易地皆然者也"

64) 『高麗史』 권1, 太祖 즉위전(貞明 4년 3월)

을 모두 회복하려는 것이었다고 한 것은 고려 내부에 요동이 고구려의 구지라는 인식이 재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향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공민왕대의 東寧府 정벌이다.

> 거) 本國은 堯와 병립하였고, 周 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봉하여 내려준 지역이 서쪽으로 遼河에 이르렀다. 대대로 강역을 지켰는데, 元朝가 一統하여 公主에게 내려주니 遼瀋 지역이 湯沐이 되어 이로 인해 分省을 두게 되었다. (중략) 무릇 요하 이동의 본국 강역 안에 있는 백성과 大小 頭目들은 속히 와서 조회하여 함께 爵祿을 누리도록 하라.[65]

위의 기사는 공민왕 19년(1370) 요동의 東寧府를 정벌할 때 金州·復州 등의 주민에게 포고한 글의 일부이다. 당시 고려군은 황초령을 넘어 압록강을 건넌 뒤[66] 동녕부로 진입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요하의 동쪽이 고려의 고유 영토라고 한 것, 그리고 요동과 고려가 본래 하나의 권역이라고 한 것이다.[67] 이 주장은 기자의 분봉 지역이 요하 동쪽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종대 고려는 압록강을 경계로 제시하면서 역시 기자의 분봉을 내세웠다. 근거 사적은 동일한데 그 기준은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이는 물론 고구려 영토를 염두에 두고 기자의 분봉지도 요하 동쪽으로 재설정한 결과이다.

---

65) 『高麗史』 권114, 列傳27 池龍壽, "本國 與堯並立 周武王封箕子于朝鮮 而賜之履 西至于遼河 世守疆域 元朝一統 釐降公主 遼瀋地面 以爲湯沐 因置分省 (중략) 凡遼河以東本國疆內之民大小頭目等 速自來朝 共享爵祿"

66) 『高麗史』 권42, 恭愍王 19년 정월, "甲午 我太祖以騎兵五千 步兵一萬 自東北面踰黃草嶺 行六百餘里 至雪寒嶺 又行七百餘里 甲辰 渡鴨綠江"

67) 당시 기사를 보면 이 원정으로 인해 "東至皇城 北至東寧府 西至于海 南至鴨綠 爲之一空"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압록강을 南限으로 한 요동 지역에 대한 공간 인식을 보여주며, 이곳이 모두 비었다는 것은 기존에 요동을 지배하던 권력이 물러나면서 고려가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을 표상한다.

이처럼 요하가 고려의 영토 범위로 부각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압록강이 고유 영토의 경계"라는 기존의 관념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외교적으로 오랜 기간 표방되던 것이어서 갑자기 그 내용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실제 경계인 요하를 압록강으로 간주하면 압록강을 경계로 한 전통적 인식과 현실의 요하 경계 인식이 양립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南平壤이다.[68] 남평양은 고구려 도읍인 평양 외에 현 서울 지역에 있었다는 또 하나의 평양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남방 경영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고려의 영토의식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신라 이래로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 경계에 대한 인식은 "平壤已南 百濟土地"였다. 671년 문무왕은 자신의 행보를 힐난한 薛仁貴에 보낸 답서, 이른바 「答薛仁貴書」에서 당 태종이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후 "평양이남 백제토지"를 신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음을 내세우며 자신의 영토 권리를 주장하였다.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대해서는 신라의 '통일'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것은 명확히 "평양 이남이 곧 백제 토지"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백제가 자국의 영토 범위를 浿江(浿河) 내지 평양으로 설정한 것을 채용한 것이다.[69] 이러한 역사성은 견훤이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을 격파한 뒤 왕건에게 보낸 글에서 "평양의 누각에 활을 걸고 패강의 물로 말을 먹이겠다"[70]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백제의 고토를 수복하겠다는 의미이다.

---

68) 南平壤의 실체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구려 '南平壤'의 실체와 출현 배경」, 『서울과역사』 95, 2017 참조.

69)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浿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2016②.

70) 『高麗史』 권1, 太祖 10년 12월, "所期者 掛弓於平壤之樓 飮馬於浿江之水"

그런데 이를 따를 경우 고려는 구 백제 내지 신라 영토에서 건국한 것이 된다. 이는 거란의 침공 당시 소손녕이 주장한 것처럼 고려가 신라 땅에서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에 고려는 고구려의 남방 영토를 한강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실제 한강까지 영토로 확보하였고 자국의 고유 영토로 인식한 것을 계승한 것이다.[71] 서희가 평양 이북을 할양하자는 주장에 대해 "삼각산 이북이 모두 고구려 영토인데 다 내줄 것인가"라고 반박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72] 『고려사』 지리지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를 한강으로 설명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73]

그런데 "평양이남 백제토지"는 오랜 기간 영토의식의 준거로 유지되었다. 평양 이북을 내어주자는 할지론은 바로 이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고려는 이 인식과 현실의 경계로서 한강을 양립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한강 북쪽에 평양을 설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평양이남 백제토지"는 현실에서는 한강을 경계로 규정될 수 있다.

요하압록강도 이러한 원리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곧 압록강이 고유 영토의 경계라는 원론을 유지하면서 요하 이동에 대한 영토의식을 수립하기 위해 요하를 압록강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평양이남 백제토지"와 한강 경계가 양립하는 것처럼 압록강 경계와 요동 영유권이 양립하게 된다.

그렇다면 고려는 언제부터 이러한 인식을 수립했을까. 전술한 것처럼 금에 사대하는 상황에서 고려는 요동과 자신을 분리시켰으므로 그 관계가 유지되는 시기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리고 『삼국유사』

---

71) 고구려의 남방 영토범위와 이에 따른 고구려와 고려의 영토의식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구려·고려의 영토의식과 한강 : 고구려의 한강이남 영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서울학연구』 80, 2020③ 참조.

72) 『高麗史』 권94, 列傳7 徐熙, "且三角山以北 亦高勾麗舊地 彼以谿壑之欲 責之無厭 可盡與乎"

73) 『高麗史』 권56, 地理1 楊廣道, "漢江以北 高句麗 以南 百濟"

에 요하압록강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부각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영토의식이 전환되는 계기로 몽골의 고려 지배가 주목된다. 몽골이 금을 공멸하고 고려 또한 몽골과 오랜 전쟁을 치른 후 원의 체제로 편입되었다. 이 상황은 역설적으로 고려의 요동 영토의식을 되살리는 전기를 제공하였다.

금의 몰락은 고려의 요동 영유권을 제약하던 지배력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였다. 고려가 요동 영유권을 재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려와 요동 모두 원의 영역에 포괄되었고, 그동안 고려와 요동을 나누던 (의주)압록강 경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조건은 과거 고구려 영토였다는 사적을 배경으로 삼아 요동이 본래 고려와 하나였다는 인식을 유도하였다. 공민왕 때 포고문에서 요동이 본래 고려의 영토였다가 공주湯沐邑으로 인해 분리되었다는 주장(자료 거)은 이러한 함의를 잘 보여준다.

충선왕의 언급(자료 하)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거니와 그 단초는 원의 영향을 받게 되는 원종대로 올라간다. 원종 10년 崔坦 등이 반란을 일으켜 서경 이북의 땅을 가지고 원에 투항하였고, 원은 평양에 東寧府를 두어 해당 지역을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서경 이북은 고려와 분리되어 요동과 묶이게 되었다. 이후 고려의 계속된 요구로 원은 서경 이북을 고려에 돌려주었고 동녕부는 요동으로 이동하였다.

이 때 고려는 자신의 고유 영토임을 반환의 근거로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요동 방면에 대한 영토의식도 재생되었다. 이것은 고려가 趙暉의 반란으로 몽골에 몰입된 쌍성총관부 지역을 무력으로 수복하면서 원에 보낸 글에서 伊板嶺(마천령)까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74] 고유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74) 고려말 동북방 영토의식에 대해서는 윤경진, 앞의 논문, 2019 참조.

적극화되면서 그 범위가 과거 사적을 매개로 확장된 것이다. 양자 공히 고구려의 영유를 본원적 준거로 하고 있다.[75]

일연은 이러한 당시의 변화된 인식을 채용하여 『삼국유사』에서 안시성을 고려 도읍으로 정리하고 요수가 압록강이라는 내용도 넣은 것이다. 이 인식은 원 간섭기 동안 지속되었고, 공민왕 때 요동의 동녕부를 정벌하면서 적극 표방되었다.

이처럼 요하압록강은 금의 멸망과 원의 고려 지배를 배경으로 요동에 대한 영토의식을 다시 수립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며, 원종 10년 서경 이북의 몰입과 고려의 반환 요구 과정에서 표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곧 요동에 대한 영토의식이 기존에 외교적으로 누차 표방되었던 압록강 경계 인식과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요하를 압록강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려의 영토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는 전통적 인식과 "고려의 고유 영토는 요하까지이다"라는 현실의 영토의식이 양립하게 된다.

결국 고려초기 일시적으로 동북면의 용흥강 일원이 압록강으로 간주된 것처럼 요하압록강 또한 고려후기 영토의식의 변동에 따른 역사적 산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전 시기에 보이는 압록강을 요하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화주압록강이 장성 축조와 함께 경계로서 의미를 잃으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요동이 명의 영토로 귀착되고 의주압록강이 양국의 경계로 확정되면서 요하압록강 또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76]

---

75) 이판령 경계는 예종대 동북 9성 개척을 직접적인 준거로 하지만, 동북 9성은 고구려의 구지라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그 인식은 고구려로 소급될 수 있다.

76) 원론적으로 보자면 원 간섭기 압록강 용례 중 요하로 비정될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고려사』 등에서 이 시기에 보이는 압록강은 대체로 의주압록강이다. 실상 요하압록강은 고려 내부의 영토의식에 따라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 지배 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여지는 적었다. 혹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 간섭기 고려의 영토의식을 반영하는 지표일 뿐, 여타 압록강 사례를 요하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현재 알려진 압록강(의주압록강) 외에 자료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압록강 사례에 대해 그 실체 및 출현 배경 등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례를 같은 곳으로 혼동하거나 출현 이전으로 소급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초기 동북방 경략 과정에서 등장하는 압록강은 화주 방면에 있었다(화주압록강). 성종 10년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내쫓은 기사는 의주압록강을 준거로는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압록강-여진-백두산의 공간 배열로 볼 때 이 압록강은 현 함경도 방면에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압록강 연안에 關城을 쌓으려다가 여진의 공격으로 무산된 것 역시 동북방의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고려는 서북방에서 박천강을 넘어 가주 일대에 진출한 수준이었고, 여진과의 접촉도 이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성종 4년 거란의 공격으로 여진이 박주 일대로 유입된 것은 그 반영이다.

성종 13년 이승건을 압강도구당사로 삼았다가 얼마 후 하공진으로 교체한 것도 화주압록강의 상황이다. 당시 고려는 거란과 전쟁을 마무리한 후 강동 6주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성종 13년에는 곽주와 귀주가 먼저 축성되었고, 이듬해 흥화진을 쌓았다. 하공진은 동여진을 공격했다가 패배한 일이 있었고, 현종 원년 유종이 來朝하는 동여진 무리를 죽인 사건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하공진 열전에는 '東西界'에 있을 때 여진을 함부로 공격했다가 뒤에 연좌된 내용이 있어 이것이 압강도구당사로 재임할 때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선종 5년 거란에 榷場 혁파를 요청하며 보낸 표문에서는 하공진의

구당사 활동을 의주압록강 방면으로 적시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압록강 동안에 대한 고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前史를 활용한 것으로서 고려에게 유리하게 고쳐 해석한 것이다. 낮에는 압록강 연안을 순찰하고 밤에는 內城에 들어왔다는 것은 당시 의주압록강 방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공진 열전에서 '東西界'리고 한 것은 그가 동여진을 공격한 것과 표문의 내용을 아우르기 위해 구성한 표현이다.

고려가 영토와 관련된 표문에서 과거의 사적을 자의적으로 구성한 사례는 흔하게 발견된다. 『삼국유사』의 고구려 항목에는 卒本을 和州나 成州로 비정한 견해를 소개하고 비판했는데, 성주는 평양이 주몽의 창업지로 설정되고 그와 경쟁한 송양의 사적이 성주에 비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곳의 비류강을 졸본천이라고도 한 것은 그 산물이다. 당초 졸본은 비류수 인근에 소재하며, 이 비류수는 압록강에 해당한다.

고려는 광종대 송과 외교를 전개하면서 '압록강'까지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이것이 동북방에도 적용되어 (화주)압록강이 설정되었다. 성종대 이후 진행된 동북방의 축성은 화주압록강을 관방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가 장성을 쌓아 영토를 획정하면서 남쪽에 자리한 화주압록강은 경계 지표로서 의미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그 명칭도 소멸하였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고구려 때 불교의 전래와 관련하여 安市城에 도읍했다는 기사와 성이 소재한 요하에 대해 "遼水一名鴨淥"이라는 설명이 보인다. 이를 준거로 고려전기 압록강을 요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기사는 불교 도입 후 도읍에 창건된 사찰에 대한 고증을 담은 것인데, 당시 도읍은 국내성이었다. 여기에 인용된 『승전』은 이를 서경으로 오인했는데, 이는 고려가 주몽의 창업지를 평양으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압록강가의 도읍"을

안시성으로 이해한 것은 경계 인식의 확장에 따른 것으로서 영토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거란과의 1차 전쟁에서 협상에 나선 서희는 고구려 계승을 명분으로 요동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영토 협상은 압록강 경계로 타결되었고, 강동 6주는 거란의 사여로 명분화되었다. 이에 맞추어 고려는 자신의 영토의식을 압록강으로 제한하였다. 박인량이 지은 표문에도 압록강을 경계로 삼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이것은 금에 사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종 3년 표문에서 "平壤의 舊墟는 鴨綠에 한정되고 句麗의 本地는 遼山이 중심이다"라고 한 것은 고려의 고유 영토가 압록강을 경계로 하며. 요동의 고구려 사적은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런데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영토의식이 달라지게 되었다. 충선왕은 태조의 뜻이 압록강을 넘어 "東明舊壤"을 수복하는데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원 간섭기 고려가 요동 영토의식을 다시 표방하게 된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향은 공민왕대 東寧府 정벌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당시 포고문에서 고려는 동국의 역사가 堯와 함께 시작되었고 기자가 분봉된 땅이 서쪽으로 요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곧 "요동이 고려의 고유 강역[遼河以東 本國疆內]"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압록강 경계'는 외교적으로 오랜 기간 표방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조건에서 요하를 압록강으로 간주함으로써 압록강 경계 인식과 현실의 요하 경계를 양립시켰다.

이 원리는 南平壤의 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라 이래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는 '평양이남 백제토지'가 기본이었다. 그런데 고구려는 한강까지 영토로 확보하였고 이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간주하였다. 고려는 이를 계승하여 고구려의 남방 경계를 한강으로 이해했는데, 이를 '평양이남 백제토지'와 양립시키기 위해 한강 북쪽에

평양, 곧 남평양을 설정하였다. 전통적 영토 기준과 새 지표를 결합시키면서 동일 지명을 적용한 점에서 요하압록강은 남평양과 같은 원리를 담고 있다.

요동을 지배하던 금이 멸망한 것은 고려가 이에 대한 영유권을 재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고려가 원의 체제에 편입되며 그동안 고려와 요동을 나누던 국경으로서 압록강의 의미가 약화되었다. 충선왕의 언급이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이러한 인식이 원 간섭기 초기에 수립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결정적 계기로는 원종 10년 최탄의 반란으로 서경 이북이 원에 몰입되어 동녕부가 설치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서경 이북이 요동과 한 권역으로 묶이게 되었고, 몰입된 지역이 고유 영토임을 내세우며 반환을 요구하던 고려는 요동 지역에 대해서도 영토의식을 재생하였다. 영토 반환과 함께 동녕부가 요동으로 이동하면서 그러한 인식은 더욱 분명해졌고, 이는 공민왕대 동녕부 정벌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후 요하압록강은 요동이 명의 영토로 귀착되면서 소멸하였다. 이는 화주압록강이 장성 축조와 함께 경계로서 의미를 잃으면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결국 요하압록강은 원 간섭기 고려 영토의식의 한 표현이며, 따라서 왜 그런 인식이 출현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이것을 이전 시기에 소급 적용하여 역사상을 설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원고투고일 : 2020. 11. 30, 심사수정일 : 2021. 1. 7, 게재확정일 : 2021. 1. 12.)

주제어 : 鴨綠江, 화주압록강, 龍興江, 遼河, 요하압록강, 영토의식

〈참고문헌〉

金庠基, 「丹寇와의 抗爭」, 『國史上의 諸問題』 2, 1959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 압록강선 확보 문제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2006

_____, 「12세기 고려와 여진 · 금(金)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 83, 2012
http://uci.or.kr//G704-000054.2012..83.013

남의현, 「중국의 中朝邊界史를 통해 본 한중국경문제 : 중조변계사에 대한 비판과 14세기 이전 '鴨綠水[鴨淥江]' 위치 재고」, 『인문과학연구(강원대)』 57, 2018
https://doi.org/10.33252/sih.2018.06.57.25

朴賢緖, 「貴族政權의 對外政策 :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1974

윤경진, 「고려 태조-광종대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 : 『高麗史』 地理志 北界 州鎭 연혁의 분석과 補正」, 『奎章閣』 37, 2010
https://doi.org/10.22943/kyujg.2010..37.009

_____, 「고려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http://uci.or.kr//G704-000336.2010..109.011

_____, 「고려 성종-현종초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 『역사문화연구』 38, 2011
http://uci.or.kr//G704-000940.2011..38.010

_____,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계승의식 : '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2014
https://doi.org/10.22943/han.2014..68.006

_____,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浿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2016
https://doi.org/10.18347/hufshis.2016..60.3

_____,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公嶮鎭 立碑' 문제」, 『역사와실학』 61, 2016
http://uci.or.kr//G704-002032.2016..61.011

_____, 「고구려 '南平壤'의 실체와 출현 배경」, 『서울과 역사』 95, 2017
https://doi.org/10.22827/seoul.2017..95.001

윤경진, 「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 양상」, 『한국문화』 77, 2017
https://doi.org/10.22943/han.2017..77.005
_____, 「고려말 東北面 영토개척과 영토의식 : 公嶮鎭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 『한국문화』 88, 2019
https://doi.org/10.22943/han.2019..88.005
_____, 「고려 숙종대 南京 설치와 역사계승의식」, 『서울과 역사』 105, 2020
https://doi.org/10.22827/seoul.2020..105.001
_____, 「고려중기 고구려계승의식의 변화와 '句高麗'」, 『역사와 실학』 72, 2020
_____, 「고구려 · 고려의 영토의식과 한강 : 고구려의 한강이남 영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서울학연구』 80, 2020
https://doi.org/10.17647/jss.2020.11.81.73
윤한택 외, 『압록과 고려의 북계』, 주류성, 2017
이미지, 「고려 宣宗代 榷場 문제와 對遼 관계」, 『韓國史學報』 14, 2003
李美智,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의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사 연구』 24, 2008
http://uci.or.kr//704-001262.2008..24.008
李貞信, 「江東6州와 尹瓘의 9城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軍史』 58, 2003
http://uci.or.kr//G704-001528.2003..48.007
정요근,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행된 국수주의 유사 역사의 세력 확장」, 『내일을 여는 역사』 70, 2018

(Abstract)

Goryeo's Perceptions of its Northern boundary and the 'Alternative Aprok River'

- Verifying the entities of the 'Hwa-ju Aprok river' and the 'Yoha Aprok River' -

Yoon, Kyeong-jin

The 'Aprok' river(鴨綠江), which appeared in the relationship with Jurchen (女眞)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Goryeo dynasty, is the river locating in the northeast. It couldn't be established in the 'Uiju Aprok River' that Goryeo expel led Jurchen toward the northern of the Aprok river to outside the Baekdusan Mountain. The Aprok river was the boundary that Goryeo agreed on with Jurchen and by applying it to the northeast, the 'Hwa-ju Aprok River' emerged as a result. This place is now identified as the upstream of 'Yong-heung river' and was no longer used as it lost the meaning and role of the boundary after the Great wall of Goryeo(長城) was constructed.

Meanwhile, there is a record in『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三國遺事)』that 'Yosu(遼水)' was also called as 'Aprok(鴨綠)'. After the war between Khitan and Goryeo, Goryeo established the Aprok River as the boundary of its own northern territory. However, with the fall of Jin dynasty(金), as Goryeo was reigned under Mongol's authority, the meaning of the Aprok river as the boundary was diminished. In response, Goryeo claimed to the perceptions of its own territory about the 'Yodong' district. In order to coexist Yoha(Liao-ho, 遼河) as a new boundary with the existing boundary of the Aprok river, Goryeo made the consciousness that Yoha is the Aprok river. However this consciousness was extinct when Yodong district belonged to the Ming(明) dynasty.

Key Words : The Aprok river(鴨綠江), Hwa-ju Aprok River,
Yong-heung river(龍興江), Yoha(Liao-ho, 遼河),
Yoha Aprok River, The perceptions of its own territor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181-227
https://doi.org/10.29212/mh.2021..118.1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 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의 〈해구(海寇)에서 해상(海商, =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을 중심으로 -

한윤희**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3. 조선 초 일본의 사절 파견과 왜구의 침구
4. 15세기 왜구의 활동 양태
5. 결론

1. 서 론

2018년 7월 27일, 북한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 전사자(전쟁 포로 및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 본 논문은 2020년 군사편찬연구소의 『군사사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020.12월부터 2021.1월까지 『軍史』誌 논문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임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송환하였다. 북한의 강력한 핵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인해 2017년 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송환함으로써 양국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1)]

이처럼 전쟁 포로 송환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고려 말 일본의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슌(今川了俊)의 피로인(被虜人) 송환[2)] 역시 14세기 말 왜구 침구로 인해 한·중·일 삼국 간에 빚어진 군사·정치적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고려·일본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3)] 그런데 중세시기 동아시아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피로인 송환에 관해 기존 연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전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는 "피로인 송환을 계기로 조선과의 통교를 시작하게 되는 왜인이 점차 증가하여, 결국 이를 통해 해구(海寇)는 해상(海商)으로 전환되었다"[4)]고 보고 있다. 이 언급을 통해 나카무라는

---

1) 구본학,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의미와 한국의 안보」, 『신아세아』 25-2, 2018; 윤동영·강건택, 「북한, 한국전 미군 유해 250여구 송환」, 『마이더스(Midas)』 2018-7, 2018.

2) 14세기~15세기의 피로인 및 피로인 송환에 관한 연구는 왜구 연구와 함께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関 周一, 「第一章 被虜人の境遇と送還」(『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을 참조. 국내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로는 손홍렬, 「麗末鮮初被倭俘虜의 刷還」, 『사총』 19, 1975; 한윤희, 「여말선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고찰 - <今川了俊의 송환 배경='경제적 수익 목적' 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日本研究』 36,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정영현, 「여말선초 倭寇 被虜人의 쇄환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36, 2016 등이 있다.

3) 한윤희, 위의 글.

4) 여기에서 해구(海寇)란 곧 왜구(倭寇)를 가리키며 해상(海商)은 상인(商人)을 가리키는데, 나카무라는 해상을 평화로운 통호자(通好者)로 보고 있다(中村栄孝, 「室町時

‘피로인 송환자=왜구, 왜구≠해상’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찰할 수 있다. 과연 피로인 송환자는 왜구이며,[5] 왜구와 해상은 서로 다른 존재인가?[6]

그리고 그의 주장처럼 ‘피로인 송환을 계기로 해구(=왜구)는 해상으로 전환되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피로인 송환이 이루어진 이후 왜구의 침구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사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고려 말에 이어 조선조에 와서도 왜구 침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왜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그 침구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국 · 중국 · 일본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사료를 근거로 전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패러다임을 만든 그가 과연 이러한 사실 관계를 모르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일까?

한편 나카무라 히데다카가 황국사관에 입각하여 왜구를 비롯한 전근대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왔음을 지적한

代の日鮮関係」,『岩波講座　日本歴史』, 岩波書店, 1934; 中村栄孝,『日鮮関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中村栄孝,『日本と朝鮮』, 至文堂, 1966).

5) 피로인 송환에 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이 피로인 송환자에 대해 왜구이거나 왜구가 아닌 경우, 왜구일 수도 있는 경우 등 그 실체에 대해 애매하게 말하고 있다(한윤희,『여말 · 선초 피로인(被虜人) 송환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 나카무라 히데다카 · 아키야마 겐조(秋山謙蔵) ·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모두 ‘왜구의 종식=무역상인의 활동’이라고 여길 정도로 왜구와 해상(=상인)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中村栄孝, 위의 글,「室町時代の日鮮関係」, 4쪽;秋山謙蔵,『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1939, 478쪽; 田中健夫,『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9, 36쪽), 세키 슈이치(関 周一) 역시 대마도민(對馬島民)의 송환 예를 거론하며 “그들은 원래 왜구였던 자와 상인(해상)들(즉 해민)이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関 周一, 위의 책, 33쪽)라고 하며 앞의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왜구와 해상을 다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출판된 책에서는 왜구를 설명하며 ‘왜구는 조선반도와 중국대륙에서 쌀이나 사람 등을 약탈하는 해적을 가리키는 말인데, 약탈한 사람이나 물건은 상품으로서 교역하기 때문에 상인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関 周一,『対馬と倭寇』, 高志書院, 2012, 4쪽)고 하고 있다. 즉, 왜구가 상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2002년의 견해와는 달리 왜구와 상인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들이 발표되었다.[7] 나카무라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실시한 사업 중 하나인 조선의 고적 조사 및 보존사업과 『조선사(朝鮮史)』 편수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다.[8] 그는 20년간 조선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자료로 조선에 관한 역사에 대해 섭렵하였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등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에 적극 관여한 것이다.[9]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그는 전근대 한일관계사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으며, 그의 연구를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日鮮關係史の研究』(上 · 中 · 下, 吉川弘文館, 1965~1969)[10]는

---

7) 이 영, 「조선사 편수관(朝鮮史編修官)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의 왜구 패러다임과 일본의 왜구 연구」, 『일본학연구소』 제28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2014(이하 「조선사 편수관」으로 약칭); 이 영, 「일본의 왜구 연구와 14-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인식」, 『동양사학연구』 127집, 2014; 이 영,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조선사 편수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의 왜구 왜곡의 배경에 관한 한 고찰-」, 『한국중세사연구』 제40호, 한국중세사학회, 2014(이하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으로 약칭); 이 영, 「일본의 조선사 연구의 권위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와 문제점 -『일본과 조선(日本と朝鮮)』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56집, 2015(이하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과 문제점」으로 약칭). 이 논문들은 후에 『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2015에 실림.

8) 이 영, 위의 글, 「조선사 편수관」.

9)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조선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 영, 위의 글, 「조선사 편수관」을 참조.

10) 『日鮮關係史の研究』(上 · 中 · 下)는 나카무라가 패전 후 조선에서 돌아와 1965년부터 1969년에 걸쳐 간행한 연구서로, 이 세 권의 연구서로 그는 1970년 일본의 학술상으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일본학사원상(日本學士院賞)을 수상하고, 또한 그 중에서 특히 뛰어난 각 부(部) 1건 내지 2건에 준다는 은사상(恩賜賞, 황실의 하사금으로 수여)을 동시에 수상하였다(일본 위키피디아 참조 https://ja.wikipedia.org/wiki/%E6%81%A9%E8%B3%9C%E8%B3%9E_(%E6%97%A5%E6%9C%AC%E5%AD%A6%E5%A3%AB%E9%99%A2. 2020년 10월 31일 오전 10시 50분 검색). 본 상의 심사평가 요지에 따르면 "특히, 상대측인 조선의 방대한 사료를 구사하여 수백 년에 걸친 조선의 국정 변동과 이와 관련하여 요동하는 대일 교린 무역정책의 추이를 면밀히 추구, 논술함으로써, 일본의 대외관계사에 새로운 면을 연 것이고, 일선관계사 연구는 여기에 중요한 문헌을 더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의 추진에 강고한 초석을 다진 것이라 할 수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들에게 명저(名著)로 평가받고 있다.[11)]

이 영의 연구에 따르면, 나카무라의 연구는 황국사관에 입각해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제국주의 일본의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그의 입장을 반영한 목적 지향성에 근거한 것으로, 치밀하고 교묘한 역사 왜곡으로 점철된 것이었다고 한다.[12)] 이처럼 황국사관으로 왜곡된 나카무라의 연구는 패전 이후를 지나 현재까지도 전근대 한일 관계사, 특히 왜구 연구사의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다.[13)]

그렇다면 피로인 송환 연구와 관련한 그의 주장, 즉 '피로인 송환을 통해 해구가 해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설이 과연 맞는 것인지, 황국사관이라는 사상 아래에서 형성된 논리는 아닌지, 현시점에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 말 피로인 송환은 14세기 말 왜구 침구로 인한 동아시아 삼국의 군사·정치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었고, 이는 곧 고려와 일본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구축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14)] 그렇다면 조선 초의 피로인 송환은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일까?

있다."며 심사위원이 극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中村栄孝君の「日鮮關係史の研究」上,中,下三巻に対する. 授賞審査要旨」. 일본 야후재팬에서 검색). ※ 본 주석의 내용은 이 영, 위의 주(7)의 글,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의 내용을 참조로 검색하여 쓴 것임을 밝혀둔다.

11) 『日鮮關係史の研究』에 앞서, 다나카 다케오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일조관계사(日朝關係史)의 개설(概說)이라고 칭하며 오늘날의 고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田中健夫, 『対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 吉川弘文館, 2003, 135쪽), 『岩波講座 日本歷史』에 실린 논문 중 하나인 「室町時代の日鮮關係」는 나카무라 히데다카가 구축한 왜구 패러다임의 기본이 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이 후에 『日鮮關係史の研究』(上)에 실린 것으로, 1934년에 논문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약 86년간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여전히 기본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12) 이 영, 위의 주(7)의 글, 「조선사 편수관」.

13) 나카무라의 왜구 관련 제 학설이 전후 일본 왜구 연구에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현재도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이 영, 위의 글 참조).

14) 한윤희, 앞의 논문.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피로인을 송환하는 자에게 있어 피로인 송환은 '조선과 통교(즉 무역)하는 계기'가 되었으며,[15] 이를 계기로 양자의 무역을 촉진[16]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7] 그런데 이는 나카무라의 주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고려·조선에 피로인을 송환하여 고려·조선 정부의 환심을 사 무역을 하게 되었고, 점차 이를 모방하는 자들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조선조에 들어와 피로인 송환자인 왜구를 해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18] 과연 기존 연구의 주장처럼 피로인 송환은 해구를 해상으로 전환시킨 역할을 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로인 송환이 이루어지는 조선 태조~세종대까지의 피로인 송환과 왜구 침구의 양상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선 태조~세종대까지 약 58년간이라는 넓은 범위의 시기를 본고

15) 関 周一, 앞의 책.

16) 秋山謙蔵, 「「倭寇」による朝鮮·支那人奴隷の掠奪とその送還及び賣買」, 『社会経済史学』 2권 8호, 1932, 8의 38(826); 秋山謙蔵,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1939, 370쪽.

17) 다나카 다케오도 세키 및 아키야마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田中健夫, 주(6)의 책, 21쪽). 피로인 송환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처럼 피로인 송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조선정부-일본 제호족간의 무역을 전개하고 촉진하는 수단'으로서만,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8) 中村栄孝, 위의 글, 「室町時代の日鮮関係」, 9쪽·12~13쪽. 나카무라의 왜구 패러다임은 왜구 문제를 일본 국내의 군사 및 정치 정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무역이나 경제의 문제로만 귀결시켰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이 영, 위의 글). 따라서 막부의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 등의 왜구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고려(조선) 외교 활동을 당시 일본이 처한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 측면에서 논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논하고 있다(이에 대한 내용은 이영, 앞의 주(7)의 글,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과 문제점」를 참조). 이는 비단 나카무라 한 연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나카무라와 함께 대외관계사 학계를 이끌어 간 다나카 다케오, 심지어 일본의 중세시기 규슈연구의 대가이자 『今川了俊』(吉川弘文館, 1964)을 집필한 가와조에 쇼지(川添昭二)마저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에서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한 세종대에는 전대인 태종대에 비해 피로인 송환 횟수가 반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19] 피로인 송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조선 태조~태종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나카무라와 현재 학계의 논리를 비교해볼 것이며, Ⅱ장에서는 나카무라의 주장처럼 피로인이 송환된 이후 왜구의 침구가 실제로 없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나서 Ⅲ장에서 사료를 통해 왜구가 과연 해상으로 '전환'된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피로인 송환을 통해 해구(=왜구)가 해상으로 전환되었다는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논리가 사실인지 검토하려는 것인데, 본고에서는 이를 '〈해구에서 해상(=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이라 명명하기로 한다.[20] 이번 검토는 현재 학계에서 통설

---

19) 関 周一, 위의 글, <表 1> 및 한윤희, 위의 글, <표 1> 참조.

20) 이 설을 계승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바로 다나카 다케오이다. 다나카는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도쿄대학 국사학과 후배로, 왜구 연구에서 최초로 전기왜구(前期倭寇)와 후기왜구(後期倭寇)로 그 성격을 구분하였는데(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2), 이러한 분류에 대해 학계의 비판을 받기도 하고(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 참조), 또한 다나카 본인도 이러한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14~15세기의 왜구', '16세기의 왜구'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田中健夫, 『倭寇, 海の歴史』, 教育社, 1982(2012년에 講談社学術文庫로 출판)).

다나카는 14~15세기에 활동한 왜구(=전기왜구)는 단순히 생활 필수 물자(식량) 약탈을 목표로 한데 반해, 16세기의 왜구(=후기왜구)는 밀무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田中健夫, 위의 두 연구서 등) 그러나 다나카는 이후의 논고에서 14~15세기의 왜구가 대규모 집단이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동아시아 통교권의 존재에서 그 이유를 찾았는데, 상인의 행동권과 왜구의 행동권이 어떤 면에서는 일치하고, 어떤 면에서는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다(田中健夫,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日本の社会史』 第1巻, 岩波書店, 1987, 168쪽)고 하면서, 후기왜구와 같이 전기왜구의 성격도 상인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왜구의 주체에 있어서도 전기왜구는 일본인도 있었지만 화척(禾尺)·재인(才人) 등의 조선인도 많이 참가했을 것이라고 하여, 소위 <왜구=고려·조선인 주체>설을 주장하였다(田中健夫, 『倭寇, 海の歴史』, 24쪽). 이는 다시 다나카의 도쿄대학 후배 교수였던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경계인(境界人)>설로 이어진다.

(通說)로 여기고 있는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왜구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의 일환으로, 역사 왜곡에 앞장선 그의 연구는 모두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가. '평화적 통호자(通好者)'에서 '평화적 통교자(通交者)'로

본장에서는 나카무라의 연구를 비롯하여 선행연구가 피로인 송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평화로운 통호자(平和な通好者)'에 대한 용어에 대해 잠시 짚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나카무라의 글 곳곳에서 이 용어를 발견할 수 있으며, 나카무라 이후 타 연구자들의 논고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학계에서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나카무라는 패전 이후 나고야대학(名古屋大學)과 덴리대학(天理大學)에서 재직했었는데, 흥미롭게도 나고야대학의 교수인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는 <왜구=고려 · 일본인 연합설>을, 덴리대학의 교수인 후지타 아키요시(藤田明良)는 <왜구=다민족 · 복합적 해적설>을 주장하게 된다(이 영, 위의 주(7) 글, 「조선사 편수관」. 다나카 다케오의 왜구 연구 및 이후의 왜구 연구에 관한 동향에 대해서는 이수열, 「왜구론의 행방: '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1, 2019을 참조. 비슷한 글로는 나카다 미노루(中田稔),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10가 있음). 이렇게 다나카를 비롯하여 이후 연구자들의 위와 같은 왜구 주체설, 그리고 왜구의 발생 원인을 고려 정부의 무능함이나 토지제도의 문란에서 찾는 일단의 연구들은 나카무라가 제시한 왜구 패러다임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이 영, 위의 글, 「조선사 편수관」)고 한다. 어쨌든 본고는 다나카 다케오의 소위 <14~15세기 왜구의 변질>설의 첫 출발점인 나카무라의 <해구에서 해상으로의 전환>설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나카무라의 학설에 대해 관련 연구에서 고찰한 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평화로운 통호자’는 나카무라의 논고에서 자주 등장한다. 때로 ‘평화로운 교통자(交通者)’[21]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평화로운 통호자(通好者)’로 쓰이고 있다. 나카무라의 연구 외에 왜구 및 피로인 송환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도 완전히 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15세기에 들어와 왜구가 평화로운 존재로 변모하였다고 하면서, ‘평화로운’이나 ‘평화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4~15세기의 왜구가 평화적인 통교자(=상인)로 전환됐다고 보는 견해

연구자	연도	내 용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	1934	“왜구의 배후에 숨은 통제자인 것 같은 자(者)도 점차 평화로운 통호자로서 조선 연해를 방문하게 되었다.”[22]
아키야마 겐조(秋山謙蔵)	1939	“이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왜구로서 활약한 자가 점차 평화적인 무역을 수행하는 상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명확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23]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1959	“왜구의 행동 상황, 구성원을 검토하고, 평화적인 상업활동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규명하고 싶다.”[24]
	1982	평화적 통교의 전개[25]

21) 中村栄孝, 위의 글, 15쪽 및 中村栄孝, 위의 책, 『日鮮關係史の研究』(上) 152쪽.
22) 中村栄孝, 위의 글, 15쪽.
23) 秋山謙蔵, 위의 책, 478쪽. 아키야마의 경우, ‘평화로운 통교(平和なる通交)’라는 용어를 나카무라에 앞서 사용한 글이 있으나, 그 내용이 왜구가 평화로운 통교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이 조선과 평화로운 통교를 계속하였다’는 내용에서 평화로운 통교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秋山謙蔵, 「室町初期に於ける九州探題の朝鮮との通交」, 『史学雑誌』 제42편 제4호, 1931, 4의 39(435)) 표에는 넣지 않았다.
24) 田中健夫, 위의 주(6)의 책, 2쪽.
25) 田中健夫, 위의 주(20)의 책, 『倭寇, 海の歴史』.

위는 왜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만을 예로 든 것뿐이다. 어쨌든 1934년에 나카무라 히데다카가 '평화로운 통호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이래로, 아키야마 겐조가 1939년 왜구가 '평화적인 무역을 수행하는 상인'으로 이행했다고 하였으며, 다나카 다케오도 아키야마와 마찬가지로 소위 전기왜구(前期倭寇), 즉 14~15세기의 왜구가 '평화적인 상업활동'으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다나카는 1982년에 출판한 『倭寇, 海の歷史』에서 해당 시기의 왜구가 조선·중국과 평화적으로 통교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의미로 절(節)의 제목을 '평화적 통교의 전개(平和的通交の展開)'라고 쓰고 있다.

이외에 왜구를 직접적으로 평화적 통교자라고 지칭하거나 왜구가 상인으로 이행했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세키 슈이치·스다 마키코(須田牧子) 등의 일본의 대외관계사 관련 연구자들의 논고에서 '평화적 통교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26]

나카무라가 사용한 이 용어가 점차 관련 연구에서 완전히 하나의 키워드(keyword)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2008년에 출간된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桃木至朗 編, 岩波書店, 2008)이다. 이 책은 해역아시아사연구회[27]가 창립 15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간행된 것으로, 9세기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주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 관한 일본의 연구에 대해 32명의 연구자가 각 주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주된 사료를 소개, 최근의 연구 경향까지 언급한 연구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28] 2012년에는 한국에 번역본까지

---

26)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6, 95쪽; 関 周一, 위의 주(2)의 책, 41쪽; 須田牧子, 『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 東京大學出版會, 2011, 34쪽.

27) 해역아시아사연구회란 1993년에 대외관계사 및 해상교류사 등을 전공하는 간사이(関西)의 젊은 연구자·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구회이다.
(해역아시아사 연구회 공식 블로그 참조 https://plaza.rakuten.co.jp/kaiikiofficial/)

28) 김연옥은 일본역사학계의 해양사 관련 연구동향을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및 『史学雜誌』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김연옥, 「일본역사학계의 해양사 최신연구현황과 과제-14세기 후반~19세기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8, 2017).

나와 있다.[29] 본 책의 제1편 제2부의 「제9장 '왜구론의 행방(倭寇論のゆくえ)'」은 '1.전기왜구', '2.후기왜구' 이렇게 두 가지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전기왜구'의 소제목 중 (8)의 제목이 '왜구에서 평화적 통교자로(倭寇から平和的通交者へ)'이다. 해역 아시아사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한만큼[30] 본서의 내용은 일본의 통설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책에 나카무라가 늘 사용하던 '평화적 통호자'에서 한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평화적 통교자'라는 용어가 아예 한 챕터(chapter)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용어는 한국의 관련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로 신편 『한국사 22』에 수록된 내용을 들 수 있다.

> A. 조선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남쪽 변경의 평화였고, 기본방식은 왜구를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31]
> B. 제1기는 태조 원년(1392)에서 세종 원년(1419)까지로 중앙정부간에 국교를 체결하고, 왜구진압정책에 진력한 시기이다. 또 조선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왜구가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되었는데 조일통교의 성립기 내지 준비기라고 할 수 있다.[32]
> C. 조선 초기의 성공적인 왜구대책으로 인해 왜구들은 분해되면서 대부분 평화적인 통교자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다.[33]
>
>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이 『한국사』 시리즈는 1970년대에 총 25권을 간행하여 해방 이후 한국사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였다. 이후 연구 성과가 미진한 분야를 연구하여 1991년 '신편 한국사 편찬

---

29) 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12.
30) 「제9장 왜구론의 행방(倭寇論のゆくえ)」의 집필 담당은 하시모토 유(橋本雄)·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로, 두 사람 모두 일조(日朝)·일명(日明)관계사 연구자이다.
31) 하우봉, 「4.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2003, 370쪽.
32) 하우봉, 위의 글, 372쪽.
33) 하우봉, 위의 글, 376쪽.

위원회'를 구성, 총 60권에 달하는 새로운 『한국사』를 간행하게 된다.[34] 한국사에서 통설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책에서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평화로운 통교자'라는 용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35] A · B · C 모두에서 왜구가 '평화로운 통교자'로 '변질'(C) 내지는 '전환'(A · B)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왜구가 '분해'(C)되었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구가 분해 · 변질되었다는 주장은 바로 다나카 다케오의 주장이며,[36] 이 책에서도 다나카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37]

---

34) 「한국사 간행취지」, 위의 주(31)의 책.

35) 하우봉의 글에서 이 '평화적 통교자'라는 용어는 필자가 제시한 세 가지 예 이상으로 더 발견되고 있다(하우봉, 위의 글, 376쪽). 이 외에 하우봉은 2018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간행된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라는 책에서 「제4장 15~16세기 조선의 대일 외교」 부분을 집필하였는데, 본문의 예시 그대로 똑같거나(A), 약간 축약된 형태일 뿐(B), 조선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해 왜구가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되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하우봉, 「제4장 15~16세기 조선의 대일 외교」,『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36) 14~15세기의 왜구가 다른 존재로 분해 · 변질되었다는 것이 다나카 다케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다나카는 왜구가 특히 세 가지 방향으로 분해 내지는 변질되었다고 보았는데, <1.투화왜인, 2.사송왜인 혹은 흥리왜인, 3.원래대로의 해적>이 바로 그것이다(田中健夫, 앞의 주(6) · (20)의 책. 이 외에도 그의 왜구 관련 연구서들에서 왜구의 변질설이 등장한다.). 그는 왜구가 분해된 이유로, "무로마치 초기의 무역상인이 왜구 진출과 선을 같이 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그 배후에 빈번한 남해무역과의 연계를 가지며, 조선의 회유책과 우리 나라 서국(西國) 제호족의 무역장려책의 미묘한 상대관계를 만나, 조선 · 우리 나라의 외국물자 수요의 요망에 따르면서 그 활동을 전개했다. 때문에 주위의 정세에 따라 수시로 그 모습을 바꾸어 상인으로서, 사인으로서, 때로는 해적이 되어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던 것도 또한 저절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田中健夫, 위의 주(6)의 책, 32쪽). 즉 왜구가 수시로 모습을 바꾼 이유는 왜구의 내부 사정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주위의 정세, 즉 외부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왜구 발생의 원인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왜구도 일본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는 관련 없이, 고려 국내 정치의 문란 및 고려의 무역 제한 등, 외부의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그것이다(田中健夫, 앞의 주(20)의 책). 어쨌든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료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고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37) 하우봉의 글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대개 본고에서 거론하는 다나카 · 나카무라와 같이 대표적인 왜구 연구자들의 연구이다(하우봉, 앞의 주(31)의 글).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나카무라 히데다카로 시작된 '평화적 통호자'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평화적 통교자'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학계에서 14·15세기의 왜구가 평화적인 상인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피로인 송환에 대한 평가

앞서 말했듯이 나카무라는 피로인 송환으로 인해 조선과 통교하는 왜인이 늘고, 결국 피로인 송환이 왜구를 해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그의 주장의 시작이자 저명한 논고인 「室町時代の日鮮関係」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나카무라는 2절 '倭寇から日鮮の修交へ'에서 고려 공민왕 15년(1366)의 금왜사절(禁倭使節) 파견부터 시작하여,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왜구를 중심으로 한 한일간의 외교 교섭에 대한 과정 및 왜구 침구에 대한 고려·조선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내용 중 피로인 송환과 관련이 있는 두 문단을 비교해보자. 아래의 1은 고려 말에서 초선 초기의 피로인 송환에 대한 설명이고, 2는 조선 초기의 피로인 송환에 대한 설명인데, 1과 2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 이리하여 막부의 세력을 대표하여 서국(西國)을 다스리던 규슈탄다이(九州探題)가 이에 직접 일여(日麗) 외교의 임무를 맡게 되고, 그 지지자인 츄고쿠(中国)의 오우치씨(大内氏)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와 사빙(使聘)을 통하게 된 것인데, 저쪽(고려, 필자 역)이 해적의 금제(禁制)를 요청하고, 피로인구의 쇄환을 요청하기 위해 누누이 사신을 파견해 온 데 대해, 우리(일본, 필자 역)는 ①이에 수반하는 신물(信

物)의 이윤을 목적으로, 일단의 금제를 명하여 ②관하(管下) 및 하카타(博多)의 무역시장에 모이는 피로인구—왜구가 고려·중국 방면에서 약탈해 온—를 송환하면서, ③점차 수호의 사신이 왕래하고, 이윽고는 서국(西國) 각지에서 이를 모방하는 자가 속출하여, ④일본과 조선간에 새로운 관계가 진전되는 선례가 된 것이다.[38]

2. ⑤탄다이(探題)의 이와 같은 통교(通交)는 크게 진서(鎭西)의 제다이묘(大名)를 자극한 것처럼, 태조 4년에는 시마즈씨(島津氏)가 전매되어 온 피로인구를 송환하여 好(수호, 필자 역)를 통(通)하고, 그 후 매해 사신을 파견하고, 오우치 요시히로(大內義弘)도 역시 빈번히 사신을 보냈으며, 이키(壹岐) 및 하카타(博多) 방면에서도 통호(通好)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요컨대 일찍이 왜구 때문에 약탈되어 와 노예로 사역되고 있던 자를 ⑥송환하면 의외의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간취하고 나서의 통호이며, 조선은 이에 의해 포로 쇄환을 행하는 동시에 해구의 단속을 요구하고, 그 진압의 한 방책으로 삼고자 시도한 것인데, ⑦이에 수반하여 당시 점차 하카타 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던 무역에 이상한 발전이 발견되는 것이다. ⑧그리하여 조선으로 계속해서 도항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차츰 해구에서 해상으로 전환하는 단서가 스스로 열리게 되었다.[39]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1과 2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대구(對句)가 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38) 中村栄孝, 위의 글, 9쪽.
39) 中村栄孝, 위의 글, 12~13쪽.

〈표 2〉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견해

	견해	내용	기호
(1)	피로인 송환의 목적	경제적인 이익 추구	①·⑥
(2)	이마가와 료슌의 피로인 송환이 끼친 영향	규슈 제호족의 조선과의 통교 증가	③·⑤
(3)	피로인 송환의 의의	· 해구가 해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됨 · 일본과 조선간에 새로운 관계가 진전되는 선례가 됨	④·⑧
(4)	피로인 송환이 하카타에 끼친 영향	하카타 지역의 무역 발전	②·⑦

위의 표와 같이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견해를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1) 피로인 송환의 목적 : 나카무라는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을 비롯하여, 오우치 요시히로·시마즈씨 등 모든 송환자의 송환 목적을 경제적인 이익 추구로 보고 있다. 이마가와 료슌의 송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으므로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의 피로인 송환은 당시 일본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군사·외교적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40] 피로인 송환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피로인 송환자들의 송환 목적에 대해 오로지 무역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데,[41]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의 경우처럼 다른 송환자의 송환 목적에 대해서도 당시 송환자가 처한 정치·군사·외교적인 상황을 상호 유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나카무라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료슌을 비롯

40) 한윤희, 위의 글.
41) 한윤희, 앞의 주(5)의 글.

하여 규슈의 제호족이 조선과 피로인을 송환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송환 목적을 경제적인 이익 추구로 보고 있다.

(2) 이마가와 료슌의 피로인 송환이 끼친 영향 : 나카무라는 료슌이 피로인 송환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자, 이를 모방하는 규슈의 제다이묘들이 피로인 송환을 빌미로 조선과 통호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이마가와 료슌의 피로인 송환이 끼친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선 초기 피로인 송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42]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정황상의 추측일 뿐, 명확한 근거는 없다.

(3) 피로인 송환의 의의 : 1에서 나카무라는 신물(信物)의 이윤을 목적으로 서국 각지에서 피로인 송환을 모방하는 자가 속출하고, 결국 일본과 조선간에 새로운 관계가 진전되는 선례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 일본과 조선간의 '새로운 관계'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2에서 대구되는 부분이 ⑧이기는 하나, '새로운 관계'와 '해구에서 해상으로의 전환'의 접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다나카 다케오의 언급에 대해 살펴보자.

> 이후 조선으로부터의 왜구 금압과 포로 송환의 요구는 이어지고, 우리 나라에서도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사다요)이 일천 수백명의 조선인을 송환한 것을 필두로 하여, 규슈 제호족에 의한 부로(俘虜) 송환이 이어져, 여기에 일선(日鮮) 관계는 사적(私的) 교섭에서 공적(公的) 교섭으로 일전(一轉)을 보게 되는데 이르렀다.[43]

다나카 다케오는 아키야마 겐조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데,[44]

---

42) 왜 이시기에 피로인 송환이 많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송환지역의 정치 · 경제 · 군사적인 상황, 그리고 일본의 대명(對明) · 대조(對朝) 관계의 불안성과 관련지어 살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추후의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43) 田中健夫, 앞의 주(6)의 책, 13쪽.

44) 다나카는 아키야마 겐조의 논문(秋山謙蔵, 앞의 주(16)의 글)을 주석에 표기하였는

피로인 송환으로 인해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사적(私的) 교섭에서 공적(公的) 교섭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이마가와 료슌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 고려와의 외교 교섭을 경제적인 댓가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적 교섭 내지는 사적 통교로 보는 시각[45]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카무라는 료슌의 고려와의 교섭에 대해 "규슈탄다이가 중앙 정부를 제쳐두고"라는 표현을 쓰고,[46] 또 "이마가와 사다요(료슌)는 신왕조대(代)가 되자, 중앙 정부와 아무런 연락 없이 빈번한 직접 교섭을 전개해 갔다."고 하였다.[47]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정종 1년(1399) 5월, 무인년(1398)에 왜구 금압을 위해 통신관으로 일본에 갔던 박돈지(朴惇之)가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일본국 대장군(日本國大將軍), 즉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사신을 보내 방물(方物)을 바치고 피로인 남녀 1백여 인을 송환하였다.[48] 나카무라는 이 사절 파견에 대해 "이것이 정식으로 아시카가 쇼군에서 조선으로 수호(修好)의 사신을 파견한 시초로 여겨진다."[49]고 평가하고 있다. 요컨대 나카무라는 고려 말부터 일본과 왜구 문제로 교섭하고 통교한 것은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의 독자적

데, 근거로 든 아키야마 겐조의 논문에 위와 같은 내용은 없다. 주석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45) 나카무라가 료슌의 대고려(조선) 외교를 경제적인 목적, 사적 교섭으로 폄하하는 것은 현재 일본학계에서 소위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국왕 책봉=대명 무역의 이익 추구 목적>설로 통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영, 위의 주(7)의 글, 「일본의 왜구 연구와 14-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인식」 참조).

46) 中村栄孝, 앞의 주(4)의 책, 『日本と朝鮮』, 73쪽. 가와조에 쇼지 역시도 "이마가와 료슌은 막부를 제쳐두고" 고려와 교섭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川添昭二, 「今川了俊の對外交涉」, 『九州史學』 75, 1982, 40쪽).

47) 中村栄孝, 위의 책, 78쪽.

48) 『정종실록』1권, 정종 1년 5월 16일 을유조.

49) 中村栄孝, 앞의 주(4)의 글, 「室町時代の日鮮關係」, 14쪽.

이고 사적인 교섭일 뿐, 막부 쇼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남북조내란 당시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과 함께 규슈를 평정하고[50], 고려 정부에 군대를 파견해 왜구 금압에 힘쓰던 오우치 요시히로[51]가 이 박돈지의 사신 파견 때 중심인물로 활약한 것이다.[52] 당시 오우치 요시히로는 쇼군으로부터 사신 접대를 명받고, 조선 사신과 쇼군과의 사이에서 외교 문제를 중개하는 등[53] 1395년 이마가와 료슌의 갑작스런 규슈탄다이직 해임[54] 이후, 마치 그의 역할을 하기라도 하듯이 조선과 외교 교섭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55] 또한 나카무라는 위의 사절 파견에 대해 "어쨌든 여기에 오우치씨와의 수호를 매개로 무로마치 막부와 조선과의 통신이 열린 것이었다."라고도 평가하고 있는데,[56] 나카무라 본인이 논고에서 누누이 료슌뿐만 아니라 오우치씨도 경제적인 목적에서 중앙정부를 제쳐두고 고려(조선)과 사적 통교

---

50) 오우치씨의 규슈 진출에 대해서는 松岡久人, 『大内義弘』, 人物往來社, 1966 참조.

51) 고려 우왕 5년(1379) 5월, 우왕 4년에 금왜사절로 일본에 갔던 한국주가 귀국하였는데, 오우치 요시히로가 당시 박거사로 하여금 군사 186명을 거느리고 함께 가도록 하였다(『고려사』 권134, 우왕 5년 5월 무인조).

52) 위의 주(51)과 같이 오우치 요시히로는 1379년 군대를 고려에 파견한 이후 고려와의 통교 관계에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다가,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이 규슈탄다이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태조 4년(1395) 12월에 갑자기 16년 만에 조선에 토물을 바치며 등장하고(『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을사조),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선과 통교하고 있다(오우치씨의 조선과의 통교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須田牧子, 위의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

53) 박돈지의 사행 파견 과정과 오우치씨의 외교 교섭에서의 중개자 역할에 대해서는 須田牧子, 위의 책, 「第一章 大内氏の対朝鮮関係の変遷」을 참조.

54) 이마가와 료슌의 규슈탄다이직 해임 사건에 대해서는 松岡久人, 위의 책, 151~156쪽 참조.

55) 료슌의 갑작스런 규슈탄다이직 해임의 배후 인물로는 오우치 요시히로가 그 중심인물로서 잘 알려져있으며(松岡久人, 위의 책), 요시히로는 료슌이 규슈탄다이직에서 해임된 지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조선에 사절을 보내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왜구 문제를 둘러싼 대조선 외교 교섭에 관여하고 있다(須田牧子, 위의 책).

56) 中村栄孝, 위의 글, 14쪽.

를 했다고 언급했음에도,[57] 박돈지 사행 당시 오우치씨의 중개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에 오우치씨와의 수호를 매개로 무로마치 막부와 조선과의 통신이 열린 것이었다.""라고 그의 중개를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료슌처럼 사적으로 고려·조선과 통교한 오우치씨가 이번 막부의 조선 사절 파견에도 사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이것 역시 일본과 조선과의 '정식' 교섭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닐까?[58]

정리하자면, 나카무라는 피로인 송환에 대한 의의로 일본과 조선간에 새로운 관계가 진전되는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일본과 조선간의 새로운 관계'란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이 규슈탄다이직에서 퇴임하기 직전까지 일본과 고려·조선은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사적인 교섭만 있을 뿐이었으나, 그가 규슈탄다이직에서 퇴임한 이후부터는 막부 쇼군이 직접 조선과 통교함으로써 드디어 공적 교섭으로 전환되어 일본과 조선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우치씨 역시 사적 통교자로 본

57) 나카무라는 "이처럼 규슈탄다이가 중앙 정부를 제쳐두고, 직접 일여(日麗) 외교의 중임을 맡게 되고, 그 지지자 오우치씨도 마찬가지로 고려와 사자를 왕래하게 되었다. 그들은...(중략)...신물(信物) 입수의 이윤을 목적으로..(중략)..,피로인구를 송환하고 수호의 사신을 왕래시켰다."(中村栄孝, 앞의 주(4) 책, 『日本と朝鮮』, 73쪽)고 하며 료슌과 함께 오우치씨도 경제적인 목적으로 고려와 사적인 교섭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58) 이외에도 그의 논고를 사료와 함께 검증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나카무라의 의도적인 서술 방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원인과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 극히 간단하게 서술하였는데 이는 황국사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큰 목적에 어울리는 사실(史實)을 강조하고 거기에 반하는 사실을 숨기는 경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이 영, 앞의 주(7) 글,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과 문제점」). 확실히 그의 글 곳곳에서 사실을 나열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부분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고에서 계속 드러날 것이다.

그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므로 피로인 송환에 대한 의의로는 성립될 수 없는 의견이다.

한편, 앞에서 '평화적 통교자'라는 용어가 한국학계에서도 자리잡았음을 서술하였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나카무라의 피로인 송환에 대한 평가 세 가지도 모두 한국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다음의 서술을 살펴보자.

> 이 때까지는 九州探題인 今川了俊과 西國地域의 유력호족인 大內義弘이 대조선외교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중략) 구주지역의 호족들도 조선정부의 정책에 호응해 앞다투어 피로인 송환에 나섰다.
>
> 이와 같이 조선정부가 실정막부와 함께 서국지역 호족들과도 교섭하는 형태와 방식은 고려말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 조선국왕과 막부와의 사절왕래를 계기로 점차 사적 교섭에서 공적 교섭으로 성격을 바꾸어가게 되었다.[59]

위는 1절에서 언급했던 신편『한국사 22』중 일부이다. 내용을 보면 나카무라의 논리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규슈탄다이와 오우치씨가 막부를 제쳐두고 직접 고려(조선)와 외교에 나섬 → 이에 자극을 받은 규슈지역의 호족들이 피로인 송환에 나섬 → 막부도 피로인 송환하며 조선과 사절 왕래, 이로써 공적 교섭이 성립〉의 순이다. 발표된 지 약 86년이 지난 나카무라의 논고가 한국학계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0]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의의인 '해구에서 해상으로 전환하는 계기'에 대해서는 본고의 3·4장에 걸쳐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59) 하우봉, 위의 글, 370쪽.

60) 이 영은 한국의 역사학계가 고려 말 왜구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고 이는지를,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한국사』시리즈를 통해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역사학계는 고려 말 왜구에 대해서도 일본의 대외관계사 연구에 의존하고 있었다(이 영,「국사편찬위원회 간행『한국사』및『신편 한국사』의 고려 말 왜구 서술에 관한 한 고찰」,『한일군사문화연구』23, 2017).

(4) 피로인 송환이 하카타에 끼친 영향 : 나카무라는 피로인 송환으로 인해 '⑦하카타 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던 무역에 이상한 발전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대구되는 것이 '②관하(管下) 및 하카타(博多)의 무역시장에 모이는 피로인구-왜구가 고려 · 중국 방면에서 약탈해 온-를 송환하면서'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②관하(管下)'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어쨌든 하카타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②와 ⑦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므로, 피로인 송환으로 인해 하카타 지역이 무역으로 발전했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로인 송환이 하카타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주었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②'하카타(博多)의 무역시장에 모이는 피로인구-왜구가 고려 · 중국 방면에서 약탈해 온-를 송환하면서'라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하카타에 (피로인구를 사고 파는) 무역시장이 있었고, 송환자들은 그곳에서 피로인을 '사서' 송환을 했다는 말로 이해된다. 즉, 송환자는 피로인을 무역시장에서 사서 송환을 했을 뿐, 그들을 납치해서 송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송환자와 왜구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61] 그런데 피로인 송환으로 인해 결국 하카타의 무역이 발전했다는 주장은 아키야마와 비슷하다.[62] 아키야마는 당시의 노예매매 상황 등에 대해 관련 사료를 제시하면서 하카타의 무역 발전에 이러한 노예매매 상인의 활동도 현저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63] 반면 나카무라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하카타에 무역시장이 있었고, 송환자가 하카타에 있는 피로인을 사서 송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61) 아키야마 · 다나카 등의 연구자들이 송환자 중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 및 지지자 오우치씨와 왜구와의 관계에 대해 "극히 긴밀"하다거나(秋山謙蔵, 앞의 주(6)의 책, 476쪽 ; 田中健夫, 앞의 주(20)의 책, 『倭寇と勘合貿易』, 22쪽),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 있는(田中健夫, 앞의 주(6)의 책, 13쪽) 반면, 나카무라는 송환자와 왜구와의 관계라던가 송환자의 정체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62) 秋山謙蔵, 앞의 주(6) 책.

63) 秋山謙蔵, 앞의 주(6) 책, 478쪽.

앞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견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피로인 송환의 목적 · 이마가와 료순의 피로인 송환이 끼친 영향 · 피로인 송환의 의의 · 피로인 송환이 하카타에 끼친 영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 바, 나카무라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사료 내지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사실의 결과만을 나열하였을 뿐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피로인 송환에 관한 그의 패러다임은 식민사관으로 왜곡되어 다른 연구자들에게 확대 · 재생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견해 중 현재 학계에서 통설로 여겨지는 주장 중 하나인 '해구에서 해상(=평화로운 통호자)으로'에 대한 본격적인 규명을 시작하고자 한다.

3. 조선 초 일본의 사절 파견과 왜구의 침구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나카무라는 "피로인 송환을 계기로 조선과의 통교를 시작하게 되는 왜인이 점차 증가하여, 결국 이를 통해 왜구는 평화로운 통호자(즉, 해상)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나카무라의 '조선과 왕래하는 왜인이 늘자 왜구의 침구는 줄어들었다'는 논리가 사실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왜인이 무역을 하기 위해 조선에 오는 횟수가 증가하면 왜구 침구 행위는 점차 줄어들어야 한다. 표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표 3〉 조선 초기(태조~태종 연간) 일본의 사절 파견 · 피로인 송환 · 왜구 침구 횟수

시기(년)	일본사절 파견 횟수[64]	피로인 송환 횟수	왜구 침구 횟수	시기(년)	일본사절 파견 횟수	피로인 송환 횟수	왜구 침구 횟수
태조원(1392)	1	0	0	태종6(1406)	16	8	12
태조2(1393)	2	1	10	태종7(1407)	22	7	7
태조3(1394)	2	1	14	태종8(1408)	22	8	18
태조4(1395)	7	3	5	태종9(1409)	23	0	2
태조5(1396)	2	0	12	태종10(1410)	23	4	0
태조6(1397)	10	0	14	태종11(1411)	16	0	0
태조7(1398)	3	0	0	태종12(1412)	22	1	0
정종원(1399)	7	1	4	태종13(1413)	33	1	1
정종2(1400)	8	2	0	태종14(1414)	29	1	0
태종원(1401)	11	3	4	태종15(1415)	31	2	1
태종2(1402)	9	2	5	태종16(1416)	32	0	0
태종3(1403)	10	3	8	태종17(1417)	27	0	2
태종4(1404)	6	0	6	태종18(1418)	11	1	0
태종5(1405)	9	1	0				

* 위의 표는『조선왕조실록』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

위의 표에서 우선 일본의 사절 파견 양상부터 살펴보자. 태조 원년(1392)부터 태종 5년(1405)까지 14년간 매해 적게는 1회, 많게는 11회까지 일본에서 조선으로 사절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태종 6년에는 그 전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횟수가 늘고, 태종 7년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매해 평균 20회를 넘게 된다.

한편, 일본의 피로인 송환도 사절 파견 횟수가 급증하게 되는 태종 6년(1406)부터 급증하게 된다. 급증 시기가 태종 6년부터 태종 8년까지 3년이라는 단기간이기는 하나, 나카무라의 주장대로라면 피로인 송환이 늘어나는 이때부터 왜구 침구는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왜구 침구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4) '일본사절 파견 횟수'에는 '피로인 송환 횟수'가 포함된 것임.

〈표 4〉 조선 초기(태조~태종 연간) 왜구 침구의 양상

	시기(년)	침구 횟수(회)	침구 양상	비고
①	1392~1397	0~14	(고려 말에 비해)증가	
②	1398~1400	0~4	감소	
③	1401~1405	0~8	다시 증가	
④	1406~1408	7~18	격증	★1408년이 피크기
⑤	1409~1418	0~2	점차 감소	

조선 초기 왜구 침구의 양상을 다섯 시기로 구분해보았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태조 원년(1392)부터 태조 6년(1397)까지 0~14회의 침구 횟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왜구가 조선에 갑자기 침구했다기 보다는 고려 말에 이어 지속적으로 침구한 것으로,[65] 고려 말에 비해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침구 양상을 증가로 보았다. 이후 ②태조 7년(1398)부터 정종 2년(1400)까지는 0~4회로 감소하고 있다. ③태종 원년(1401)부터 태종 5년(1405)에는 0~8회로 ②의 시기보다 2배로 침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④태종 6년(1406)부터 태종 8년(1408)에는 침구가 7~18회로, ③의 시기보다는 약 2배, ②의 시기보다는 약 4배 이상 침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종 8년은 침구 횟수가 18회로 태조~태종 연간에 걸쳐서는 가장 많은 침구 횟수를 보이고 있어, 왜구 침구의 피크기(peak period)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⑤태종 9년(1409)부터 태종 18년(1418)까지는 0~2회로, 침구가 갑자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리하자면, 조선 태조~태종기의 왜구 침구는 〈증가-감소-

65) 이를 고려 말과의 침구 상황(이 영, '<표 4> 경인년 이후의 왜구 침구', 『잊혀진 전쟁 왜구』, 에피스테메, 2007, 82쪽)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1380년~1385년의 침구 횟수(8~14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왜구가 조선조에 들어와 갑자기 침구했다기 보다는 고려 말기인 1387년~1391년에 1회~9회에 걸쳐 침구하고 있으므로, 조선 태조대부터의 왜구 침구는 고려 말 왜구 침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증가-격증(최극성기)-점차 감소〉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66]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사절 파견 양상·피로인 송환 양상·왜구 침구의 양상을 비교해보면, 일본의 사절 파견 횟수가 급증하는 태종 6년(1406)에 왜구의 침구도 12회로 급증하게 되고, 태종 8년(1408)에는 제일 많은 18회를 기록하고 있다. 즉, 피로인 송환 횟수가 급증하는 태종 6년부터 8년까지 3년간이 조선조에 들어와 왜구의 침구가 가장 격심한 시기인 셈이다. 이후 태종 18년까지 왜구 침구는 0~2회로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나카무라의 주장대로라면 피로인 송환 및 일본의 사절 파견이 급증하게 되는 태종 6년부터 왜구 침구는 줄어들거나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표를 분석한 결과, 나카무라의 주장과는 반대로 왜구 침구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격증하였다. 이후에도 왜구의 침구는 간헐적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조선을 침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표에서 살펴본 위와 같은 상황은 사료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정부는 일본 사절의 파견이 늘어나는 당시 왜구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

66) 조선 초기 왜구의 침구가 왜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의 규슈 정세와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영에 따르면 고려 말 왜구의 침구 양상은 쓰시마(対馬)의 슈고(守護) 쇼니씨(少弐氏)가 규슈 본토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때에는 왜구의 침구가 증가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대폭 감소하거나 단 한 차례도 침구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한다(이 영,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2012(후에 이 영, 『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2015에 수록)). 특히,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규슈에서는 일본의 남북조 내란이 종식된 이후, 오우치씨(大内氏)의 규슈 진출로 인해 토착 호족인 오토모씨(大友氏)·기쿠치씨(菊池氏)·쇼니씨 등과의 대립으로 인한 쟁란이 끊이지 않았다. 즉, 고려 말기에는 규슈가 남북조 쟁란의 여파로 전쟁 상황에 놓여있었다면, 조선 초기에는 오우치씨의 본격적인 규슈 진출로 인한 토착 호족들과의 대립 양상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왜구 발생의 메카니즘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영, 「여말~선초 왜구 발생의 메카니즘-왜구의 실체에 관한 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참조.

다음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이 상서(上書)하여 진달한 시무(時務) 20조(條) 중 하나이다.

〈사료 1〉

1. "왜노(倭奴)가 근심이 된 지 오래온데, 지금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봉(封)하여 왕으로 삼았고, 주는 것을 후하게 하니, 만족하고 기(氣)가 나서 횡역(橫逆) 방자(放恣)함이 반드시 심할 것입니다. 마땅히 노성(老成)하고 학행(學行)이 있는 자 한 사람을 보내서 인호(隣好)를 수결(修結)하여 그 형세를 관찰해야 합니다. 신(臣)은 항상 말하기를, '우리의 근심이 될 것은 반드시 이들 왜노(倭奴)'라고 합니다."하였다.(이하 생략)[67]

원래 문신(文臣) 출신이나, 고려 말 우왕 대에 왜구가 승천부(昇天府)에 대거 침입하자 성석린은 조전원수(助戰元帥)로 임명되어 출전하였는데, 이때 후퇴하려는 장수들을 격려하여 결국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68] 고려 말대부터 왜구의 침구를 직접 목격하고 싸움까지 치룬 그가 왜인들의 왕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왜구는 항상 조선의 근심"이니 학식 있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 인호(隣好)를 맺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만큼 왜구의 존재는 당시 조선에게 있어 '평화로운 통교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왜구가 몹시 치성한 이때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여 태종이 상복을 입고 여러 날 정사를 보려 하지 않자, 성석린과 우정승(右政丞) 이 무(李茂)가 "지금 〈중국의〉 사신(使臣)이 관(館)에 있고 왜적(倭賊)이 변방을 범하는데, 어떻게 여러 날 정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69]라며 태종에게 정사를 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선이라

67)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갑술조.
68) 『고려사』 권제117, 열전제30, 성석린.
69)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무술조.

는 새로운 정부를 일으킨 태조의 승하임에도, 신하들이 왕에게 청정(聽政)을 요청할 정도로 왜구는 조선 정부의 큰 근심거리였다. 이외에도 천재지변과 시정의 잘못을 신하들과 논의하던 태종이 전해의 흉년으로 한 도(道)의 백성들이 모두 굶주림을 당하여 원망하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연군(鍊軍)·인보(隣保)·양전(量田) 세 가지 일은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바이나, 우리나라는 해구(海寇)가 염려스러우니, 어찌 폐지할 수가 있겠느냐?"[70]라고 말할 정도였다. 곧 천재지변으로 인한 백성들의 괴로움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보다 왜구의 침구가 더 염려스러워 여러 가지 정책을 폐지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이처럼 왜인들의 왕래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왜구의 침구는 극에 달하고 있었고,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은 나카무라의 주장처럼 ‘평화로운 통교자’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15세기 왜구의 활동 양태

본 장에서는 왜구라는 존재가 과연 해구에서 해상으로 전환된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조선 태조에서 태종 연간의 왜구 침구를 염두에 두면서 같은 시기 중국의 왜구 침구 상황을 살펴보자. 〈표 5〉는 왜구 침구 횟수를, 〈표 6〉은 〈표 5〉를 가지고 왜구의 중국 침구 양상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70)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4월 을축조.

〈표 5〉 홍무 25년 ~ 영락 16년 왜구의 중국 침구[71]

시기(년)	왜구 침구 횟수	시기(년)	왜구 침구 횟수
홍무25(1392)	0	영락5(1407)	0
홍무26(1393)	1	영락6(1408)	1
홍무27(1394)	2	영락7(1409)	2
홍무28(1395)	0	영락8(1410)	2
홍무29(1396)	0	영락9(1411)	4
홍무30(1397)	0	영락10(1412)	0
홍무31(1398)	3	영락11(1413)	2
건문1(1399)	0	영락12(1414)	0
건문2(1400)	0	영락13(1415)	1
건문3(1401)	2	영락14(1416)	2
홍무35(1402)	0	영락15(1417)	1
영락1(1403)	1	영락16(1418)	2
영락2(1404)	4		
영락3(1405)	0		
영락4(1406)	8		

〈표 6〉 홍무 25년 ~ 영락 16년 왜구의 중국 침구 양상

	시기(년)	침구 횟수	침구 양상	비 고
㉠	1392~1403	0~3	간헐적 침구	
㉡	1404~1406	0~8	격증	★1406년이 피크기
㉢	1407~1418	0~4	꾸준히 침구	

왜구는 ㉠홍무 25년(1392)부터 영락 1년(1403)까지 약 12년 동안에는 0~3회 정도로, 평균 매해 1.5회의 침구 횟수를 보이고 있다. 1395~1397년 · 1399~1400년에는 연속적으로 침구를 하지 않고 있어,

71) 〈표 5〉는 鄭樑生의 『明 · 日關係史研究』(雄山閣, 1994) 중 '表13 永樂年間における倭寇入寇の実態', 田中健夫의 『倭寇, 海の歴史』 중 '明における倭寇の行動地域と行動回数', 그리고 『対外関係史総合年表』(対外関係史総合年表編集委員会 編, 吉川弘文館, 1999)을 비교 · 대조하여 작성한 것임.

이 시기에는 왜구가 간헐적으로 침구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영락 2년(1404)부터 영락 4년(1406)까지 약 3년 동안에는 0~8회 정도로, ㉠의 시기에 비해 대략 3배 가깝게 그 침구 횟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406년이 8회로, 가장 많은 침구 횟수를 보여 해당 시기 중 왜구 침구의 최극성기(最極盛期)라 할 수 있겠다. ㉢영락 5년(1407)부터 영락 16년(1418)까지 약 13년 동안에는 0~4회 정도로, ㉠의 침구 횟수와 비슷하지만 13년간 1407 · 1412 · 1414년의 0회의 침구를 제외하면, 1~4회로 꾸준히 침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조선의 침구 양상과 비교해보자. 양국의 왜구 침구의 격증 시기에 있어서 조선은 ④1406~1408년, 중국은 ㉡1404년~1406년으로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최극성기는 조선은 1406년, 중국은 1408년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에서 왜구 침구가 점차 감소하는 ⑤1409년~1418년의 시기에 중국에서는 꾸준히 침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조선에서는 태종 9년부터 급격하게 침구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태종 13 · 15 · 17년 정도에만 한두 차례 침구하였을 뿐이다. 침구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태종 13 · 15년에는 제주 지역을 침구한 것인데,[72] 태종 13년의 침구는 왜구가 제주도에 직접 상륙했다기보다는 경차관을 호송하던 제주 병선 한 척이 우연히 왜구를 만나 싸운 것이었고,[73] 태종 17년 7월의 침구는 영일진 병마사(迎日鎭兵馬使) 등이 해안에 올라와 물을 긷던 왜구를 만나 5명 중 3명을 사로잡은 것이었다.[74] 이들 경우는 본격적인 침구라기 보다는 중국으로 침구하기 위해, 혹은 침구하고 돌아가던 중 조선의 병선 내지는 병사와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표 5〉와 함께 살펴보면, 실제로 태종 13 · 15 · 17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중국의 왜구

72)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갑자조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5월 을축조.
73) 위의 주(72).
74)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신유조.

침구 기록을 볼 수 있다.[75] 해당 시기 왜구의 주된 중국 침구 지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홍무 25년 ~ 영락 16년 왜구의 주요 중국 침구 지역

* 출처: 구글 지도 편집

75) 조선에 왜구가 간헐적으로 침구하던 이 해당시기에 중국에는 왜구가 지속적으로 침구하고 있다. 나카무라의 논리대로 왜구 침구가 점차 줄어든 그 시기에 왜구가 평화적 통교자로 변모한 것이 맞다면, 조선 정부에서는 더 이상 왜구에 대한 근심·걱정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태종 13·15·17년에 명에서 정왜(征倭) 논의가 나오거나, 왜구의 중국 침구가 극심해지자 조선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3월 기해조·『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을미조·『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무오조·『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5월 갑자조).

앞의 그림을 보면 왜구가 대부분 중국 동부의 연해 지역을 침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조선의 서해안을 거쳐 가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의 태종 13·17년의 경우처럼, 왜구는 중국을 침구하기 위한 경유지로 조선의 제주도[76]와 같은 곳에 잠시 들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중국의 침구 횟수의 경우 0~8회로, 조선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규모는 그렇지 않았다.[77]

결론적으로 왜구는 조선에서는 침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시기에 중국을 꾸준히 침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중국을 침구한 이들 왜구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조선에 침구한 자들과는 다른 존재였을까? 아래는 조선에서의 왜구 침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태종 9년의 기사이다. 피로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기도 하다.

〈사료 2〉

왜선(倭船) 14척이 풍해도(豐海道) 장산곶(長山串)에 이르러 부녀자 17명을 미라산(彌羅山) 봉졸(烽卒)에게 맡기고 갔다. 왜적이 ㉠중국(中國)의 경계에서 이곳에 이르러 ㉡봉졸 박기(朴基)를 잡아 사변(事變)을 묻고, 우리 나라에 방비가 있음을 알고는 일부러 화호(和好)의 뜻을 보이기 위하여, 지난해 여름에 제주(濟州)·홍주(洪州)·선주(宣州)와 장연(長淵)·옹진(甕津)에서 약탈한 부녀자에게 양식을 주어 육지에 내려놓고, 곧 백령도(白翎島)로 향하여 갔다. 풍해도 도절제사 김계지(金繼志)가 보고하니...(이하 생략)[78]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76) "제주도는 왜구가 통행하는 길이어서...(이하 생략)"(『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임인조)

77) 영락 연간의 왜구 침구 실태에 따르면 영락 11년 정월의 침구 같은 경우, 왜적 3000여 명이 침구했으며, 또 영락 16년 5월의 침구는 영락 연간의 왜구 침구 규모 중 제일 큰 규모라고 보여지는 경우인데, 왜적의 배가 100척·왜적 7000여 명이 금산위를 침구한 경우이다(鄭樑生, 위의 책, 표13).

78)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신묘조.

〈사료 2〉는 태종 9년 2월, 왜선 14척이 풍해도 장산곶에 조선의 피로인 17명을 내려놓고 간 기사이다. 그런데 이 왜적들이 피로인을 내려놓고 간 이유가 흥미롭다. 우선 왜적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의 "중국의 경계에서 이곳에 이르러"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 왜적은 중국에서 노략질을 하고 풍해도 장산곶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장산곶에 이르러 왜적들이 일부러 피로인을 두고 간 것일까? ㉡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조선에 방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화호(和好)의 뜻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피로인을 두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조선의 방어가 허술했다면 그들의 행동은 달랐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료에서 추찰할 수 있다.

〈사료 3〉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慶尙道水軍僉節制使) 김을우(金乙雨)가 왜선(倭船) 2척을 잡았는데,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윤자당(尹子當)이 모두 죽였다. 왜선 2척이 경상도 국정도(國正島)에 이른 것을 김을우가 잡았는데, ㉢왜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역하러 왔다."고 하고, ㉣곧 종정무(宗貞茂)가 발급한 행장(行狀) 2장을 보였는데, 그 진위(眞僞)를 밝히기가 어려워서 윤자당이 억류하여 놓고 치계(馳啓)하였다.

"잡은 왜인 20인의 배 안에 실은 것이 모두 중국 물건이고, 또 대명(大明) 정해위(靖海衛)의 인신(印信)이 있으니, 실로 이들은 도둑질하는 왜구입니다. 사세가 반드시 도망쳐 갈 것 같으니, 모두 죽이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상선(商船)인지 적선(賊船)인지 분변하기를 기다린 뒤에 처치하라." 하였는데, 명령이 이르지 아니하여 왜인이 과연 틈을 타서 도망해 가므로, 이들을 잡아서 모두 죽였다...(이하 생략)[79]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79)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기미조.

위는 〈사료 2〉와 같은 일이 있은 지 바로 한 달 후인 태종 9년 3월의 기사이다. 왜선 2척이 경상도 국정도에 이르렀는데 이 때 왜인이 한 첫마디가 흥미롭다. ㉢"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역하러 왔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곧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본인들이 조선에 자주 해적질을 하러 오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무역을 하러 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거짓임이 밝혀진다.

㉣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이 조선에 무역하러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첫째, 왜인이 대마도 도주인 종정무(宗貞茂)가 발급한 행장(行狀)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행장의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 둘째, 그들이 배에 싣고 온 물건이 모두 중국 물건이고 심지어 중국 정해위의 인신(印信)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저 행장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아마도 저들 왜구는 중국에서 노략질한 물건들을 조선에 팔기위해 혹은 본섬으로 돌아가던 도중 행장을 위조한 것이 탄로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본인들에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평화로운 무역자 행세를 하고, 그것이 아닐 경우, 즉 조선의 방비가 허술한 상황에서는 언제든 노략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위에서 보았던 〈사료 2〉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사료3〉에서는 '행장'을 가지고 무역자 행세를 하였으나, 〈사료 2〉에서는 '피로인'을 가지고 그러한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즉, 왜구 행위 중 불리한 상황을 만나면(조선의 방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피로인을 조선에 돌려주며 평화로운 통교자인 척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왜구와 해상이 다른 존재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아래의 사례들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흥리(興利)하는 왜선(倭船)에 탔다가 조선 진주에서 도망쳐 조선

정부의 도움으로 중국까지 무사히 송환된 예관음보(倪觀音保)라는 중국인이 말하기를, “저 왜놈들은 모두 병기(兵器)를 간직하였다가 만약 배가 없는 곳에 이르면 침탈(侵奪)하고 병기가 있는 곳에 이르면 흥리(興利)하고자 원합니다.”[80]라고 한다. 또 강원도에 왜선이 출몰한 일로 태종이 승정원에 명해 의논하던 중, 판우군 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 이원(李原)이 “이 도적들은 반드시 경솔하게 들어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반간(反間)이 구집되었다 하더라도 저들은 본래가 욕심이 많으므로 그 이익을 얻지 못하면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여 방비가 없는 곳으로 돌입해서 서절(鼠竊)할 것이 두렵습니다.”[81] 라고 한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왜구는 항상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며 방비가 약한 곳에서는 약탈을 자행하고, 방비가 강한 곳에서는 무역자로 돌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료2〉와 〈사료 3〉의 경우 역시 방비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만나자 왜구에서 해상으로 그 모습을 바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들은 중국에서는 약탈 행위를, 조선에서는 중국에서 약탈한 물건을 파는 매매 행위를 하였다. 〈사료 3〉에서 왜선에 실린 물건이 모두 중국 물건이고, 왜인의 무역하러 왔다는 말로 보아, 중국에서 약탈한 물건을 조선에 판매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태종 16년의 기사를 보자.

〈사료 4〉

예조(禮曹)에 명하여 왜사(倭使)의 바치는 것이 만일 그 나라의 소산(所産)이 아니거든 받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중국(中國)의 물건을 도둑질하였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일본(日本)의 객인(客人)과 흥리 왜인(興利倭人)이 파는 중국 물건을 무역하지 마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

80)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5월 갑자조.
81)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정해조.

(慶尙道水軍都節制使) 정간(鄭幹)이 승정원(承政院)에 글을 부치기를,

"ⓑ왜사(倭使)가 본래 중국에서 훔친 물건을 우리 나라에 팔아서 의식을 자뢰(資賴)하는데, 일찍이 교지(敎旨)를 내리어 왜사의 도둑질한 중국 물건을 서울과 외방(外方)에 팔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금 왜사가 노기를 발하여 형세가 장차 변을 낼 것 같습니다."하였다. 의정부·육조·대간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왜인의 성질이 본래 사납고 악하여 기뻐하고 노하는 것이 무상(無常)한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의식(衣食)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반역의 마음을 품어 변경(邊境)을 침노하여 민명(民命)을 살해할 것입니다. 빌건대, 전하는 모르는체하여 외방에서 매매하게 하고 다만 서울 안에서 매매하는 것만 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중국(中國)에 신(臣)이라고 일컬으면서, 중국의 물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는가?"하였다. 박은(朴訔)이 아뢰기를,

"전하의 이 말씀이 지극하나, 중국의 도적을 접대하는 것이 중국의 물건을 사는 것보다 무엇이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왜사를 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해(沿海)의 백성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의 도적을 접대하였으니, 중국 물건을 외방에서 파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82]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위의 기사는 일본에서 사절 파견 횟수가 32회로 극에 달한[83] 태종 16년의 기사다. 태종은 왜사(倭使)가 바치는 물건 중 일본의 것이 아니면 받지 말라고 예조에 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왜사(倭使)가 중국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사(倭使)"란 바로 ⓜ"일본의 객인(客人)과 흥리 왜인(興利倭人)"을 가리키는 것 같다.[84] 그런데 조선 정부는

82)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을미조.

83) 앞의 <표 3> 참조.

84) 왜사(倭使)란 말 그대로를 풀이하면 일본에서 보내오는 사신을 가리키는데, 본 사료의 내용에 따르면 조선은 객인, 흥리왜인, 왜사의 살체를 동일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이 일본의 객인과 흥리왜인, 즉 상인들이 ㉥조선에서 중국에서 파는 물건을 팔아서 의식(衣食)을 자뢰해야 하는데, 이 ㉦의식(衣食)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조선 변경에서 약탈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조선 정부는 이 상인들이 곧 왜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사료를 통해 왜구의 침구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태종 16년 당시 조선 정부는 일본의 상인(=왜구)을 평화적 통교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왜구의 이중적인 모습, 즉 〈왜구=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조선은 ㉧과 같이 연해의 백성을 위해, 즉 혹시나 왜사가 왜구로 돌변해 연해의 백성을 해칠까 우려하여 그들을 우대하는 것이었다.[85]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조선을 침구한 왜구는 중국으로 그 침구지역을 옮겨 갔고, 주로 중국에서는 약탈 행위를 하는 '왜구'의 모습을, 그리고 조선에서는 흥리를 하는 '해상'의 모습을 각각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나카무라를 비롯한 기존 연구가 말하는 것처럼 피로인 송환이 왜구라는 존재를 평화로운 통교자, 즉 해상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①왜구의 침구 지역을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동시킨 것이며, ②중국에서는 '왜구', 조선에서는 '해상'과 같이 지역과

85) 당시 끊임없이 도래해오는 일본 사절을 조선이 우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태종 14년 7월 임오조의 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쇼군이 대장경을 조선에 청구하였는데, 대장경판을 보내줄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태종은 "다만 우리 지경을 침범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사자(使者)를 통래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7월 임오조). 또한 아리이 토모노리(有井智德) 역시 "당시 조선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통교하면서 명에 대해서는 왜구활동을 행한 자 중에서는 명에서 약탈한 물자를 조선에 팔아 무역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견(一見) 기이하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조선이 왜구 회유 정책의 일환으로서 명에 입구한 왜구가 사송객인 혹은 흥리왜인으로서 명에서 약탈한 물자를 조선에 무역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다(有井智德, 『高麗李朝史の研究』, 国書刊行会, 1985, 508쪽).

상황에 따라 활동 양상을 바꾸게 한 것이다. 이것이 곧 조선 초 피로인 송환이 갖는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전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제1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나카무라 히데다카는 "피로인 송환을 계기로 조선과 통교를 시작하게 되는 왜인이 점차 증가하여, 결국 이를 통해 왜구는 평화로운 통호자(즉, 해상)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나카무라 이후, 다나카 다케오 등 일본의 대외관계사 학계에서 이를 계승·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나카무라가 황국사관론자임이 주장되면서 위와 같은 의견 역시 그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일명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해구에서 해상(=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이라 명명하고,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보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의 논문 및 저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평화로운 통호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나카무라 히데다카가 처음 쓰기 시작한 '평화로운 통호자'라는 용어가 아키야마 겐조·다나카 다케오 등의 왜구 연구자들의 논고에서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형식으로 쓰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 '평화로운 통교자'라는 하나의 완성된 키워드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나카무라의 〈해구에서 해상으로의 전환〉설이 현재 학계에서 통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필자는 고려 말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의 피로인 송환은 14세기 말 당시 왜구 문제로 인한 한중일 삼국의 군사·외교적인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매개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조

선 초기의 피로인 송환은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나카무라가 피로인 송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그가 주장하는 '피로인 송환의 목적 · 이마가와 료순의 피로인 송환이 끼친 영향 · 피로인 송환의 의의 · 피로인 송환이 하카타에 끼친 영향'은 모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주장이었으며, 이는 결론만을 말하고 과정을 말하지 않는 황국사관의 큰 특징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본고에서는 나카무라의 논리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의문을 검토하였다.

첫째, 조선과 왕래하는 왜인이 늘자 왜구의 침구가 줄어들었는가?
둘째, 왜구와 해상은 서로 다른 존재인가?
셋째, 조선 초의 피로인 송환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우선 첫째, 조선과 왕래하는 왜인이 늘자 왜구의 침구가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나카무라의 주장과는 반대로 조선과 왕래하는 왜인이 격증한 시기에 왜구의 침구 역시 가장 많았다. 이후에도 왜구는 간헐적이지만 조선을 침구하고 있었다.

둘째, 왜구와 해상이 서로 다른 존재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 태조~태종 연간과 같은 시기의 중국에서는 거의 매해 꾸준히 왜구가 대규모로 침구하고 있었다. 즉 조선을 침구하던 왜구가 중국으로 그 침구지역을 이동한 것이다. 사료를 통해 중국을 침구하는 왜구는 조선을 침구하는 존재와 다르지 않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 즉 방비가 있는 상황을 만나면 평화로운 통교자(=무역자, 해상) 행세를 하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왜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들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왜구와 해상 두 가지의 면모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지역과 상황에 따라

면모를 달리했을 뿐이었다.

셋째, 조선 초의 피로인 송환이 갖는 의의이다. 관련 사료를 통해 조선 초의 피로인 송환은 왜구를 해상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①침구 지역을 이동시킨 것이며, ②중국에서는 '왜구', 조선에서는 '해상'과 같이 지역과 상황에 따라 활동 양상을 바꾸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나카무라는 조선에 왜구의 침구가 줄어들자, 조선의 회유정책, 즉 조선이 일본의 사절을 우대한 정책이 마치 이때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왜구가 평화로운 통교자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 입장인 조선과 중국에서는 왜구의 존재를 항상 경계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정왜(征倭)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평화로운 통교자'라는 인식은 사료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늘 왜인은 조선의 근심 · 걱정거리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나카무라는 왜 조선의 회유책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일까? 나카무라는 왜 왜구를 평화로운 통교자로 전환되었다고 규명했을까?

그것은 나카무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근래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나카무라는 식민사관자로서, 늘 조선은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조선 정부는 일본의 막부나 왜인들을 우대하여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았으며, 일본의 막부 및 왜인들 역시 정치 · 외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선과 무역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와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대(對)고려 교섭을 무역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이다. 요컨대 나카무라는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피로인 송환이 왜구를 해상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구 침구 발생 → 조선정부의 회유책(피로인 송환을 통한 무역 등의 경제적 행위) → 왜구 침구 감소

'조선 정부가 회유책을 썼더니 왜구 침구가 줄었다'는 것은 곧 왜인(왜구)들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조선과 통교하게 해주었더니 왜구 침구가 줄었다는 말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나카무라의 왜구 발생의 원인에 대한 견해과 다르지 않다. 나카무라는 왜구 발생의 원인을 단순히 대마도·이키 등 일본의 변경에 위치한 섬들의 식량부족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내의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것은 곧 왜구의 발생 원인을 축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로 일본의 국가권력은 남조정통론(南朝正統論)에 입각해 왔는데, 나카무라는 철저한 남조정통론자였다고 한다.[86] 따라서 왜구 발생의 원인에 대해 설명할 때 남북조의 내란과 철저히 단절한 채, 단순히 대마도·이키 등 변경 지역의 해민(海民)의 기근으로 인한 식량 약탈 정도로만 축소해 온 것이다. 즉, 남조정통론자인 그의 입장에서는 남조의 무사가 조선·중국을 침구한 왜구의 실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87] 따라서 그는 왜구의 발생 원인이 일본 국내외의 정치·군사적인 측면에 있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 있다고 설명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사료상에 있는 수많은 왜구 침구 기사, 왜구 인식에 관한 기사 등을 보았어도 '왜구는 평화로운 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상 본고에서는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해구에서 해상(=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고는 세 가지 한계

86) 이 영, 앞의 주(7) 글, 「일본의 왜구 연구와 14-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인식」.
87) 나카무라가 왜 고려 말 왜구의 실체를 남조의 무사라고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 위의 글 참조.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해구에서 해상으로 전환〉 설을 최초로 주장한 나카무라의 연구만을 고찰하였을 뿐, 타 연구자들의 주장, 특히 나카무라의 설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나카 다케오의 연구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기회에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 다른 하나는 피로인 송환이 이루어지는 세종대까지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선 태조~태종대 피로인 송환이 갖는 의미가 왜구의 침구 지역을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동시키고, 지역과 상황에 따라 왜구의 활동 양상을 바꾸게 한 것이라면, 세종대의 피로인 송환은 과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왜구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삼국의 외교 관계에 대해 논하지 못한 점이다. 본고에서 정왜론에 대한 언급만 하였을 뿐, 당시 왜구의 중국 침구로 인한 한중일 삼국의 정치·외교적인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여진 문제나 중국의 북정(北征)과 관련한 조선의 인식·정책 등[88]을 염두에 두면서 왜구 문제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관련한 선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88) 고려 말에 이어 조선조에서도 국방에 관한 주된 관심사는 북쪽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특히 여진 문제와 관련하여 명과 갈등을 초래하였다(김경록, 「조선초기 국제정세와 국방정책」, 『군사연구』 146, 2018). 또한 명의 북정(北征) 소식에 대해 조선 정부는 여러 차례 국방에 대해 염려하였고, 이와 더불어 왜구의 중국 침구로 인한 정왜론까지 대두되면서 조선의 대명관계는 불안정해져 갔다. 한편, 일본도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 사후, 그의 아들인 요시모치(義持)가 명과 외교관계를 단절시키며 명일(明日) 관계는 악화해 갔다(鄭樑生, 위의 책; 佐久間重男, 『日明関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2). 따라서 당시 조선이 처한 북방 문제 및 왜구 문제를 둘러싼 조명(朝明)·조일(朝日)·명일(明日)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15세기의 왜구는 절대 '평화적 통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금후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원고투고일 : 2020. 11. 30, 심사수정일 : 2021. 1. 8, 게재확정일 : 2021. 1. 12.)

주제어 : 나카무라 히데다카, 왜구, 해상, 피로인 송환, 평화적 통교자,
이마가와 료슌, 오우치 요시히로, 다나카 다케오,
아키야마 겐조

〈참고문헌〉

1. 사 료

『고려사』·『조선왕조실록』

2. 논 문

구본학,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의미와 한국의 안보」, 『신아세아』 25-2, 2018.
https://doi.org/10.22869/nari.2018.25.2.003

김경록, 「조선초기 국제정세와 국방정책」, 『군사연구』 146, 2018.

김연옥, 「일본역사학계의 해양사 최신연구현황과 과제-14세기 후반~19세기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8, 2017.
https://doi.org/10.31329/jmhs.2017..48.007

나카다 미노루(中田稔),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10.

윤동영·강건택, 「북한, 한국전 미군 유해 250여구 송환」, 『마이더스(Midas)』 2018-7, 2018.

이 영,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2012.
https://doi.org/10.17949/jneac.1.31.201206.010

_____, 「여말~선초 왜구 발생의 메카니즘-왜구의 실체에 관한 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http://uci.or.kr/G704-001262.2012..34.001

_____, 「조선사 편수관(朝鮮史編修官)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의 왜구 패러다임과 일본의 왜구 연구」, 『일본학연구소』 제28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2014.
http://uci.or.kr/G704-SER000001285.2014.38..013

이 영, 「일본의 왜구 연구와 14-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인식」, 『동양사학연구』 127집, 2014.
https://doi.org/10.17856/jahs.2014.06.127.49

_____,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조선사 편수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의 왜구 왜곡의 배경에 관한 한 고찰-」, 『한국중세사연구』 제40호, 한국중세사학회, 2014.
http://uci.or.kr/G704-001262.2014..40.009

_____, 「일본의 조선사 연구의 권위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와 문제점 -『일본과 조선(日本と朝鮮)』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56집, 2015.
https://doi.org/10.17999/SOHE.2015.55.07

_____,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한국사』 및 『신편 한국사』의 고려 말 왜구 서술에 관한 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23, 2017.
http://uci.or.kr/G704-SER000009034.2017.23..010

손홍렬, 「麗末鮮初被倭俘虜의 刷還」, 『사총』 19, 1975.

이수열, 「왜구론의 행방:'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1, 2019.
https://doi.org/10.35158/cisspc.2019.10.21.117

정영현, 「여말선초 倭寇 被虜人의 쇄환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36, 2016.
https://doi.org/10.19120/cy.2016.10.39.109

하우봉, 「4.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2003.

_____, 「제4장 15~16세기 조선의 대일 외교」,『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한윤희, 「여말선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고찰 - 〈今川了俊의 송환 배경='경제적 수익 목적'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日本研究』 36,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http://uci.or.kr/G704-001998.2014..36.012

_____, 『여말 · 선초 피로인(被虜人) 송환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秋山謙蔵,「室町初期に於ける九州探題の朝鮮との通交」,『史学雑誌』제42편 제4호, 1931.
_____,「倭寇」による朝鮮・支那人奴隷の掠奪とその送還及び賣買」,『社会経済史学』2권 8호, 1932.
川添昭二,「今川了俊の對外交涉」,『九州史學』75, 1982.
田中健夫,「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日本の社会史』第1巻, 岩波書店, 1987.
中村栄孝,「室町時代の日鮮関係」,『岩波講座 日本歴史』, 岩波書店, 1934.

3. 저 서

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12.
이 영,『잊혀진 전쟁 왜구』, 에피스테메, 2007.
_____,『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2015.
秋山謙蔵,『日支交涉史研究』, 岩波書店. 1939.
有井智徳,『高麗李朝史の研究』, 国書刊行会, 1985.
佐久間重男,『日明関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2.
関 周一,『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舘, 2002.
_____,『対馬と倭寇』, 高志書院, 2012.
須田牧子,『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 東京大學出版會, 2011.
田村洋幸,『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6.
田中健夫,『中世海外交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9.
_____,『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2.
_____,『倭寇, 海の歴史』, 教育社, 1982.
_____,『対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 吉川弘文館, 2003.
中村栄孝,『日鮮関係史の研究』上・中・下, 吉川弘文館, 1965~1969.
_____,『日本と朝鮮』, 至文堂, 1966.
松岡久人,『大内義弘』, 人物往來社, 1966.
桃木至朗 編,『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
鄭樑生,『明・日關係史研究』, 雄山閣, 1994.
対外関係史総合年表編集委員会 編,『対外関係史総合年表』, 吉川弘文館,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Repatriation of 'PIROIN' meaning Captives in Early Chosun dynasty

- Focusing on Nakamura Hidedaka's Theory of Guardian of Peace, 'Transition from Pirates(Waegu) to Merchants' -

Han, Yoon-hee

Hidedaka Nakamura, a pioneer in the pre-modern Korean-Japanese relations history, believes that "the number of Japanese people coming and going with Chosun gradually increased through the repatriation of captives(piroin), and eventually the position of pirates(waegu) turned into the status of merchants." This means that pirates(waegu) and merchants are different. However, it was recently revealed that Nakamura was an imperial oriented historian.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is argument also needed to be reviewed, whether or not it was affected by such ideological influence.

In this paper, this paper is named as the theory of Hidedaka Nakamura's "transition from pirates(waegu) to merchants", and examined the range of the period between King Taejo and King Taejong in terms of paper. And in this paper, we have focused on the following three things.

First, did the invasion of weagu decrease as the number of Japanese people coming and going to Chosun increased? Second, were weagu and merchant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ir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repatriation of captives(piroin) in early Chosun?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invasion of weagu also increased sharply at the time when Japanese people coming to Chosun increased rapidly. Since then, the pirates were intermittent, but continued to invade Chosun. In addition,

in China at the same time as the Chosun Taejo–Taejong year, pirates were invading on a large scale almost every year. In other words, the pirates who invaded Chosun moved to China. From the historical records, it can be seen that pirates invading China are no different from beings invading Joseon. When they encountered a situation in which they were defended, they acted as merchants, and in the opposite situation, they returned to the position of pirates. In other words, they always had two aspects of a pirate and a merchant, just like the front and back sides of a coin, only different aspects depending on the region and situation. Therefore, it seems that the repatriation of captives(piroin) in the early Chosun period did not convert pirates into merchants, but ①moved the invading area, ②changed their existence according to the region and situation, such as 'pirates' in China and 'merchant' in Chosun.

Keywords : Nakamura Hidedaka, Waegu, Merchant,
the Repatriation of Captives(Piroin), Imagawa Ryousyun,
Oouchi Yoshihiro, Tanaka Takeo, Akiyama Kenzou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229-254
https://doi.org/10.29212/mh.2021..118.22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약포(藥圃) 정탁(鄭琢)의 전쟁시를 통한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분석*

최고경**

1. 서론
2. 약포 정탁의 전쟁시와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
3. 약포 정탁의 전쟁인식이 지니는 의미
4. 결론

1. 서 론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은 조선에 사상 초유의 피해를 가져왔던 임진전쟁을 겪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분주하게 노력한 인물이다. 이에 정탁에 대해서는 그의

* 본 논문은 2020년 군사편찬연구소의 『군사사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020.12월부터 2021.1월까지 『軍史』誌 논문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전쟁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이순신을 옥중으로부터 구명한 일이 처음 학계에 소개되고,[1] 그 뒤부터는 내의원 제조로서 왕을 의주까지 호종하고 분조에서 활동하면서 고군분투했던 전쟁 체험 및 그가 펼친 군사 전략이나 술법들이 주목되었다.[2] 또한 전쟁의 과정과 자신의 경험을 일기체 형식으로 상세하게 서술한 저술들 또는 전쟁을 극복할 방안과 관련하여 왕에게 올렸던 다수의 상소문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3] 정탁이 직접 전쟁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자세하게 정리한 전쟁 기록들과 임란 시기의 각종 문서나 서신들을 모아 정리한 것도 남아 있어 임진전쟁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중 『임진기록(壬辰記錄)』이 최근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번역되어 임진전쟁의 내부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4]

정탁의 생애와 교유관계에 대해서는 단행본과 문집의 해제 등을 통해 이미 자세히 밝혀졌다.[5] 이밖에도 퇴계(退溪)와 남명(南冥)의 문하를 출입하되 특히 퇴계에게서 학문과 사상을 전수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그의 정주학 수용과 선비 정신을 사상적 측면에서 다룬 성과물도 제출되었다.[6] 정탁의 시문집 『약포집(藥圃集)』 가운데

1) 이은상, 「충무공을 구출한 정탁의 伸救劄」, 『사상계』 524, 사상계사, 1959.
2) 박익환, 「藥圃 鄭琢의 생애와 임란극복 공적」, 『진주문화』 17, 진주교육대학교, 2003; 정해은, 「약포 정탁의 군사활동과 전쟁기록」,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황만기, 「정탁의 병법 수용 양상 연구」, 『영남학』 2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3) 박근노, 「약포 정탁의 문학에 나타난 우국의식 : 상소활동과 임란체험의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정운, 「鄭琢의 『龍蛇日記』와 왜란 극복 활동」, 『한국사상과 문화』 63,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2; 정병호, 「약포 정탁의 현실인식과 대응—『약포집』 소재 상소문을 대상으로-」, 『동양예학』 31, 동양예학회, 2014.
4) 정탁 저, 군사편찬연구소 역주, 『임진기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5) 정탁 저, 황만기 외 2인 역주, 『약포집』, 성심인쇄소, 2013; 남명학연구원,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6) 이상필, 「임란시 재조 남명 문인의 활동 : 약포 · 동강 · 한강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2; 이정화, 「약포 정탁의 시문에 나타난 선비정신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8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성리학적 탐구 정신을 지닌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의 정신세계를 퇴계 사상과 연결 지은 것이다. 사물을 관찰하면서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는 관물시(觀物詩)와 『주역(周易)』, 『춘추(春秋)』, 『예기(禮記)』 등을 읽고 지은 시, 자신이 본받고 싶은 선현들을 존숭하며 지은 시들을 다루고, 정탁을 '실천하는 군자'에 귀결시키는 것이 공통된 방향이다.

반면, 정탁이 전쟁에 대한 기억을 그려낸 시에 대한 연구는 저조하다. 여운필과 박명숙에 의해『약포집』 권1에 수록되어 있는 장편 5언 고시 「난후기행(亂後紀行)」이 임란을 제재로 한 가장 큰 편폭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조명되고, 「번민을 달래다[排悶]」, 「굶주리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다[憫饑]」와 같이 임진전쟁 당시에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 받는 백성들의 참담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작품들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7] 게다가 정탁의 문집에 수록된 시의 거개가 임진전쟁과 관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탁의 전쟁인식과 연관지어 검토한 예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탁이 임진전쟁을 목도하며 풀어쓴 여러 편의 시들을 통해 그의 전쟁인식 및 시대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전쟁의 한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하였던 정탁의 위치를 고려하여 그의 시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정탁의 임란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문학사에서 개인에 초점을 두었던 연구를 벗어나 문학과 전쟁의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군사사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다. 객관적인 사료들과 전쟁 속 인물이 그려낸 문학 작품을 함께 다루어보는 것은 한 전쟁을 둘러싼 내·외적 상황을 보다 풍부하게 구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연구 방법론으로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

7) 여운필, 「약포 정탁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6, 한국한시학회, 2001; 박명숙, 「약포 정탁 선생의 삶과 시세계」, 『동양예학』 31, 동양예학회, 2014.

2. 약포 정탁의 전쟁시와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

정탁은 1592년 4월 전쟁이 일어나 선조를 호종하다가 6월부터 분조(分朝)에 배속되어 전쟁 초기 조선군을 지휘했으며, 명군의 참전 이후에는 명군을 접대하거나 물자를 조달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명군과의 조명연합작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8] 이에 그의 전쟁시는 단순히 개인의 서정적인 회한이나 감정을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펼쳐졌던 명군과의 연합작전, 조선군의 전쟁수행, 전쟁으로 인한 피해상황 등이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전까지 정탁의 시는 주로 우국충정, 애민의식, 효, 선비와 같은 주제로 다루어지며 정탁이 보편적인 사대부 이미지로 인식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들을 그의 전쟁인식과 적극적으로 관련지어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의 전쟁시에는 전쟁으로 인한 상흔을 목도하고 울분을 표출하거나 임란 후에 전쟁을 회고면서 자기반성을 담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중에서도 외교활동 및 명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시들에 주목하였고, 정치·군사적인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약포집』에 수록된 시 외에 다른 기록들을 참고하였다. 먼저 정탁이 1593년 1월에 명나라 장수들을 전별하는 역할을 맡아 의주에 머무르면서 지은 시들을 모아놓은 『용만록(龍灣錄)』과 당시의 전별 과정과 대화 내용, 각 장수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 그리고 정탁이 임진전쟁 동안의 각종 공문서를 엮어

8) 정탁의 분조 활동은 정해은의 「약포 정탁의 군사활동과 전쟁기록」(『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대명외교활동은 남명학연구원이 집필한 『약포 정탁』, 제9장 임진왜란기 정탁의 대명 외교 활동(예문서원, 2016)에서 참고할 수 있다.

놓은 『임진기록(壬辰記錄)』을 주된 자료로 삼았다.

가. 일본의 강화설에 대한 거부와 명군에 불만 담지

1593년 1월, 명나라 장수들의 도움으로 일본을 토벌하여 평양성이 수복되고 선조가 서울로 귀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적이 모조리 섬멸되지 않았고 전란의 횡포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그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일본의 강화 협상으로 명군이 회군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8월에 정탁은 왕명으로 의주에 파견되어 명나라 장수들을 전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때 남긴 기록이 『용만록』과 『용만문견록』이다. 『용만록』에는 평양 수복에 큰 공을 세운 명나라 장수들을 전송하며 지어준 시와 여전히 고통 받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실상에 탄식하는 내용의 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아직 완전히 일본의 무리가 소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군하는 명나라 장수들에게 연회를 열어주는 울분이 『용만록』 서문에도 잘 드러나 있다.

> 이때 적의 잔당들이 아직 섬멸되지 않고 여전히 양변(兩邊)을 차지하고 있어서 신민(臣民)들의 고통이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 나는 서관(西關) 한 구석에 발이 묶여 있다가 나도 모르게 걱정과 울분으로 병이 났었다. 무릇 「송행(送行)」·「배민(排悶)」 등의 작품은 대부분 애통하고 절박한 뜻이 많으니, 이는 마음속에 북받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9]

앞의 대목만 보아도 정탁이 전쟁으로 고초를 겪는 백성에 대한

9) 鄭琢, 『藥圃集』 권1, 「龍灣錄詩序」, "時餘孽未殲, 尙據兩邊, 臣民之痛未已. 於斯時也, 琢跡滯西關一隅, 不覺憂憤成疾. 凡所以送行排悶等作, 率多痛迫之意, 蓋中心自有所激, 不能已者也." 이하 『약포집』에 실린 시문의 번역은 정탁 저, 황만기 외 2인 역주, 『약포집』(성심인쇄소, 2013)을 따르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애정과 슬픔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정탁은 이러한 고통의 책임이 일본의 교활한 강화 협상에 합의한 명군의 퇴각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불만을 시 곳곳에 분출하였다. 먼저 전쟁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읊은 「排悶」 2수 가운데 첫 번째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해진 갖옷, 야윈 말과 추위에 떠는 종,
천애 변방의 물색은 절로 같지 않네.
오랜 성가퀴는 멀리 용만의 달과 이어지고,
황량한 누대는 가까이 압록강의 바람을 당기는구나.
2년의 전란 속에 몸 먼저 늙었고,
천리 먼 고향은 소식마저 끊어졌다네.
다시 바라건대, 천자의 군사가 어느 때에 이를까나.
온 나라의 나쁜 기운 아직 다 걷히지 않았는데.
弊貂羸馬又寒僮, 物色天涯自不同.
古堞遙連龍塞月, 荒臺近挹鴨江風.
二年金革身先老, 千里鄕關信不通.
復望王師何日到, 一方氛氣未全空.[10]

극도로 추운 날씨와 황량한 배경이 연상되는 의주의 생활을 묘사하고, 고향까지 그리운 상황을 토로하였다. 마지막 구에서 '천자의 군사[王師]', 즉 명군의 지원이 다시 이를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을 표출하면서도 아직 일본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약포집』 속집에 실려 있는 다른 시에서도 "왜구의 전란 지금도 시름 겹고 참담하여, 오직 천자의 군사 다시 오기만을 날마다 바란다네.[寇亂至今愁更慘, 王師唯日望重臨][11]"라 하며 위의 시와 같은 맥락으로 명군의 철군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원조를 희망하는

10) 鄭琢, 『藥圃集』 권1, 「龍灣錄 · 排悶」.
11) 鄭琢, 『藥圃集』 속집 권1, 「次眞一子」.

마음을 드러냈다. 뒤이어 자신의 벗에게 번뇌를 토로하며 쓴 시에도 정탁의 입장이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어 살펴볼 만하다.

황제께서 우리나라를 걱정하시어,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가 계책을 다하였네.
두세 번 군사를 나누어 보내니,
백만 군사 곰처럼 옹위하였지.
칼 빛은 하늘 끝에 이어지고,
위풍을 바다 모퉁이에 떨쳤네.
삼경에서 한 번 승리하자,
팔도가 남김없이 수복되었네.
나라를 재건한 은혜 견줄 곳 없고,
회생시켜 준 덕은 끝이 없다네.
어찌하여 적이 아직 섬멸되지 않았는데,
이리 쉽게 서둘러 회군하는가.
팔읍에 적들이 아직도 웅거하고 있으니,
외로운 군사 지탱하지 못할까 두렵네.
皇上憂藩服, 忠良罄畫規.
二三分寄閫, 百萬擁如羆.
劍氣連天際, 風稜振海陲.
三京得一捷, 八路擧無遺.
再造恩無競, 回生德罔涯.
云胡未殲種, 容易遽班師.
八邑猶雄據, 孤兵恐莫支.[12]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준 명군의 은혜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일본을 토벌하지 않은 시점에서 회군하는 명군을 향해 일본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았다고 판단하며 원망 섞인 말을 내뱉고 있다. 아울러 자신들의 전세가 고립되고 위태로워져 병사들에게 화가 닥쳐올

12) 鄭琢, 『藥圃集』 속집 권1, 「排悶示友生」.

것을 두려워하였다. 정탁은 왜군과의 강화설이 돌 때부터 명군의 회군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며 차자(箚子)를 작성하기도 했다.

> 근자에 조정에서 왜군과의 강화설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것은 아마도 부득이한 중에 나온 계책일 것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왜군은 간교하고 거짓이 많은지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저런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의 형세만 놓고 말해 보겠습니다. 만약 왜군이 무기를 내던지고 군대를 퇴각시킨 다음 국경 밖으로 나가 있으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을 이끌고 국경까지 밀어닥쳐서 위협하듯이 '우리와 화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다면, 이는 겁을 줘 맹약을 맺는 것에 불과하니, 화친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능히 예의 있게 말을 해도 왜군의 속내를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겁을 줘 맹약을 맺고자 한다면 어찌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한 번의 화친을 들어준다면, 장차 닥쳐올 화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13]

정탁은 우선 일본의 화친 제안을 믿지 않았다. 또한 퇴각하지 않고 되려 겁을 주면서 맹약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면서 이것이 초래할 화를 예측하였다. 이어서 일본에게 보낼 예시 답안까지 적었는데, 그 내용은 명나라 핑계를 대며 황조의 명이 내려와야 처리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무릇 화친은 양국 모두가 이롭자고 하는 것인데, 철병하지 않은 채로 화친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니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었다.[14]

---

13) 鄭琢, 『壬辰記錄』, 「圃翁家普略敍草稿二」, "伏以朝議近有與賊許和之說, 蓋亦出於不得已之計也. 以臣之見, 則倭奴譎詐, 不可爲信, 不必多辭, 只以事勢言之. 則賊若捲甲退兵, 出在境上而云爾, 則猶之可也. 擁衆壓境, 若威脅然曰: '爾能與我和歟?' 云, 則是實怯盟, 非可以爲和者也. 彼雖能以禮讓爲辭, 賊情難信, 況以怯盟, 終能有成乎? 我若一聽其和, 則將來之患, 有不可勝言?" 이하 『임진기록』의 원문과 번역은 정탁 저, 군사편찬연구소 역주, 『임진기록』(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을 따랐다.

14) 앞의 글, "夫和者兩國之所以爲好者也. 兩國爲和禮讓爲先, 而信義幷寓於其間. 擁衆臨境, 未有掇兵之擧, 如是而求和, 是甚底道理耶?"

정탁은 또 당시 명군이 강화 협상에 몰두하는 상황에 전전긍긍하며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것 네 가지' 조목을 뒤이어 나열하였는데, 그중 두 번째 조목이 명군에 대한 것이었다.

> 둘째, 명나라 군사에게 전심을 다해 왜군을 토벌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본국의 병력은 기강과 규율이 없어서, 멀찍이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먼저 무너집니다. 병란을 거치면서 더욱 약해져 왜군을 대항할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 삼도(三都)를 수복한 것은 모두 명나라 병사의 힘이오니,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하여 명나라 병사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왜군을 섬멸하기 결단코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경략사와 제독 두 사람 앞으로 급히 사유를 갖추어 서찰을 보내거나 이자(利咨)하여 간곡한 성심을 다 펼쳐 보인다면, 여러 장수들의 마음을 돌리고 한데 힘을 합쳐 전진함으로써 흉악한 칼날을 소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15]

이때 마침 그와 같은 의견을 담은 다른 사람의 글이 이미 올라와 있어 정탁의 차자는 무산되었지만, 일본과의 강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곡하게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불신을 지니며 명군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당시 강화를 반대하였던 대부분 신료들의 입장이었다.[16] 그들은 이후에 단순한 강화 반대론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명 조정에 강화 교섭의 진상을 직접 고발하거나 명과 일본과의 교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며 이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17] 반면 정탁은 단순한 강화 반대론에 그쳤는데, 이는 명군의 접대를 도맡은 특수한 역할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15) 鄭琢, 『壬辰記錄』, 「圃翁家普略敍草稿一」, "二曰, 乞請唐兵, 專心剿討. 本國兵力, 漫無紀律, 望風先潰. 自經兵亂, 尤甚單弱, 了無抗賊之勢. 三都之復全, 是天兵之力, 當此事勢岌岌, 非賴天兵, 則決難滅賊. 伏望經略提督兩大人前, 須急俱由稟帖或移者, 極其誠懇, 庶見回心諸將, 合勢前進, 蕩掃兇鋒."

16)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3~76면.

17) 위의 논문, 146면.

한편, 정탁의 일본과의 화친에 대한 거부와 경멸은 명나라 장수 도양성(陶良性)에게 지어준 작별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다루어볼 만하다. 총 2수 중 두 번째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명이 증명하니 누군들 의심하리오.
섬 오랑캐와 원수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네.
선영이 도굴되어 온갖 신이 분개하니,
이 왜적 잊을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안다네.
오랑캐와의 화친은 말이 이치에 닿지도 않으나,
하늘에 고할 길 없으니 누굴 통해 하소연할까.
성황의 신묘한 지감 태양과 같으니,
만리 밖 백성들의 심정 훤히 살펴보시기를.
證在神明孰致疑, 島夷讐我至於斯.
先塋見掘百神憤, 此賊難忘三尺知.
與虜連和言不近, 籲天無路訴因誰.
聖皇神鑑如天日, 萬里群情明見之.[18]

1592년에 성종(成宗)과 중종(中宗)의 능이 도굴된 일을 지적한 내용이다. 위 시는 정탁이 1599년에 지은 것인데, 그는 용만으로 사신을 가기 전부터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를 겸하고 있었고, 이후 1594년에 다시 사직서 제조에 임명되어 사직단 재건에 노력을 기울이며 나라의 운명을 회복하는 데에 주력하였다.[19] 이에 정탁은 위 시에서 일본에 대한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고, 화친이란 가당치 않은 말이라고 단언하면서 명나라에서도 우리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이치에 맞는 결론을 내려줄 것을 바랐다. 위 시의 첫 번째 수에서도 "온 나라가 모두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18) 鄭琢, 『藥圃集』 권1, 「又呈別韻二首」.
19) 鄭琢, 『壬辰記錄』, 「圃翁家普略敍草稿二」, 233~241면과 『조선왕조실록』, 선조 27년(1594), 9월 10일 기사에서 확인된다.

누가 왜놈과 통교하자고 함부로 말하는가.[擧國皆思天不共, 何人枉說與倭通.]"라고 하며 강화설에 극도로 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군은 강화를 협상하고 철수를 선택하였고, 정탁은 이들을 전별하기 위해 의주로 차출되었다.

나. 명군에 대한 공적 현양과 대명 의식

비록 명군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남아있지만, 전별사로서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연회를 베풀어주는 것이 그의 임무였으며 실제로 평양성 수복이 명군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었기에, 정탁은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명나라 장수들에게 예를 다하였다. 이에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 등에게 일본을 평정해준 데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시를 두 수 씩 지어 올렸다. 먼저 송응창에게 올린 시를 보기로 한다.

낡은 빗장 부수듯 난리를 평정하니,
하늘이 굽어보듯 신병이 도운 것이라네.
삼한의 군읍은 圖籍을 되찾았고,
팔도의 생민들은 침몰을 면했네.
번방이 지금까지 외적을 잘 방어했으니,
완악한 왜구 이제부터 감히 나쁜 마음 먹겠는가.
황제의 은혜 전례 없이 이렇게 클 줄이야.
묻노니, 동해와 견주어 어느 곳이 깊은가.
戡亂淸氛圮老鈐, 陰兵助順若天臨.
三韓郡邑還圖籍, 八路生靈免陸沈.
藩翰至今能禦外, 頑狺從此敢生心.
皇恩曠古知如許, 爲問東溟孰淺深.

원수의 위엄과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한데,
깃발 들고 동으로 오니 천군만마 같았네.
태백성 별빛은 검 기운에 이어지고,
공산의 학 울음은 깃발의 펄럭임을 도왔네.
강남에서 칙명 받들어 시행할 즈음에
회우에서 지휘 속에 흉악한 놈들 제거하였지.
짐승 같은 마음 믿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몰아낸 것이 바로 만전의 공이 아니던가.
元戎威武薄層空, 一幟東來萬馬同.
太白星芒連劍氣, 公山鶴唳助旗風.
江南奉勅施爲際, 淮右除兇指顧中.
莫道獸心難可信, 驅除不是萬全功.[20]

'황은(皇恩)'이 너무나 커서 동해와 견주어 무엇이 더 깊은지를 헤아려보고, 그들의 원조를 '천군만마'에 비유하며 칼날이 번쩍이고 깃발이 휘날리는 명나라 군대의 웅장한 자태를 묘사하였다. 평양성을 수복하게 해주고 팔도의 침몰을 면하게 해 준 공을 명군에게 돌리며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전란을 다스리고 일본을 잘 막아내 준 공로를 드높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송응창을 달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송응창은 자신이 평양을 돌파하고 조선 팔도를 수복한 공로가 있는데, 선조가 직접 전송하지 않는 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전별연을 받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워 애를 먹은 것이 『용만문견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전별 행차에 이르러서도 선조가 감사의 글 한 마디를 보내지 않은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자, 정탁이 위와 같은 시를 써서 보낸 것이다. 『용만문견록』에는 명나라 장수마다 각각의 인적 정보와 그와 있었던 일화, 자신의 평가 등이 담겨있는데, 이중 '송응창'을 다룬 대목의 마지막에 "시랑 송응창에

20) 鄭琢, 『藥圃集』 권1, 「龍灣錄 · 上宋經略幕府[二首]」.

게 올리는 제2편의 시 말단에 일본과 강화하고 병사를 퇴각한 것 등의 일을 은근히 언급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싶었으나 말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대개 옛사람들이 시를 빌려 은근히 풍자한 뜻이고, 역시 그의 분노를 부추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1]라고 진술한 것이 보인다. 그렇다면 위의 두 번째 수에서 마지막 구에 해당하는 "짐승 같은 마음 믿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몰아낸 것이 바로 만전의 공이 아니던가.[莫道獸心難可信, 驅除不是萬全功.]"는 짐승과 같은 일본과 화친하여 끝까지 몰아내지 않은 상대방을 풍자한 뜻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어서 이여송에게도 그의 요구에 따라 공적을 현양하는 시를 지어 바쳤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九地의 진법과 기이한 책략의 십만 병사에,
변방에서 예를 갖추며 행차 깃발을 바라보았네.
해대에 바람 맑아 속세의 티끌 쓸어내고,
교외에 비 넉넉하여 초목이 무성해졌네.
노래하고 칭송해도 성대한 덕 형언할 수 없는데,
단사호장으로 어찌 작은 정성을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세상에 명성을 남겨 천억 년을 기약하리니,
굳이 절벽 깎아 성명을 새길 필요 없다네.
九陣奇韜十萬兵, 左韓加額望行旌.
風淸海岱塵氛廓, 雨足郊原草木榮.
歌頌未能模盛德, 簞壺那得表微誠.
流芳宇宙期千億, 不用磨厓勒姓名.

천병이 진동하여 동방을 뒤흔드니,
바다 건너온 왜놈들 마음대로 못하네.
팔도에 어찌 왜놈의 잔당을 남겨 두랴.

21) 鄭琢, 『藥圃集』 권6, 「龍灣聞見錄」, "呈侍郎第二篇末段, 暗及聽和退兵等事, 欲其不諱其實, 而語未瑩白者, 蓋古人假詩微諷之義, 而亦不欲致激其怒也云爾."

삼경은 일찍이 잠깐 사이에 수복하였다네.
신묘한 공은 영원히 산하와 더불어 웅장하고,
큰 덕은 또 조물주를 따라 남으리라.
우리나라에서 천년토록 뼈에 새기리니,
가을바람 석양에 몇 번이나 머리를 돌릴까.
天兵震疊撼東陬, 駕海鯨鯢不自由.
八邑肯容餘孽在, 三京曾得片時收.
神功永與山河壯, 大德還從造化留.
日域千年銘到骨, 西風殘照幾回頭.[22]

송응창의 경우와 유사하게 명군의 위세를 높이고 평양성을 수복한 공로를 칭송하였는데, 이여송의 경우는 찬양의 정도가 더욱 강하다. 상대방의 '성덕(盛德)'은 전별 잔치에서 베풀어주는 음식과 노래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그 명성이 천억 년이나 전해질 것이라 하였다. 또 '신묘한 공[神功]', '큰 덕[大德]'을 천년토록 뼛속에 새길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앞서 다루었던 명나라 장수 도양성의 공적을 높인 시도 있는데, 이여송과 송응창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 포착되어 눈여겨볼 만하다. 이 시에 대해 '운격(韻格)이 저속하다'는 혹인의 평가에 '꾸미지 않고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기록한 것'[23]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총 5수 가운데 첫 번째 수와 다섯 번째 수를 보기로 한다.

원수가 막 한양성의 동쪽에 들어오니,
검 기운 웅장하여 소매 속에 용이 우는 듯했네.
왜놈들은 앞 다투어 제각기 달아나고,
도산성의 소굴은 이미 완전히 텅 비었다네.

---

22) 鄭琢, 『藥圃集』 권1, 「龍灣錄 · 上李提督幕府[二首]」.
23) 鄭琢, 『藥圃集』 권1, 「上通判陶爺行臺[并序]」, "應之曰: '詩, 言志而已, 流出性情, 貴在不浮其實. 古詩三百篇中, 至如民間男女之歌, 聖人採之, 至錄風詩之正經, 其意有在.' "

호남 영남 삼천리에 바람 맑고,
동쪽 남쪽 구만리 하늘에 기운이 트였네.
가장 기쁜 건, 어진 장수가 협력에 참가하여,
신공에 힘입어 삼한이 재건된 것이라네.
元戎纔入洛城東, 袖裏龍鳴劍氣雄.
倭磴兇酋先自遁, 島山巢窟已全空.
風淸湖嶺三千里, 氛豁東南九萬穹.
最喜仁賢參協力, 三韓再造荷神功.

왼쪽으론 바다 오른쪽으론 유사까지 미쳤으니,
천하에 누가 한집안이 아니라고 하리오.
천지의 조화는 예로부터 대운을 따르니,
요사스러운 기운이 어찌 좋은 때를 혼탁하게 할 수 있으랴.
무공은 이로부터 난리를 평정한 것에 돌아가고,
문덕은 예전처럼 태평함을 회복했다네.
승전보가 이미 봄날 따라 따뜻하니,
역참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도다.
左漸于海右流沙, 天下誰云非一家.
元化從來隨大運, 妖氛那得溷亨嘉.
武功自此歸戡定, 文德依前復泰和.
奏捷已從春日暖, 驛亭無處不芳華.[24]

마찬가지로 나라를 재건하게 해 준 상대방의 공을 칭탄한 내용인데, 혹인이 '음란하고 어지러우며 사조가 너무 저속하여 중국의 박아(博雅)한 사람의 눈을 더럽힌다.'[25]라고 한 까닭은 마지막 다섯 번째 수의 7, 8구 "승전보가 이미 봄날 따라 따뜻하니, 역참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도다.[奏捷已從春日暖, 驛亭無處不芳華.]" 이 대목 때문인 듯하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전쟁에 승리한 기쁨을 따뜻

24) 鄭琢, 『藥圃集』 권1, 「上通判陶爺行臺[并序]」.
25) 위의 글, "右什草旣成, 客有質之者曰: '哇沸之音, 不入於師曠之門. 今此詩章, 辭藻太鄙, 豈合輕穢中朝博雅之眼乎.'"

한 봄날에 비유하여 난리가 수습된 평온함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日暖'과 '芳華'를 두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연상케 한다고 여겨 음란하고 저속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선후기 문인 신국빈(申國賓, 1724~1799)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김종직의 죽지사를 두고 "근후한 자가 또한 다시 이러한 일을 했겠는가."[26]라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앞의 송응창과 이여송의 전별시와 달리 '꾸밈이 적으면서 성정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상대방의 행적을 영탄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위의 시가 총 5수이며, 이어서 그에게 보낸 작별시 2수와 짧은 율시 3수도 실려 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정탁과 도양성 사이의 남다른 친분에도 가능성을 둘 수 있는 것이다.

정탁은 이와 같이 명나라 장수들에게 자신의 울분을 드러내지 않고 찬양 일색의 시를 지어 바쳤는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였다. 송응창과 이여송에 대한 전별시를 담은 『용만문견록』 서문에서도 "이는 명나라 장수가 오고간 일들을 듣고 본 대로 기록하는 것이 나름대로 고사도 있거니와, 하물며 이처럼 나라가 재건되는 시기에 동쪽으로 온 명나라 장수들의 말과 행적들이 국가에 관계됨이 있음이겠습니까? 감히 예삿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삼가 이를 기록하여 바치니, 황공한 마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27]라는 언급이 보인다. 정탁은 명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제전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임진전쟁의 상황 속에서 명나라 장

---

26) 申國賓, 『太乙庵集』 권2, 「凝川敎坊竹枝詞八章(並小叙)」, "余寓南山谷中, 偶閱豹翁詩, 有愁州竹枝曲八絶, 謾次其韻, 爲凝川敎坊竹枝詞. 蓋竹枝始於吳楚, 而多哀怨. 一名小秦王, 夏統所謂東吳土地間曲也. 余猶入定老頭陀, 爲爾馨語, 不幾於宋廣平鐵肝氷心吐出梅花賦香艶耶. 未及淨寫, 而適於燈下, 見古邑誌中有凝川敎坊竹枝詞八絶, 卽畢翁之題贈梁娃者也. 怳如黃太史歌羅驛夢中故事. 仍笑曰 '謹厚者亦復有之耶.(믿줄)' "

27) 鄭琢, 『藥圃集』 권6, 「龍灣聞見錄」, "蓋上國往來, 隨聞見以錄, 自有故事. 而況此再造之際, 東征將士言語事蹟, 有關國家者. 不敢以餘事爲視, 謹錄以進, 不勝惶恐焉."

수들의 말 하나와 행적 하나가 향후 대명 외교 및 국제 정세에 긴요하게 작용할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다. 그는 임진전쟁의 중심에 서서 명군과의 연합작전을 수행했기에 예민한 시대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는 행여나 명나라와의 관계를 그르칠까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데에 만전을 기했던 것이다.

3. 약포 정탁의 전쟁인식이 지니는 의미

이상으로 정탁이 자신의 번뇌를 기록하거나 명군 군사지휘관을 상대로 지은 시들을 통해 그가 견지하였던 전쟁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임진전쟁에 대한 조선의 군사정책 및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일본을 소탕할 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올린 수많은 상소문과 『임진기록』 속 전쟁 문서 더미에서 확인된다. 심지어 72세의 연로한 나이에도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남쪽으로 내려가 민심을 안정시킬 것을 청하는 차자를 두 번 올렸다가 모두 거절당했다. 이때에도 군사작전을 제안하며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보였다.

정탁의 이러한 전쟁인식은 보편적인 사대부들과 다른 면모로서 부각된다. 임진전쟁을 체험한 다른 문인들의 시를 분석한 것을 보면, 대체로 전후 참상의 묘사나 무능한 지배층 및 군사들에 대한 비판, 일본에 대한 적개심, 우국충정, 애민의식, 회한과 절망 정도로 압축된다.[28] 정탁의 시세계를 다룬 연구에서도 국운을 염려하고

28) 장미경, 「宣祖朝 전쟁 체험 한시 연구-尹斗壽·鄭文孚·權韠·鄭希得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영금정, 「壬辰倭亂과 嘉靖倭亂 體驗 戰爭詩 主題 硏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백성의 참상을 열거하는 시를 통해 우국애민의 정서를 특징으로 삼았다.[29] 임진전쟁을 소재로 한 시들은 사대부 관료, 장군, 포의(布衣), 포로 등 시인이 처한 다양한 위치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진다. 예컨대, 의병활동을 했던 이정암(李廷馣, 1541~1600)의 경우에는 전장의 일선에서 목격한 장수들의 나태를 심각한 문제로 삼고 그들을 정면으로 비판하였으며, 마찬가지 의병으로 전장에 뛰어들었던 노인(魯認, 1566~1622)은 전쟁 상황을 눈에 보이듯 묘사하며 장수로서의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내용의 시를 남겼다.[30] 이들의 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서울 소식 들으니,
임금의 행차가 매번 아침을 경계한다 하네.
요사스러운 기운은 비록 잠시 그쳤지만,
임금의 치욕 아프다가도 새롭구나.
장수들은 가렴주구 급선무로 삼으며
밤낮으로 친히 교외에 나가 손님맞이하네.
나라의 운명을 풀 길이 없는데,
고기 먹는 자들 누구던고.
聞說京城事, 鑾輿每戒晨.
妖氛雖暫息, 主辱痛方新.
將帥誅求急, 郊迎日夕親.
無由紓國步, 肉食問何人.[31]

골짜기 변방이 교룡의 굴과 가까우니,
병란의 먼지에 군사 옷 헤졌네.
달 밝은 밤에 오랑캐 피리 소리 애달프고,

29) 여운필의 앞의 논문에서는 '우국애민', 박명숙의 앞의 논문에서는 '애국인민'으로 칭하여 정탁의 전쟁시를 분석하였다.
30) 장미경, 위의 논문, 8~53면 참고.
31) 李廷馣, 『四留齋集』 권3, 「起夫有和, 復次之 · 四疊」.

이른 가을에 전진 같은 구름 높구나.
열사는 긴 칼 두드리고,
장군은 육도를 어루만지네.
호남의 옛 문물,
오래도록 비린내 나게 하지 않으리.
峽塞隣蛟穴, 兵塵弊戍袍.
月明羌笛怨, 秋早陣雲高.
烈士彈長劍, 將軍按六韜.
湖南舊文物, 且莫老腥臊.[32]

위의 첫 번째 시는 이정암이 상진(尙震)에게 화운한 시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픔을 되새기며 패인을 복기한 내용이고, 두 번째 시는 노인이 호남에서 소의장(昭義將) 임환(林懽, 1561~1608)의 진중에 있으면서 함께 의병활동을 했던 진경문(陳景文, 1561~1642)에게 부친 것으로, 오랜 전쟁으로 군사들의 심신이 지쳐있지만 호남 땅을 일본으로부터 수호하여 그들의 비린내를 씻어낼 것을 다짐한 내용이다. 두 시 모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직접 몸을 부딪쳐 싸운 전쟁 체험을 담아낸 것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휘를 한 정탁의 시와는 결이 다르다. 전자는 칼과 총이 난무하는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모습을 더욱 핍진하게 묘사하거나 비장하게 결의를 다진 것이고, 후자는 명나라 군대의 지휘관들을 상대로 외교를 수행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쟁 과정을 살피는 동시에 명, 일본과의 관계를 예민하게 인식한 것이다. 물론 정탁도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이 동래부사 시절, 전쟁 당시 피난길에 올랐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四月十五日」이나,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기성(箕城)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경험한 평양의 참혹한 실태를 자세히 풀어낸 「次東坡海州石室韻」 등[33]과 같은 시들을 남기

32) 魯認, 『錦溪集』 권1, 「昭義將陣中, 寄陳汝郁剡湖」.
33) 장미경, 앞의 논문, 18~28면 참고.

기도 했지만,[34] 앞서 다루었던 정탁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듯, 정탁은 이들과 달리 전쟁을 둘러싼 외교관계에 긴밀하게 접해 있었고, 그 상황을 일선에서 직시한 내용의 시를 지었다는 차이가 있다.

요컨대 정탁은 조선 조정의 최고 정책입안자이자 시행자로서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동시에 임진전쟁 전에 명나라 사신을 두 차례 다녀온 경험으로 인해 전쟁 당시에 명군을 상대하는 임무를 맡아 그들의 정황을 파악하고 국제 정세에 맞게 대응하였다. 이에 그는 일본과의 강화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차자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결국 화친을 맺고 퇴각한 명군에 불만을 시를 통해 은근히 표출하였다. 그러나 전별사의 신분으로 의주에 파견되자 이들의 심중을 간파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게 최대한 배려하고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시를 지어줌으로써 향후 대명 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명나라에 대한 정탁의 이러한 대응은 당시 임진전쟁이 조선과 일본만의 것이 아닌 명-조선-일본의 국제 전쟁이었음을 시사한다. 임진전쟁이 국제 전쟁의 성격을 지니는 것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 전개된 명-조선과의 갈등[35] 및 전쟁 이후 재편된 동아시아 국제질서[36] 등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는데, 정탁의 대명 외교 활동을 보아도 국제 전쟁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명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명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그의 관심과 촉각은 명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분조를 이끄는 위치에서 차자를 올리고 전별사라는 위치에서 시를 쓰며 그것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그는 명과의 관계가 그가 그토록 열망하는 일

34) 정탁의 시세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거듭 다루어졌던 「난후기행(亂後紀行)」, 「번민을 달래다[排悶]」, 「굶주리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다[憫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5)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김경태, 앞의 논문.
36) 한명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본 임진왜란-전쟁 이후 조선을 둘러싼 명·청·일 관계를 중심으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09;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한일관계사학회, 2011.

본의 섬멸에 가장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명나라와의 외교에 민감하였고, 이것이 『약포집』을 비롯하여 『용만록』, 『용만문견록』, 『임진기록』 등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러한 그의 전쟁인식 및 시대인식을 염두에 두고 그가 남긴 작품들을 본다면 정탁의 전쟁시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시를 짓게 된 내막을 포착할 수 있어 전쟁에 처한 지식인의 사유를 파악하는 데에 좋은 단서가 되리라 생각된다.

4. 결 론

임진전쟁은 역사적 전환기라 불릴 만큼 조선에 큰 충격을 가져왔으며 유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쟁이다. 본고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정치·군사 방면에서 크게 활약한 약포 정탁에 주목하였다. 정탁에 대해서는 주로 그의 군사 활동이 조명된 반면, 그의 문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탁이 임란전쟁 시기에 지은 시를 중심으로 그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다루어 보았다. 그가 펼쳤던 외부적인 활동의 결과와 그 의미가 아닌, 내부적인 면을 파고들어 그가 전쟁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생각과 감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 강한 적대심을 품은 상태에서 화친 협상을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임금에게도 이를 저지하는 상소를 올리려고 하였으며, 명군이 결국 강화를 맺은 일에 아쉬움과 불만을 담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 중심의 국제 정세에 맞게 명군을 잘 달래어 전송하는 데에 애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탁이 남긴 여타 전쟁 기록, 문서들을 함께 검토하며 정탁의 전쟁시 속의 이러한 전쟁

인식 또는 시대 인식을 포착해낼 수 있었다. 특히 『임진기록』은 조선군과 의병, 명군 사이의 장계들을 통해 각 군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 전쟁 인식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정탁의 전쟁시를 '전쟁'과 '문학'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한 성과가 되는 동시에 본고에서 목표한 '전쟁과 문학과의 연계'에 다가간 시론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정탁의 문학을 군사 외교가로서의 위상과 연관시켜 고찰함으로써 향후 군사사의 연구범위를 확장시키고 전쟁 문학의 지평을 넓힌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20. 11. 30, 심사수정일 : 2021. 1. 7, 게재확정일 : 2021. 1. 12.)

주제어 : 약포, 정탁, 임진전쟁, 외교, 군사, 전쟁시

〈참고문헌〉

1. 저서

정탁 저, 황만기 외 2인 역주, 『약포집』, 성심인쇄소, 2013.
http://uci.or.kr//G901:A-0006481914@N2M

_____, 군사편찬연구소 역주, 『임진기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남명학연구원,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동북아역사재단,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09.
http://uci.or.kr//G901:A-0007728825@N2M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http://uci.or.kr//G901:A-0008565491@N2M

2. 논문

김경록, 「임진기록 해제」, 군사편찬연구소, 2019.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http://uci.or.kr//G701:B-00101012500@N2M

김낙진, 「藥圃 鄭琢의 程朱學 수용 양상」, 『남명학연구』 24,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http://uci.or.kr//G901:A-0002428716@N2M

김정운, 「鄭琢의 『龍蛇日記』와 왜란 극복 활동」, 『한국사상과 문화』 63,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2.
http://uci.or.kr//G901:A-0003331778@N2M

박근노, 「약포 정탁의 문학에 나타난 우국의식 : 상소활동과 임란체험의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http://uci.or.kr//G901:A-0005322092@N2M

박명숙, 「약포 정탁 선생의 삶과 시세계」, 『동양예학』 31, 동양예학회, 2014.
http://uci.or.kr//G901:A-0003573053@N2M

박익환, 「藥圃 鄭琢의 생애와 임란극복 공적」, 『진주문화』 17, 진주교육대학교, 2003.

여운필, 「약포 정탁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6, 한국한시학회, 2001.
http://uci.or.kr//I410-ECN-0102-2009-810-002380169@N2M
영금정, 「壬辰倭亂과 嘉靖倭亂 體驗 戰爭詩 主題 硏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http://uci.or.kr//I804:11052-000000230894@N2M
이상필, 「임란시 재조 남명 문인의 활동 : 약포 · 동강 · 한강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2.
http://uci.or.kr//I410-ECN-0102-2009-150-005717854@N2M
이은상 ,「충무공을 구출한 정탁의 伸救箚」, 『사상계』 524, 사상계사, 1959.
http://uci.or.kr//G901:A-0000039556@N2M
이정화, 「약포 정탁의 시문에 나타난 선비정신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8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http://uci.or.kr//G901:A-0004079349@N2M
장미경, 「宣祖朝 전쟁 체험 한시 연구-尹斗壽 · 鄭文孚 · 權필 · 鄭希得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http://uci.or.kr//G901:A-0005155497@N2M
장학근, 「水軍統制使 李舜臣과 右議政 鄭琢」, 『이순신연구논총』 11, 순천향대학교, 2009.
http://uci.or.kr//G901:A-0002724136@N2M
정병호, 「약포 정탁의 현실인식과 대응-『약포집』 소재 상소문을 대상으로-」, 『동양예학』 31, 동양예학회, 2014.
http://uci.or.kr//G901:A-0003573052@N2M
정해은, 「약포 정탁의 군사활동과 전쟁기록」,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http://uci.or.kr//G901:A-0003712414@N2M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한일관계사학회, 2011.
http://uci.or.kr//G901:A-0002964430@N2M
황만기, 「정탁의 병법 수용 양상 연구」, 『영남학』 2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http://uci.or.kr//G901:A-0003563187@N2M

(Abstract)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the Imjin War through the war poetry of Yakpo Jeongtak

Choi, Go-gyeong

Yakpo Jeongtak was a man who actively engaged in military and political activities for the country during the Imjin War. Due to his great exploits, the prior studies mainly dealt with war strategies or tactics. The study on his activities was done in ideological aspect due to the status of Toegye, Nammyeong's disciple and the works that showed and Neo-Confucian study. But many of the war poetry he left behind were relatively not enlightened, and only a few of his works were used in analysis of the world of his poetry. Thus, In this paper, we took a look at the perception of the age of Yakpo, which looked at the Imjin War, focusing on his war poetry of his collection of works, the book named 'Yakpojip'(the collection of Jeongtak) and records he left behind. He was objectively recognized the situation of the Imjin War, which was characterized as an international war, and how great the participation of the Ming soldiers and their combined operation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Imjin War. He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nd secretly expressed his dissatisfaction with Ming, who eventually reached a negotiated settlement and retreated, but as a farewell envoy, he listened to their demands and wrote poetries praising their exploits. Yakpo, the chief policy maker and implementer of the Joseon Dynasty, identified the situation of Ming soldiers and 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is poetries were sensitive to diplomatic relations centered on the Ming, unlike other war poetries of the same time. It is hoped that such research, which combines the war poetry with the perception of war by a person,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military history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bination of "literature"

and "war" instead of the existing study of literary history that focused on individuals.

Keywords : Yakpo, Jeongtak, Imjin War, diplomacy , military, war poetr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255-275
https://doi.org/10.29212/mh.2021..118.25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한국 주도의 책임 국방을 향하여

- 박영사 (황병무),
『한국 외군의 외교·군사사』 -

홍건식*

본고는 박영사(황병무 저)가 2020년에 발간한『한국 외군의 외교 · 군사사』에 대한 서평이다. 이 책은 한국사에서 외군 차용이 한국의 정치 · 외교 · 안보에 미친 득과 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안보 확립을 위해서 내우와 외환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국력이 필수적이며, 우리 스스로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변동하는 한반도와 한국의 안보 조건

한반도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Joe Biden) 후보자가 선출로 국제정세는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제45대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미국의 이

*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선임연구원

익을 우선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바탕으로 일방주의와 예외주의의 대전략이었다면,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목표로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에 우선한 대외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 전략의 전환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간 쟁점이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의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미국의 대외전략의 변화는 미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정치경제 환경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정치와 경제 연계의 안보화라는 새로운 현상도 만들어 냈다. 특히 한반도는 미중 전략 경쟁의 장, 아시아 패러독스의 중심 공간 그리고 분단국가와 북핵이 위치한 역내 핵심 안보 공간이다. 변동하는 지정공간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우리의 선택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를 위한 선택의 조건은 무엇인가? 황병무의『한국 외군의 외교·군사사』는 한국사에서 외군차용이 한국의 정치·외교·안보에 미친 득과 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특히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연계, 다시 말해 내우가 외환을 불러오고 외환이 내우를 더욱 키운다는 내우외환의 연계 정책을 분석틀을 바탕으로 외군이 한국의 외교·군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국제정치 그리고 한국의 군사사에 이해를 갖지 않은 일반 독자들도 한국의 안보 조건과 내우외환의 연계정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구성했다. 먼저 안보 개념 소개를 시작으로 국가는 안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국가 안전이란 무엇인가? 국가 안전보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 한국의 안보조건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안보의 핵심 영역인 영토, 정치 · 외교 그리고 군사 개념으로 확장해서 설명한다.

글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제1부는 임오군란(壬午軍亂), 갑신정변(甲申政變),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 을미사변(乙未事變), 아관이어(俄館移御) 그리고 대한 제국의 종말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통해 광복 이전의 내우외환 관계를 보았다. 제2부는 해방정국에서 미 · 소 양군이 한국의 정치, 외교, 안보에 미친 영향과 6.25 전쟁을 분석했다. 제3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군사 · 외교를 '방기 · 연루' 개념으로 분석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과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 사안을 검토했다. 저자는 한국의 안보 확립을 위해 내우와 외환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국력이 필요하며, 동맹관계는 상호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황병무는 『국방개혁과 안보외교』, 『한국안보의 영역 쟁점 정책』,『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편승의 지혜』,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와 국방 문제에 대하여 저술해 왔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가안보, 한 · 러 군사협력, 남북한평화체제 그리고 중국 군사 문제 등과 관련한 연구 논문을 출판하며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또한 『한국 외군의 외교 · 군사사』는 그의 국방대학교 교수로서의 학자적 경험과 대통령 안보 자문으로서 실무적 경험이 녹아있어 한국의 외교 · 군사에 대한 역사적 정보와 함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학문적 그리고 실용적 차원에서 후학들과 일반인들에게 귀중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본 서평은 5장으로 구성된다. 본 서평은 『한국 외군의 외교 · 군사사』를 바탕으로, 저자의 이론적 배경을 2장에서 설명하고 3장에서 내우 · 외환의 연계와 외교 · 군사사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와 북핵 문제

를 설명한다. 『한국 외군의 외교·군사사』의 방대한 분량과 다양한 쟁점을 제한된 분량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에 본 글은 비판적 논의 보다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한국의 안보조건과 내우 외환의 연계

가. 국가안전보장과 군사력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는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운명을 가진다. 국내적 차원에서 정부는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목적으로 규범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규율하거나, 개인 상호 간 이익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로 갈등을 해결한다. 그러나 국제체제는 국내 정치와 다르다. 국제관계는 국가 간 관계를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자신의 취약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무정부 상태에 놓인다. 이 같은 무정부적 상황에서 국가는 내부적 취약성과 외부적 위협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의 수단은 결국 군사력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국가 존립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취약성과 위협으로 고려한다. 취약성과 위협은 국가 존립에 대한 것이며 이들 변인이 없는 상태를 국가안전보장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내적 취약성과 외적 위협은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영토, 인구 그리고 주권이라는 3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3대 요소는 내적인 요인으로 취약해지거나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각각은 안보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주권은 영토에 대한 독립적 지

배와 내정에 대한 불간섭을 의미하지만, 대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동, 반란, 봉기, 전복과 같은 내적 취약성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영토, 인구 그리고 주권의 3대 요소가 내적인 요인으로 위협받는 상태를 취약성이라 한다.

한편 외적 위협은 양자 그리고 다자와 같이 국제관계 또는 국제체제 성격에 따라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영토에 대한 정치·군사적 위협은 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타국으로부터 점령, 손상 및 병합, 분리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군사 안보의 대상이 된다.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은 타국과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무력시위, 국지도발, 부분 점령 그리고 완전 점령과 군사 행동은 행위자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위협의 유형과 성격이 결정된다.

저자는 군사 안보가 국내적 취약성 그리고 대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 기반을 자유롭게 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한다. 군사 안보는 국내외의 폭력으로부터 국가의 존립 기반이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 안보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는 취약성과 위협에 노출되고 결국 국가 존립은 위협받는다. 특히 군사 안보 영역에 대한 위협의 본질은 군사력이기 때문에 국가의 군사 자산은 보호 대상이 된다. 이를 보호하는 방법은 세력균형과 편승으로 추구됐다. 세력균형이란 상대의 군사력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의 세계를 증대시키는 것이며, 편승은 위협의 주된 근원에 유화 또는 승복을 하는 것이다.

군사력은 군사 안보를 지키는 수단이지만 타국에 위협을 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군사력은 과학 기술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형성되는 힘으로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력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해주는 힘이다. 예컨대 전쟁은 외교의 실패에서 오며, 전쟁의

승패는 준비된 군사력의 우열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군사 안보는 국내적 취약성과 대외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 기반을 자유롭게 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국익을 달성하는데 핵심은 연성국력과 경성국력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나. 한국의 안보조건과 지정학

한국의 안보 불안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우외환의 연계성은 안보적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자는 한국의 안보 불안의 원천은 내적인 취약성과 외부적 위협에 있으며 이는 국력의 속성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국가의 안보 불안은 국가 속성 그리고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근대적 차원의 주권 개념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는 제한된 영토 내 시민들에 대한 통치권이며 대외적 차원에서 내정불간섭을 바탕으로 하는 자주적 외교권을 의미한다. 주권 개념이 생성되었을 당시 이는 국가 중심의 절대적 개념이었으며 국가 간 행동 양식으로 규범화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권은 크라스너(Stephan D. Krasner)의 조직화 된 위선(Organized Hypocrisy)과 같이 정치적 의미가 있으며 이는 시공간에 따라 그리고 특정 상황에 따라 달리 행사될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은 국가 중심 대응에 한계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들은 느슨한 주권 형태의 다자주의 협력을 기반으로 팬더믹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의 활동은 기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주권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주권은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배분된 것도 아니며, 그 나라의 특성과 국제적 역학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Barry Buzan은 국가 속성을 물리적 차원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그리고 조직이념과 정통성 및 사회·정치적 결속 차원의 강건국가 그리고 약체국가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의 안보 불안의 원천 중 하나로 지정학적 위치를 지적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朝貢)체제에 있었다. 그러나 근대 유럽의 팽창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유럽에서 발달한 근대 국제체제에 편입되었고, 이 지역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점 그리고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와 유럽중심의 국제질서가 조우하는 지정공간이 되어 왔다.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은 열강들의 세력균형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고, 그 가운데 한국은 외세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끊임없이 해왔다.

저자는 한국의 안보 조건은 국력의 취약성과 외세로부터 위협받는 지정공간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은 내우라는 취약성과 외환이라는 외세의 간섭이 끊임없이 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존재해 왔다고 설명한다. 후설하겠지만 19세기 후반 조선은 내우와 외환의 양 요소가 동시에 작동했고, 심각한 내적 취약성이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개입을 초래하도록 했다.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외세 개입 그리고 분단이라는 내우로 민족적 비극인 6.25 전쟁을 겪게 되고 남북한은 경쟁과 대립을 반목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약소국에서 중견국으로 발전했지만, 아직 분단국가의 취약성으로 강대국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 전선이 형성되는 지역으로 국제관계가 격변할 때마다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제 다시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의 경계와 장이 되고 있다. 한반도가 이들 강대국의 패권력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될지 아니면 이들을 평화로 이끄는 완충지대가 될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의 외군

의 정치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2. 조선과 한국의 내우외환과 외군사

가. 조선왕조말기 외군차용

제1부 조선 왕조기는 임오군란(1882년) 이후부터 갑신정변(1884년), 동학농민혁명(1894년-1895년), 을미사변(1895년), 아관이어(1896년-1897년) 그리고 대한 제국의 종말(1897년-1910년)로 이어지는 시기로, 저자는 이를 중심으로 내우외환과 외군개입을 분석한다.

저자는 19세기 후반 대한 제국의 종말은 결국 내부 변란을 해결하기 위한 외세의 차용에 있으며, 이는 결국 국방정체성 훼손과 국권을 상실시켰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내적 안정은 외세 배제와 외교적 주도권 확보에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국가 안보가 핵심임을 강조한다.

19세기 말부터 대한 제국에 이르는 이 시기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격변기였으며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지역 질서의 전환기였다. 19세기 말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서구의 국가 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질서 확장과 청(淸)의 조공체제 약화로 요동쳤다. 특히 청의 중화(中和)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동아시아에 대한 종주국 지위 약화, 일본과 러시아의 양강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일본의 지역 패권국 부상으로 동아시아는 세력 전이의 연속이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조정의 리더십 분열, 군부의 대립, 학정(虐政)과 부패 그리고 국가경제 파탄에 따른 민심 이반은 내정에 취약성을 만들었다. 이는 다시 청군과 일본군의 진입을 초래하며 결국 외세가 내정에 개입하는 발단이 되었다.

이 시기 조정의 안보적 이익은 왕권의 보호와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안보 보장은 등한시했다. 조정은 국가 안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내우를 외세로 해결하려 했다. 특히 청과 일본이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조정은 수구파 대(對) 개혁파로 분열되면서 혁신 자강의 길을 걷기보다는 외병차용을 통한 주도권 다툼을 지속하면서 내부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조선은 청국에 대한 사대교린(事大交隣)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약소국 조선은 내부적 취약성을 스스로 해결하고 외세를 배격할 최소한의 군사력을 갖지 못했다. 내부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차용한 외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쓰기보다 열강 자신들의 세력권 구축과 지정학적 이익 실현에 방점을 두면서 조선의 명운은 급변했다. 청과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도 서로 달랐다. 1882년 조미조약(朝美條約) 교섭이 시작될 때 청의 리홍장(李鴻章)은 조미조약 초안 제1조에 '조선은 청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외교를 자주에 맡긴다'는 조항을 강력히 주장했다. 리홍장은 조선을 식민지화해 서구 열강과 동등한 제국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반면에 일본은 청·조의 종속관계를 단절시켜 조선을 외교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대 약소국 조선은 식민지 쟁탈의 표적이 되었으며, 조선 배제가 일어났다.

이 시기 조선 조정의 제1차 목적은 왕권 보호와 유지에 있었다. 조선은 내부 변란이 발생할 때마다 병력 부족으로 외군(청군)을 차용하여 왕권을 보호했지만, 외세의 내정간섭을 초래해 왕조의 안위는 위협받았다. 특히 조정의 안보적 이익이 왕권 보호와 유지에 머무른 나머지 국가안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군사력 또한 조정의 정치 권력과 외세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임오군란 당시 조정은 청군 세력을 등에 업고 청군식 군제개혁을 실시하였고, 조선군 훈련

도 청군이 담당하면서 조선군은 청국군의 예하 부대화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는 일본군 주도로 동학군 토벌이 이루어졌으며 일본 군사 교관이 조선군 훈련을 시행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청일전쟁(淸日戰爭, 1894-1895)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에 일본군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의 대청 종속관계도 단절되었다. 한편 조선의 고종(高宗)은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에게 군권을 집중시킬 수 있는 군제 개편과 대일본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를 설립했다. 그러나 군제개혁은 소화기 중심의 전력화에 그쳤으며, 왕조의 불안, 예산과 신분 사회라는 근본적 한계와 그리고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대 해산과 병합을 강압할 때 대한 제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조선은 조정 분열 그리고 내우로 위협받는 왕권의 취약성을 외세의 개입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 같은 조정의 전략은 외세의 내정 개입의 원인이 되었으며, 조선은 서로 다른 지정학적 이해를 가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스스로 내우와 외환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력을 갖지 못했던 조선은 결국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나. 외군주도의 광복과 6.25 전쟁

제2부 '외군주도의 광복과 6.25 전쟁'은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 시기까지 미국과 소련의 관계와 남북한 관계 분석으로 한국의 내부적 취약성과 외부적 위협이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광복과 함께 한국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력한 외부의 힘과 외세로부터 주어진 해방은 외부적 위협과 국내적 취약성을 만들어 냈고, 당시 한국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지 못해 결국 6.25 전쟁이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 남·북한 모두는 외군차용으로 내부적 취약성을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1945년 얄타회담(Yalta Conference)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스탈린(Joseph Stalin)에게 한반도에 대한 외국 군대 주둔을 부인했다. 그러나 소련이 동유럽에서 팽창주의 정책을 보이고 적대국 일본과 함께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우려한 미국은 세력균형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의 독점 방지를 목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고려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이 국제질서 재편을 목적으로 임시정부를 한국의 유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시정부 최우선의 안보 이익은 제2차 세계 대전 참전을 통한 국가 승인 문제였다. 해방 직전 독립무장단체는 광복군(光復軍),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 및 소련 88여단 한인 부대 등 3대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은 외교·군사 이익과 소련 요인을 고려해 '일반명령 제1호'를 통해 38도선의 분할 점령 결정을 내렸다.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로 한반도 남쪽은 자유주의 그리고 북쪽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하면서 그 취약성도 함께 내재 되었다. 결국 광복군 주도가 아닌 외국군에 의한 분할 점령은 미소 주도의 군정체제를 만들었고 통일 정부 수립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 내 정치 세력들은 독립 정부 수립에 안보 이익을 두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했지만 미국은 대한(對韓) 정책을 대중 및 대일 정책에 종속시키는 한편, 남북한 중심의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균형자 역할을 등한시했다. 38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한 신탁통치 그리고 북한의 남침 의도와 능력 억제에 대한 미국의 무조치는 결국 6.25 전쟁을 발발하게 했다. 또한

남한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내우는 북한의 오판을 만들어 냈다. 결국 6.25는 한국의 유엔군 그리고 북한의 중공군이라는 외군 유입을 만들어 내면서 분단을 고착화하고 냉전을 심화시켰다.

6.25 전쟁 발발로 한국은 유엔군을 그리고 북한은 중공군을 차용해 내우를 해결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에게 남침 승인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여건 조성을 강조하며 김일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을 전후로 북한은 중국공산당의 본토 승리, 중소 동맹 조약 체결, 애치슨(Dean Acheson)의 한국 불개입 선언(에치슨 라인, Acheson Line) 그리고 소련의 원자폭탄 보유 등으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오판하면서 공산주의 통일을 위한 남침을 1950년 6월 25일 개시했다. 한편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25일 미국 정부에 직접 원조 하도록 요청했다. 7월 14일에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에게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한다'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유엔군은 전쟁 기간 내 한국군과 16개 군에서 파견된 군을 지휘 및 작전 통제했다. 또한 맥아더는 대구에 미 8군 사령부를 설치해 주한 미 육군 사령관으로서 예하의 미 지상군 부대를 포함하여 한국전선에 참여하는 유엔 지상군 부대를 통합 지휘했다.

유엔군과 중국지원군은 1차 공세(1950년 10월 25일~11월 5일) 이후 1952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5차례 전역을 치렀다. 그러한 가운데 트루먼(Harry S. Truman)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 개입 이후 한반도의 재통일이라는 전쟁 목표를 포기하고 NSC-40/5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38도선 이북으로 조금이라도 확대된 지역에서 전투 행위를 종결하기로 했다. 유엔측과 공산측은 1951년 7월 10일 최초로 정전회담을 가진 후 7월 26일 제10차 회

담에서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 Jr) 미 육군 중장과 공산군 수석대표 남일(南日)은 전문 5조 63항으로 된 협정문에 각각 서명했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 대장은 당일 13:00 시, 김일성은 당일 오후 10시 평양에서 그리고 펑더화이(彭德懷)는 7월 28일 오전 9시 30분 개성에서 각각 서명함으로써 정전 조인 절차는 모두 끝났다.

결국 6.25 전쟁은 국제체제 변화에 따른 외부 위협 발생, 남한의 정치·경제 불안정 그리고 북한의 오판이라는 요소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촉발된 전쟁이었다. 당시 남한 내 정치·경제 불안정이 있었지만, 이승만 정권을 전복시키기나, 전쟁 발발시 북한을 지지할 정도의 심각한 변인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이 시작된다면 이 같은 문제들로 단시간 내에 군사적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오판을 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과 소련의 양군의 주둔과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은 국제적 차원의 세력균형을 의미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북한을 억지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남한 사회에 대한 잘못된 예단과 미국의 세력 균형에 대한 제한된 역할은 군사 개입과 함께 전쟁을 만들었다.

결국 평화 유지의 최소 조건은 국가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상대와의 세력 균형이며 최대 조건은 우세 균형이다. 국가 안보 확보는 힘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외군의 올바른 차용, 다시 말해 동맹국의 안보 이익이 일치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다. 남북한의 동맹과 외군

제3부의 '한미동맹의 군사·외교사'는 정전 이후 냉전 체제에서 남북한 발전관계를 동맹국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남과

북의 발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외군 관계와 동맹군의 주둔 여부에 따라 서로 달리했다고 주장한다. 정전 직후부터 냉전기간 동안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그리고 북한은 북·중·소 동맹관계를 구축했다. 한국은 주한 미군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선경제 후 국방건설' 정책을 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주둔군 부재에 따른 안보 불안으로 '선 국방건설 후 경제건설' 노선을 취하면서 남한과 발전에 있어 차이를 만들어 냈다. 결국 내부적 취약성과 외세의 개입이 있어도 외세와 안보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가에 따라 안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확고한 국방력이 있다면 국가 발전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전 직후 남북한은 외세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먼저 북한의 김일성은 중국의 연안파(延安派)와 소련파(蘇聯派)를 축출함으로써 정치 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정전 직후 소련과 중국은 자본주의 진영과 평화 공존을 도모하고,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김일성에게 경제 회복에 전념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중국지원군은 평화군이 되어 평양 중건 등 북한의 경제 회복을 지원했고, 1955년 3월 13개 사단을 시작으로 하여 1958년 9월 25일까지 44만 명을 북한에서 완전 철수시켰다. 1960년대 초 북한은 국방의 자주적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고 소련과 중국에 대한 균형 외교를 추진하면서 동맹 조약을 각각 체결했으며 중국과는 유사시 즉시 지원을 보장받았다. 이로써 소련과 중국은 동맹조약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연루 우려를 면제 받았지만 북한은 1960년 후반 이후 대남 국지도발을 자행했으며, 한미연합전력에 대한 억제와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군사적 열세를 보완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1970년대 초까지 '선 경제 후 국방건설'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70년 북한의 도발이 급증하고 미국

의 군원 이관 및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주적인 군사력 건설 문제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율곡사업(栗谷事業)을 통해 경제와 국방을 병행하고 자주적 방위전력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1980년대 한국 정부는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미군이 담당한 임무와 역할을 단계적으로 인수하며 한국 방위의 주도권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한국과 미국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연합방위체제는 한반도 지역의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핵심축이 되었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한미관계는 강대국과 중견국 사이의 비대칭 동맹으로 포기, 연루, 제한의 길항 관계를 바탕으로 그 역사를 만들어 왔다. 미국은 연합방위체제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왔지만, 비대칭 동맹의 특성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동맹관계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성격은 한미관계의 포기, 연루 그리고 제한을 만들어 냈고 한국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가지게 되었다. 포기는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이행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축소가 가장 대표적이다. 연루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안보 이익이 쌍무적 동맹관계로 의도치 않은 안보적 사안에 개입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1960년 베트남 파병과 2000년 초 이라크 파병,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도입과 주변국의 견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우발적 무력 충돌 등이 그러하다. 제한은 한국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무기 획득과 작전계획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의미한다. 예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금지,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의 제한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동맹 전략 변화속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통해 책임 국방을 추진해 왔다.

동맹을 체결한 국가는 상호 이익이 존재하는 한 동맹을 유지하고

자 한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동맹국가들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라는 동맹 이익을 공유한다. 특히 냉전 체제에서 남북한은 동맹군 주둔 여부에 따라 국력 발전에 영향을 받았으며, 주둔군 동맹 체제가 그렇지 않은 동맹체제에 비하여 피보장국에 안보 전략 통제에 더욱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 냈으며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국방력과 경제력에도 차이를 만들어 냈다.

4.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가. 사드 배치와 중국 문제

저자는 201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통해 국론 분열은 외부적 차원에서 외교적 개입과 압박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설명하며, 안보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드는 미국의 MD(Missile Defense) 체계의 종말단계(Terminal Phase) 요격체제로 해외 주둔 부대 및 인구 밀집 지역을 방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수단이다. 사드 체계는 미사일, 발사대, 레이더 및 BMC(Battle Management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telligence)로 구성되어 2008년 전력화되었다. 미국 클린턴(William J. Clinton)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이 우발적으로 도발하는 것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목적으로 MD망 구축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2001년 3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을 통해 미국의 NMD(National missile

defense) 참여에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이 MD를 배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고도화 때문이다. 2014년 3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스캐퍼로티(Curtis Scaparotti) 한미 연합사령관은 보유 중인 패트리어트(PAC-3)로만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미 정부에 사드를 한국에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6년 3월 한국의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측이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사드배치 약정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2017년에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를 예고 없이 성주 기지에 반입하면서 안으로는 국론 분열과 정책의 쟁점이 되었다. 외부적으로 중국으로부터는 사드 배치 저지 압박을 목적으로 문화 및 경제 제재 그리고 무력 시위 등이 있었으며, 러시아로부터는 외교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저자는 중국의 이 같은 대응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중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전통적 싸움 방식을 활용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반격한다는 전략 원칙과 6.25 전쟁 이후 '너는 너대로 싸우고, 나는 나대로 싸운다'(你是你的 我是我的)라는 전통적 싸움의 방식을 활용해 전쟁 위기를 만들지 않는 통제된 압력 방식을 취했음을 주장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사드 반대 이유는 역사적이고 전략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저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탐지 및 요격할 수 없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 탐지를 위해 레이더 모드를 쉽게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안보 차원에서도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된 탐지정보를 공유할 예정으로 MD 체계 편입과는 무관

하며, 그 유해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7년 북한이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9월에는 수소폭탄급 핵실험(제6차 북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한국의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사드를 배치했음을 강조했다. 사드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지정학적 경쟁의 구성요소이다. 때문에 사드배치는 한국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고려한 결정이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사드 반대 여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을 고려한 정책 결정으로 결국 국론분열, 한중 갈등 그리고 한미동맹 신뢰성 약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주요 안보 사안은 정쟁의 논쟁거리가 되더라도 국익 중심의 결정으로 안보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한국의 안보 족쇄인 사드의 추가 배치, 미국 MD 개입, 한미일군사동맹 배제라는 3불 입장을 재검토 해야함을 강조한다.

나. 북핵 위기와 한국 중재 역할의 한계

북핵 문제는 근원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안보 이익의 충돌 문제이면서 동시에 민족문제와 국가 이익의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는 사안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와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자는 북핵과 같은 비대칭적 안보 문제 해결은 강력한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과 국익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므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벼랑 끝 협상을 바탕으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수직적 확산을 진행해 왔다. 그간 남북한에는 9·19 공동성명,

2·13 합의를 이루어왔으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2007.6.15., 2017.10.4.)과 북미정상회담(2018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해 왔으며 한미북은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이 불확실하며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북한은 이미 제3차 핵 위기 협상에서 핵 포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교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면서 군사 옵션은 제한되었다고 설명한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본입장으로 하면서 북핵(내우) 해결을 위해 외환(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어 제재 이외의 핵 협상 카드는 제한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리더십 유지가 계속된다면 결국 비핵화 협상은 장기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저자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비핵화 유인 보다 선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한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것과 같이 북한은 외세 배격과 함께 통일전선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민족간 특수관계가 아닌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간 관계에 방점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이 벼랑 끝 모험을 한다면, 보상이 아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미북간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불완전한 비핵화를 관리할 한국의 핵 억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5. 결 론

외군 차용이 한국의 정치 · 외교 · 안보에 미친 득과 실은 무엇인가? 내우가 외환을 불러오고 외환이 내우를 더욱 키운다는 내우 · 외환은 한국사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저자는 한국의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내우와 외환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국력이 필요하며, 동맹관계에서는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외군의 외교 · 군사사를 통해 보았을 때 조선 왕조 시기는 내부변란으로 위협받는 왕권 보위를 위해 청(淸)군을 차용했지만 결국 일(日)군에 의해 대한 제국은 강제 병합되었다. 이는 외세를 빌려 내우를 해결하면 국방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국권이 상실된다는 쓰라린 역사적 교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약소국 한국은 주권과 국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강대국이 만든 한반도 분단 질서에 순응하면서 내우를 겪게 된다. 남북한 모두 상생과 공영보다 무력 행위를 하며 민족 전쟁의 비극 그리고 외세 간 전쟁인 6.25 전쟁이 발발했다. 결과적으로 남북 대립은 심화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한미동맹사를 조망하면서 체제와 이념이 같고 안보 이익을 공유한 동맹체제는 지속되며, 한국의 평화와 안정 및 경제발전에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내우외환의 연계 이론이 주는 함의와 한국의 국방과제는 무엇인가? 저자는 내부적 취약성과 외세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국력 향상과 국방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군은 한국의 국력에 걸맞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군사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남 · 북 · 미 · 중이 평화 협정을 체결해도 주한 미군의 지

역 안정자 역할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유엔사를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한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기반을 구축하고 핵확산 방지와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역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미동맹의 지역화가 추진될수록 지정학적 위험 관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 군은 잠재된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적 맞춤형 방위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반도 전장 공간을 감시권, 방위권, 결전권으로 나눠 군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목표와 전략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저자는 한국의 방위권에서 국지도발과 국제 제한전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의 기반전력과 신속대응전력을 투입해 조기에 분쟁을 진압하고 군사도발을 억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평화 번영을 위한 선택의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절대적일 수 없지만, 현재가 과거 선택의 결과이며, 미래가 현재 선택의 결과라 한다면 역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역사속에서 나타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조건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를 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황병무의 『한국 외군의 외교·군사사』는 학문적 차원의 외교 및 군사사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역내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필독서이다.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한국군 전력증강사 • 최정준(국방사부) • 신국판 • 2020. 12. 31. 	이 책은 우리 국군의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전력증강 노력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조명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한국군 초기의 전력증강을 미군정기, 국군 창설기, 6·25전쟁기, 전후 복구 및 정비기로 구분하여 군 지휘구조, 부대 및 병력, 무기 및 장비, 교육훈련 등 4개의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광복 이후 독립된 국가의 군대를 창설하기 위한 선각자들의 노력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제도와 장비,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한국군에 맞게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부터 6·25전쟁 기간 중 점차 전력이 향상되는 과정, 그리고 전후 정비기를 거치면서 점차 오늘날의 국군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군의 뿌리'로서 초창기의 국군이 오늘날 그것과는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군의 발전(전력증강)을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㊀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內

1. 원고 내용 및 범위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학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을 지급함.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김태헌)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부분개정 2017. 8. 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 285
제2조 적용대상 ····· 285
제3조 적용범위 ····· 285
제4조 용어의 정의 ····· 285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286

제2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287
제7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288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289

제 9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289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289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290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290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291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291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292
제16조 판 정 ····· 292
제17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292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293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 293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294
부 칙 ····· 29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 · 판단하는 기구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1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 · 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렴세상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편집위원장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경희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박종상(군사편찬연구소)
김정기(군사편찬연구소) 이한우(서강대학교)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편집간사
김태헌(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1/3(第118號)

2021년 3월 8일 印刷
2021년 3월 15일 發行

發行處_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_ 국군인쇄창 (M21020117)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硏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